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6

요한계시록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요한 계시록

Revelation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μακάριος ὁ ἀναγινώσκων καὶ οἱ ἀκούοντες τοὺς λόγους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καὶ τηροῦντες τὰ ἐν αὐτῇ γεγραμμένα,
ὁ γὰρ καιρὸς ἐγγύς.*

요한계시록 차례

요한계시록 서론.....	〈23제〉 ... 311
제 1 장 계시자(啓示者)이신 예수 그리스도	〈28제〉 ... 326
제 2 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36제〉 ... 339
제 3 장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27제〉 ... 355
제 4 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	〈12제〉 ... 368
제 5 장 일곱 인(印)으로 봉한 책.....	〈16제〉 ... 374
제 6 장 차례로 개봉되는 여섯 개 봉인(封印).....	〈20제〉 ... 382
제 7 장 인(印)침 받은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	〈17제〉 ... 392
제 8 장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10제〉 ... 403
제 9 장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	〈14제〉 ... 409
제 10 장 요한이 먹은 작은 책.....	〈8 제〉 ... 418
제 11 장 두 증인의 예언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	〈20제〉 ... 423

제 12 장	여자와 용의 싸움	〈18제〉	… 434
제 13 장	두 짐승의 등장	〈16제〉	… 444
제 14 장	구속받은 성도들과 천사에 의한 대심판의 예고	〈14제〉	… 455
제 15 장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 8 제〉	… 464
제 16 장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다	〈12제〉	… 469
제 17 장	큰 음녀와 짐승	〈17제〉	… 477
제 18 장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다	〈14제〉	… 487
제 19 장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짐승에 대한 심판	〈13제〉	… 497
제 20 장	천년 왕국과 최후의 대심판	〈15제〉	… 506
제 21 장	새 하늘과 새 땅	〈16제〉	… 516
제 22 장	생명수 강과 생명 나무	〈12제〉	… 526

요한계시록 서론 <연구 자료> 도해(圖解)로 풀 천년 왕국설	325
제 1 장 <지도 자료> 밧모(Patmos) 섬의 위치	338
제 3 장 <본장의 요절>	367
제 4 장 <본장의 요절>	373
제 5 장 <연구 자료> 복음송(Gospel Song)	381
제 6 장 <화보 자료> 죽음의 사자(使者)	391
제 7 장 <연구 자료> 여호와의 증인	402
제 8 장 <본장의 요절>	408
제 9 장 <화보 자료> 말과 사람의 형상을 먼 황충	417
제 10 장 <화보 자료>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	422
제 11 장 <본장의 요절>	433
제 13 장 <연구 자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454
제 14 장 <화보 자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463
제 17 장 <본장의 요절>	486
제 18 장 <본장의 요절>	496
제 19 장 <연구 자료> 계시 문헌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	505
제 20 장 <화보 자료> 사로잡히는 용	515

요한계시록 서론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요한계시록'이라 일컬어지는 본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으로서 흔히 '계시록'(The Revelation) 또는 '묵시록'(The Apocalypse)이라고도 불리어진다.
- (2) 본서에 명명된 '계시록'이라는 이름은 본서 1:1에 언급된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되었다.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위의 헬라어 명칭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위의 헬라어 명칭이 지닌 두 가지 의미를 접목시킨 합성어로 해석 번역하였다.
- (3) 즉 '벗기다', '밝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를 그에 준하는 라틴어 <레>로 번역하고 '휘장', '덮개'를 뜻하는 헬라어 <칼립시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라틴어 <베라티오>를 사용하여 하나의 합성어 <레베라티오>를 만들어 내었다.
- (4) 결국 위의 두 단어는 공히 '가리어진 것을 드러낸 것', '감추어진 것을 밝힘',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5) 한편 영어 번역본들에는 위와 같은 라틴어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여 대부분 '계시록'(The Revelation)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KJV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펼쳐 보여 주셨던 신적 권위를 지닌 '계시'라는 측면에서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라고 번역되어 있다. 한글 개역 성경도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를 '요한계시록'이라 명명하였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저자의 진술에 따르면(1:4)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또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자요(1:1), 서신을 받아 볼 자의 형제이며(1:9),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1:9)일 뿐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22:9)이라고 밝혔다.
- (2) 그리고 저자는 요한이라는 자신의 이름 앞에 공적인 직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권위가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 사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공신력과 존경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3) 한편 초대 교회의 전승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위의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며 그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 ①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A. D. 150년경 순교)은 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분이며 요한이라 이름하는 이가 기록했다'고 진술하였다.
 - ② 리옹(Lyons)의 감독 이레니우스(Irenaeus)도 그 당시 보존되어 있던 여러 계시록 사본과 요한을 직접 대면해 본 이들의 증거에 의하여 본서가 요한의 저작이라고 말했다.
 - ③ 카르타고(Carthago)의 터툴리안(Tertullian)은 계시록을 요한의 저작으로 말했으며, 특히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했다.
 - ④ 그리고 오리겐(Origen), 히폴리투스(Hippolytus),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등을 비롯해서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중반까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를 중심으로 서방 교회의 대다수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4) 일부 사람들은 계시록의 문체가 사도 요한의 세 서신들이나 요한복음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사도 요한의 저작설을 부인하지만 묵시 문학의 고유한 성격이나 계시가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죄수로 있었던 요한의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5) 사도 요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요한복음 서론 ㉔2를 참조하라.

3. ㉔ 본서의 사도 요한 저작설을 부인하는 주장들을 열거하라.

- ㉔ (1) 초대 교회 당시 본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A. D.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본서가 요한 복음의 저자가 아닌 다른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교회사가(敎會史家)인 유세비우스(Eusebius)에 의해서도 인정된 바 있다.
- (2) 그들의 주장을 빌리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에는 저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서에 저자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본서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라 하였다. 더우기 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반면에 자신의 직함을 들먹이지 않았다는 것은 본서의 저자가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준다고 했다(참조, ㉔2).
- (3) 또한 그들은 본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들 간에는 어휘와 문체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책들의 저자를 동일한 저자로 여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와 서신 그리고 묵시록이 가지는 주제들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더우기 이러한 주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체와 어휘가 거의 흡사한 것들도 발견된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 ①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다(19:13; 요1:1)
 - ② 또 친히 자신을 '어린양'으로 묘사하셨다(5:6; 13:8; 요1:29)
 - ③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표현한 점(7:17; 요10:11)
 - ④ 사단의 활동을 강조한 점(2:10; 12:19; 20:2, 7, 10; 요8:44; 13:2, 27; 14:30)
 - ⑤ 그리스도의 죽음의 독특성을 강조한 점(1:5; 5:6; 요12:32)
 - ⑥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을 인정한 점(1:8; 요1:1)
- (4) 그리고 본서에 사용된 헬라어 문법이 변칙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참조, 1:4).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 요소는 본서가 묵시적인 책이라는 것과 썬족 계통의 관용어를 구조상 이질적인 헬라어로 표현하려는 저자의 노력의 흔적이라는 사실로 해결될 수 있다.
- (5) 다음으로 그들은 요한복음과 본서와의 내용의 차이를 역설하였다. 즉 요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미지(Image), 사건과 상황의 정신적인 성격을 강조한 반면 본서는 내세에 있게 될 사건과 인격을 주로 다루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또한 (3)에서처럼 양서간의 주제의 차이라는 사실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 (6) 더우기 그들은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순교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서의 사도 요한 저작설을 부인했다. 사실 예수께서는 야고보, 요한 두 형제의 죽음을 예고하셨으며(참조, 막10:39) 그 말씀대로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참조, 행12:2) 요한 역시 일찍 순교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단지 추측일 뿐이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 (7)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의 본서 저작설에 관한 이설(異說)들은 본서의 요한 저작설을 결정적으로 뒤엎을 수 없는 것들이다. 본서의 저자는 분명히 아시아의 여러 교회로부터 높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그의 기록이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4. ㉔ 본서의 정경성(正經性)에 관하여 논하라.

- A** (1) 본서는 그 진위(眞僞)에 대해서 초대 교회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문제시되어 왔다. 어떤 학자는 본서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등을 '7의서'(七疑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 (2)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는 2세기부터 계시록이 정경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고 동방 교회에서도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계시록의 정경성을 인정하였다.
- (3) 순교자 저스틴(Justine)과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Irenaeus) 등 소아시아의 교회지도자들은 거의가 본서의 정경성을 인정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그의 제자 오리겐(Origen)도 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 (4) 특별히 서방 교회의 신앙적인 밑바침이 되었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에서는 본서가 사도 요한의 저작임을 확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방 교회의 전체 흐름은 3세기경에 이르러 계시록의 정경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5) 그런데 동방 교회에서는 초기에 하나같이 계시록의 정경성을 부인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 무대로 했던 디오니시우스(Dionysius)와 그의 제자 유세비우스(Eusebius)는 본 계시록의 정경성을 끝까지 의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루살렘의 시릴(Cyril of Jerusalem, A. D. 315-386)은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계시록을 낭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 (6) 또한 소아시아의 몇몇 교회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시록 사용을 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회의(A. D. 360년경)에서 결정한 정경 중에도, 사도의 율령(Apostolic Constitutions)에도, 그레고리 나지안주스(Gregory Nazianzus)의 목록에도 계시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세기경에 이르러 동방 교회 내에서도 계시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 (7) 한편 계시록을 정경으로 완전히 인정하게 된 것은 376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한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축제 서한(Festal Letter)에서였다. 계속해서 382년의 다마스 회의(Damasine Council)와 서방 교회를 위해 공인된 신약 성경의 목록을 인정한 제 3차 카르타고 회의(A. D. 397)에서도 계시록을 인정했다. 그리고 트렌트 종교 회의(1545년)에서 이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5. ㉠ 사도 요한은 본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 A** (1) 계시록은 초대 교회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문제에 대해서 몇몇 학설이 강조되고 있다.
- (2) 먼저 3세기경에 활동했던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는 사도 요한이 밧모 섬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Claudius, A. D. 41-54) 당시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기독교와 로마 정부간의 긴장이 계시록에 언급된 상태로부터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 (3) 두번째로 계시록이 네로(Nero, A. D. 54-68) 통치 기간, 즉 로마의 대화재 이후 A. D. 64년 박해 중에 기록되었다는 설이 있다. 더우기 13:18에 나오는 '666'이라는 수자는 히브리 문자로 네로 가이사(NERON KESAR)란 명칭의 글자들이 지닌 수적 표현을 합산할 때 나온 수치라고 한다.
- (4) 한편 17장에 언급된 여인을 뒷받침하는 '산들'에 관한 말씀이 본서가 네로의 때에 기록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인용되기도 했다. 즉 17:9에 제시된 일곱 왕이 로마 왕들의 순서라면 그들은 줄리우스 시이저(Julius Caesar, B. C. 102-44) - 아우구스투스(Augustus, B. C. 27-A. D. 14) - 티베리우스(Tiberius, A. D. 14-37) - 칼리굴라(Caligula, A. D. 37-41) - 클라우디우스 - 네로 - 갈바(Galba, A. D. 68-69) 등일 것이다.
- (5) 여기서 본문에 '다섯은 망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여섯째 왕 곧 네로가 당시 통

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며 더우기 네로 시대는 본서의 수신자들인 아시아의 교회들이 완전히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록 연대로 강조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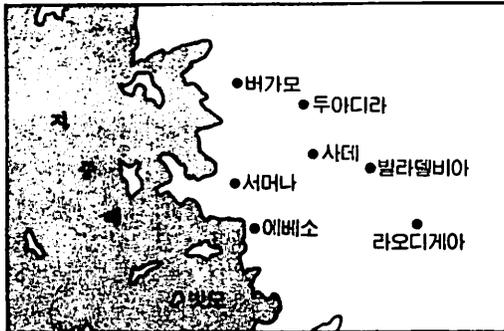
- (6) 마지막 전통적인 견해이자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미티안(Domitian, A. D. 81-96) 황제 때의 기록설이 있다(Irenaeus, Clemet of Alexandria, Origen, Victorinius).
- (7)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시아의 교회가 자라나서 그 운명이 절박해진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미티안이 자기를 '주와 신'(Dominus et Deus)으로 경배하라고 명한 사실은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전인류적 차원에서 경배를 강요한 '집승'의 묘사(13: 15)와 일치한다.
- (8) 정신 분열 증세가 있었고 난폭해진 그는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도들을 각지에 유배시켰으며 당시 사도 요한도 그에 의해 밧모 섬에 유배되었었다. 그러므로 본서는 요한이 유배 생활을 했고 아시아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고 있던 A. D. 81-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 사도 요한이 본서의 내용을 제시받았던 장소는 어디인가?

- ㉠ (1) 사도 요한은 1:9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곳이 밧모 섬이라고 밝혔다.
- (2) 밧모섬은 에게 해에 위치해 있으며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주위 반경은 27km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의 지명은 팔모사(Patmos)이다. 이곳에는 로마 당시에 주로 정치범들이 유배되었으며 거기서 그들은 광산의 강제 노동에 징용되었다.
- (3)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책을 기록하긴 했어도 그곳에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유배 생활이 끝나 에베소에 돌아온 뒤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7. ㉠ 본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사자들에게 보내진 것이다(참조, 1:11).
- (2) 그 일곱 교회가 위치했던 각 도시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문물의 중심지였으며 각 도시마다 길목이 연결되어 있었다.
- (3) 그중 에베소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위치한 곳이며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중요 항구이고 버가모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지방 행정 관청의 소재지였다.
- (4) 두아디라는 농업과 면직 공업의 중심지였고 사테는 쇠퇴해 가는 도시로서 가장 고도(古都)이며 루디아(Lydia) 지방의 수도였다. 빌라델비아는 중앙의 비옥한 고원 평야로 가는 길목이고,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은행 중심지였으며 또한 양털과 안약의 생산지였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 (5) 한편 소아시아에는 이와 같이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밀레도, 앓소, 드로아, 아드라뭇데노, 골로새 등 여러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 (6)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가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국한시켜 편지하게 하신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수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령께서는 단순히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 (7) 그러므로 본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시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구 불변의 말씀이다(참조, 1:3).

8. **㉠**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가 기록될 당시(A.D. 81-96) 유럽과 아시아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대해 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 흡수하는 관용을 베풀었다.
- (2) 그러나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로마 정부에 비협조적이던 기독교도들에게 돌린 후 기독교와 연류된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투옥시키는가 하면 그 대부분을 콜로세움(원형 극장)에서 처참하게 죽였으며 한 편으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무참한 학살을 자행했다.
- (3) 이렇게 로마 제국은 기독교도들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로마 통치자의 신격화를 피하는 최대의 교만을 보였다.
- (4) 이러한 교만의 시초는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은 칼리굴라(A.D. 37-41)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정신·사상적 측면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지시했으며 자신의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하려고까지 했으나 정적(政敵)들에게 살해당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5) 칼리굴라 이후에는 황제 숭배를 중용하는 어리석은 정책이 거의 실시되지 않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르러 이러한 폭정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도미티안이 정권을 잡을 당시에 베수비우스(Vesuvius) 화산 폭발(A.D. 79)로 폼페이(Pompeii)와 헤르쿨레니움(Herculaneum)이 파괴되고 또 한번의 로마 화재 사건과 괴질(A.D. 81)로 인하여 로마의 모습은 폐허나 마찬가지로 변하였었다.
- (6) 그런데 국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정치욕이 강했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神)의 위치에 올려 놓은 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였다.
- (7) 아울러 그는 자신 이외의 '신'을 섬기는 어떤 집단과 개인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이에 불복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신앙 생활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은 가장 혹독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9. **㉠**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를 중심한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라.

- ㉠** (1) 초대 교회 초창기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조그마한 교재의 틈이 있었으나 A.D. 70년 로마의 디도(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부터 기독교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성전)를 잃은 유대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 (2) 사실 그 당시 교회와 유대교의 회당은 각각의 제도와 형태를 갖추고 발전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바울이 제시한 바 있는 율법 시행보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롬3:22; 갈2:16)는 정통 유대주의자들과 초대 교회 교인들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조성하게 하였다.
- (3) 교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적대 감정은 결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3:9)로 정죄하게 하였으며 종교 뿐 아니라 반민족적 감정을 촉발하게 만들었다.

- (4) 한편 교회 자체 내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언급된 대로 신앙 퇴보의 징조가 있었다. 교회 안에 열화처럼 번져 갔던 처음 열심은 식어져 갔고 음행과 이교 사상이 교사와 일반 성도에까지 침투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조차 타락된 생활이 만연하게 되었다.
- (5) 본서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독자들에게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경고함으로 그들의 열성을 일깨워 보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0.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교 사상의 팽배 및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교회에 보내진 글이다.
- (2) 그중에서도 황제 숭배라는 국가의 공적 폭행은 교회에 닥친 큰 시련이었고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 (3) 이처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회의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면과 경고가 동시에 필요했다. 권면은 그들로 하여금 실망과 그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함 이요, 경고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하며 내적인 배교(背敎)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 (4) 이와 같은 시점에 이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계시하셨다.

11.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는 하나님 나라에 반기를 든 세상의 악한 음모가 계속 반복되고 고조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주의 뜻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 (2) 또한 본서는 이러한 악에 속한 세상(시간 세계)의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나라(영원 세계)를 건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교회를 위협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신다(참조, 17:14).
- (4)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2:5,16,25; 3:3,11,20) ‘내가 속히 임하리라’(3:11)는 말은 편지 끝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언급되었다(22:7,12,20).
- (5) 그러므로 본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12. **㉠** 본서에 나오는 신학 또는 주요 사상을 제시하라.

- ㉠** (1) 본서는 신학적인 변증(辨證)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본서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종말론(Eschatology)이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과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위협 앞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의 장래를 말해 주고 있다.
- (2) 먼저 본서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절대성이 제시되어 있다. 보좌를 중심한 사건과 인격의 나열은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1:4;4:2).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권위 이상이시며 당신의 계획과 결정이 곧 이 세상의 역사이다.
- (3)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4:8;11:17;15:3;16:7,4;21:22), ‘만물의 창조자’(4:11;14:7), ‘만인의 심판자’(20:11-15)이시다.

- (4) 또한 하나님의 삼위 일체 되심이 언급되어 있다(1:4,5). 이 삼위 일체론은 본서 한 부분에만 집약된 것이 아니라 본서 전체를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1:1).
- (5) 그리고 본서는 무엇보다 기독교론(Christology)적인 사상이 주를 이룬다.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며(5:5) 12사도를 가르치셨고(21:14)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뿐 아니라(11:8) 부활하셨다(1:5,18).
- (6) 더우기 예수께서는 본서의 주역이시다(5:6-12). 그분은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양(5:6), 다윗의 후계자(5:5), 심판의 주(14:15;22:12), 하나님의 말씀(19:13), 교회의 주인(1:12-20)이시다.
- (7) 이에 반해 본서는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1:4)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22:17).
- (8) 본서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6:16,17), 사단의 종속물로서(9:4;13:3,14;17:8)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20:12,13).
- (9) 반면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7:3)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22:14).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삶과 결말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21:8).
- (10) 초대 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기록된 본서는 예수께로 향한 개인의 사랑과 핍박 중의 충성과 인내하는 신앙 등을 강조하고 있다(1-3장).
- (11) 한편 본서에 언급된 싸움은 단순히 지상에서 영토 확장을 위해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계가 접전하는 영전(靈戰)이다. 물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12:7,9;20:1-4,10).
- (12) 본서는 또한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천사론(Angelology)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본서 전체를 통해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나타난다(5:2;7:2,3;8:2;10:1;12:7;14:6;15:1;17:1;18:21;19:17;20:1;21:9;22:9). 천사와 마귀는 모두 지각 있는 영적 존재들인데 선과 악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12:7).
- (13)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종말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본서는 그 모든 교리적 성격이 인간 역사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14) 특히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미래에 초점을 두었는데 각 교회에 제시된 최후의 약속은 '하리라'(I will)란 말로 끝을 맺고 있다(2:7,10,17,28;3:5,12,20). 이와 같이 본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The things which must come to pass hereafter)을 취급하고 있다.
- (15) 하나님의 성품은 장래의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나타나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현재의 구원론적 기능보다 심판적인 면에 더 치중되어 있다. 종말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로 삼는 것은 ①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②하나님의 도성 건설 ③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상태 등이다(19-22장).

13. ㉠ 본서를 포함하는 계시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적 성격이 배재된 곳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 이 계시를 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외의 것을 꾀한다면 그것은 계시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 (3)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으며, 말씀(logos)이 몸을 입으신 것(成肉身)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최고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 그리스도를 예기(豫期)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이고 신약은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계시라 할 수 있다.
- (4)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계시 문학'이라 일컬을 때는 신·구약 전체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와 연관된 국가의 운명 그리고 이 세상의 형세를 예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힌 글들을 가리킨다.
 - (5) 이 '계시 문학'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 앗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B. C.722) 곧 이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면서(B. C.586) 포로의 비극적인 생활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발달하였다(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등).
 - (6)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출발하여 꺼져 가는 운명에 불을 당기듯 이스라엘 전체에 깊은 감화와 영향을 미친 '계시 문학'은 이스라엘 국운의 최악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신·구약 중간기에(B. C.400-4) 들어서 가장 번창하게 되었다(에녹서, 제 4 에스라서, 모세의 승천기, 레위약서, 바룩의 계시 등).
 - (7) 이처럼 국운이 쇠퇴하여 외세의 압력이 가중되면 될수록 더욱 발전했던 '계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희망과 위로와 인내의 원동력이었지만 그 반대편에 선 외세의 압제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압제의 재료요 그것 자체가 붙은 문서였다.
 - (8)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계시 문학'은 종종 보통 사람이 해독할 수 없는 표현과 기호 등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과 기호가 난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계시 문학'을 접할 때에 어려운 점이 따른다.
 - (9)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시 문학'을 접할 때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백성들의 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항 등을 먼저 파악한다면 '계시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 ㉠ 초대 교회를 전후한 로마 황제들의 연대표를 작성하라.

순서	황제 명	통치 기간	비 고
1	아우구스투스(Augustus)	B. C. 27- A. D. 14	로마 제국의 창시자 · 예수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재패함
2	티베리우스(Tiberius)	14-37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Julia)와 결혼한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로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수께서 활동하심(눅 3:1)
3	칼리굴라(Caligula)	37-41	24세에 황제의 자리에 오름.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 했으나 취소함. 로마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황제 숭배 강요
4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54	유대인들에게 융화 정책을 실시하고 성전 의식을 허용함.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극심한 흉년이 들
5	네로(Nero)	54-68	음탕한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정숙한 아내와 어머니마저 살해했던 그는 음란과 쾌락을 일삼으며 로마의 권위와 국운을 어지럽게 했다. 64년 발생했던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학살을 자행했다

혼란기	갈바(Galba), 오토(Otho), 비텔리우스(Vitellius)	68-69	네로의 실책 후 로마는 1년간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 이때 스페인 총독 갈바, 네로의 친구 오토, 스페인의 장군 비텔리우스가 정권을 잡았으나 로마는 안정되지 못했다
6	베스파시안(Vespasian)	69-79	정국의 안정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등 로마 제국의 재건에 힘씀
7	디도(Titus)	79-81	66년에 일어난 유대 반란을 평정하고(이 과정에서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폐파함) 부친 베스파시안의 뒤를 이은 그는 로마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함
8	도미티안(Domitian)	81-96	베스파시안의 아들로 만형 디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됨. 자신을 '주인', '하나님'으로 부르며 자기 신성화를 꾀했으며, 공포 정치를 통해 자신을 거역하는 무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유배 또는 학살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
9	네르바(Nerva)	96-97	도미티안의 학정으로 한때 혼란했던 로마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 특히 부당하게 추방된 자들을 사면 복권시키고(이때 사도 요한도 풀려남) 경제 법률 등을 재정비하였다. 그의 선정으로 로마는 안정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80여년 동안 그 안정기가 지속될 수 있었다

5. ㉠ 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들을 열거하라.

- ㉠ (1) 성경 해석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신학이다. 그렇기에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언어의 상징성과 그 내용상 모호함 때문에 본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아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두드러진 것들을 열거하였다.
- (2) 첫째, 과거 해석법(The Preterist Method)이다. 이는 본서가 A.D. 1세기경 아시아 교회들의 역사적 상태를 서술한 것으로서 본서에 게재된 사건과 상징들이 모두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예, 바벨론과 짐승들→로마 제국, 여인[12장]→뫼박받은 교회, 여러 심판들→사도 요한의 생전에 일어났던 자연적, 정치적, 종교적 재난에 대한 표현들).
- (3) 이러한 해석법은 본서가 기록된 때를 비추어 본서를 연구할 수 있는 이점과 독자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본서가 지닌 예언적인 요소(하나님의 도성, 그리스도의 재림 등)를 무시하는 단점도 있다.
- (4) 둘째, 전역사 해석법(The Continuous Historical Method)이다. 이는 본서의 예언을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개될 교회의 파노라마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 (5) 그러나 이 견해를 취하게 되면 그 기간의 중간 과정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과 본서에 언급된 상징적 사건을 역사의 어느 한 시점과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점 등이 따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 (6) 세째, 미래 해석법(The Futurist Method)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4장에서 22장 사이의 내용은 현재에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최후에 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7) 특히 인과 나팔과 대접 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인에게 내릴 최후 환난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며,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환상은 영원한 의인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8) 네째, 이상주의 해석법(The Idealist Method)이다. 이는 본서에 제시된 사건이 비실재적이며, 그렇기에 본서의 문자적인 해석을 반대하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우화적 해석법(Allegorical Interpretation)에서 기인하였다.
- (9) 즉 이 견해는 본서가 구체적인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맞붙어 싸우는 전쟁터로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는데 중국에 가서는 선이 승리한다는 원리를 제시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독자의 환경과 지적인 수준에 따라 본서를 달리 그리고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 (10) 이처럼 다양한 해석법 중에서 우리는 본서를 대부분 미래 해석법에 따라 해석코자 한다. 왜냐하면 본서는 종말론적이며 예언적인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11) 본서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본서가 계시록(Revelation) 또는 묵시록(Apocalypse)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기록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어떤 상징들은 설명이 가능하나(1:20;17:1,15) 대부분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 (12) 그러므로 본서의 일부 예언을 우리 주변의 구체적 상황과 절대 동일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우리는 성경이 밝히 계시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영육이 어두워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13)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본서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지만 그 묵시의 정확한 내용과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단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16. ㉠ 본서에 나오는 수자들의 상징적 의미를 도표화하라.

㉠(1)

수	상징적 의미	관련 귀절	참조 귀절
1	시작을 나타냄, 절대수, 영원수	1:8	창 1:5; 아 6:9; 요 10:30
2	증인의 수	11:3,4; 13:11	신 17:6; 마 18:19
3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 삼위 일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7:4; 8:7-12; 9:15	사 6:3; 막 9:31; 14:58
4	지상의 수, 동서남북,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4:6; 5:8; 7:14	창 2:10; 사 11:2; 겔 7:2
6	완전에 반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수	4:8; 13:18	수 6:3; 욥 5:19
7	완전수, 안식의 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자 주 사용됨	1:11,12; 6:1; 8:2	창 2:3; 레 25:8; 사 30:26
10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완전수, 반수	12:3; 13:1; 17:3, 12,16	창 18:32; 단 1:20; 눅 19:13
12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는 완전수	21:12,14; 22:2	창 49:28; 민 1:44; 겔 43:16

- (2) 이외에도 본서에는 여러 수자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위의 기본적인 수자에서 유출 또는 변형된 것이다. 즉 8:1에 언급된 1/2은 영원수에 반하는 것으로 짧은 순간을 의미한다.
- (3) 또한 3 1/2은 안식과 완전수인 7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안과 환난을 의미하며(11:2,9; 12:6,

14) 24라는 수자는 완전수 12의 배수로서 절대 완전을 의미한다(4:4,10).

(4) 그리고 66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가 모인 환난과 저주와 사단의 수이다(13:18). 7,000은 1,000을 7배한 것으로 아주 많은 수를(11:13), 12,000 역시 1,000을 12배한 것으로 다량을 의미하며(21:6), 144,000 또한 1,000을 12배한 것에 12배한 것이므로 많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7:4;14:1).

17. ㉠ 본서에 제시된 색깔들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라.

색	상징적 의미	관련 귀절	참조 귀절
흰 색	의, 순결, 성결, 승리, 영화, 권위	1:14;6:2;14:14;19:11	시 51:7;사 1:8;단 11:35;12:10
붉은색	사단, 욕망, 전쟁, 피 흘림, 죄	6:4;12:3;17:13	잠 23:29;사 1:18
검은색	슬픔, 기근, 절망, 공포	6:5,12	욥 30:30;애 4:8
청황색	재앙, 질병, 죽음	6:8	
푸른색	희망, 생물, 생명	8:7;9:4	시 23:2;52:8;잠 11:28

18. ㉠ 본서에 언급된 동물들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동물명	상징적 의미	관련 귀절	참조 귀절
양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1:14;5:6,8,12;6:1	레 3:6;롬 8:36
사자	왕권, 강한 힘	4:7	창 49:9;삼하 1:23
송아지	성실, 근면, 순종	4:7	레 9:2;렘 50:11
독수리	신속함, 뛰어난 지략, 하나님의 도움	4:7;12:14	출 19:4;삼하 1:23;사 40:31
말[馬]	전쟁, 전력(戰力)	6:2,4;9:11	수 11:4;속 6:7
황충(蝗蟲)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재난	9:3,7	시 78:46;암 7:1
용	사단, 교회의 적	12:3,13;20:2	욥 7:12;시 74:13;사 27:1
뱀	사단, 용과 뱀은 동일한 의미	12:14,15;20:2	창 3:1;욥 26:13;시 58:4;고후 11:3
짐승	사단의 통솔 아래 있는 세상 주관자, 교회의 꺾박자, 진리의 파괴자	13:1,4;14:9;15:2;17:17;20:10	단 7:2;딤후 1:12

19. ㉠ 본서를 통해 천년 왕국(Millennium)에 관한 교리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에 대해 설명하라.

- ㉠ (1) 천년 왕국설은 종말론(Eschatology,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 의인과 악인에게 있어질 보응, 죽음, 내세 등에 관한 것)의 한 부류로서 인류 전체의 미래가 제시되어 있는 성경에 근거한 학설이다.
- (2) 한편 천년 왕국이란 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파멸하신 후 성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절대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게 될 천년 왕국은 가장 큰 영광과 번영으로 가득 찬 시간들의 연속이다.
- (4) 그때는 이방 민족들을 속이던 사단이 1000년 동안 붙잡힐 것이며(20:3,7)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진리와 의(義)로 통치하실 것이다(참조, 사2:4;11:3-5).
- (5)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계에 내려졌던 저주(창3:17-19)는 제거되고 땅은 전례

없는 생산력을 갖게 될 것이다(참조, 시72:16; 사11:6-9; 35:1-10; 65:25; 암9:13-15; 롬8:19-22).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 역시 충만한 기쁨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9:23; 25:6-8; 65:20-23).

- (6) 이상에 제시된 천년 왕국의 내용들은 본서 20:1-6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제시된 내용은 기독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양하여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20. **㉠ 천년 왕국에 관한 여러 학설들을 요약 열거하라.**

㉠ (1) 본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가 사분 오열(四分五裂)되지 않았으며 초대교회 내에서도 이 학설은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Justine, Tertullian, Irenaeus).

(2)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거의 사라지고 로마의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자 종말론, 특히 천년 왕국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식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세기 몬타누스(Montanus)를 중심한 몬타나주의(Montanism)와 그에 대를 이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학파(Augustine, Origen)는 천년 왕국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게 되었다.

(3) 이렇게 성경에 엄연히 제시되어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게 되면서 여러 학설이 제시되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 세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4) 첫째, 후천년설(Postmillenarianism)이 있다. 이는 예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는 학설이다. 특히 이 견해는 신약 시대를 이스라엘과 왕국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때로 보며, 복음이 죄악된 사회 속에 점진적으로 파고들어 끝내는 인류가 그리스도 아래 한 형제가 되어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본다(참조, 마13:33). 물론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Hengstenberg, C. H. Hodge, L. Boettner)은 '1000년'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믿으며 그 1000년이야말로 교회의 부흥기로 본다.

(5)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과 특히 점점 증가하는 불법과 세속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세대를 살펴보면 위의 견해는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6) 둘째, 무천년설(Amillenarianism)이 있다. 이는 성경에 제시된 문자들을 대부분 우화적 또는 극단의 영적 해석으로 돌려 버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Augustine, Origen)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 견해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성도들이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현세대로 간주한다. 즉 1000년이란 상징적인 수치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곧 교회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G. Vos, A. Kuyper, B. B. Warfield).

(7) 그런데 이 견해는 세상 끝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단의 횡포를 묵과해 버리고 인류가 받을 심판의 2중적 성격(참조, 마24:31; 고전15:51,52; 살후2:1)을 무시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점들이 발생한다.

(8) 셋째, 전천년설(Premillenarianism)이 있다. 이는 100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이 변화하여(참조, 살전4:16-18)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현재 많은 개신교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Herman Bavink). 본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9) 한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각기 그 근거를 성경에 둔 보수적 견해로 서로 상통하는 점도 많으며 어느 하나를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10) 천년 왕국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20장의 **㉠** 7-10을 참조하라.

21. **㉠ 본서의 중심되는 내용을 요약하라.**

㉠ (1) 본서는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는 본서의 중심이시다(1:1).

- (2)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는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신다(2,3장). 주는 인간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양이시다(4,5장).
- (3) 장차 땅 위에 임할 7년 대환난의 심판도 어린양의 진노의 표현이다(6-19장). 계속해서 본서는 주의 재림(19:11-21),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더불어 1000년간 통치하실 일(20장),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21,22장)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 (4) 결론적으로 본서는 1:19에서 그 내용과 구조가 확연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네 본 것'은 1장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제 있는 일'은 2,3장의 그리스도 교회들의 상태, '장차 될 일'은 4-22장의 예언들이다.

22.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머리말 / 1:1-8

- ①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 1:1-3
- ② 축복과 인사 / 1:4-8

(2) 과거의 일 / 1:9-20

- ① 환상의 배경 / 1:9,10
- ② 환상의 내용 / 1:11,19
- ③ 환상의 결과 / 1:12-18,20

(3) 현재의 일 : 각 교회에게 / 2:1-3:22

- ① 에베소 교회에게 / 2:1-7
- ② 서머나 교회에게 / 2:8-11
- ③ 버가모 교회에게 / 2:12-17
- ④ 두아디라 교회에게 / 2:18-29
- ⑤ 사데 교회에게 / 3:1-6
- ⑥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 3:7-13
- ⑦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 3:14-22

(4) 미래의 일 / 4:1-22:5

① 환난의 시기 / 4:1-19:21

ㄱ. 하늘의 보좌 / 4:1-11

- a. 보좌 / 4:1-3
- b.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 / 4:4-8
- c. 하늘의 찬양 / 4:9-11

ㄴ. 일곱 인 봉한 책 / 5:1-14

ㄷ. 일곱 인의 재앙 / 6:1-8:6

- a. 첫째 인 / 6:1,2
- b. 둘째 인 / 6:3,4
- c. 세째 인 / 6:5,6
- d. 네째 인 / 6:7,8
- e. 다섯째 인 / 6:9-11
- f. 여섯째 인 / 6:12-17

g. 삼입부 :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 / 7:1-17

h. 일곱째 인 / 8:1-6

ㄹ. 일곱 나팔의 재앙 / 8:7-11:19

- a. 첫째 나팔 / 8:7

- b. 둘째 나팔/8:8,9
- c. 세째 나팔/8:10,11
- d. 네째 나팔/8:12,13
- e. 다섯째 나팔/9:1-12
- f. 여섯째 나팔/9:13-21
- g. 작은 두루마리/10:1-11
- h.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11:1-19
- . 전쟁/12:1-17
 - a. 땅에서 : 상황I/12:1-6
 - b. 하늘에서/12:7-12
 - c. 땅에서 : 상황II/12:13-17
- ▣. 짐승과 그의 선지자/13:1-18
- ⊠. 여러 가지 선포/14:1-20
 - a. 144,000 성도에 관하여/14:1-5
 - b. 영원한 복음에 관하여/14:6-8
 - c.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관하여/14:9-13
 - d. 땅의 추수에 관하여/14:14-20
- . 일곱 대접의 재앙/15:1-16:21
 - a. 예고/15:1-8
 - b. 첫째 대접/16:1,2
 - c. 둘째 대접/16:3
 - d. 세째 대접/16:4-7
 - e. 네째 대접/16:8,9
 - f. 다섯째 대접/16:10,11
 - g. 여섯째 대접/16:12-16
 - h. 일곱째 대접/16:17-21
- ㅈ. 큰 음녀 바벨론/17:1-18
- ㅊ. 바벨론의 멸망/18:1-24
- ㅋ. 그리스도의 재림/19:1-21
 - a. 선포/19:1-10
 - b. 그리스도의 강림/19:11-16
 - c. 아마겟돈/19:17-21
- ② 천년 왕국/20:1-15
 - ㄱ. 사단의 갇힘/20:1-3
 - ㄴ. 성도의 부활/20:4-6
 - ㄷ. 죄인들의 반란/20:7-9
 - ㄹ. 사단의 운명/20:10-15
- ③ 마지막에 있을 일들/21:1-22:5
 - ㄱ. 새 예루살렘의 도래/21:1-8
 - ㄴ. 새 예루살렘의 묘사/21:9-27
 - ㄷ. 새 예루살렘의 환희/22:1-5
- (5) 끝맺는 말/22:6-21
 - ㄱ. 위로의 말/22:6-17

- 나. 경고의 말 / 22:18,19
- 다. 마지막 축복 / 2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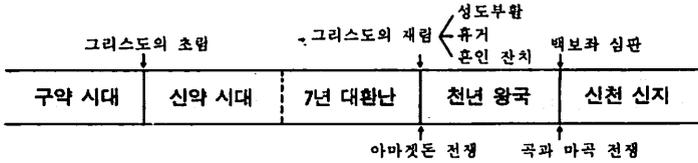
23.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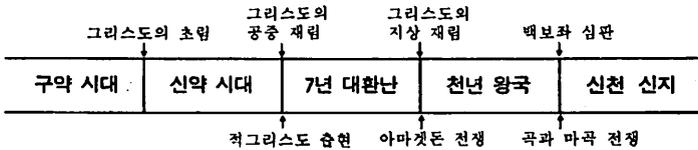
연구자료

도해(圖解)로 푼 천년 왕국설. 여러 가지 천년 왕국설을 간략하게 도해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장 ㉠7-10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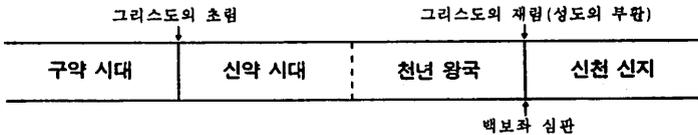
〈역사적 전천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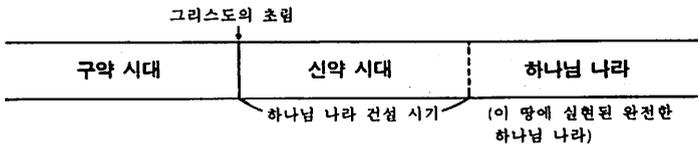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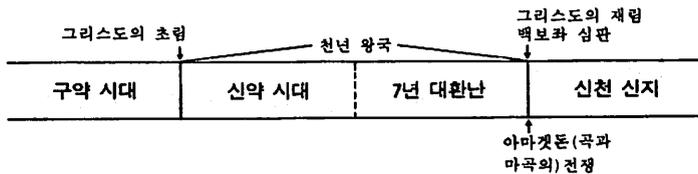
〈보수주의적 후천년설〉



〈자유주의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 1 장 계시자(啓示者) 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2 머리말 / 3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 4-7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 8 하나님의 자기 계시 / 9-11 밧모 섬에서 본 요한의 환상과 사명 / 12-18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모습 / 19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할 사명을 맡다 / 20 환상의 해석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

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서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본장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중해에 위치한 밧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본서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문안 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심각한 종교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권능은 본장 전체를 수놓고 있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운행자로서 영광과 권세를 지닌

절대자이신 동시에 당시 고난받고 있던 교회들과 그 교회들에 소속된 인격 하나하나에게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이시다.

- (4)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도덕과 진리가 무시당하고 혼탁한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큰 위안과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에 귀기울이며 순종하여 그분이 내리시는 복을 함께 누리야 한다(3절).

2. **㉠** 본서의 원저자(原著者)는 누구인가? (1절)

- ㉠** (1)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참조, 서론 **㉠**2) 본서의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2)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본문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계시라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본서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함이 더 적합할 것이다(참조, 막1:1). 다시 말하면 본서는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 (4)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빌2:6) 성부의 계획을 이 땅의 무지한 인격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또한 당신 스스로가 성부의 계시가 되어 주셨다(참조, 요1:14).
- (5) 즉 예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셨다. 그분은 분명히 아버지의 형상이며 계시의 주체가 되신다(요12:44-50).

3. **㉠** 본서에 제시된 계시의 전달 과정을 열거하라(1, 2절).

- ㉠** (1) '계시'(헬, 아포칼립시스)란 원어적 의미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숨은 것을 나타내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엡3:3).
- (2) 이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Incarnation) 강림하신 것이다(참조, 롬16:25). 예수께서 강림하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 인간의 눈에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 (3) 즉 인간을 사랑하시며(요3:16)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요일4:9,10)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 (4) 물론 본문에 제시된 계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계시(自啓示)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계획을 가리킨다.
- (5) 이러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천사→종 요한→그 종들(모든 성도)로 규정짓고 있다.
- (6) 여기서 '천사'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시기 위해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영적 존재를 뜻한다(참조, 갈3:19). 이 천사는 다른 어떤 기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한다(참조, 17:1,7,15).
- (7) 이와 같이 본문에서 천사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와 간격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4. **㉠**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칭은 무엇인가? (1절)

- ㉠** (1) 요한과 성도들에게 각각 '종'(헬, 들로스)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 (2) 그 당시 '종'이란 주인의 절대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과 감정과 시간과 의지마저 모두 주인에게 바쳐진 사람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종'이라 부른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를 예수께 맡겨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밝히려는 뜻에서였다(참조, 롬1:1; 빌1:1; 약1:1; 벧후1:1). 사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하고

있었다(참조, 서론 Q 89).

- (4) 교회를 통해 볼 때 신앙심 깊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종이라 불려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며 다른 어떤 세상적 호칭보다 존귀하게 생각했다.
- (5) 것처럼 그들이 종 의식을 지닌 것은 그들이 비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기 원하는가? '예수의 종' 그것보다 더 귀한 호칭은 없을 것이다.

5. Q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종)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1,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다.
- (2) 여기서 '반드시'(헬, 데이)란 말은 하나님의작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 성취를 강조한다(참조, 요3:14;10:16;20:9).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곧 성취 그 자체이다.
- (3) 그리고 '속히'(헬, 엔 타케이)란 말은 종말론적인 용어로 때의 압박함을 의미한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언제나 그 당대에 모든 계시와 예언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압박함이란 말은 어떤 날에도 가능한 사건, 즉 그 성취에 있어서 불가능한 날이 없다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 (4) 그러므로 '속히'란 말은 이 계시가 전달된 후 곧바로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가끔 주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 등의 사건이 인간의 시점으로 보아서 더디게 임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참조, 마24:48;25:5;눅19:11).
- (5)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될 때는 인간의 감각으로 늦든지 빠르든지 상관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당신의 소관에 달린 것이다(참조, 벰후3:8). 따라서 하나님의 날과 그 계획을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항상 깨어 있어 그날과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참조, 마25:13).

6. Q 사도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였는가? (2절)

- A (1)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증거하였다고 했다.
- (2)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logos) 되시는 예수(요1:1)를 뜻하지 않고 본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행위를 가리킨다.
- (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1절의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리킨다.
- (4) 한편 사도 요한이 위의 사실을 '증거하였다'(헬, 에마르투레센)는 말에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만방에 전파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 (5) 사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 (6)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요한과 같은 증거자로서 자신의 생명보다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더 큰 애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참조, 고전1:18-25).

7. Q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였는가? (3절)

- A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 (2)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인데 반해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각각 복수이다. 이는 교회의 회합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한 사람이 구약 또는 사도들의 서신을 읽으면(참조, 눅4:16;행13:15) 그 모인 자들은 그것을 듣고 깊이 묵상한 다음 자신들의 삶에 그 들은

바를 실천한 데서 기인한 표현이다.

- (3) 성경을 읽는 일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중요한 순서였는데 그들의 성경 낭독은 회당의 지도자급 인물 중 7인이 읽었다고 한다. 만일 그곳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참석했다면 그들에게 낭독권이 주어졌다고 한다.
- (4) 오늘날의 기독교회도 이런 회당 제도의 모범을 따라 예배의 중요한 한 순서로 성경 낭독을 하고 있다. 그 낭독자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말씀을 회중 앞에서 읽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을 공적으로 읽음으로 그것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 (5) 또한 요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위험한 결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행위야말로 복 있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참조, 시1:2).
- (6) 더우기 그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철저히 적용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인정하는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행위 중 하나이다(참조, 삼상15:22).
- (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8.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그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불의를 파멸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비록 현실에 만족할 수 없고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주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 나가기를 강조한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란 어느 한 경점(更點)을 가리키는 헬리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종말의 가까움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의 <카이로스>이다.
- (4) 이러한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의 시기만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증들과 징조들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참조, 마24:3-51).
- (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주의 교훈과 가르침에 귀를 열고 또한 그 뜻 안에 거하여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9. **㉠**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기원한 것은 무엇인가? (4,5절)

㉠ (1)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참조, 서론 **㉠**7)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다.

- (2) 여기서 '은혜'(헬, 카리스)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뜻한다(참조, 롬1:7; 고전1:3).
- (3) 또한 '평강'(헬, 에이레네)이란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뜻한다.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결과이다(참조, 엡2:15).
- (4) 이러한 기원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진 바람과 인사였다(참조, 창42:23; 삼상25:6; 눅10:5; 요20:21; 갈6:16). 오늘도 이런 기원을 통하여 성도 상호간의 안부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움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0. **㉠** 사도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곱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는가? (4,5절)

- A** (1) 사도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다.
- (2)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다는 사실과 그 기원의 완전한 성취를 소망한다는 의미에서 말해졌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지칭한 표현은 성경 본문상 드문 일이다(참조, 고후 13:13).
- (3) 한편 사도 요한은 성부를 가리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표현하였다(8절;4:8;11:17;16:5). 이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전능성, 선재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출3:14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란 말과 상통하는 표현이다.
- (4) 성부에 대한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괴리감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외하게 만든다(참조, 히13:8). 특히 '장차 오실 이'라는 말에는 당신의 재림과 심판과 보상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
- (5) 또한 성령에 관해서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 표현하였다. 여기서 '그 보좌 앞'이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의 입안자(立案者)이신 성부의 뜻을 받들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7:15).
- (6) 그리고 '일곱 영'이라 함은(3:1;4:5;5:6) 히브리 문학에서 '7'이 완전 또는 성취를 의미하므로 성령의 완전하심과 사역의 신속한 성취를 강조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더 우기 한 영이 아닌 일곱 영이라 한 것은 그 사역과 능력과 은사의 다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참조, 사11:2).
- (7) 마지막으로 성자에 대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였다.
- (8)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란 당신의 사역, 특히 인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것으로(참조, 살전5:24;히10:23)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으며(빌2:8) 친히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참조, 고전15:50-58).
- (9)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란 말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제공하신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참조, 롬6:1-11;고전15:20,23;골1:18).
- (10) 덧붙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사단, 로마의 황제 등)을 정복하시기 위해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통에서 승리하심으로(참조, 고전15:54-57) 모든 신과 존재들 위에 뛰어난 분이 되신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빌 2:9,10).

11. **Q**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5, 6절)

- A** (1) 먼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으며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요일1:7).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요일4:9,10).
- (2)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있기 전의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였으나(참조, 롬3:9-18)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참조, 요8:34-36). 이처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원동력이다.
- (3)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표현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19:6의 말씀을 인용한 듯하다.

- (4)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나라'(헬, 바실레이스)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성도 개개인은 분명히 어떤 세력에도 짓밟히지 않는 자유한 통치자들이다.
- (5) 그리고 제사장(헬, 히에레우스)이란 그 옛날 이사야의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사61:6)는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 구약 제사 제도의 거추장스러움을 던져 버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와 대면하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사실을 포함한 단어이다(참조, 히4:16;9:28; 10:19-22; 벰전2:9).
- (6)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12. ㉠ 예수께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6절)

- ㉠ (1)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모든 행위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 (2) 즉 그분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과 왕권을 지닌 자로 삼으신 것은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서였지만 그 근본 동인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롬15:6; 벰2:11).
- (3)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고 자유와 나라와 제사장의 특권을 얻은 우리 역시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참조, 벰전2:9).
- (4)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고 우리에게 권면했다.

13. ㉠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말로 기원 또는 찬양을 하였는가? (6절)

- ㉠ (1) 사도 요한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世世)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말로 예수께 대한 자신의 기원과 찬양을 돌렸다.
- (2) 여기서 '영광'(헬, 독사)이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이셨다.
- (3)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참조, 출40:34,35; 왕상8:10,11; 요1:14).
- (4) 또한 '능력'(헬, 크라토스)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생동감 있게 역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신다(참조, 벰전4:11).
- (5)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영광'과 '권능'의 영원성을 찬양한 것은 비록 현실이 악의 팽창으로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를 지배하시며 계속 영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 (6) 이와 같은 찬양은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도덕적 위기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14. ㉠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환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절)

- ㉠ (1)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 (2) 이러한 표현에 대해 어떤이는 '번개'(마24:27) 속에서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후광 또는 영광 가운데서의 도래로 보기도 하며 아니면 아예 이 표현의 해석을 포기하기도

한다.

- (3) 하여튼 구름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출 40:34,35; 신 11:25; 시 104:3).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지상 재림시 있어 질 승리와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참조, 단 7:13; 마 17:5; 24:30; 26:64; 살 전 4:17).
- (4) 한편 예수의 재림은 예수의 초림 때와는 달리 공개적이며 초공간적이며 온 인격들이 다 목격할 수 있게 이루어진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도를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들(요 19:34-37)과 그에 동조한 무리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주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 (5) 그런데 그 목격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도와 무관하게 생활했다가 그와 교회를 폄박했던 불의한 무리들은 후회와 비탄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극의 현장에서라도 기쁨과 감사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했던 자들이다.

15. ㉠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8절)

- ㉠ (1)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 (2)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자음 가운데 제일 첫번째와 마지막번째를 차지하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하시며 모든 시작과 종결을 주관하시며 모든 피조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낸다(17,18절; 21:6-8; 22:13). 그분은 세상을 조성하신 창조자이신 동시에 세상의 결산을 집행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 (3) 또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란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분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으며 세상의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 계실 것이다.
- (4)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다(참조, 롬 8:38,39).
- (5)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자'이시다. 여기서 '전능'이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사건에 개입하여 그 뜻하는 대로 이끌며,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다(참조, 고후 6:18).
- (6) 사실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오직 로마와 그 황제만이 전능한 존재로 여겨졌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고 연약하여 도저히 생기,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었다.
- (7)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삶과 환경을 붙들고 계셨으며 그들의 영생을 보장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자'로서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참조, 습 3:17).

16. ㉠ 사도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어떤 말로 소개하였는가? (9절)

- ㉠ (1)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였다.
- (2) 즉 요한은 자신이 결코 편안한 위치에서 말장난에 그치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와 더불어 있는 삶이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먼저 그는 자신을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자로 소개하지 않고 단순히 본서를 수신하는 자들의 '형제'로 소개하였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혈육이라는 동질 사상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참조, 마 12:50; 행 9:17; 21:20; 롬 16:

23;고전7:12).

- (4) 이처럼 복음 사역자들은 권위 의식이나 우월 의식을 떨쳐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한 형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 (5) 계속해서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였다. 여기서 '예수의' (헬, 엔 이예수)란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환난'(헬, 들립시스)이란 원래 압박 또는 압력을 뜻하며 여기서는 신앙적인 박해를 의미한다.
- (6) 그리고 '나라'(헬,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악이 완전히 배제된 신국(神國)을 가리키며, '참음'(헬, 휘포모네)은 단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적극 수용하며 기필코 그것을 이겨 내는 능동적인 대처를 의미한다.
- (7) 사도 요한 당시에 불어 닳았던 고난과 종교적 탄압은 성도들 혼자만의 힘으로 배겨 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그들이 당한 '환난'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 (8) 오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으며 예수를 신앙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과 고충을 당해야 하지만 예수 안에서 끝까지 참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예수와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참조, 마24:13; 행14:22; 딤후2:12).

17. **㉠**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밭모'라는 섬에 있었는가? (9절)

- ㉠** (1)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밭모라는 섬에 거하고 있었다.
- (2) 즉 그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서 활동하다가 끝내 로마 제국에 체포되어 밭모 섬에 유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참조, 서론 **㉠** 5,6,8,9).
- (3) 이처럼 예수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활동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산 사람들이다(참조, 행5:41;9:16).
- (4) 바울은 이런 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8:36)고 권면하였다(참조, 고후1:7;11:23; 빌3:10; 딤후2:12).

18. **㉠**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때는 언제인가(10절)

- ㉠** (1) 그는 '주의 날'(Lord's Day)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 (2) 여기서 '주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최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참조, 벰후3:10)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킨다(참조, 요20:19; 행20:7).
- (3) 성경을 통틀어 '주일'(主日)이라는 뚜렷한 단어가 제시된 곳은 본질밖에 없다. 혹자는 이 '주일' 개념이 초대 교회 초창기부터 숙지되고 기념되어 왔으나 A.D. 2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회 안에서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Ignatius, Dionysius).
- (4) 한편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또 다른 학설로서, 초대 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바스테>, 즉 '황제의 날'을 매월 첫째 날과 한 주에 한번씩 지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신앙인들은 이에 반기를 들고 그 황제의 날인 매주 첫날(主日)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한다.
- (5) 여하튼 한 주일의 첫날, 곧 예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날을 구속받은 성도가 기념하고, 그날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이 귀한 뜻은 오고오는 세대에 계속 이어져야 할 신앙의 유산이다(참조, 고전16:2).

19. ㉠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경험했던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10절)

- ㉠ (1) 먼저 그는 '성령에 감동'하였다. 즉 그는 성령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가 황홀한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몰입(沒入)되었다(참조, 겔3:12; 행22:17; 고후12:2-4).
- (2) 물론 그가 이런 상태에 몰입하게 된 것은 온전한 정신 상태 가운데 이뤄진 일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혼을 때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참조, 롬8:26,27).
- (3) 두번째로 그는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흔히 나팔 소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24:31; 고전15:42; 살전4:16). 여기서는 '큰 음성'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찬 계시의 말씀을 가리킨다.
- (4) 한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및 명령을 전달할 때(출19:16), 무리들을 소집할 때(민16:2), 전쟁과 그에 대한 예고시(겔7:14; 33:6), 특별한 날(레23:24) 등에 사용, 묘사되었다.
- (5) 비록 사도 요한이 죄수의 신분으로 밧모 섬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성령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고 특별히 많은 고난받은 자들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던 것이다.
- (6) 이처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는 외적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과 기대와 확신을 맞출 수 있다(참조, 행16:24-34).

20. ㉠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받았던 명령은 무엇인가? (11절)

- ㉠ (1) 사도 요한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참조, 서론 ㉠ 7).
- (2) 즉 그는 인간적인 권위로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 기록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참조, 사8:1; 30:8; 렘36:2).
- (3)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의 오류도, 한 부분의 빠뜨림도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여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말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참조, 롬10:14,15).
- (4)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주위의 형제 및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 ㉠ 사도 요한이 최초로 목격한 것은 무엇인가? (12-16절)

- ㉠ (1) 그는 제일 먼저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 (2) '금촛대'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성막에 안치된 것(출25:31-37)과 솔로몬의 성전에 놓여진 것(왕상7:49)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난 것(슌4:2) 등이 있다.
- (3) 요한이 목격한 '일곱 금촛대'는 곧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며(1:20)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 (4) 특별히 '금'이란 것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참조, 왕상6:21,22) 각 교회의 순결성과 귀중함을 강조한다고 하겠다(참조, 3:18).
- (5)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친히 몸 버려 사신 교회보다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들 가운데 예수께서는 항상 활동하시며 당신의 뜻하신 바를 성취해 가신다.

22. ㉠ '인자(人子) 같은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 말은 메시아이면서 또한 사람인 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단7:13과 관련하여 이해 되어야 한다.
- (2) 즉 '인자 같은 이'란 사람이셨으며 동시에 사람 이상의 절대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말이다.
- (3)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다(참조, 마8:20;9:6;11:19;16:13;18:11;20:28;24:27).
- (4) 한편 본절에서 '인자'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인자 '같은 이'라고 그 유사성을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이셨음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다.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비로소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입으셨다(빌2:7).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갈4:4)라고 표현하였다.
- (6) 그런데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본절 이하에 제시된 그분의 모습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지니신 재림의 주로서 나타난다.
- (7)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의 주체가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며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으며 그분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늘 계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치해 가심을 강조하고 있다.

23. ⓐ **꺾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13-16절)**

- Ⓐ (1) 첫째,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이런 옷은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봉사 하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던 것으로(참조, 출28:4;29:5;레16:4)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강조한다(참조, 단10:5).
- (2)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 중에서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참조, 히8-10장).
- (3) 둘째,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것 역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출28:8)이 착용하던 것으로 신약 교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신성한 권위를 암시한다고 본다.
- (4) 셋째,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는 다니엘의 환상과 동일한 표현으로(단7:9)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동일한 통치 및 재판의 기능을 예수와 관련짓는 것이다.
- (5) 고대로부터 흰 머리는 존경의 대상이자 연륜과 지혜를 암시한다. 이 환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참조, 골2:3).
- (6) 넷째,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와 같은 환상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2:18)와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승리로 재림하시는 환상에서(19:12)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그분의 면밀한 통찰력과 전지(全知)하심 및 격렬한 심판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단10:6).
- (7) 다섯째,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朱錫) 같았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불처럼 빛나는 금속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과 관련된 상징이다(참조, 겔1:13,27;8:2;단10:6). 또한 이것은 본서 2:18이하에서 그리스도와 진리에 불신, 불충성한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8) 여섯째,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14:2;19:6;시93:4;겔1:24;43:2).
- (9) 일곱째,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다. 여기서 오른손은 정의와 권능과 안전을 의미

하며(참조, 출15:6; 신33:2; 사41:10; 행2:33) 그 손에 잡힌 '일곱 별'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를 의미한다(20절, 9:1; 욥38:7). 이처럼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교회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안전의 지름길이다.

(10) 여덟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劍)이 나왔다. '좌우에 날선 검'은 악한 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검'은 하나님의 구원 문제에 신실한 증거가 된다(참조, 사11:4; 49:2).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과를 들춰 내어 그 죄를 도말하시고 자유로 이끄신다(참조, 살후2:8; 히4:12).

(11) 아홉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 탁월하심 및 승리를 비유한 것이다(참조, 10:1; 마13:43). 요한은 분명히 이 장면과 더불어 변화산상에서의 주를 연상했을 것이다(마17:2).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은(행 26:13)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참조, 사5:31). 예수께서는 죄악된 세상과 인격을 밝히시며 그 인격들로 하여금 또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빛의 근원 이시다(참조, 요8:12; 고후4:6).

24. ㉠ '인자 같은 이'를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곧 어떻게 되었는가? (17절)

- ㉠ (1)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목격한 후 곧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2) 이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실제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겔1:28; 단8:17; 10:9) 두려움과 떨림에 압도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사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며 만약 그를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알아 왔다(참조, 사13:22).
 (4)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셨다. 이는 마치 당신께서 지상 사역 중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안심시키신 것과 동일한 장면이다(참조, 마14:27; 17:7; 막6:50).
 (5) 이처럼 예수의 오른손은 권능과 위엄과 이 세상을 떠받들 만한 능력을 소유한 것(16절)인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참조, 요13:5).
 (6) 더우기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다.

25. ㉠ 공포에 질려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말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17, 18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셨다. 이 표현은 8절에 하나님에 관해 언급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역사의 시작이시며 역사의 종국을 맺으실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주이시다(참조, 롬11:36).
 (2) 또한 그는 자신을 '산 자'(헬, 호 존)라 계시하셨다. 즉 그분은 영원자로서 그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 생명을 영위하는 존재가 아니시다(참조, 출3:14; 시42:2).
 (3) 이것은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매 순간마다 받아야 했던 요한 당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용어였다. 다시 말하면 이말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게 하였다.
 (4)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과거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사실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당신과 우리 인간과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혀 준다(참조, 막10:45).
 (5)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陰府)의 열쇠를 가졌다'고 자

신을 계시하셨다. 즉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지배하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참조, 마16:18; 고전15:54,55).

- (6) 여기서 '음부'(헬, 하데스)란 단순히 죽음 그 자체를 뜻하며(참조, 삼상2:6) 또 다른 뜻으로서 모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참조, 행2:27,31) 그리고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20:13,14)을 의미하기도 한다.
- (7) 이처럼 예수께서만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분만이 죽음에 이를 자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6. ㉠ '네 본 것' 과 '이제 있는 일' 과 '장차 될 일' 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19절)

- ㉠ (1) 첫째, '네 본 것'이란 사도 요한이 지금껏 목격했던 모든 것(1장)을, 즉 과거의 일을 가리킨다. 이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2) 둘째, '이제 있는 일'이란 위의 환상 속에서 상징되었던 것들, 즉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 관한 내용(2,3장)을 가리킨다. 이것은 오늘날 지상 교회 내에 존재할 문제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 (3) 셋째, '장차 될 일'이란 요한 당시 미래에 전개될 모든 계시들(4-22장)을 가리킨다. 이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이다.
- (4) 이처럼 본질의 표현들을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의 배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시간에 의해 반드시 진행될 사건들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것이다(참조, 서론 ㉠15).

27. ㉠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해석해 주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에 관한 환상을 해석해 주셨다.
- (2) 먼저 '일곱 별'이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하셨다. 여기서 '사자'(헬, 앙겔로스)란 말에 대해 각 교회의 감독 또는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 교회 그 자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달할 자 등 여러 학설이 있다.
- (3) 이러한 여러 학설 가운데 본문의내용을 정확하게 납득시켜 줄 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본서 전체가 교회와 천사와의 상관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각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위임 받은 하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교회)를 보존하고 계신다(참조, 마18:10; 행12:15).
- (5)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셨다. 즉 지상에 존재하는 각 교회들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달하는 도구들이다(참조, 마5:14; 빌2:15). 더우기 교회에 속한 개개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전파자요 증인으로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 (6)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세하게 지상의 교회와 그 교회에 관련된 사실을 해석해 주시며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예수의 사역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참조, 요14:1-3).

28. ㉠ '비밀' 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0절)

- ㉠ (1) '비밀'(헬, 무스테리온)이란 말은 '어떤 모호한 것', '신비스러움' 등의 일반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이 말은 초대 교회 당시 밀교(密敎)들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로써 그 단체에 입교(入敎)

하지 못한 자에게는 무의미하나 그 단체에 입교하여 교리 등을 터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을 뜻한다. 즉 그 단체가 지닌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받은 자에게는 그 뜻이 분명했다.

- (3) 이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본서에는 '교회'의 '비밀' 뿐 아니라 끝날에 있을 환난(10:7), 음녀(17:5), 짐승(17:7) 등의 비밀을 취급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많은 비밀들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참조, 요14:16-20,26).

지도자료

밭모 (Patmos) 섬의 위치



밭모 섬은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상의 한 섬이다. 이 섬은 전체 길이가 약 16km, 폭이 약 10km 그리고 면적이 약 40km²로서 우리나라의 고금도(40.1km²)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이 섬은 건조한 불모지였기에 로마 제국하에서는 유배지로 사용되었다. 사도 요한은 한때 도미티안(Domitian, 81-96) 황제에 의해 이곳으로 유배되었는데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었다(9-11절).

제 2 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단락구분 1-7 굳건하지만 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에의 회복을 촉구하다 / 8-11 가난하지만 부유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중생을 독려하다 / 12-17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요청하다 / 18-19 거짓 선지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요청하다 / 20-29 거짓 선지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굳건한 믿음에 설 것을 강령하다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향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

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 본장과 3장에 언급된 각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과 3장에는 이미 1장에서 제시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런 권면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각 교회의 수신자들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다(1,8,12,18절;3:1,7,14).
 - ②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발신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꼭 밝히고 있다(1,8,12,18절;3:1).
 - ③ 각 교회에 적절한 칭찬과 책망이 제시되어 있다(2-4,6,9,13-15,19,20절;3:1,4,8-10,15).
 - ④ 각 교회에 필요한 권면과 경고가 제시되어 있다(5,10,16,22-25절;3:3,11,16-19).
 - 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제시되어 있다(7,10,11,17,26-28절;3:5,12,21).
 - 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을 통해 각 개인들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환기시키고 있다(7,11,17,29절;3:6,13,22).
-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에게 대해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제셨다. 그러나 그들 개개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충고와 권면은 모두 달랐다.
- (4)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더불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 주는 지침이 된다.

2. ㉠ 본장과 3장에 제시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 대한 소개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라.

- ㉠ (1)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계 2, 3장),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일곱 교회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현준하고 외딴 밧모 섬은 에게해의 소아시아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다. 에베소는 바울의 가장 성공적인 목회지의 하나이며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한 중심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일곱 교회의 사정을 밝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아래에 제시한 도표 중 '상징'란의 시대 구분은 혹자가 주장하는 도식적인 시대 구분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만 개연적 포괄성을 보이는 흥미있는 자료로 제시했을 따름인 것을 밝힌다.

(2)

교회·구분	칭찬받은 미덕	책망받은 죄	승리자에 대한 약속
에베소 정통적인 교회 (2:1-7)	선행, 인내, 교리에 확고함, 교회의 질 서, 굳건함, 악을 미워함(2:2-6)	사랑을 잃어버림, 퇴보함(2:4,5)	생명 나무의 과실 (2:7)
서머나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2:8-11)	영적 인내, 하늘의 보화(2:9,10)	책망이 없음	생명의 면류관 (2:1)

버가모 환경이 나쁜 교회 (2:12-17)	나쁜 환경 가운데 서도 굳건함(2:13)	부패된 교리와 이 단자들을 용납함 (2:14,15)	감추인 신령한 축 복, 기록한 양식 새 이름(2:17)
두아디라 악한 여선지자의 교회(2:18-29)	사랑, 신령한 봉 사, 믿음, 회개 (2:19)	해이한 질서, 부패 된 여선지자를 용 납함(2:20-23)	영적 통치권, 새 벽별(2:26-28)
사 데 죽어 가는 교회 (3:1-6)	단지 소수의 순결 에 대한 칭찬(3:4)	극도의 형식주의, 절 박한 영적 죽음, 무 활동(3:4)	의로운 옷,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고 인정받음(3:5)
빌라델비아 연약하지만 충성 스런 교회(3:7-13)	'말씀'을 지킴, 증 인의 생활(3:8)	기록된 바가 없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됨(3:12)
라오디게아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3:14-22)	기록이 없음	미지근함, 영적 자만 심, 부족을 모름, 영 적 가난, 영적 소경, 영적 수치(3:15-17)	하나님의 교제, 영적 보좌(3:21)

3. ㉠ 사도 요한 당시의 에베소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1-7절).

- ㉠ (1) 에베소는 당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며 로마 군대가 상존하지 않고 자치체가 실시된 자유 도시였다. 왜냐하면 그곳 주민들이 로마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다했기 때문이다.
- (2) 이곳은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세 개의 큰 도로가 한 곳에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The Vanity Fair of the Ancient World)으로 알려져 왔다.
- (3)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다이아나)라는 다산(多産)의 벌(bee)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참조, 행 19:23-41). 그 여신상이 세워진 신전의 규모는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대단히 컸으며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었다. 그 여사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식(祭式)에 매음으로 헌신하였다.
- (4) 그 신전은 또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은행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도피 중인 범인들의 도피처가 되었다. 이러한 신전이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얼마만한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5) 더우기 이곳은 A. 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로마와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으며 그들 황제의 예배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곳은 로마 주권 아래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장(場)이 되기도 했다.
- (6) 이곳 주민들은 아테네 등지에서 유입된 원주민과 그 이전 헬라 식민지하에 살던 원주민 그리고 헬라인 및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도 잡족들이 뒤섞여 살았다. 그래서 하나의 정신적 흐름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 (7) 이처럼 영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온상이며 모든 종교를 용납하여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있던 에베소에 참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소개된다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곳은 복음의 씨앗이 어렵게 심어진 반면 무섭게 성장하여 마침내 복음의 전진 기지로까지 성장하였다.
- (8) 이곳의 자세한 위치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론 ㉠7을 참조하라.

4. ㉠ 에베소 교회의 역사(略史)를 논하라(1-7절).

- (A)** (1)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 때(A.D. 53-58) 세워졌으며(참조, 행20:31), 아골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곳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행18:18,19;19:1-10).
- (2) 그는 제 2차 전도 여행 중 이곳을 잠깐 들르기는 했으나(참조, 행18:19) 본격적인 활동은 제 3차 여행 때 이곳을 찾아와 3여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에베소 뿐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등 자신의 선교 절정기를 이곳에서 보냈다.
- (3) 그 결과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제 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다.
- (4)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참조, 딤후1:3)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하여 활동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 모셔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 (5) 이곳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점차 성장하여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복음의 능력(고전1:18)을 확인한 시험장이었다.

5. C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1절)

- (A)** (1) 예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셨다.
-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는 이미 1:13,16에 제시된 것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 그리고 그의 중대한 관심을 재확인하는 표시로 나타난다.
- (3) 예수께서는 지금도 교회들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셔서 어떤 세력에도 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참조, 요10:28) 또한 항상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 (4) 한편 당신 자신을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한 것은 그가 그들의 촛대를 옮기려고(5절) 에베소에 갈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6. C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는가? (2, 3절)

- (A)** (1) 먼저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다. 여기서 '행위'란 포괄적인 의미로 행동 전반을 가리킨다(참조, 요3:19,20;5:36;요일3:8;요삼1:10).
- (2) 또한 '수고'(헬, 코포스)란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성실함을 가리킨다(참조, 롬16:12;고전15:10).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가 요구된다. 이 요구에 대한 응답은 항상 '예'가 되어야 한다.
- (3) 그리고 '인내'(헬, 휘포모네)란 불리한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끝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참음과 기다림을 가리킨다(참조, 약1:3).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담대히 대처하였었다(참조, 엡1:15).
- (4) 둘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 칭하셨다(마7:15). 그래서 외모로써는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없다(참조, 행20:29).
- (5) 에베소 교회에 유입된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구체적 실례는 없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복음 전파자들의 실체를 바로 분별한 영적 통찰력(마7:15,20;요일4:1,2)과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단호함 등은 관용과 사랑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 (6)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셨다. 즉 그들에게는 비록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탄압과 예수의 성육신(成肉身)하심을 부인하는 악한 무리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간직하였던 것이다.

- (7)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유혹을 떨쳐 버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수고를 요구하신다(참조, 요16:33).

7. **㉠**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점을 책망하셨는가? (4절)

- ㉠** (1)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신에 대한 순결과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으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에 관해 단호히 책망하셨다.
- (2)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가졌던 본래의 기독교 사랑(참조, 행20:35;엡1:15)을 뜻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이 결혼한 신부가 그 남편에 대한 불타는 사랑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참조, 렘2:2-13).
- (3)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맺은 헌신적인 사랑은 적극적인 봉사 중에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아무리 정통성을 자랑하더라도 그것이 성도 서로간에 사랑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참조, 요일4:20,21).
- (4)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年輪)이 오래되면 될수록 찾아드는 위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엡6:5-7).

8. **㉠**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5, 6절)

- ㉠** (1)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지적하신 후 곧 이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로 그들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다.
- (2) 여기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셨다. 첫째, '생각하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각박한 상황과 과거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비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까닭에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없는 결단은 무의미하다(참조, 눅15:17).
- (3) 둘째,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잘못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이 회개는 즉각적이며 단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결단이다(참조, 삼상26:21;눅15:18,19).
- (4)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헛일이다(참조, 마3:8). 회개의 참된 증거는 변화된 행동이요 삶이다(참조, 눅15:20).
- (5)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을 경우 당신의 특별한 방문(재림이 아님)을 통해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 (6)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만을 고집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요15:6;엡1:22).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9. **㉠** '니콜라당'이란 어떤 단체인가? (6절)

- ㉠** (1) '니콜라당'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안디옥 사람 니콜라에게서 찾는다. 그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요, 초대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는데(행6:5) 후에 율법 폐지론자의 기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 (2) 또 한가지는 어원적(語原的) 기원설로 니콜라당의 창시자 니콜라우스의 이름은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라오스>와 '없애다', '정복하다'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의 합성어라는 것이다.

- (3) 이와 더불어 14절에 제시된 ‘발람’은 ‘정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벨라>와 ‘백성’을 뜻하는 <하암>이 결합된 이름이라고 한다.
- (4) 즉 이 두 이름을 통하여 ‘니콜라당’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정복했던 반기독교 집단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 학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 (5) 그들의 가르침은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기독교의 자유와 불신 세계의 방종을 혼동했던 것이다(참조, 갈5:13).
- (6) 둘째,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정신)뿐이고 육체는 악하기에 더러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참조, 행15:29).
- (7)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거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제해 버린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한 유혹이었다.
- (8) 이처럼 그들은 복음의 참된 빛을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위해 가리워 버린 이단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현세와 내세에서의 쾌락 제일주의를 주장하였다.
- (9)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 무리들보다 교회를 더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로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했다.
- (10)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악한 세력과 그 도전은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방지하고 성도 상호간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0. ㉠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끝맺음으로 동일하게 사용된 문구는 어떤 것인가? (7절)

- ㉠ (1) 각 교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라는 말로써 끝맺음을 하고 있다.
- (2) 이러한 표현은 복음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서(참조, 마11:15;13:9;막4:9;7:16;눅8:8;14:35) 이 말의 발화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 (3) 여기서 ‘성령’(헬, 프뉴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참조, 행16:7;롬8:9) 곧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가리키며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나타낸다.
- (4) 그런데 각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끝에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고 있다(11,17,29절;3:6,13,22). 이는 예수께서 매우 강도 높게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나타내 준다.
- (5) 예수께서는 오늘도 당신과 교통하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깨우치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11. ㉠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예수께서는 ‘이기는 자’는 (헬, 토 비콘티)란 원래 전쟁 승어로서 본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으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킨다(참조, 눅11:22;롬3:4). 혹은 이를 순교자로 보기도 한다.
- (2) 또한 ‘낙원’(헬, 파라테이소스)은 ‘공원’ 또는 ‘동산’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다. 이것은 분명히 최초의 인류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창2:8-10)을 연상시켜

주며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암시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22:1-4,14).

- (4) 그리고 '생명나무'는 상징적으로 영생의 진리 또는 죽음과 고난의 추방 및 하나님과 공유하게 될 생동적 원리를 시사하고 있다(참조, 22:2).
- (5) 예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낙원과 그 낙원 안에 있었던 생명 나무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신실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여 오직 그분만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선물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눅23:43).

12. **㉠ 사도 요한 당시의 서머나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 (8-11절).**

- ㉠** (1)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서머나는 인구 20여만의 아름답고 훌륭한 해안 도시였다.
- (2) 호머(Homer)의 출생지로 알려진 이곳은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와 아름다운 호수를 연상케 했으며 무역 뿐 아니라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다.
- (3) 신화에 나오는 아마존(Amazon)이라는 한 여걸이 자신의 이름을 따붙여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도시(B.C. 3000년경)는 그 오랜 역사 속에 문화를 꽃피워 오다가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로마에 충성을 다했다. 그 결과 서머나는 자유시로서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 (4) 이처럼 지역적으로나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소아시아에서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13. **㉠ 사도 요한을 전후한 서머나 교회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한가? (8-11절)**

- ㉠** (1)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았다.
- (2) 그들은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 10,000테나리온(1테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함)을 헌납할 정도로 서머나와 밀착해 있었으며 서머나에 소개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다.
- (3)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기독교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도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 (4) 그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 제 1대 감독 폴리갑(Polycarp)이 들어 있다. 그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당했다.
- (5) 그는 '가이사는 주(主)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 주겠노라는 로마 총독의 권유에 '86년간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 동안 단 한번도 그분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오'라고 대답하고 담대히 화형장에 나섰다.
- (6) 이처럼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참조, 마10:39;19:29).

14. **㉠ 예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8절)**

- ㉠** (1) 예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 (2)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1:17,18을 재언한 것으로서 동족으로부터의 핍박과 버림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인들(9,10절)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분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표현이다. 그분은 악의 득세에도 상관없이 이 땅과 교회를 지배하고 계신다.

- (3)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란 표현은 무욕과 사형을 앞둔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확신하게 만든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앙 성격과 성숙도가 결정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다.

15. ㉠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생활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9절)

- ㉠ (1) 서머나 교인들은 그 생활이 빈핍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환난'(헬, 들립시스)이란 서머나 교회에 들이닥친 종교적 탄압과 핍박을, '궁핍'(헬, 프트케이아)이란 신앙적 순수를 지키려다가 겪게 된 극빈함을 가리킨다.
- (2) 사실 그 당시 서머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참조, ㉠ 12). 그러나 그 풍요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지배 계층들에게 국한되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빈민 계층에 머물러 있었다. 더우기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강제 수탈하는 경우가 흔했다(참조, 히10:34).
- (3) 이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신앙 생활과 물질적 궁핍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참조, 마19:29).
- (4) 그렇지만 물질적인 궁핍이 곧 그 사람의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체적 빈핍은 곧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참조, 눅6:20; 고후6:10).
- (5) 한편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약2:5)고 고백했다.

16. ㉠ '사단의 회(會)'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9절)

- ㉠ (1) 이것은 자신들을 '여호와와 동회'(민16:3;20:4;31:16)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비꼬아 한 말로서 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8:44).
- (2)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로마 정부와 밀착되어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사형장으로 끌어내었다(참조, 행13:50;14:2,5,19;17:5).
- (3) 이처럼 사단과 한 통속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복음과 교회를 핍박한 무리야말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면치 못한다.
- (4)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대의 명분(大義名分)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면 일단은 '사단의 회'로 단정함이 옳을 것이다.

17. ㉠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 내용은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며, 교인 전체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마귀'란 그 구체적인 실체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증오와 시기, 질투로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끝내 로마의 '옥'에까지 기독교인을 밀어낸 것이다.
- (3) 그 당시 로마의 '옥'이란 심문과 고문을 위한 장소라기 보다는 사형 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옥에 던진다'는 것은 곧 죽게 만든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 (4) 한편 '10일 동안의 환난'이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환난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수자는 완전수인(참조, 서론 ㉠ 16) 동시에 짧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느4:12; 사26:20; 고후4:17; 벰전1:6).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있을 환난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실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 (6)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고후4:17,18).

18. ㉠ 예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환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그 환난을 이겨 낸 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10, 11절)

- ㉠ (1) 예수께서는 환난에 직면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또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 (2)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미 그들의 순교를 예고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 '생명이 빼앗기는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충성하라'는 말이다(참조, 빌2:8).
- (3)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사단의 횡포를 방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의 당신께 대한 충성의 천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위의 시험은 그들의 진정한 충성의 소재를 밝힐 것이다.
- (4) 그러나 충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흡족하게 응답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곧 '생명'과 '면류관'을 제공하실 것이다(여기서 '생명의'는 동격 소유격으로서 생명과 면류관은 소유 관계가 아니라 동격적 의미이다).
- (5) 즉 끝까지 충성한 그들에게는 영생은 물론이고(참조, 마19:29)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참조, 고전9:25; 딤후4:8; 약1:12).
- (6) 이 사실을 더욱 확약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충성한 자들은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첫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의 죽음(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참조, 20:14; 21:8).
- (7) 일찌기 예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고 말씀하셨다.

19. ㉠ 사도 요한 당시의 버가모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12-17절).

- ㉠ (1) 내륙 도시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4km 되는 비옥한 카이쿠스(Caicus) 강 연변에 위치하였다. 이 도시는 약 300m 높이의 바위 산 위에 세워진 웅장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 (2) 특별히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반해 이곳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부이자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B.C. 133년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된 이래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 인정을 받고 있었다.
- (3) 이곳에는 장서 20여만 권을 갖춘 굴지의 도서관(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이만한 곳이 없었음)과 유명한 조각품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학 교육 기관 및 신전들(Dionysus, Athene, Asclepius, Demeter)과 황제 숭배의 전들(세 곳) 그리고 제우스를 위한 대제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특히 양피지 개발과 생산이 활발하여 학문과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뒷받침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 (4) 그러나 이 모든 풍요는 예수께서 그곳을 '사단의 위(位)'가 있는 데라고 책망하실 만큼 세상적이고 불건전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풍요는 오히려 더 절망적이다(참조, 눅12:15-21).

20. ㉠ 사도 요한 시대를 전후한 버가모 교회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12-17절)

- ㉠ (1)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도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

- (2) 로마는 황제 숭배를 통해 로마 제국의 단일화를 꾀했으며 황제는 살아 있는 로마의 정신적 실체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법령으로 로마 지배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에 1차씩 황제 신상 앞에 분향하고 '가이사(Caesar)는 주(主)라'는 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아가게 했다.
- (3) 물론 그것이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 책략이었다 하더라도(로마 정부는 가이사 분향 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關鍵)이었다.
- (4) 그러므로 버가모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 (5) 한편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 사상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 내지는 적당주의 사상이 팽배했으며 그것을 기회로 '니콜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 (6) 이처럼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각 성도의 인격을 함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외부로부터의 환난, 내부의 혼미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도전과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참조, 뱀전5:8,9).

21. ㉠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계시하셨다.
- (2) 이는 1:16의 내용을 재언급한 것으로 공의와 권위의 강력함을 지닌 심판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표현이다.
- (3) 한편 로마 총독 중에는 칼을 소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칼을 소지한 총독만이 자기 구역 안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버가모 총독은 이 칼을 소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권력 이상의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 위의 표현을 빌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주관자들 위에 계시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참조, 요16:33; 빌2:10).

22. ㉠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이 '사단의 위(位)가 있는 데' 산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확실히 버가모가 이방신 숭배,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 19,20).
- (3) 특별히 어떤 학자는 버가모에 치유와 의료의 신으로 알려진 뱀 형상을 한 아에스쿨라 피우스(Aesculapius)나 주신(主神) 제우스(Zeus)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사단의 위'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이곳은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음에 틀림없다.
- (4)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굳게 잡아서'라는 말은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적으로 예수를 잡는다는 말이다(참조, 마14:3; 18:29). 즉 그들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5) 그 대표적인 예로 별로 알려진 바 없는 순교자 안디바(이름의 뜻: 모든 것에 반대함)를 들고 있는데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께 대한 사랑을 변절시키지 않았다.
- (6)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다, 여기서 '증인'(헬. 마르투스)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7)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는 일과 순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포 나선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 곧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신다.

23. **㉠**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먼저 버가모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2) 발람에 관한 내용은 민22-25장;31:8,16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당시 유명한 술사로서 모압 왕 발람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을 유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3) 그런데 본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연관지은 것은 이방 신들의 제물을 먹고 (고전10:19-22) 제식(祭式) 매음으로 여사제와 성 관계를 맺던 행위에 대한 고발일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예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으나 그중 몇몇이 세상에 마음을 열어 놓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부흥 뒤에 따르는 실패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5)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기 보다는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받아들여 모든 것을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적당주의란 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6) 두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본장 **㉠** 9를 참조하라.

24. **㉠**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인 중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2) 이런 경고는 발람의 사건과 계속 연관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악행을 저지하실 때(민22:23)와 그를 심판하여 죽이실 때(민31:8) 칼로써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이다.
 (3)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이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한다(참조, 엡6:17; 히4:12).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되지 못한 신앙인과 불신자들을 물리칠 것이다(참조, 살후2:8).
 (4)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에게도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 대부분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 생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범하고 있는 악행을 묵인하였으므로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회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각자는 전체에게, 전체는 각자에게 바른 권면과 사랑의 질책과 아픔을 나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12:12-31; 엡4:13-16).

25. **㉠** 버가모 교회 내의 신앙의 승리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승리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모세가 언약체에 감추었던 만나를 회상케 한다(참조, 출16:33,34; 히9:14). 모세의 만나 단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상기하도록 만든 것이므로(참조, 시78:24), 본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 (3) 그러나 유대 묵시 문학서들(바룩2서29:8;마카비하2:4-6;시빌의 신탁서7:149)에서는 바벨론 침공 때(B.C. 586) 예레미야에 의해 감추어졌던 만나가 메시야가 오시는 시기에 다시 높은 곳에서부터 내릴 것이라 한다.
- (4) 여하튼 이방 신들의 타락한 연회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대찬치를 베풀고 거기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참조, 요6:47-58).
- (5) 한편 '흰 돌'이란 투표하는 돌, 연회의 초청이 새겨진 돌, 승리의 상징, 부적 또는 계수용 돌 등과 관련지어 생각되어 왔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거룩함, 영광, 아름다움(3:4;6:2)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흰 돌'이란 연회와 연관이 있는 만나의 사상과 결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청의 표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 (6) 이 '흰 돌'에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새겨질 것인데 그것은 지금은 세상에 감추어졌으나 장차 가장 권세 있는 이름으로 드러날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이거나(3:12;14:1), 구속을 통한 성도의 새 이름이나 변화된 특성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참조, 사62:2;65:15).
- (7) 이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영광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지니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 2:9).

26. ㉠ 사도 요한 당시의 두아디라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18-29절).

- ㉠ (1) 두아디라는 버가모로부터 동쪽으로 약 72km 내륙에 위치한 상업상의 요충지요 공업 도시였다.
- (2) 이곳은 버가모와 사데를 연결하는 대로상에 위치했는데, 그 길이 동남으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이르렀으며, 서쪽으로 서머나, 비잔틴에 이르렀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우체로였으며 동서의 대상들이 오가는 길이었다.
- (3) 특히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인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던 이곳은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제혁업(製革業) 및 훌륭한 청동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 (4) 이 상업과 관련하여 광대한 무역 조합 또는 노동 조합 망이 널리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도시의 사회, 정치, 경제 및 종교 생활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각 노동 조합마다 그 자체의 수호신과 피로연 그리고 성제 난무를 포함한 제절 축제가 있었다.
- (5) 행16:14에 보면 개종자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여인은 '터어키 레드'라는 자주 물감을 들인 옷 장수였으며 염색 동업 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분명하다.
- (6) 이처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합에 가입하여 그 조합에서 베풀어지는 주연과 제사에 참석해야만 했던 두아디라에서 루디아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이었다.
- (7)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화려한 문화와 연계적인 생산 체제가 이루어져 날마다 주일 성수 문제와 같은 여러 도전들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보다 굳건히 지켜 나가자.

27. ㉠ 사도 요한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18-29절)

- ㉠ (1) 두아디라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으나 추측하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참조,

㉞ 4).

- (2) 이렇게 불분명한 초창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결과 인구 9천 명 정도의 소도시에 약 3천 명 가량의 신자를 확보하는 놀라운 부흥을 하였다.
- (3) 그러나 그들은 부흥과 함께 교회 내부의 심각한 부패를 동시에 맞아야 했다. 즉 그들 가운데는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이 많았으며,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기능(참조, 벵전2:5,9)보다는 사교의 장(場)으로 변해 갔다.
- (4) 이와 같이 아무리 교회의 활동이 다양하고 외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삶이 없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

28. ㉞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18절)

- ㉞ (1)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朱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다.
- (2) 이는 1:14,15에 제시된 장면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격렬한 심판 등을 강조한다.
- (3) 자세한 내용은 1장 ㉞ 23을 참조하라.

29. ㉞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면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가? (19절)

- ㉞ (1)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사업'(헬, 엘가)이란 모든 제반 행동을 뜻하는 말로 본절에서는 연이어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통틀어 한 말이다.
- (3) 먼저 '사랑'(헬, 아가페)이란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의 규범으로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참조, 고전12:31-13:3).
- (4) 둘째, '믿음'이란 그 당시 불신과 이단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이 믿음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
- (5) 셋째, '섬김'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행위이며 동시에 남의 필요를 채워 주는 성실함이다(참조, 고전16:15).
- (6) 넷째, '인내'는 어떤 박해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강건함을 가리킨다(참조, 약1:2-4).
- (7)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한 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든 환난을 견디어 냈다.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다.
- (8) 즉 그들은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에 의해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점점 키워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공동체와 인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진보(進歩)이다(참조, 딤후4:15).

30. ㉞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20절)

- ㉞ (1) 예수께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였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 (2) 초대 교회 당시는 예언의 은사를 지닌 자들을 대단히 우대했으며 사도, 교사, 장로와 함께 선지자들을 자주 지도자로 추대하였다(참조, 고전12:28; 엡4:11).
- (3) 그런데 초대 교회 당시의 여자들 중에도 참된 은사를 받았다(참조, 눅2:36; 행21:9; 고전11:5). 그리고 선지자들은 교훈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교회에 전하거나 예언하기도 했다(참조, 행11:27).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은 했으나(2:2) 밝힐 수 없을 때가 더욱 많았다.

- (4)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히던 한 여인도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선지자라 자처했으며 아마도 그녀는 교회 안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 (5)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그 여자의 경건을 빙자한 술수를 간파했을 뿐(24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따르거나 교회 안에서의 그녀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 (6) 하지만 이 여자의 정체는 이세벨이라는 그녀의 이름에서 드러난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화신(化身)이었다(참조, 왕상16:31).
- (7) 그녀는 이스라엘에 시집오면서 바알 신을 수입해 드려와 전이스라엘에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으며 특히 바알 신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선지자 450인을 적극 후원해 주었다(왕상18:13,19).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수탈하는 비도덕적인 악행도 자행했다(왕상21장).
- (8) 그녀는 전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간음(우상 숭배)을 유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독려했던 사단의 대리자였다.
- (9) 이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삶과 경건한 예배 의식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새로운 신앙 스타일을 도입하여 기독교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앞선 결과 생겨난 타락이었다.

31. **㉠** 이세벨이 주도했던 가르침과 의식은 무엇이었는가? (20절)

- ㉠** (1) 이세벨의 두드러진 악행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 (2) 이세벨의 가르침은 에베소와 버가모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다(6,14,15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행음’을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로 보고 있으나 14절 등의 예로 보아서 예배 의식 중 진행되는 음란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3) 즉 두아디라에 발달되어 있던 각종 조합에 가입한 자들이 그들 조합의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며 또한 그 의식 가운데 벌어지는 성적인 음란에 참석해도 된다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참조, **㉠** 26,27).
- (4) 이세벨은 아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보호를 받으므로 비록 조합의 제식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결코 죄에 물들지 않는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 (5) 더우기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의 습관과 표준을 따를 것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녀의 주장은 예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가르침이었다.
- (6)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자들 중에도 세상의 질서와 표준을 인정하고, 편리를 따라 가치관을 바꾸며, 적당히 신앙 생활하여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전혀 없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부패해 가고 끝내 멸절하게 될 것이다.
- (7)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세상 것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12:2).

32. **㉠**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사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중용하셨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21-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 동조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다(참조, 롬2:4). 그들은 우상 숭배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2) 그 결과 예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을 예고하셨다. 그녀가 즐긴 침상(죄의 침상)은 이제 고통의 침상(병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 침상에서 결코 회복되어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참조, 왕상21:19).
- (3) 또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즉 그녀의 교훈에 집착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에 참여했던 무리들은 환난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 (4) 그리고 '그의 자녀' 곧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승복하여 모든 판단 근거를 그녀에게 두는 자들 역시 영원한 죽음(참조, 11절)을 면치 못할 것이다.
- (5) 이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보다는 자신의 편리를 앞세우는 자들이 당할 최후는 멸망밖에 없다(참조, 약1:15).

33. **㉠** 예수께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그분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되는가? (23절)

- ㉠** (1) 먼저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2) 이것은 불꽃 같은 눈(18절)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당신의 전지성(全知性)과 통찰력을 묘사한 것으로 어떤 악이라도 주의 눈에서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참조, 시7:9; 잠24:12; 렘17:10).
- (3) 여기서 '뜻'(헬, 네프로이)은 기질 또는 삶의 도덕적인 원동력을 가리킨다. 한편 '마음'(헬, 카르디아)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적 생활을 추적한 감정, 생각, 욕망의 총체를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감춰질 수 없다(참조, 히4:12,13).
- (4)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의대로 각각을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렘11:20).
- (5)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慢忽)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고 하였다.

34. **㉠**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4, 25절)

- ㉠** (1)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깊은 것'(고전2:10)을 찾는다고 하는 영지주의(Gnosticism) 사상을 풍자적으로 공격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 아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세벨 집단이 자생하게 되었고 이 집단을 험담하는 말로써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 (2) 또한 이세벨이 '사단의 깊은 진리'라는 말을 직접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 그녀와 그 집단은 사단과 대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본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주장했다.
- (3) 그래서 죄의 본질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실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그 같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이교(異敎)의 깊이(사단의 깊은 비밀)를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더욱 온전해질 것이며 형제들에게는 자유함의 모범이 될 것으로(참조, 고전8:9-11) 믿었다.
- (5) 이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은 집요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위(眞僞)를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적당주의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하기 보다는 성경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을 할 뿐이다.

35. **㉠** '다른 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4, 25절)

- Ⓐ (1) 이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예수의 부탁을 제외한 다른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음행과 우상 숭배 같은 죄들에 관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실 이외의 것이라 할 수도 있다(참조, 행15:28,29).
- (2) 여하튼 두 견해는 동일한 맥락을 지닌 것이므로 모두 취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세벨의 교훈 내지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외의 것을 더 요구하지 않으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실했기 때문이다(19절).
- (3) 그런 뜻에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셨다. 이 부탁은 단순히 그 상태를 보존하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참조, 고전15:58).
- (4) 우리의 올바른 신앙 자세는 자신의 부족을 늘 느끼며 성숙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참조, 엡4:13-15).

36. 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견지(堅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26-28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그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하셨다.
- (2) 이 약속은 시2편의 성취이다. 이 시는 메시아를 노래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참조, 11:18;12:5;19:15).
- (3)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의 왕 노릇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참조, 1:6;3:21;20:6;고전6:2). 이러한 권세는 환난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다.
- (4) 예수께서는 그 권세의 실체에 대해서 '그가 철장(鐵杖)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묘사하셨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정복을 의미한다(참조, 시2:9). 이러한 정복은 악의 파멸과 선의 승리라는 동시적 의미를 지닌다.
- (5) 또한 예수께서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셨다(참조, 눅22:29;요17:18).
- (6) 한편 두번째 약속은 '새벽 별'을 주시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22:16에 나오는 그리스도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승리한 자들은 자신들의 회생의 대가로서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을 의미한다(참조, 눅23:43).
- (7) 그리고 '새벽 별'이 이 세상 핍박의 어둠으로부터 떠올라 최후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 별'(22:16)이라고 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고난받던 모든 자에게 재림의 소망을 안겨 주셨다.
- (8) 뿐만 아니라 이 '새벽 별'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참조, 민24:17;마2:2)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런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 (9) 예수께서는 종말을 맞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고 선포하셨다.
- (10) 그러니 우리들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적인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하자.

제 3 장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단락구분 1-6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버린 사데.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요청하다 / 7-13 중성을 다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인 헌신을 당부하다 / 14-22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과 회개를 촉구하다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 본장에 제시된 교회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2장에서부터 시작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계속으로서 각각의 행위에 따라 각 교회를 책망하며 칭찬하는 내용이다.
- (2) 특별히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극심한 영적 위기를 맞아 빈사(瀕死) 상태에 놓여 있었던 반면 두 교회의 중간에 위치해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
- (3) 물론 본장에 언급된 세 교회 모두는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의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된 기준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위'(18,15절)였다.
- (4) 즉 그들은 입으로 또는 의식(儀式)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칭찬과 책망이 결정되었다.
- (5)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판가를 받게 될 것이다 (참조, 마25:31-46; 약2:14-17).

2. ㉠ 사도 요한 당시의 사데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1-6절).

- ㉠ (1) 사데는 두아디라 남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무역의 요충지인 동시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 (2) 이 도시의 지형은 성채(城砦)와 아데미 신전 및 묘지로 유명하였다. 성채는 약 240m 높이로 사데 북부 고원 지역보다 높게 솟아 있고 그 남쪽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직으로 된 암벽 때문에 사실상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성이었다.
- (3) 원래 이 도시의 부지였던 성채는 적에게 포위당할 때에 주민들의 피신처가 되었다. 이곳은 적으로부터 끝없는 공격을 받았으나 역사상 두 번밖에 점령당한 일이 없었다.
- (4) B. C.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가 이곳을 공격했을 때 2주 동안을 허송하였는데 사데 진영에서 투구를 떨어뜨린 한 병사가 남쪽 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페르시아 군인이 목격하고 그 길을 타고 야간에 습격하여서야 겨우 그 성을 함락시켰다. 이보다 200여 년 후 헬라의 안티오쿠스(Antiochus)가 이곳을 공격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다.
- (5) 한편 이곳의 아데미 신상은 예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과 그 크기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나 완공시키지는 못하였다.
- (6) 사데의 세번째 특징으로선 '일 천여개의 언덕'으로 알려진 무덤이었다. 이는 사데 시내에서 약 11km 떨어진 지평선에 보이는 수백 개의 분묘로 이루어져 있었다.
- (7) 사데는 A. D. 2세기까지도 그 부유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령 아시아의 수도로서 이미 과거에 속한 것이었다. 혹자(Ramsay)는 그곳의 화려한 과거와 퇴폐한 현재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탄식한 적이 있다. 한편 후에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고 순회 재판 도시로 삼았으며, 사데는 로마 원로원에 가이사를 섬길 것을 세울 영예를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그 영예는 서머나에 돌아갔다(참조, 2장 ㉠ 12).
- (8) 양모(羊毛) 산업으로 번창했던 사데는 두번에 걸친 함락과 정복자들의 우민 정책(愚民政策)으로 그 강성함은 사라져 가고 전도시가 무기력해졌다. 그들이 누린 평화는 무기력과 도피와 마음이 잠들어 있는 자의 평화에 불과했다.

3. ㉠ 사도 요한을 전후한 사데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1-6절)

- ㉠ (1) 사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에 관해서는 항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A. D. 2세기에 유명한 성경 학자 멜리토(Melito)가 이곳의 감독이 된 후로 이 교회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2) 이 교회 안에는 니콜라당의 미혹이나, 발람의 교훈 및 이세벨의 악행은 없었으나 그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던 무기력한 분위기에 동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 (3) 즉 복음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신앙적으로 미숙했던 그들이기에 성장을 위한 몸부림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걸터앉아 있었다.
- (4)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성장 및 복음의 확산은 주위 여건이 좋아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죽음의 위협이 교회에 붙어 닥칠 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된다(참조, 고후4:7-15).

4. **㉠** 예수께서는 사데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1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나타내셨다.
- (2) 이것은 1:4,16,20에 이미 언급된 표현들인데,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참조, 1장 **㉠**10).
- (3) 또한 '하나님의 일곱 별'이란 일곱 교회를 보호,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곱 천사를 의미하는데(참조, 1장 **㉠**23,27)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호, 감찰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 (4) 즉 예수께서는 그 당시 무기력하고 퇴락한 사데 교회를 경책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욱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4절)을 보존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당신의 존재를 제시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영과 사자를 보내셨던 것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소수의 미천하게 보이는 무리일망정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탱시키셔서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참조, 왕상18:3,4).

5. **㉠** 예수께서는 사데 교회의 전반적인 형편을 한 마디로 어떻게 요약하셨는가? (1절)

- ㉡** (1) 예수께서는 사데 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하셨다.
- (2) 즉 그들은 철저히 형식주의적인 신자로 변하여 내용과 진정한 헌신이 결여된 채 신앙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사데는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의 발전을 외면한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내로 흡수되어 교회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나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공허한 예배와 가르침만이 남아 있었다.
- (4)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살아 있는 교회만이 핍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한 사데 교회에 대해 생명의 위협이나 이단의 유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참조, 딤후3:12).
- (5) 이 도시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수많은 묘지들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던 사데 교회는 세상에 빛을 전하기 보다 세상의 어두움을 수용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 (6) 이와 같이 교회가 날마다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과 어두운 세상에 대한 진리의 외침이 없을 때(세상과 타협할 때)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고 와해되어 버린다.

6. **㉠** 사데의 죽어 버린 신앙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께서 무엇을 권고하셨는가? (2절)

- ㉡** (1) 예수께서는 사데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와하시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셨다.
- (2) 여기서 '일깨워'(헬, 기누 그레고론)란 현재 시상으로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라는

엄중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 (3) 또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그들이 명분상으로나마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결심과 결행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권고이다.
- (4)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었다. 즉 불꽃 같은 눈으로 엄밀히 파악하시는 ‘하나님 앞에’(헬, 에노피온 투 테우)서 그들이 행해 온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신앙(예배, 세례 교인, 건물)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날마다 종말 의식(終末意識)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내면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했다(참조, 행6:3-8; 11:24; 엡4:13).

7. **㉠**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시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받았으며’(헬, 에이레 파스)는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이미 받은 복음이 현재에도 받아들여진 상태에 있음을, ‘들었는지’(헬, 에쿠사스)는 부정과거형으로서 어느 한 시점에 명확히 들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 (3) 계속해서 ‘지키어’(헬, 테레이)는 현재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는 의미이며, ‘회개하라’(헬, 메타노에손)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번으로 영원한 회개를, 즉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이다.
- (4) 이처럼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에 근거한 회개였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 (5)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가르침에 불순종한다면 예수께서는 사데 사람들이 옛날 고레스에게 습격을 받아 패했듯이(참조, ㉠ 2), ‘도적같이’(불시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참조, 마24:43; 살전5:2).
- (6)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과거의 공적과 신앙 상태를 생각하여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말고 바로 오늘이 예수께서 오실 날이라는 긴장 속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참조, 행20:29-31).

8. **㉠**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 5절)

- ㉠** (1) 이 말은 사데의 의복 관례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그 당시 사데에서는 의복이 더러운 자를 시민 명부에서 삭제하였다.
- (2) 한편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이교도의 생활과 혼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킨다(참조, 14:4; 고전8:7; 고후7:1; 11:2; 유1:23).
- (3) 그러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어떤 세상적 유혹에도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은 자를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당신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 하셨다.
- (4) ‘흰 옷’이란 ‘하나님의 의(義)’, ‘생명’,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3:18; 6:11; 7:9) 이는 순전히 예수의 피 공로(7:14)에 의해 신실한 성도들이 걸치는 옷이다(참조, 롬13:4; 갈3:27). 더우기 이것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새사람 된 표이다(참조, 엡4:24; 골3:10).
- (5) 그리고 ‘함께 다닌다’는 표현은 모든 세상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그리스도와의 영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참조, 21:3).
- (6) 그런데 그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참조, 눅20:35; 살후1:5,11).

(7)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고전15:10)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9. ㉠ 사데 교인 중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5절)

- ㉠ (1) 첫번째 약속은 4절에 언급한 것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2) 두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을 가리킨다.
 (3)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의 이름이 죽기까지 호적부에 등록되었다가 죽으면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죽었다는 표시를 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다(참조, 출32:32,33; 시69:28; 사4:3).
 (4) 이처럼 죽은 자(악인)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인)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상은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 준다(참조, 13:8; 21:27; 단12:1; 눅10:20; 빌4:3; 히12:23).
 (5)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거나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참조, 롬8:38,39). 이것은 구원을 얻은 본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보증이다(참조, 출32:32).
 (6) 세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하다'(헬, 호몰로게오)는 말은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가리키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은(그가 우리를 알고 있으며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참조, 마10:32; 눅12:8).
 (7) 이와 같이 올바르게 신앙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가 참되며 또한 장차 올 그 나라에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참조, 마25:31-40).

10. ㉠ 사도 요한 당시의 빌라델비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7-13절).

- ㉠ (1) 사데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인 빌라델비아는 '작은 에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다.
 (2) 이곳은 서머나와 서북 아시아, 브루기아 및 동방을 연결시켜 주는 주요 도로가 나 있었으며, 특히 로마로부터 드로아, 아드라뫼디온, 버가모, 사데를 지나오는 A.D. 1세기 당시의 최고 역로(驛路)가 통과하는 곳이기도 했다.
 (3) 그 결과 이 도시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이곳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 주변 도시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문화와 언어(헬라어)의 통일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4) 이곳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소재지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로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Attalus II, B. C. 159-138)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Eumenes)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곳 이름을 '필라델포스'(뜻: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명명하였다.
 (5) 한편 이곳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중 A.D. 17년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지진은 인근 10여개의 도시를 강타하여 전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6) 이러한 재난을 보고 받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 A.D. 14-37)는 이곳 주민들을

들보아 주고 도시를 재건하였다. 그 감사의 표시로 시민들은 이곳을 ‘네오가이사라’(Neocaesarea, 새 황제라는 뜻)라고 개칭하였다.

- (7) 그 후 이 도시에 황제 숭배가 정착되자 이곳은 ‘네오코로스’(Neokoros), 즉 ‘신전 관리자’(Temple Warden)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로마 정부와 밀착된 이 도시 내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긴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11. **㉠** 사도 요한 시대를 전후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황은 어떠한가? (7-13절)

- ㉠** (1)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암미아(Ammia)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부터(A.D. 100-160) 큰 부흥을 이루었다.
- (2) 그녀는 초대 교회 내에서 아가보(Agabus)와 빌립의 네 딸(행21:7-14)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녀의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 (3) 이곳 교회의 성장으로 인하여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큰 역사가 있었으며(9절), 2세기 초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에 관한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었다.
- (4) 즉 그 당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인정하고 복음서와 서신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있었으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모든 도전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였던 것이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던 것이다. 이 교회야말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딘 충성된 교회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12. **㉠**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7절)

- ㉠** (1)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다.
- (2) 먼저 예수께서는 ‘거룩한’(헬, 하기오스) 자이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된다’, ‘분리된다’란 뜻으로 인간과 절대적인 차이를 지니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요17:11). 구약에서도 이 명칭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다(참조, 사6:3;43:15;호11:9).
- (3) 계속해서 그분은 ‘진실한’(헬, 알레디노스) 분이시다. 즉 그분은 모방이 아닌 실재이시며 절대 완전하신 분이시다(참조, 요1:9). 또한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시다(참조, 요7:29;14:9-11;요일5:20).
- (4)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윗의 열쇠’, 즉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기서 ‘열쇠’는 왕정 국가 시대에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었다. 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도의 전형으로 많이 언급되었고(참조, 렘30:9)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켰다.
- (5) 한편 위의 묘사는 이사야서에 언급된 히스기야 왕의 국고 맡은 장관인 엘리아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사22:22)고 계시하셨다.
- (6)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아김에게 예루살렘 출입문을 맡기셨던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것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과 사망으로 각각 판가름 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참조, 히10:19-22).

13. **㉠** ‘열린 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이것에 대해 혹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참조, ㉠10)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 또는 기회로 추정하기도 한다(참조, 행14:27; 고전16:9).

- (2) 그러나 각 개인과 교회의 헌신적인 행위를 칭찬한 본문의 맥락 및 12절에 제시된 내용과 위의 견해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해석하는 위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한편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는 말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린 문'이란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통과할 문으로 봄이 타당하다(참조, 요10:7,9).
- (4) 사실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참조, ㉠11)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증거라 할 수 있다(참조, 마5:11,12).
- (5) 그들이 이처럼 배교(背敎)의 위협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난 힘이나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은 능력', 즉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적으로 미약하게 보이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참조, 고전1:18; 빌4:13).
- (6)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신앙적 역경을 딛고 끝내 구원의 문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의해서이다(참조, 요14:6).

14. ㉠ '사단의 회(會)'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며 또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 (1) '사단의 회'란 2:9에 언급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맹렬히 부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 (2) 요한 및 바울과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참된 유대인이란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고, 거짓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공공연히 핍박한 자인데, 그런 자는 적그리스도이다(참조, 요일2:22).
- (3)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여러분에게 유대교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의 활동이 심각할 정도였음을 보여 준다(참조, 행 15:1; 갈3:4).
- (4)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시인하게 만드실 것이다.
- (5)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때(참조, 빌2:10,11)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도 그분과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사49:23; 60:14).
- (6) 이 모든 영광의 동인(動因)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충성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참조, 마19:29).

15. ㉠ '나의 인내의 말씀'과 '시험의 때'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가? (10절)

- ㉠ (1) 먼저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행해 보이신 인내를 본받아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순을 참으라고 격려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참조, 살후3:5; 히12:3).
- (2)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셨던 예수의 삶은 곧 고난 중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려는 당신의 확실한 보증이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2:18)고 하셨다.
- (3) 한편 '시험의 때'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화'로 알려져 있는 때,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여호와와 날’ 또는 ‘큰 환난’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세상에 임할 극렬한 고통의 때로 봄이 타당하다(참조, 14:7; 단12:1; 욥2:31; 막13:14).

- (4)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현세와 내세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현세는 죄악 되고 허무하며, 내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평화의 때를 가리킨다. 이 두 시간 사이에, 즉 현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5) 한편 ‘시험의 때’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묘사된 불신자들이 환난과 멸망을 받게 되며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의 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16. **㉠ 예수께서 ‘속히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임하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공의의 심판과 악한 자들의 멸망을 위해서이고(참조, 마24:48-51; 살후1:7-9) 두번째로는 당신을 신앙하므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다(참조, 히10:37; 약5:8).
- (2) 본절에서 예수께서 ‘속히 임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의 위협이 아니라 충성된 두아디라 교인들이 받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다(2:25).
- (3)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면했던 시험은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10절). 즉 그들이 당면한 시험은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기인된 것이었다(참조, 창49:4,8; 삼상16:1,13; 왕상2:2,25-35; 행1:25, 26; 롬11:11).
- (4)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이 날마다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환경의 시련보다 내부적이고 영적인 갈등인 것이다.
- (5)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충성과 사랑을 딛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이미 확보한 하늘의 상급(면류관)을 빼앗으려 도전하고 있다(참조, 2:10).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세상화하는 작업이다.

17. **㉠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 신앙의 승리를 할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12절)**

- ㉠** (1) 첫째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지진으로 인하여 기둥조차 성하게 남을 수 없었던 적이 있는 빌라델비아의 지형 조건과 너무나 대조되는 약속이다.
- (2) 즉 신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광휘를 떠받드는 기둥으로서 남아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 (3) 둘째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 역시 지진으로 인해 항상 대피해야 했던 빌라델비아 주민들의 사정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에게 도무지 그리스도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그 어떤 충격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직한 약속이다(참조, 롬8:35-39).
- (4) 셋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이다. 그 당시 충성된 도시의 관원이나 이름난 사제들을 위해 종종 사원의 한 곳에 특별한 기둥을 더 세우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예가 주어졌다.
- (5)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 각인에게 주셔서 그 영예와 충절을 길이 보존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새긴 자와 새김 받은 자의 일치 또는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 (6) 넷째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끝까지 승리한 자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기대하며 현실에서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참조, 마5-7장).
- (8)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빌라델비아는 여러 이름으로 개명(改名)된 적이 있었다(참조, ④10). 예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당신의 새 이름을 붙여 주셔서 더 이상의 개명 작업이 없게 하실 것이다.
- (9)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란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나타내며 그 자신만이 아시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거나(19:12) 또는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사62:2;65:15).
- (10)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일 뿐이다(참조, 딤후4:5-8).

18. ㉠ 사도 요한 당시의 라오디게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4-22절).

- ㉠ (1)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지점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뜻: 백성의 정의)는 골로새 및 히에라볼리와 함께 비옥한 루커스(Lycus) 계곡의 도시들 중 하나였다.
- (2)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뻗은 대로마 도로가 그 중앙을 지나가고 있는 라오디게아는 군사 및 무역과 통신의 요지인 동시에 검정색 양모의 생산지로서 당대 제일의 부유 도시로 부상하였다.
- (3) 이 도시에 금융 자산이 대단했음은 키케로(Cicero)가 거액의 신용장을 이곳에서 현금으로 바꾼 사실에서 입증된다. 더우기 A.D. 17년에 이곳을 강타한 지진 복구 작업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힘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 (4) 또한 이곳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으며 눈과 귀에 효험이 있다는 고약도 생산되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멘카루'(Men Karou)의 신전이 있었으며 이 신전 주위에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거래되었다.
- (5) 그런데 이렇게 풍요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 도시가 내세울 만한 유명한 것이 라고는 없었다. 이곳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와 견해에 스스럼 없이 동조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 (6) 이 도시의 가장 취약점은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인데 약 10km 떨어진 수원(水源)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얻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한편 그들이 공급받은 물은 온천과 지하수에서 흘러 나온 것이 뒤섞여 항상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했다.
- (7) 특별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으며 그들은 도시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그들은 한 손에 율법과 한 손에 돈을 걸머진 부유한 종교인들이었다.
- (8)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도시 전체가 지닌 우월 의식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이 도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만한 여유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미지근한 도시였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환경만이 훌륭한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9. ㉠ 사도 요한을 전후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14-22절)

- ㉠ (1)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는(참조, 골4:12,13)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 속에 성장하였다(참조, 골4:16).
- (2) 그러나 이들은 복음에 입각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본서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한 마디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한 아시아 일곱 교회 중 가장 퇴보한 교회가 되었다.

- (3) 한편 이곳 최초의 감독이었던 아킵보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볼 것 같으면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골4:17)는 독려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 (4) 즉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킵보에게 무언가 부족하고 불성실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준엄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
- (5) 물질적 풍요로 인한 나태한 신앙에 지도자의 실책까지 합세하여 라오디게아 교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수면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20. ㉠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證人)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 (2)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따온 헬라어 ‘아멘’은 틀림없고 정당한 것에 자인(自認)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진술과 행동에 인간이 응답하는 말이다.
- (3)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셨는데,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멘’을 생활화하셨다(참조, 사65:16). 진실된 자요 의심할 바 없는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참조, 요14:6).
- (4) 한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회생이었다. 즉 당신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참조, 1:5,9;2:13)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 (5)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다.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예수께서 최초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이다(참조, 요1:3;골1:15).
- (6)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본’(헬, 아르케)으로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가신다(참조, 롬11:36).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은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21. ㉠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15, 16절)

- ㉠ (1)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다. 이 평가는 그들의 열심이 결여된 것(19절)과 그들이 쓸모가 없는 존재들임을 시사한 것이다.
- (2) 여기서 ‘차다’(헬, 프스쿠로스)는 것은 얼음이 얼 정도의 냉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의 냉수를 언급한 것으로 불신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의미한다.
- (3) 그리고 ‘더웁다’(헬, 제스토스)는 말은 물이 끓는 정도의 뜨거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라오디게아 북쪽 11km에 위치한 히에라폴리(Hierapoli)의 유명한 온천수를 상상케 한다. 물론 이 말은 열도 높은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 (4)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러한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여 ‘미지근한’(헬, 클리아로스) 상태를 면치 못했다. 사실 철분과 석회질이 섞인 미지근한 물은 마시는 이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시키기에 족하였다. 이처럼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었다.
- (5)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세상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와 거기에 쉽게 적응하는 것 그리고 풍족한 부를 누림으로 생기는 매사에 무사 안일한 자세를 책망하셨다.
- (6)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며 예수께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참조, 마6:24).

22. **㉠**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의 교만을 어떻게 표출시켰는가? (17절)

- ㉠** (1)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었다. 사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참조, ㉠18).
- (2)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인 풍부를 의미하는 양 착각하고 있었다(참조, 호12:8). 즉 그들 주변의 화려하고 세사적인 문화가 교회 내로 침입하여 그들의 영적 생활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 (3) 예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촉해 보실 때에 그들은 '곤고'했으며 '가련'하였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을 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참조, 시137:8).
- (4) 결국 이런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인의 영적 궁핍과 가련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야말로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기에 족하다(참조, 눅12:13-21).
- (5)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게 된 데는 세 가지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그들의 '가난'이었다. 즉 그들은 신앙적으로 가난하여 예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 없었다.
- (6) 둘째는 그들의 '눈먼 것'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시각 장애자였다(참조, 롬1:21-23).
- (7) 셋째는 그들의 '벌거벗은 것'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도덕적, 영적 부패로 인하여 자신들의 위선되고 더러운 모습이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었던 것이다(참조, 삼하10:4; 사20:4). 제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눈앞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참조, 마25:41-45).
- (8) 이와 같이 세사적인 권세와 풍요가 곧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질 만능주의의 대세에 휩쓸려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추구하는 바가 자신의 몸만을 위한 것이라면 영적으로는 극심한 영양 실조에 빠지게 되고 만다.
- (9) 물론 이 땅에서 물질적인 필요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6:33).

23. **㉠**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치료법을 제공하셨는가? (18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鍊鍛)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사도 베드로의 견해처럼 '믿음'(벧전1:7)을 의미한다.
- (2) 라오디게아의 물질적 부의 원천이 금이었으나, 그들의 영적인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께서 거저 공급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다(참조, 사55:1). 이 믿음만이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다.
- (3) 둘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의 명상품인 광택 있는 검은 양모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 옷이다.
- (4) 마지막으로 '안약(眼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오디게아에 훌륭한 의학교과 효험 있는 안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빈곤과 수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었다(참조, 요9:41).

- (5)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택이 필요하다(참조, 요9:2-7).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눅24:15-31; 골1:26,27).
- (6) 이와 같이 물질적 풍요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적인 기능마저 마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 버린 인간의 영성(靈性)을 회복시킬 수 있다(엡2:1-7).

24. **㉠**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근본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19절)

- ㉠** (1)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헬, 필레오)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레오>는 흔히 신적인 사랑으로 알려진 <아가파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힘을 지닌 사랑이다(참조, 요5:20; 16:27; 20:22). 즉 가장 우정어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 (2) 당신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시고(꾸짖고, 유죄를 선언하시고라는 의미) 징계하신다(참조, 시94:12; 잠13:24; 23:13,14; 29:17; 고전11:32; 히12:6-8).
- (3) 만약 예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무관심하시다면 결코 그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채찍을 드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히12:8)고 했다(참조, 호4:17).
- (4) 이러한 사랑의 채찍을 맞은 자가 취할 태도는 새로운 열심을 지니는 것과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즉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나태와 죄에 대한 무감각을 일소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다시 불붙이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을 동원하여 사랑에 기인한 당신의 채찍을 내리치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열심'과 '회개' 이어야 한다.

25. **㉠**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 (2)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의 책망의 음성(19절)을 듣고 회개하여 자기가 예수의 친구임을 입증하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시기 위해 각자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 (3) 여기서 '서 있다'(헬, 에스테카)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 계신다는 뜻이며, '두드린다'(헬, 크루오)는 말은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심을 가리킨다.
- (4) 예수께서는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오래도록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참조, 눅12:35,36; 벰전3:20).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닫혀진 마음 문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는 인간의 책임에 속한 것이다.
- (5) 이와 같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각자의 인격들에 찾아오셔서 더불어 친교하시기를 원하신다.
- (6) 만약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참조, 고전1:9; 빌2:1)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참조, 요14:23). 반대로 그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단교(斷交), 즉 멸망에 이를 것이다(참조, 요일2:22,23).

26. **㉠** 헬라인의 식사 습관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20절).

- ㉠** (1) 헬라인들은 아침 식사(헬, 아크라티스마)는 간단하게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었다. 점심 식사(헬, 아리스톤)는 주로 집 밖에서 했는데, 이때에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류의 메뉴로 즐겼다.
- (2)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풍성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저녁 식사(헬, 데이프논) 경우였다. 이때는 모든 가족들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겼으며 때로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함께 격의 없는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
- (3) 본절 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겠다'(헬, 데이프네오)는 것은 이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풍성한 식탁과 함께 격의 없는 친교를 나누시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 (4) 이 친교의 자리를 방해할 사람은 전혀 없으며(참조, 롬8:34-39) 음식은 풍성하여 다함이 없고(참조, 22:17) 오가는 대화는 어떤 친구나 애인 사이에서 나누는 내용보다 더 감미롭고 깊은 것이다(참조, 아7:10-13).
- (5) 이처럼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있어질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참조, 눅22:30) 뿐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28:20; 요14:20-23).

27. **㉠**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영광스런 약속을 해주셨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분깃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요16:33)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명예, 즉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명예를 누리고 계시듯이(22:1; 막16:19) 죽기까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 (3) 이는 분명히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이 땅에 불의와 맞서야 하며, 자신의 영적인 나태로 인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참조, 마5:11,12; 고전15:24-28).
- (4) 그러므로 끝없는 죄악의 세력에 도전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짓밟으시고(참조, 시110:1) 이룩하시게 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한 치의 양보와 헤이함도 없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 후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1:6; 2:26; 마19:28; 눅22:28-30; 롬8:17; 딤후2:12).

본장의 요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제 4 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

단락구분 1-3 성령에 감동하여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하다 / 4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들을 보다 / 5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었다 / 6-9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다 / 10-11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 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 ㉠ 본서 가운데 본장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 ㉠ (1) 1-3장까지는 시간적으로 과거 내지는 현재에 당면한 일들이, 공간적으로는 주로 땅의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전우주적이고 초공간적인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 (2) 사실 이곳이 본서의 주요 부분이며 성경의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주석가들조차도 1-3장까지의 해석들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나 본장에서부터는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 (3) 종교 개혁자 칼빈(Calvin) 선생이 본장에 이르러 주석 작업을 겸손히 멈춘 것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 (4) 여하튼 본장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4-22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주위의 묘사로 꾸며져 있으며, 그 모든 일의 끝날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시하신 것들이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본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본장 이하의 내용을 훑어 간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2. ㉡ '이 일 후에'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혹자는 이것을 2,3장에 제시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종결된 바로 직후라고 주장한다. 사실 본장의 계시는 23장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기는 하다. 또한 '이 일 후'란 이 세상이 끝난 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2) 그러나 위의 주장들은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이 일 후'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새로운 환상이나 장면의 변화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된 묵시 문학의 관용귀로 봄이 타당하다.
- (3) 이런 표현 뒤에는 반드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는 종속절이 뒤따른다(참조, 7:1, 9:15; 5:18; 19:1). 즉 이런 표현들은 이후부터 전개되는 계시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사건들이 인간의 상상에서 시작된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현하실 것들임을 신뢰해야 한다.

3. ⓐ 본장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 목격하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여기서 '열린 문'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내비추시기 위해 열어 놓은 하늘의 문을 의미한다(참조, 3:7).
- (2) 이 '열린 문'은 그 문 자체보다 그 문 안에 있는 실체와 사건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자가 겪는 하늘의 경험을 강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3) 이와 유사한 하늘의 경험을 강조한 표현으로 '하늘이 열리다'는 말이 성경에 종종 언급되었다. 즉 에스겔의 환상(겔1:1)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면 서(마3:16; 막1:10), 나다니엘에게 대한 약속에서(요1:51) 그리고 스테반의 환상(행7:56) 및 베드로의 환상(행10:11) 등에서 언급되었다.
- (4)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참조, 1장 ⓐ19)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 (5) 이 메시지는 예수께로부터 전해진 것인데(1:10-20), 사도 요한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차원을 초월한 시각과 통찰력을 부여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고후12:2).
- (6)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이 땅에 전할 사도 요한에게 당신이 계획하셨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보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다.
- (7)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자였지만 그를 당신의 동역자(同役者)로 삼으시고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 (8) 이것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다. 이 은혜는 그 종류는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공급되고 있다(참조, 민6:25; 엡2:7; 히4:16).

4. ⓐ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목격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난 후 곧 이어 무슨 일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2절)

- Ⓐ (1) 그는 곧 성령에 감동(感動)되었다. 즉 그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악된 이성과 지혜로는 당신의 오묘한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당신의 영 안으로 인도하셨다(참조, 요14:26).
- (3)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지각 능력을 위시한 온 인격이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고후12:2,3).
- (4)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참조, 시119:18; 요14:16,17).

5. **㉠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약속하라 (2, 3절).**

- ㉠** (1) 사도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더우기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으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절대 지존(至尊)하시며 거룩하시며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왕상22:19; 시47:8; 사6:1; 겔1:26-28; 단7:9).
- (3)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분의 초월하신 모습에 대해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 외에 더 이상의 묘사를 거부하고 있다(참조, 왕상22:19; 대하18:18; 시47:8). 다만 그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석에 비겨 표현할 정도였다.
- (4) 즉 그는 '벽옥'(碧玉)과 '홍보석' '갈고'라는 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묘사하였다. 여기서 '갈고'(헬, 호모이오스)란 말은 신적이며 초감각적인 대상을 단지 이 땅의 사물에 전주어 묘사한 것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각과 표현의 한계를 보여 주는 단어이다.
- (5) 한편 '벽옥'은 아주 맑은 보석으로 거룩과 정결(참조, 28:19,20; 출28:17-20)을, '홍보석'은 피같이 붉은 색을 띤 것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각각 상징한다.
- (6)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참조, 창9:12,13)이며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21:19). 결국 보좌 주위에 둘러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 (7) 이처럼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의 자리에 앉으셔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건과 역사와 인격은 이 땅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6. **㉠ 영광스런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4절)**

- ㉠** (1)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흰 옷과 면류관을 착용하고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 (2) 여기서 '장로들'이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경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실재한다. 이들은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보기도 하고(참조, 5:8; 11:17,18; 19:1-5) 성도들의 대표자로 보기도 한다(참조, 5:10; 출19:7; 24:1).
- (3)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10,11절; 7:11,12)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역(5:8)을 성실히 감당한다.
- (4) 그런데 이들은 권세를 상징하는 보좌에 앉을 정도의 영광(골1:16)과 정결하고 충성스런 자에게 입혀지는 흰 옷을 입을 만큼의 신실함(3:5)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얻을 만큼의 성실함과 존귀함(2:10)을 소유하였다.
- (5) 특별히 이들의 수가 24명인데 그 중요성을 놓칠 수 없다. 성경에는 '12'라는 수자가 완전성, 하나님의 통치 등을 의미(참조, 서론 ㉠16)하며 이에 곱절인 '24'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24장로'란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존재들의 대표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힘쓰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
- (6)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 대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참조, 골3:16,17).

7. **㉠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장식되고 전개된 장면은 어떠했는가? (5, 6절)**

- A** (1) 먼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다. 이것은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顯現)을 나타낸다(참조, 출19:16; 겔1:13).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핵이다.
- (2) 두번째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는 1:4과 3:1의 내용을 참조하라.
- (3) 세번째로 '보좌 앞에 수정(水晶)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것은 수정과 유리의 맑은 속성을 강조한 표현(참조, 출24:10; 겔1:22)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히4:13).
- (4) 네번째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다. 이는 이사야서의 스랍(사6:2) 및 에스겔서의 그룸(겔1:5-25; 10:1-22)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 (5) 즉 이것은 장로나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최고 지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다고 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에 감명을 받은 지혜로운 존재들임을 보여 준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장식과 장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 (7)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그분을 중심한 삶과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롬14:8; 갈2:20).

8. C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을 형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7, 8절).

- A** (1)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은 구약 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과 유사하다(참조, 겔1:10). 차이점이 있다면 본서에 나오는 생물은 각각 하나의 얼굴과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에스겔서에 묘사된 생물은 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겔1:6).
- (2) 먼저 요한이 본 네 생물의 모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첫째 생물의 모양은 '사자'와 같았다. 사자는 짐승의 왕자로서 용기와 왕적 권위를 표시한다(참조, 왕상7:29; 10:20; 대하9:18,19).
- ② 둘째 생물의 모양은 '송아지' 같았다.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로 힘을 상징한다(참조, 왕상7:25).
- ③ 셋째 생물의 모양은 그 얼굴이 '사람' 같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영특하며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참조, 창1:27).
- ④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자로서 가장 신속하게 행동한다(참조, 겔17:3,7).
- (3) 그 다음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날개'는 무한한 기동성을 상징한다(참조, 사6:2).
- (4) 끝으로 네 생물의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C**7을 참조하라.
- (5) 위에서 볼 때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민첩한 것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C 4복음서를 요한이 본 네 생물의 얼굴 형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라(7, 8절).

- A** (1)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들의 얼굴 형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구성되는 4복음서의 독특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초대 교회 이래의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2) 그런데 어느 생물의 형상이 어느 복음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견해로 집약된다.

- ① 이레니우스(Irenaeus)의 견해 :
 마태복음 - 사람, 마가복음 - 독수리, 누가복음 - 소, 요한복음 - 사자
- ②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견해 :
 마태복음 - 사람, 마가복음 - 소, 누가복음 - 사자, 요한복음 - 독수리
- ③ 빅토리누스(Victorinus)의 견해 :
 마태복음 - 사람, 마가복음 - 사자, 누가복음 - 소, 요한복음 - 독수리
- ④ 어거스틴(Augustine)의 견해 :
 마태복음 - 사자, 마가복음 - 사람, 누가복음 - 소, 요한복음 - 독수리

(3) 그러나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견해 중 어거스틴 설(說)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그의 설이 사실과 잘 부합된다.

(4) 즉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사자'로 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유대의 왕(사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참조, 마1:1,21).

(5) 그 다음 마가복음은 '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마가복음이 예수의 인간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막3:20;4:38).

(6) 또한 누가복음은 '소'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누가복음이 남녀 인간의 고향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눅2:32;19:10).

(7) 끝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듯이 요한복음이 '성육신'(요1:1-18), '세상'(요1:5,10-12), '영광'(요1:14-18; 2:19;11:4;12:33;21:19), '중생'(요1:12,13;3:1-10;8:39-45) 등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가장 탁월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0. **㉠** 요한이 본 네 생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8, 9절)

- ㉠** (1)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였다. 특히 여기서 그들이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식의 표현 방법이다(참조, 사6: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거룩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참조, 출3:14).
- (3)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을 찬양하였다. 이와 같이 전능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창18:14;렘32:27;마19:26;눅1:37).
- (4)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시90:2)은 영생(永生)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해 준다.
- (5) 이상과 같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시148편).
- (6)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시103:22).

11. **㉠** 요한이 본 24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0절)

- ㉠** (1)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있었다.
- (2) 여기서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고대에서 어떤 왕이 다른 왕에게 항복할 때

완전한 승복(承服)의 표시로 승자의 발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 던졌던 관습과 관계가 있다.

- (3) 즉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린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주(主)로 모시는 행위였다.
- (4) 이러한 사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통치권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 (5)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自我)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主)로 고백하며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주가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참조, 빌2:10,11).

12. ㉠ 24장로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10:6;15:7) 네 생물들과 마찬가지로(8,9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첫째, 그들은 여호와를 주(主)시요 하나님이심을 찬양했다. 여기서 '주와 하나님'(헬, 퀴리오스 카이 데오스)은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공식 칭호였다(참조, 서론 ㉠ 5).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오직 한분 여호와만이 주 하나님 되신다는 찬양은 어떤 피조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闡明)하는 것이다.
- (3)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양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지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꺾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 (4) 셋째,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창1:3-31)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골1:16,17).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기는 했지만 창조할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변경시키고 재배치할 수 있을 뿐이다(참조, 창1:28).
- (5) 이상과 같은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참조, 마10:32; 롬9,10; 요일4:2,3).

본장의 요절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1절).



제 5 장 일곱 인(印)으로 봉한 책

단락구분 1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印)으로 봉한 책을 목격하다 / 2-4 인을 떼 자가 없음 / 5-7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다 / 8-10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양을 찬양하다 / 11-12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어린양을 찬양하다 / 13-14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을 찬양하다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상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1) 본장(本章)은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일곱 인봉을 떼는 데까지 계속되는 환상(6:1-8:1)의 일부분이다.

(2) 우선 본장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심판의 권한을 지니신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미래에 되어질 비밀을 간직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사실이다(5-7절).

(3) 그 다음 본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 및 모든 만물이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양을 경배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8-14절).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린양이 죄없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이다(9절).

(4) 우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닌 본장을 통해서 어린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참조, 요5:22; 행10:42; 17:31; 롬2:16; 딤후4:1).

2. ㉠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 (1절)

- ㉠ (1)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 여기서 ‘책’(헬, 비블리온)이라 함은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본(codex)이 아니라 종이를 길게 이어 가로 등글게 접은 ‘두루마리’를 가리킨다(NIV, RSV, scroll).
 (3) 그런데 본질의 ‘안팎으로 썼고’라는 표현은 요한이 본 두루마리의 양면에 말씀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고대인들이 두루마리를 사용할 때는 안쪽 한 면에만 세로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상례였으나 본질의 두루마리와 같이 특별히 양면에 글을 쓴 두루마리를 ‘오피스도그래프’(opisthograph)라고 불렀던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5) 이 오피스도그래프는 한 쪽에만 글을 쓴 보통 두루마리들과는 달리 사적(私的)으로만 사용되는 비매품이었다(Edward, Maunde, Thompson).
 (6) 또한 본질의 두루마리는 ‘일곱 인(印)으로’ 봉(封)해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하며(참조, 서론 ㉠16) 하나님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런 것임을 상징한다.
 (7)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의해 발견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롬16:25; 고전4:1; 엡3:3).

3. ㉠ 요한이 목격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제시되었다.
 (2) 첫째, 어떤 학자들은 고대 로마의 유서가 여섯 개의 인으로 봉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유서와 동일시했다(Zahn).
 (3) 둘째, 다른 학자들은 에스겔의 두루마리처럼 이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 있으며(겔2:9,10), 장차 일어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Walvoord).
 (4) 셋째,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매매 증서’로 보고 있다(참조, 렘32:10-14). 즉 그들은 이 두루마리가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창조물의 ‘매매 증서’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속(代贖)하심으로 이를 다시 찾으셨다고 말한다(J. A. Seiss).
 (5) 넷째, 최근의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구약의 토라(율법)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Lucetta Mowry).
 (6) 이상에서 언급한 견해들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비판받을 약점을 지니고 있다.
 (7)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오직 계시록 자체를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8) 그렇게 볼 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반면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6:4,6,8,10; 7:3-17).
 (9)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오늘날에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계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내며 엮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출15:18; 시75:8; 사40:10).

4. ㉠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印)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 (1) 사도 요한이 목격한 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1절).

- (2) 여기서 이 두루마리가 인봉(印封)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직 다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3) 그 반면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편다는 것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啓示)하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 (4)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한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40:8)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케 한다.
- (6)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왕상8:56;겔12:25;단9:12;마5:18;벧전1:23-25).

5. **㉠** 힘있는 천사가 외친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 (1)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힘있는 천사(10:1;18:21)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다.
- (2) 여기서 ‘합당하다’(헬, 아크시오스)는 말은 능력이나 권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선함(goodness)이나 의로움(righteousness)이라는 측면에 관련된다.
- (3) 이렇게 볼 때 힘있는 천사가 외친 말은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펼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의로운가?’라는 내용이 된다.
- (4)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 (5)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12).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비록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합2:4;롬1:17;히10:38).

6. **㉠** 힘있는 천사가 질문한 대상은 누구인가? (3절)

- ㉠** (1) 힘있는 천사가 ‘누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펴기에 합당한가?’라고 외쳤을 때(2절) 그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었다.
- (2) 이렇게 보는 이유는 3절에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하늘 위’와 ‘땅 위’ 그리고 ‘땅 아래’라는 표현은 우주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전우주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참조, 출20:4;빌2:10).
- (4) 이러한 사실은 천사가 외친 선언이 우주 만물에게 미치는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장차 악인이 심판을 당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은 구원과 상급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암시를 통해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었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 전체에 당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에 대한 시야를 더욱 폭 넓게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생각하며 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후13:5;갈6:4).

7. ㉠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천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2절)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었다(3절).
- (2) 이에 요한은 큰소리로 울었다. 그가 이처럼 눈물을 흘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3) 첫번째 이유는 그 자신이 약속받은 이상(異象)을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요한은 4:1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천사의 음성에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는 줄 알았던 것이다.
- (4) 첫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그 두루마리(1절)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그와 더불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다(참조, 고전15:19). 만약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열정이 없다면 현재 처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없을 것이다.

8. ㉠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5절)

- ㉠ (1) 24장으로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 인(印)을 떼시리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는 구약의 족장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예언(창49:1-28)에 관련된다. 그 예언에서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라고 하였다(창49:9). 이와 같이 유다가 사자 새끼라면 '사자'는 유대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된다.
- (3)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자의 힘과 짐승의 왕자로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전능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였다(외경 에스드라후서12:31).
- (4) 또한 '다윗의 뿌리'는 사11:1,10에 근거한 표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마1:1; 롬1:3).
- (5)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달리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며(빌2:6) 또 그분은 다윗과 다윗 가문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요1:2,3).
- (6) 위에서 볼 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 (7) 이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9,10,12절).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울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 모독한다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9. ㉠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하나님의 독생자(獨生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마1:21; 요3:16) 또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으셨다(마9:13).
- (2) 이와 같은 예수의 사역(事役) 가운데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으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일이었다(롬5:8).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전 15:4,17).
- (4)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의미한다(참조, 요16:33). 이 같은 사실은 본질에 '이기었으니'라는 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5)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어 펼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다(골2:14,15).
- (6)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단과의 영적 투쟁(엡6:12)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3:21).
- (7) 그런데 그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계17:14).

10. ㉠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라(6절).

- ㉠ (1)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어린양'이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에 유월절(逾越節)의 '어린양'으로(출 12:3-11)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고난의 종'으로(사53:7) 예표된 사실과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참조, 요1:29,36; 행8:32; 뱀전1:19).
- (2) 그런데 그 어린양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 어린양으로 상징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4:7,8) 사이에 위치한 것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仲保的)인 사역(롬8:34; 히7:25)을 강조한 것이다.
- (3) 또한 그 어린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 여기서 '일곱 뿔'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며(참조, 신33:17), '일곱 눈'은 '은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인간의 모든 속사정을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을 상징한다(1:4;3:1).
- (4)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으며 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 (5) 이와 관련하여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 중에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내주(內住)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참조, 요14:26;15:26; 16:7-15).

11. ㉠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첫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계시자로서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현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격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참조, 신18:18; 요8:26;12:49;14:10; 행 3:22).
- (2) 둘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을 펴실 때 이 땅에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참조, 사9:6,7; 숙9:10).
- (3)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4)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즉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삼상3:10).
- (5)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역사는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인(印)침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자기의 주(主)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20:13,14; 요5:29). 이러한 역사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천재를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12. **㉠**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본절의 '거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키다라스>는 오늘날의 하아프와 같이 몇 개의 현(絃)이 달린 고대의 현악기이다(KJV, RSV, harp).
- (2) 그런데 이 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많이 사용하였다(참조, 시33:2; 98:5; 147:7).
- (3) 본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거문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한다(9절; 4:8-11).
- (4) 또한 본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암시한다(참조, 8:34).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 의심하지 말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빌4:6).

13. **㉠**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9절)

-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관해 부른 '새 노래'이다.
- (2) 여기서 '새 노래'의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스>는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 (3)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막10:45)가 우리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그분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것이다(골5:19).
- (4) 이 같은 노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전혀 부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중생을 체험한 인격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5)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애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 기쁨과 새 평화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러한 기쁨과 평화와 힘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다(참조, 사40:31).

14. **㉠**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양에게 드린 찬양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막10:45; 딤후전2:6; 벰전1:19).
- (2)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종족이나 성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였다(참조, 갈3:28).

- (3) 세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는 죽음임을 찬양하고 있다(10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양자(養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역사의 한 정점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20:4-6). 특별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을 삼으셨으니’에 대해서는 1장 ④11을 참조하라.
- (4)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 (5)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완전한 증거이다(참조, 요 3:16; 롬5:8).
- (6)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이다(막16:15).

15. ㉠ 천사들이 어린양을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업적에 대해 찬양한 반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 부분에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은 구약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모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송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참조, 대상29:10-12).
- (3) 이로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다윗의 이 찬송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우기 이 같은 사실은 시대와 상황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이제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첫째, 그들은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다(고전1:24).
- (6) 둘째, 그들은 부(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찬양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자’로서(고후8:9)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까지 부여해 주신다(막10:29,30).
- (7) 세째, 그들은 지혜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서(고전1:24) 하늘과 땅의 일에 관한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참조, 약1:5).
- (8) 네째, 그들은 힘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의 세력, 곧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눅11:22).
- (9) 다섯째, 그들은 존귀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主)로서 존귀함을 입고 계신다(빌2:10,11).
- (10) 여섯째, 그들은 영광이 그리스도께 속함을 찬양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요1:14; 히2:9).
- (11) 일곱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위해 사셨고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행24:15; 살전4:14; 뱀전1:3).
- (12)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찬송과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특권이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것이다(참조, 막11:9,10).

16. ㉠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드린 찬양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우주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양을 드린다.
- (2) 그런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라고 한 만물들의 찬양은 12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과 그 내용이 중복된다.
- (3) 그러나 12절에서 천사들이 찬양한 일곱 가지 사항(참조, ㉠ 15)은 모두 한 관사 아래 걸려 있으나 이에 비해 본절에 나오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라는 네 단어가 모두 각각의 관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본절에 기록된 만물들의 찬양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또한 12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 제목이 7개인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본절에 기술된 만물들의 찬양 제목이 4개인 것은 지상의(참조, 서론 ㉠ 16)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 (5) 그 외에도 본절에서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성부 하나님)와 '어린양'(예수 그리스도)께 동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지위에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요10:30).
-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만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시91:11; 히13:14,15).

연구자료

복음송(Gospel Song). 본장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8-10절). 그런데 요즈음 못 성도들간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복음송도 기존 찬송과는 그 형식이 다른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음송의 역사는 19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00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집회시 회중들이 부르기가 쉬운 곡에 가사를 붙인 복음송을 창출하였다. 이후 1840년경에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찬송가에도 이 같은 형식의 찬송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는데 부흥사 무디(D. L. Moody, 1837-1899)와 그의 음악 담당자 생키(I. D. Sankey, 1840-1908)의 활동은 복음송이 온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복음송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성도들의 신앙적 간증, 하나님께 대한 찬양 등을 어린이들도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가사와 곡에 붙인 것으로서 전도를 목적으로 갖는 부흥 집회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인간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데 치중하는 저속한 복음송이 양산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는 엄히 삼가해야 할 일이다.

제 6 장 차례로 개봉되는

여섯 개 봉인(封印)

답학구분 1-2 첫째 인, 흰 말을 탄 정복자 / 3-4 둘째 인, 전쟁의 적색 말 / 5-6 세째 인, 기근의 검은 말 / 7-8 / 네째 인, 사망의 청황색 말 / 9-11 다섯째 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다 / 12-17 여섯째 인, 천재지변을 일으킨 어린 양의 진노와 악인들의 공포

- 1 내가 보매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 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 5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 7 네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 ㉠ 6-18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들인가?

- ㉠ (1) 대환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6-18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 (2) 그러나 우리는 현 세대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중간에 대환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참조, 겔7:8;36:19;마24:21).
- (3)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난은 절정을 이루는데(15-18장) 이 시기를 특별히 '마지막 때'(참조, 단12:4,13)라고 부른다(참조, 17절).
- (4)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마24:36)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를 예정해 놓으셨으며(전3:17;마24:35),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5) 아울러 우리는 본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바 대환난시 일어날 구체적인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깨어 있는 신앙이 되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마24:42,43;눅12:40).

2. ㉠ 본장이 계시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라.

㉠ (1) 6-18장은 계시록의 중심 부분으로 그 핵심 주제는 대환난이다.

- (2) 이 부분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6장과 7장은 일곱 인의 재앙을, 8장부터 14장까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우리는 이 삼중의 대환난이 모두 일곱 인(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서 전개되고 있으며(8:12)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에서 발전된 것이다(11:15;15:1).
- (4) 어쨌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 중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이 기록된 본장은 대환난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 해당한다.
- (5) 한편 6-18장은 대환난에 관한 내용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부분에는 군데 군데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참조, 9-11절;7:1-17;14:1-5).
- (6)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불신자들의 멸망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잘 보여 준다.

3. ㉡ 일곱 인(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일곱 인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 (2) 먼저 과거 해석법(The Preterite Method)을 따르는 학자들은 첫째 인의 흰 말은 페르시아 제국을, 둘째 인의 붉은 말은 로마 제국을, 세째 인의 검은 말은 도미티안(Domitian, 81-96) 시대의 기근을 그리고 네째 인의 청황색 말은 네로(Nero, 54-68) 시대의 기근과 흉년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Holtzmann, Swete).
 - (3) 그 다음 전역사 해석법(The Continuous-Historical Method)을 따르는 학자들은 일곱 인의 내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 (4) 또한 이상주의 해석법(The Idealist Method)을 따르는 학자들은 일곱 인의 내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 (5) 이상에서 언급한 주장들은 일곱인을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및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건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있다.
 - (6)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 당시의 비극적이며 혼란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 핍박을 가한 특정한 인물들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들이 일면 타당성을 가지나 우리는 이들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7) 오히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 해석법(The Futurist Method)에 따라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서론 ㉠ 15).
 - (8)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5:7)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일곱 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쟁, 기근, 지진, 불신자들의 핍박, 하늘의 이상(異象) 등의 종말적인 사건들에 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마24:1-35;막13:1-37;눅21:5-33).

4.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5:7)께서 일곱 인 중 여섯 인을 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① 첫째 인부터 네째 인을 떼는 장면: 네 말 탄 자가 지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옴(1-8절).
- ②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함(9-11절).
- ③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변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감(12-14절). 그리고 지각이 변동하고 땅 위의 모든 불신자들이 공포에 떨(14-17절).

(3)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진노의 큰 날'(17절)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한다.

(4) 특히 본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후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13:10; 욥2:30,31; 3:15) 예수께서도 친히 언급하신 것이다(마24:29,30).

5. **㉠** 1-8절에 기록된 네 말과 그 말 탄 자들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이상(異像)을 스가랴 선지자의 네 병거 이상과 관련시켜 설명하라.

- ㉠** (1) 슥6:1-8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홍마와 흑마 그리고 백마와 어릉지고 전장한 말들을 각각 실은 네 병거를 이상 중에 목격한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 (2) 거기에서 네 병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들(바벨론과 애굽 등)을 징계하기 위해 풀려진 것이다.
- (3) 즉 스가랴의 이상에서 네 병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었다(슥6:5).
- (4) 우리는 이 같은 스가랴의 이상이 이 부분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이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이상을 모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6)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라는 견지에서 네 말과 그 탄 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가랴와 사도 요한의 이상은 별개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7) 즉 우리는 이 부분에 나오는 네 말과 그 탄 자들을 강력한 네 개의 파괴력을 지닌 것들로서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참조, 단7:1-8).

6. **㉠** 1-8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에는 어린양이 네 생물들(4:6)을 통해 네 말과 그 말 탄 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5:6) 네 말과 그 말 탄 자들은 지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행하는 자들로 상징되어 있다.
- (3)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심판을 집행하시며 관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참조, 요5:22; 롬2:16).
-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골1:16,17)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롬5:8)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의 주요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사9:6,7; 슥9:10) 당신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요16:33).

7. **㉠**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대하여 하였던 말인가? (1,

3, 5, 7절)

- Ⓐ (1) 이 부름에 대해서는 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는 설과 ②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설과 ③ 말 탄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설 등 세 가지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 (2) 이중 ①의 견해는 ‘오라’는 말이 어떤 사본들(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와서 보라’(헬, 에르쿠 카이 블레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KJV, Come and see).
- (3) 이 견해는 일면 타당성을 지니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사본들(알렉산드리아 사본, 에브라임 사본, 풀피리안 사본 등)이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단지 ‘오라’(헬, 에르쿠)라는 표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RSV, NIV, Come).
- (4) 한편 ②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곱 인(印)을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므로(1절) 네 생물이 그리스도를 ‘오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5) 마지막 ③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문장의 전후 관계를 보면 네 생물의 ‘오라’는 부름에 호응하여 말탄 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8. ㉠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2절)

- Ⓐ (1)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2) 첫째, 복음의 승리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Alford, Ladd).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묘사는 19:11-16에 있는 그리스도의 묘사와 유사하다.
- ② 본서 전체를 통해서 흰 색의 상징은 언제나 의(義), 즉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참조, 1:14; 2:17; 3:4,5,18; 4:4; 7:9,13,14; 20:11).
- ③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마24:14; 막13:10).
- (3) 둘째,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Beckwith, Bruce, Caird, Swete, Walvoord).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양은 인(印)을 떼고 있기 때문에 말 탄 자 중의 하나로 볼 수 없다.
- ② 하늘의 영적 존재인 네 생물(4:6)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오라’고 불러낼 수는 없다.
- ③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는 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겔39:3).
- (4) 셋째, 장차 나타날 어떤 정복자를 의미한다(Robert Mounce, William Barclay).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흰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참조, 서론 ㉠ 17).
- ② 흰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군사력을 상징한다(시46:9; 렘49:35; 51:56; 호1:5).
- ③ 본질의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표현은 흰 말 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가리킨다.
- (5) 위에서 볼 때 세 가지 견해는 각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 (6)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흰 말 탄 자는 장래의 어떤 정복자를 가리킨다는 세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즉 전쟁에서 승리할 흰 말 탄 자는 유혈(流血),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나머지 세 말 탄 자들(3-8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16,17절) 이 땅 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9. ㉡ 둘째 인을 떼 때에 등장하는 붉은 말 탄 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3, 4절)

- Ⓐ (1) 어린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붉은 말 탄 자’는 유혈과 전쟁을 상징한다. ‘붉은 색’은 살육을 상징한다(참조, 왕하3:22,23).

- (2) 그런데 흰 말 탄 자가 국제적인 전쟁을 상징한데 비해 붉은 말 탄 자는 특별히 엄청난 규모의 내란과 혁명을 상징하고 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4절)는 말 속에서 굉장한 위기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 (3) 즉 붉은 말 탄 자는 이 세상 종말에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이, 친구와 친구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사19:2;속14:13;마10:21;24:7).
- (4) 한편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라.
- (5) 이것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되어지는 일임을 나타낸다.
- (6)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참조, 창3:16-19).
- (7)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느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시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 (8) 여하튼 우리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멸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잡아먹는 일이 땅에 만연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마24:7-9).

10. ㉠ ‘검은 말 탄 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5, 6절)

- ㉠ (1) ‘검은 말 탄 자’는 가난과 기근을 상징하며 ‘검은 색’은 전쟁과 유혈의 결과인 슬픔, 애곡, 황폐를 상징한다(참조, 사50:3;렘4:28;애5:10).
- (2)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기근과 가난에는 극심한 인플레이 현상이 뒤따른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6절).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만한 값어치의 돈이 한끼 먹을 양식만 마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심각한 인플레이이다. 혹자에 의하면 그러한 물가 상승은 평상시보다 12배 가량 인플레이가 조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러한 기근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사치품으로서 ‘감람유(橄欖油)와 포도주’를 소유하게 된다(참조, 잠21:17).
- (4)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비참하게 사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찾아 볼 수 있다.
- (5)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와 오면 울수록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참조, 마24:7).

11. ㉠ 네째 인을 뭘 때에 등장한 청황색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7, 8절)

- ㉠ (1) ‘청황색’(헬, 클로로스)은 누르스름한 초록색, 즉 식물의 연한 초록색으로(King James II Vesion, pale green)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창백함을 묘사하는 말이다.
- (2) 이 새파랗게 질린 색깔은 그 말 탄 자의 이름, 즉 ‘사망’과 잘 어울린다.
- (3) 그런데 여기서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 ‘죽음’이라는 의미 이외에 ‘역병’(疫病)의 뜻도 갖고 있다(RSV, NIV, pestilence).
- (4) 이로 미루어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 뒤에 오는 온역을 상징한다(렘14:12;겔5:17;눅21:11).
- (5) 그런데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온역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에 의해 이 땅 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일 권세를 얻었다(8절).
- (6) 이와 같은 사실은 일찌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의 네 가지 증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겔14:21)을 연상케 한다.

(7)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무서운 재앙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성도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날에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매일 매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후13:5).

12. **㉠**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9절)

㉠ (1) 본서에서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 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13:15) ②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18:24) ③ ‘목 베임을 받은 자’(20:4)로 묘사되고 있다.

(2)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불신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3) 이렇게 볼 수 있는 더욱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4) 한편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와 오면 올수록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며, 그 결과 순교하는 성도들이 많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5) 왜냐하면 일찌기 예수께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24:9; 막13:9-13; 눅21:12-18).

(6)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므로 순교당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를 충성스럽게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양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영광된 부활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법이다(롬8:18-23).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순교자적인 삶이 요구된다.

13. **㉠** 9절에 언급된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1) 본서에서 ‘제단’(헬, 뒤시아스테리온)이란 말은 이곳 외에도 8:3;5;9:13;14:18에 나온다.

(2) 이같이 본서에 언급된 ‘제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일찌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막(聖幕)과 성소(聖所) 및 성물(聖物)을 만들 때,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일일이 그 양식(樣式)을 가르쳐 주셨다(출25:9;40;민8:4).

(4) 우리는 여기서 이 땅 위에 있는 제단과 그 양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따른 것이며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模型)과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히8:5;9:23). 물론 이 땅에 존재한 그 양식은 하늘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참조, 히8:6).

(5)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음을 믿는다(참조, 21:1-4).

(6) 더우기 지상의 제단과 하늘의 제단이 하나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하는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계속 되어질 우리의 책무요 권리임을

확신할 수 있다.

14. ㉠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의식'(祭祀儀式)과 관련이 있다.
- (2) 즉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는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그때 이 희생 제물들의 피는 번제단 아래에 뿌려져야 했다(출29:12; 레 4:7).
- (3) 이러한 의식은 희생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였고, 피는 곧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레17:11-14).
- (4)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인 피가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5)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순교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비극적이며 처참한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적인 사실만을 보고 판단한 저급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 (6)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순교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귀한 제물로 드리는 행위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보장받는 행위인 것이다(참조, 빌2:17; 딤후4:6-8). 그러므로 순교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라 할 수 있다.

15. ㉠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 (2)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헬, 톤 카토이쿤톤 에피 테스 게스)은 본서의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3:10; 8:13; 11:10; 13:8,12,14; 17:2,8).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순교자들의 요청은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報酬)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라는 구약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시79:10)과 흡사하다.
- (4) 여기서 본절에 기록된 순교자들의 요청과 시편 기자의 그와 같은 부르짖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눅23:34)와 박해를 가한 자들을 위해 드린 스테반의 기도(행7:60) 내용과 상호 모순되는 듯하다.
- (5)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들과 시편 기자가 단순히 보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울분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그들의 요청과 예수 그리스도(또는 스테반)의 기도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6) 특히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大主宰)여'라고 부름으로써,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민23:19)의 신실성과 공의로우심을 강조한 점에서 확인된다.
- (7) 이처럼 오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만을 표출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감정과 의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8:28).

16. ㉠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1절)

- ㉠ (1) 흰색은 '의', '순결', '승리', '영화' 등을 상징한다(참조, 서론 ㉠ 17).
- (2) 따라서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헬, 스톨라이 류카이)를 주셨다는 사실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며 나아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참조, 3:5,18;4:4;7:9,13;19:14).

- (3) 우리는 여기서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불과 맹수와 여러 가지 극단적인 고문에 의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 갔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승리요 영화임을 알 수 있다(참조, 약5:10,11).
- (4)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갖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꾀꾀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
- (5)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삶을 사신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요16:33).

17. **㉠**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속히 심판할 것을 요청한 순교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대답하셨다.
- (2)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는 사단의 최후 발악기라 할 수 있는 대환난기 중 후 3년 반이 끝나는 때라 볼 수 있다(참조, 13:5-10).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종결점에 이르기까지에는 악이 승리하는 듯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승리자로 나타나실 것을 보여 주는 기쁨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3)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심판을 유보(留保)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 이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經綸)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14:26,27; 렘4:28).
- (5) 한편 본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영국 성공회 기도서에는 '잠시 후에 당신의 선택한 자의 수를 채우시고 속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온다.
- (6) 또한 위경인 에녹서에는 의인의 수가 다 찬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온다(에녹서47:4).
- (7)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5:7).

18. **㉠** 어린양이 여섯째 인을 때실 때에 전개된 재앙은 무엇인가? (12-17절)

- ㉠** (1)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성경에 자주 묘사된 여호와의 최후의 날을 알리는 우주의 대변동이 삼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그 첫번째 재앙은 대지진과 폭풍으로 해와 달이 총담과 피(血)같이 어두워지는 것이다(12절; 사13:10; 겔32:7,8; 38:19; 욥2:10; 암8:9,10; 마24:8,29). 여기서 총담이란 주로 상복으로 사용되던 붉은 베를 가리키는 것으로(참조, 사50:3) 종말과 연관되어 적절히 사용되었다.
- (3) 그 다음 두번째 재앙은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13절) 하늘이 떠나가며 지각이 변동하는 것이다(14절).
- (4) 또한 세번째 재앙은 위의 두 재앙으로 인해 땅 위에 무서운 공포가 임한다는 것이다(15-17절; 사34:4; 단9:24-27; 욥2:30,31; 마24:29). 물론 이 공포는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마귀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9:20,21; 16:6,9)
- (5) 이 종말론적 재앙들 중 일부는 고대 우주론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는데 이는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린다는 묘사

가운데서 볼 수 있다.

- (6)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앙을 묘사하기 위해서 3중적인 측면에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7) 아뭏든 이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큰 재난과 고통을 가리키며 심판의 확실성을 제공한다(참조, 8:5,12;9:2;11:13,19).

19. **㉠ 여섯째 인을 통해 나타난 진노의 날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5-17절)**

- ㉠**(1) 본질에는 여섯째 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여 숨는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
- (2) 즉 본질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은 맨 위로부터 밑바닥까지 예외 없이 모두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롬3:10). 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첫째, 땅의 임금들이다. 이들은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로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지게 한 장본인들이다.
- (4) 둘째, 왕족들이다. 이들은 '장군'으로 언급된 사령관이나 군 지휘권을 자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고위 관리와 궁중 신하들로 왕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주체 세력이다(참조, 막6:21).
- (5) 셋째, 장군들이다. 이들은 군대에서 높은 계급과 지휘권을 가진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을 연상케 하는데 무력을 가진 자는 부패한 정체와 결탁하여 진리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참조, 요18:12;행21:33).
- (6) 넷째, 부자들인데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부를 이용하여 한 사회를 좌지 우지하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천박한 물질주의와 황금 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다(참조, 마6:24).
- (7) 다섯째, 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며 사회적으로는 유력한 계급들이다. 자신의 힘을 의뢰하는 자의 표상이다.
- (8) 여섯째, 자주자(自主者)들이다. 이들은 서민 대중들로 대개 자영농이나 중소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며 한 사회에서 이 계층의 수자가 가장 많다.
- (9) 일곱째, 종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으로 개인적인 자유나 인격의 존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남의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다.
- (10)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나 경제적인 부의 정도에 관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참조, 사13:6,8;미1:1-4).

20. **㉠ 여섯째 인(印)의 재앙 때 땅에 속한 자들이 처신(處身)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15-17절).**

- ㉠**(1) 우선 여섯째 인의 재앙이 너무도 혹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 즉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호10:8;슌1:14;눅23:30).
- (2)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숨으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었다(참조, 창3:8-10).
- (3) 또 다른 하나는 죄인들은 죽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본질에 나오는 죄인들은 굴이나 산 바위 틈에 숨

어서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4) 다음으로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과 어린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숨는다. 그런데 어린양은 보통 회생과 온유와 친절,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양의 진노’란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 (5) 그러나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서 불신과 죄악의 세상에 대해 당신의 진노를 쏟으실 것인데 이 진노는 너무 혹심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참조, 요3:36).
- (6) 이와 같은 어린양의 진노는 한편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요3:36).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린양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만 저주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망 가운데서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나1:6, 롬1:16; 딤후2:3; 딤펠1:2).

화보자료

죽음의 사자(使者). 이 그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자가 청황색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7, 8절)을 묘사한 것이다.



가인의 살인(장4:8) 이후 인간 역사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의 역사로 얼룩져 오고 있다. 이 같은 인간 역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내리실 대 환난의 재앙 한 부분 역시 이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이다(8절).

제 7 장 인(印) 침 받은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

단락구분 1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의 등장 / 2-3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성도들을 인치기 위해서 등장하다 / 4-8 인침을 받은 14만 4천명의 이스라엘 / 9-10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다 / 11-12 모든 천사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다 / 13-14 흰 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正體) / 15-17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10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주제 및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은 본서의 첫째 삼경으로 이것은 전장에 언급된 여섯째 인의 재앙과 8장에 나오는 일곱째 인의 재앙 사이에 삽화처럼 삽입된 장이다. 즉 본장의 내용은 일곱째 인의 개봉이 잠시 중단되고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중간 계시이다.

(2) 그러나 본장이 비록 삼경일지라도 6장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이곳에 언급된 사건

들은 6:17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설명과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 (3) 또 전장에서 여섯째 인의 재앙으로 인해 불신자와 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 (4)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4,000명에 대한 장면(1-8절)과 ②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9-17절)이다.
 - (5) 한편 본장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장들 중의 하나로서 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4,000명(1-8절)과 흰 옷 입은 큰 무리(9-17절)의 동일성 여부의 문제이다.
 - (6) 이외에도 본장에 제시된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한 것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와 9절 이하에 언급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론(異論)들이 제기되고 있다.
 - (7) 여하튼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성도를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세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2. **㉠** 본장의 내용을 통해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 ㉠** (1) 사도 요한은 본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환난 때 일어날 큰 재난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날에는 창세 이후로 한번도 보지 못했던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참조, 마24:21; 막13:19).
- (2) 이 재난 때에는 세상이 완전히 황폐하고 파멸될 것인데 이 파멸을 위해서 바람이 준비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침을 위해 잠시 동안 불지 못하게 해 놓았다.
- (3) 그러나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환난을 견디고 어린양의 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 (4) 이 일 후에 그들은 완전한 생명과 화평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재난이 오지만 그것을 겪고 난 후에 승리한 성도들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참조, 2:10; 딤후1:8).
- (5)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장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6) 첫째, 최후의 때가 되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다(참조, 엡6:10-13).
- (7) 둘째, 사도 요한은 인침의 장면을 통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다.
- (8) 즉 대환난의 날에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으므로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11:18; 14:10-13).
- (9) 셋째,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여 당시 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였다.
- (10)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의 불의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요16:33; 요일5:4).

3. **㉡**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와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A**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해할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멸하려고 바람을 준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2) 본절에 나오는 땅 네 모퉁이에 대한 환상은 사도 요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원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나 장방형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 (3)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지구를 사각형의 평평한 땅으로 생각하였다(참조, 사11:12;겔7:2).
- (4) 그렇기 때문에 '땅 네 모퉁이'는 각기 지구의 끝으로 결국 이 표현은 전세계를 의미하며 '땅 사방의 바람'은 전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 (5)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로서 불을 맡은 천사(14:18), 물을 담당하는 천사(16:5)와 더불어 자연계를 다스린다. 또한 이들은 '봉사의 천사'로 불리며 천사들 중에서 최하급에 속한다.
- (6) 또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 또는 수단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을 가르고 냇물과 강과 바다를 말리기도 하였다(참조, 왕상19:11;시83:13;사40:7,24;66:15;렘4:13;23:19;30:23;단2:35;나1:3,4;속6:1-5).
- (7)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람 등의 천재 지변을 이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편 바람은 전쟁을, '땅 사방의 바람'은 세계적인 전쟁을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시83:13;렘4:13;49:36).
- 4. C**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여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첫째, 이방의 죽은 신들에 반대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방의 온갖 우상들은 장인(匠人)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참조, 출20:3-6;사44:9-17).
- (2) 둘째,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늘 살아 계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 (3) 구약에서 여호수아도 이방 족속과 싸울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참조, 수3:10).
- (4) 셋째,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력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나 우상 등의 물질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참조, 마6:24).
- (5) 이처럼 인간은 오직 살아 있는 생명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최고의 만족은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찾을 수 있다(참조, 시42:2).
- (6) 넷째,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신실성을 확증하며 시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 (7) 따라서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있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은 심판주요 멸망자인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참조, 19:11;신16:20;시103:6;사30:18;42:3;56:1).
- 5. C**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A** (1) 본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뜨는 곳, 즉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배후에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 (2) 첫째,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밝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참조, 요1:1-9;14:6).

- (3) 따라서 그 천사는 환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참된 성도들에게 희망과 승리를 부여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 (4) 둘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즉 겔43:4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다.
- (5) 셋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별의 인도함을 받아 주께로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참조, 마2:2).
- (6)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 준 별과 같은 방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동쪽의 어떤 지역을 신성시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편만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 하나님께서 '인(印)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1) 사도 요한은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난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겔9:1-7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다.
- (2) 본절에서 '인'(印)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소유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가리킨다(참조, 9:4;14:1).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부활하여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참조, 16:2,6;20:4).
- (4)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사단이나 그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으며 끝내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13:7;15:6,9;16:2;20:4).
- (5) 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땅으로부터 구속된 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치는 일'은 인침을 받는 자들의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참조, 14:3,4;롬8:23;고후1:22;엡1:13;4:30;약1:18).
- (6) 이처럼 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증해 주며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 (7) 그러기에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은 짐승에 의한 핍박과 순교에 직면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20:4).
- (8)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고후1:22;엡4:30;딤후6:12;딤후4:7).

7. ㉠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특별히 무엇을 가리켰는가? (2,3절)

- ㉠(1)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① 세례와 ② 성령을 통해서이다.
- (2) 우선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구원의 '인'으로 간주했는데 그들은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참조, 롬8:23;약1:18).
- (3) 다음으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으로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증명이 되는 것이다(참조, 마3:16; 롬8:11; 엡1:13; 4:30).

- (4)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와 힘을 주시므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참조, 요16:13; 롬8:16; 갈5:22,23; 히10:15).

8. **㉠**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십 사만 사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8절)

- ㉠** (1) 인 맞은 십 사만 사천 명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 (2) 첫째, 문자 그대로 수자와 지파 이름을 받아들이는 견해인데 이들에 의하면 '인 맞은 십 사만 사천'은 대환난 기간 전에 인치심을 받고 대환난 기간 동안 멸망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144,000명의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다(Seiss, Walvoord).
- (3) 이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보통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적 후손을 가리키며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인 맞은 144,000명이 혈통적 의미에서의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고 했다(참조, 갈6:16).
- (4) 특히 피터 리차드슨(Peter Richardson)이라는 사람은 이 점에 대해 'A. D.160년까지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일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성을 묘사하는데도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가 없다'고 주장하여 상기한 견해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 (5) 둘째,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이해하여 '인 맞은 십 사만 사천'은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Alford, Swete, Beckwith, Vincent).
- (6)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씨'(갈3:29), 참 '할례당'(빌3:3) 및 '하나님의 이스라엘'(갈6:16) 등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했다.
- (7) 더우기 본서 전반부에서는 사도 요한 자신도 참 유대인과 거짓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인 맞은 십 사만 사천'이 참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참조, 2:9; 3:9; 롬2:28,29; 9:6,7; 갈3:29).
- (8) 한편 1세기 중반기에 활동했던 바울은 참된 영적 유대인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별하였는데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다(참조, 롬2:28,29; 9:6,8).
- (9) 반면에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한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등의 용어를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다(참조, 벧전2:4,9).
- (10)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 견해만을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기한 두 견해는 모두 다 옳은 일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 맞은 144,000명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둘째 견해를 취코자 한다.

9. **㉠** 144,000이라는 수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우선 144,000이라는 수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각각 12,000명으로 보고 그것을 합친 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교회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144,000이라는 수자는 상징적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2) 한편 144,000이라는 상징수의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본서의 묵시 문학적 요소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4,000이라는 수자를 본서 전체와의 연관하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 (4) 본절에서 144,000이란 수자는 $12 \times 12 \times 1,000$ 인데 12는 완전수이며 144는 12의 제곱으로 완전한 총만수를 의미한다. 또 1,000은 완전 또는 만 수인 10을 3승한 것이다.
- (5) 또 본서 21:15-17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관하여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언급되어 있다.
- (6) 또 그 성곽은 144규빗(12×12)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 나무가 '열 두 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즉 12×12)라고 한 것도 요한이 12라는 수자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참조, 22:2).
- (7)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수 또는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 (8) 또 본절에 의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더욱더 강조하려는 것이다.
- (9) 사도 요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종파주의가 깨어지고 혈통, 문화, 민족, 종교적 배경, 지리적인 위치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는 것이다(참조, 7:9; 14:4).
- (10)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종파주의 및 분리주의에 오염되어 교회를 찢고 형제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참조, 요15:4-6; 고전1:10-17).

10. **㉠** 사도 요한은 5-8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수자까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첫째, 유다 지파의 명단이 맨 먼저 나오는 점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명단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늘 맨 먼저 나오고 있다(참조, 창35:22-26; 신33:5-25).
- (3) 그러므로 유다 지파를 맨 먼저 내세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인데 이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우선권을 강조한 동시에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5:5; 창49:10; 대상5:2; 히7:13,14).
- (4) 둘째, 후기 유대주의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레위를 비교적 중요치 않은 여덟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 점이다.
- (5)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혈통적, 제사장적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 (6) 셋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진 점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 지파의 명단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7) 우선 단 지파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자주 관련되고 있다. 그들은 새긴 신상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였다(참조, 창49:17; 사18:18,19,30; 왕상12:29,30).

- (8) 특히 상징적 묘사에 능숙했던 유대 랍비에 의하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인 맞은 자들의 명단에서 단 지파를 제외하므로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와 짐승 경배를 엄중하게 꾸짖고 경고하고자 했다.
- (9) 두번째로 단 지파는 종말에 올 악의 화신(incarnation)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렘8:16의 말씀이 배경이 된 것으로 유대 랍비들은 점차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 (10)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 3세기 초에 활약했던 로마의 주교이자 순교자인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듯이 적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11. **㉠** '인침을 받은 144,000명'을 혈통적 유대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제 견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라 (3-8절).

- ㉠** (1) 오늘날 3-8절에 나오는 '인 맞은 144,000명'을 문자 그대로 혈통적 유대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학자들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는 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②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 (2) 첫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 맞은 144,000'을 교회가 휴거된 뒤에 대환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종할 선택된 유대인 무리로 보고 있다(A. C. Gaebelein).
- (3) 또 이들 유대인 개종자들은 대환난 기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이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방인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께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4) 둘째, 이에 대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144,000은 문자 그대로 환난 기간 동안에 육신이 보전된 유대의 남은 자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개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Gundry).
- (5) 또 이들 유대인 개종자 144,000명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회복될 유대 왕국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 (6) '천년왕국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20장의 **㉠** 7을 참조하면 된다.

12. **㉠**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9, 10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 이후로부터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
- (2) 여기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① 십 사만 사천을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자들의 견해와 ② '순교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 ③ 1-8절에 언급된 '인침을 받은 144,000'과 동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이다.
- (3) 첫째, 144,000을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학자들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대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Lampe, Holtzmann).
- (4) 그러나 본절에 의하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자들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첫째 견해는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며 설득력이 없다.
- (5) 둘째, 다른 학자들은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대환난 때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Moffatt, Kiddle).
- (6) 이 큰 무리들이 순교자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이에 관한 약간의 암시가 있는데 ①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9절) ②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7) 이처럼 대환난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참조, 17:6;18:24;19:2).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이 무리들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6:11에 나오는 '죽임을 받을' 장래의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 세째,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4,000명'은 본질의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동일한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Beckwith, Eller).
- (9) 그들에 의하면 인 맞은 자의 수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인침을 받은 144,000명과 마찬가지로 대환난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 (10) 즉 1-8절에서 대환난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4,000명은 이제 대환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와 영광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11) 상기한 모든 견해들은 다 옳은 일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취할 수는 없다.
-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4,000으로 이들이 대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라는 세째 견해가 가장 유력하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견해를 취하고자 한다.

13. ㉠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돌린 경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11, 12절)

- ㉠(1)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찬양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한 후 그들도 하나님께 7가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
- (2) 이 천사들의 찬양은 5:12,13에서 천사들이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 돌리는 찬양과 같은데 '부' 대신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점만 다르다.
- (3) 첫째, 그들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와 구속과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행24:15;벧전1:3).
- (4) 둘째,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참조, 요1:14; 롬15:9).
- (5) 세째, 그들은 '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근거가 되시는 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점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늘 새겨야 하겠다(참조, 잠3:19; 고전1:24).
- (6) 네째,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참된 감사를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시18:49; 103:12).
- (7)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달리 죄없으시며 순결하시고 또한 존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단지 그분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빌2:10,11).
- (8) 여섯째, 그들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참조, 민33:3; 렘32:17,27; 고전6:14; 엡1:19).

- (9) 일곱째, 그들은 '힘'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소유하신 분이므로 그 안에 모든 악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참조, 욥5:9; 스8:22; 롬9:22; 엡6:11).
- (10)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속성을 제시하시며 체험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찬양이 가지는 힘이다.

14. ㉠ 장로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는가? (13, 14절)

- ㉠ (1) 흰 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는데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다.
- (2) 여기서 '큰 환난'은 역사상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닥쳐 올 최후의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마24:21; 막13:19).
- (3) 그러므로 흰 옷 입은 자들은 최후의 대환난 때 사단의 온갖 꾀박과 도전을 견디어 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 (4) 또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서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참조, 5:9).
- (5) 오히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충성된 삶과 증거까지 내포하고 있다(참조, 2:13; 12:11).
- (6) 따라서 흰 옷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대환난 기간 동안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 나간 자들이다(참조, 3:5,6,18).
- (7)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2:10; 롬12:1).

15. ㉠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14절).

- ㉠ (1)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환난이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고난이다(참조, 1:9; 2:10; 요16:33; 행14:22; 롬5:3; 벧전4:12).
- (2)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참된 모습과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딤후2:11,12; 골1:24).
- (3) 둘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가장 혹심한 대환난이다. 단12:1은 그때에 관하여 '고통의 때가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 (4) 예수께서도 성도들에게 닥칠 큰 환난에 대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예언하셨다(참조, 마24:21).
- (5)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도'와 '불법의 사람'에 관해 말한 것도 바로 이 시기를 말할 것이다(살후2:3-12). 본서에서는 이 환난에 관해 7:14; 11:7-10; 13:7; 16:6 등에 언급되어 있다.
- (6)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이 큰 환난은 그 격렬함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

핍박과는 구별된다.

- (7) 세째, 불신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이다. 본서에서는 이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6:17) 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3:10)라고 말하고 있다.
- (8)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예수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다(참조, 8:2; 16:1; 마24장). 바울도 살후1:6-10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환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9) 상기한 진노는 대환난 기간 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더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환난 후에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참조, 6:12; 19:11; 마24:29).

16. ㉠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게 될 특권은 무엇인가? (15, 16절)

- (A) (1)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참조, 엡5:25-27).
- (2) 둘째,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 그러나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참조, 벰전2:9).
- (3) 이처럼 아무런 중간적 매개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최대의 특권인 것이다(참조, 히7:25).
- (4) 세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본절에 나오는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거하신다’는 뜻으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참조, 출40:34-38; 왕상8:10,11; 겔10:4,18,19).
- (5) 이 사상이 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재하신다는 사상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본절에 이르게 된 것이다(참조, 21:3; 요1:14).
- (6) 네째, 저희들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 (7) 이것은 사49:10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그들은 세상에 거할 때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참된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6:1-8; 비교, 마24:7; 히11:37,38).
- (8) 상기한 모든 축복이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며 복음 안에서 모든 악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참조, 숙14:8; 요16:13; 엡6:10-13).

17. ㉠ 17절에서 어린양과 흰 옷 입은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A) (1) 본절에서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 즉 자기 백성을 치는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요10:1-8; 히13:20).
- (2) 성도들이 이 땅 위에 거할 때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다(참조, 요16:33). 그러나 이제 어린양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벰전2:25).
- (3) 이처럼 그들은 대환난 때 겪은 목이 타는 고통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신선한 생명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활에는 더 이상 침체나 권태나 피로움이 없을 것이다(참조, 시23:1; 렘2:13; 겔47:1-12).

- (4)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어떤 정권의 변화나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나 보호하시는 사역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당한 아픔과 고통의 슬픈 기억까지도 완전히 없애 주실 것이므로 그들은 육체적인 한계 상황 아래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참조, 21:4; 사25:8).
- (6) 이와 같은 절대 만족과 참된 기쁨의 상태는 부활의 주께서 제공하시는 것들이며 그것은 예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하겠다(참조, 요16:33; 고전15:51-54; 골2:12; 벧전1:3).

연구자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의 창시자는 러셀(C. T. Russell, 1852-1916)이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자는 그의 후계자인 러더퍼드(J. F. Rutheford, 1869-1942)이다.

러셀은 지옥에 관한 기성 교회들의 교리에 이의를 제기한 후 예수께서 1874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874년이 지나도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정정 1914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러더퍼드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였으나 예수의 재림은 1914년에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께서 1914년에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을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더퍼드는 본장 4절에 나오는 ‘십 사만 사천’을 여호와의 증인들로 해석,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0년 이후 자신들의 신도 수가 십 사만 사천을 넘어서자 러더퍼드는 십 사만 사천 외에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효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다고 반복 주장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주장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견해를 믿는다. 그 같은 견해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부활, 신적 존재가 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분명한 이단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 시기는 예수 자신조차도 모르는 일이며(마24:36) 구원은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다(참조, 요14:9).

제 8 장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단락구분 1 일곱째 인(印)을 떼다 / 2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다 / 3-5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 향로의 향연(香煙)과 성도의 기도 / 6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예비하다 / 7 첫째 나팔의 재앙 / 8-9 둘째 나팔의 재앙 / 10-11 세째 나팔의 재앙 / 12 네째 나팔의 재앙 / 13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일할 화를 선포하다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 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라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1. ㉠ ‘일곱 인’ 과 ‘일곱 나팔 재앙’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일곱 인’ 과 ‘일곱 나팔 재앙’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 (2) 첫째, 어떤 학자들은 ‘일곱 인’ 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묘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Davis, Ladd, Mounce, Plummer).
- (3) 그들이 주장하는 유사점은 ① 두 재앙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② 양쪽 다 처음 네 재앙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점 ③ 둘 다 여섯번째 재앙 후에 삼일된 귀절이 들어가 있는 점 ④ 두 재앙이 동일하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 (4) 이러한 유사점은 특히 여섯·일곱째 인(6:12이하)과 일곱째 나팔(11:15이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5) 둘째,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일곱 인’ 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비록 유사한 점이 많을지라도 상이한 것으로 이 두 재앙은 시간상 연속적인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Beckwith, Tenney, Blanchard).
- (6) 그들이 주장하는 상이점(相異點)을 보면 ①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보다 심판의 정도가 더 격렬하고 광범위하다 ② 두 재앙 사이에는 사건의 순서와 내용에 차이점이 많다 ③ 여섯째 인의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데

비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인침을 전제로 하고 있다(참조, 7:1-8:9:4).

- (7) 뿐만 아니라 8:12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半時) 동안쯤 고요하더니...일곱 천사가...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한 것을 보면 인과 나팔 사이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우리는 여기서 상기한 사실들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임을 알 수 있다.

2.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여섯째 인의 재앙까지 기록되어 있는 6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 (2) 한편 본장 1절에 언급된 일곱째 인은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의 서곡이자 준비 과정이 되고 있다.
- (3)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은 본서 8장에서 14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데 8,9장에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의 환난이 직접 언급되어 있고 10-14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 (4) 특히 본장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 주고 있다.
- (5)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징벌과 성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절)

- ㉠(1)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半時) 동안쯤 고요'해졌다.
- (2)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학자들간에 여러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진 것은 안식일의 휴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ede, Scroggie).
- (4) 둘째, 어떤 학자들은 '노래로 봉사하는 천사들은 밤에는 찬양을 드리나 낮에는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탈무드의 글을 인용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듣기 위해 하늘이 고요해졌다고 주장하였다(Charles, Rist).
- (5) 셋째, 다른 학자들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해진 것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Beckwith, Barclay).
- (6) 넷째, 또 다른 학자들은 하늘이 고요해진 것은 바로 뒤이어 나타날 격렬하고 혹심한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 기간으로 이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대동요 이전의 긴장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Greijdanus, Baralay).
- (7) 상기한 네 가지 주장들은 모두 다 옳은 일면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서 본서의 뜻에 가장 부합(符合)하는 것은 하늘의 고요가 성도들의 간구를 듣기 위함이라는 셋째 주장과 뒤이어 나타날 격렬한 진노의 준비 기간이라는 넷째 견해인데 이 침묵은 일곱 나팔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4. ㉠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다.
- (2)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 일곱 천사'들은 천사장들로 외경인 토빗서에 의하면 그 이름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및 레미엘이다(토빗서12:15). 이 천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사역에 보조 역할을 하는 봉사적 기능을 가진 영체로서 인간 구원과 심판에 긴밀한 연관을 가지기도 한다.

- (3) 또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가졌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며(창19:16,19;사27:13)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마24:31;고전15:52;살전4:16).
- (4)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팔 소리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5) 첫째, 나팔 소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암시하고 있다(참조, 습1:16).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경종의 역할을 한다.
- (6) 둘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차와 임재를 암시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실 때는 매번 나팔 소리가 있었으며 장차 주께서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참조, 창19:16,19;사27:13;욥2:1;마24:31;살전4:16).
- (7) 셋째,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신호로 사람들을 전쟁에 소집할 때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군인이라고 부르시며 악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라고 요구하고 계신다(참조, 민10:2-7;렘6:1;딤후2:3,4).

5. **㉠**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3-5절)

- ㉠** (1) 본질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한 천사가 금향로에 든 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이 표현은 겔10:2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본절에 언급된 천사는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기능을 가진 영체로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 (3)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는 ‘미가엘’과 ‘화평의 천사로 불리는 무명의 천사’인데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이 최후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살피며 모든 의로운 자들을 위해 중재해 주는 것이다.
- (4) 또 그 천사가 제단 앞에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단은 향단을 가리킨다(참조, 6:9;14:18;렘16:12;민16:46).
- (5)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성소 바로 앞의 성소에 놓여졌는데 이것은 절기의 첫 제사 바로 이전과 마지막 제사 후, 하나님께 분향드릴 때 사용되었다.
- (6) 이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러진 분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시141:2).
- (7) 계속해서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 위에 쏟기 위해서 향로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상징해 주고 있다.
- (8) 여기서 그 천사가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 위에 쏟았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종말에 가서 그 응답은 성도를 꺾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에 대한 저주로 나타날 것이다.
- (10)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렘29:13;마18:19;요16:24).

6. **㉠** 첫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7절).

- Ⓐ (1) 한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 갑자기 피쉬인 우박과 불이 땅 위에 비처럼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
- (2) 이 재앙은 이스라엘 출애굽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일곱번째 재앙과 유사한 것으로 애굽인에게도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맹렬히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은 물론 모든 나무와 풀까지도 다 타서 없어졌다고 한다(참조, 출9:13-26).
- (3) 한편 첫째 나팔 재앙에는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일곱번째 재앙에 없던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팔의 재앙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참조, 겔38:22; 욥2:30). 또한 '3분의 1'이란 어떤 특정한 수치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전체에 대한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겔5:2; 슥13:8,9).
- (4) 시2:9에 대한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온 세상의 3분의 1이 재앙의 피해를 입게 될 때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 첫째 나팔의 재앙은 대환난 중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본격적인 환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슥13:8,9).
- (5) 뿐만 아니라 본질에 의하면 첫째 나팔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했다(Wordsworth).
- (6) 그러나 본질의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일곱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파괴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
- (7) 또 어떤 사람들은 본장에 언급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역사성을 부인하나(Hengstenberg) 이 재앙은 종말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최후 심판의 전조(前兆)로서 생태계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겔5:2; 마24:3-20).

7. ㉠ 둘째 나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라(8, 9절).

- Ⓐ (1)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속에 거하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파선된다.
- (2) 이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첫째 재앙과 관련이 있다(참조, 출7:14-25).
- (3)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강물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가' 피로 변하여 모든 물고기가 죽고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 (4) 여기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은 렘51:25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것은 대환난 때 있을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ngel, Grotius).
- (5) 따라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물고기를 의미한다(참조, 슥1:3).
- (6) 또 '배의 삼분의 일이 파괴된다'는 것은 전쟁으로 침몰하는 군함이나 상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바다에 심한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배가 파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A. F. Johnson).
- (7) 이런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의 나팔은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8) 그러나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9)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복의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아직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마5:45; 고전9:16; 엡6:19).

8. **㉠ 세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10, 11절).**

- ㉠**(1)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췌불같은 벌이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샘물에 떨어져' 물들이 쓴 물로 변하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 죽게 된다.
- (2) 여기서 '췌불같이 타는 큰 벌'의 이름은 '쑥'인데 이것은 근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Artemesia absinthium)이라는 아주 쓴 풀을 말하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참조, 렘9:15; 23:15; 애3:15, 19; 암5:7).
- (3)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쓴 맛을 견내었는데 신29:17, 18에서 쓴 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경고로 그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겠다고 말하고 있다(렘9:14, 15; 23:15).
- (4)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쑥의 쓴 맛은 항상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다.
- (5) 또한 구약에서 인간들에게 임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 어두워진 벌로 상징되고 있으며 (참조, 겔32:7; 욥2:10) 마24:29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지상으로 벌들이 떨어질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6) 그러므로 본절에 언급된 세째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신과 죄악의 세상에 대해 내리시는 심판의 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특히 본절에서는 재앙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이 지나 회수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해지고 그 범위도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8)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든 자연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며 심판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자연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참조, 9:20; 출9:14; 마12:50).

9. **㉠ 네째 나팔의 재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12절).**

- ㉠**(1)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어두워져서'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또한 그렇게 되었다.
- (2) 이 네째 나팔의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내린 '흑암'의 재앙과 연관된 것으로 본서 6:12, 13에 나오는 여섯째 인의 재앙과도 흡사하다(참조, 출10:21-23; 욥2:31; 암8:9).
- (3)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임할 고난과 재앙에 관해 본절에 언급된 '흑암의 재앙'과 같은 어두움을 동반한 두려움을 연관시키고 있다(참조, 사13:10; 24:23; 렘15:9; 겔32:7; 암8:9).
- (4)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어두워짐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현현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때아닌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기도 했다(참조, 사13:10; 욥2:10; 마27:45).
- (5)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 땅에 속한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고전1:18).
- (6) 한편 '낮과 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낮과 밤 동안의 전체적인 밝기가 삼분의 일 정도 감소된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의 삼분의 일 정도의 시간이 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Plummer).
- (7) 흑자(Renan)는 주후 68년의 일식과 월식에서 이 재앙이 성취되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역사상 있었던 모든 불신과 이단, 배교 그리고 세상의 혼동을 상징한다고 하였다(De Lyra, Wordsworth). 그러나 이 견해들은 일면 타당성을 가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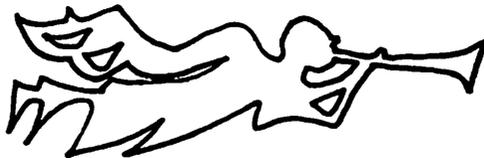
실득력이 없다.

- (8) 오히려 이 네째 나팔의 재앙은 미래에 될 사건으로, 마24:29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재앙인 것이다(참조, 22:6,7).

10. ㉠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선포한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네째 재앙이 끝나고 다섯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 (2)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에 관해 어떤 역본(벌게이트 역, 수리아 역)에서는 '한 독수리'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역본에서는 단순히 '천사'로 되어 있다. 또 다른 필사본에는 '독수리 같은 천사'로 표현되기도 했다.
- (3)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참조, 신28:49; 렘48:40; 겔17:3; 호8:1; 마24:28).
- (4) 또한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2:14)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바로 그러한 종류이다(참조, 4:7).
- (5) 특히 본절에서 독수리가 출현한 것은 마지막 세 가지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일어날 화(禍)의 신속함과 확실성을 고지(告知)하기 위한 것이다.
- (6)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포한 세 가지 화 중 두 가지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삼분의 일이 죽는 것이다(9:12; 11:14).
- (7) 또 독수리가 선포한 세째 화는 본서의 16:1 이하에서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6절).
- (8)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독수리가 선포한 화를 당할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불신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다(참조, 3:10). 결국 이 재앙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 (9) 이처럼 불신과 죄악의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보상의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눅21:19; 히10:36; 약5:7; 벧후3:9).

본장의 요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2절).

제 9 장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

단락구분 1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다 / 2-3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다 / 4-6 황충이 불신자들을 해질 권세를 받다 / 7-10 황충의 모습 / 11 황충들의 임금 아바돈 / 12 마지막 두 나팔 재앙의 선포 / 13-15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네 천사가 쫓겨 나다 / 16-17 네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의 수와 모습 / 18-19 네 천사와 마병대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다 / 20-21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치 않다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 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 빛과 유황 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

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I.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일곱 나팔의 재앙 중 처음의 네 가지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 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묘사되고 있다.

(2) 이 같은 재앙을 열거하면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 둘째는 바다와 물고기, 셋째는 물, 넷째는 일월 성신, 다섯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여섯째는 인간의 생

명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그 대상에 따라 처음의 네 재앙과 중간의 두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4) 다시 말해서 처음의 네 재앙은 주로 자연계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은 인간이 그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또 다른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곡이 되고 있다(참조, 11:14,15).
- (5) 그런데 본장에 언급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지 않고 단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힘을 이용해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
- (6) 즉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며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타락한 네 천사와 그를 따르는 마병대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 (7)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동시에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특히 사단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신32:34-41; 함1:12).

2. Q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A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떨어진'에 해당되는 헬라어 <뿔코타>는 완료형으로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미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3) 한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4) 첫째,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Andreas, Bengel, De Wette).
- (5) 이들에 의하면 본절에 언급된 '별'은 20:1의 천사와 동일하며 위경 에녹1서 19:1과 20:2에는 천사장 우리엘이 무저갱을 다스린다고 했다.
- (6) 둘째, 다른 학자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배교한 기독교 교사 및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Wordsworth).
- (7) 셋째, 또 다른 학자들은 땅에 떨어진 별은 특정한 어느 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들, 나폴레옹 등과 같이 역사상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의 왕 및 군주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Hengstenberg).
- (8) 넷째,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Tertullian, Vitringa, Arethas, Bede, Alford, Walvoord).
- (9) 성경에서는 '별'을 '천사' 및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표현한 곳이 많다(참조, 1:20; 민24:17; 사5:20; 욥38:7; 단8:10).
- (10) 특히 사14:12과 눅10:18에는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쫓기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별'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가리킨다고 보는 이 견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
- (11) 따라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의 임금인 '아바돈' 또는 사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은 하늘이 그의 거처였으나 이제는 그곳에서 쫓겨나 땅 위에서만 그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12:3-9; 마12:26; 막3:23,24; 눅13:16).

3. ㉠ '무저갱' (無底坑)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1, 2절).

- ㉠ (1) '무저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리어는 <아뷔쏘스>이고 히브리어는 <테홈>인데 이는 원래 '밑창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이란 뜻의 형용사였으나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 '심연'(深淵)을 의미한다.
- (2)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① 악한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눅8:31; 비교, 뱀후2:4; 유1:6)과 ② 음부의 지하 세계(롬10:7)를 가리키고 있다.
- (3) 또한 무저갱은 악령과 마귀들의 임시 거처로서, 구약 시대 때 죽은 자가 사후(死後)에 가서 거하는 곳을 의미하는 '스울' 또는 '하데스'와는 다르며 최후 심판 때 유향불 못에 참예케 되는 '지옥'과도 다르다(참조, 19:20; 20:1,3,10).
- (4) 한편, 무저갱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는데 이것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 (5) 무저갱이란 원래 물을 가두어 둔 곳을 의미했다. 창1:6,7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 물과 땅을 가르셨는데 물을 땅 속에 가둔 곳, 즉 땅 밑의 바다를 무저갱이라고 하였다.
- (6) 다음에는 무저갱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모두 감금하신 곳이란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모두 다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참조, 시74:13; 사51:9; 암9:3).
- (7) 마지막으로 무저갱은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틈바구니 또는 구덩이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에 속한 왕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견해로 변하게 되었다.
- (8) 또한 무저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경 에녹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은 천사들이 감금된 곳으로 고통과 암흑과 혼돈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참조, 에녹서18:12-16; 21:1-10).

4. ㉠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의 재앙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1-6절).

- ㉠ (1)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하늘을 어둡게 하고 말처럼 생긴 황충들이 땅에 풀려 난다.
- (2) 또 황충은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를 받고 풀이나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 (3) 이 다섯째 나팔에 의한 황충의 재앙은 율1:4-18과 2:1-10의 환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여기의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악마적인 황충이다.
- (4) 이것은 다섯째 나팔에 의한 황충의 재앙이 여태껏 있었던 어떠한 재앙보다도 더 파괴적이며 가혹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율2:1-11).
- (5) 여기서 '연기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사단의 영향 아래 놓일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되신 반면에 사단은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대표하기 때문이다(참조, 고후4:4; 요일1:5-10).
- (6) 또한 황충은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가재같이 생겼고 꼬리 끝에 침이 있는데 그 독침에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다. 대개는 인명을 해치지 않지만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 (7) 이와 같은 황충의 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재앙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한다.
- (8) 여기서 '다섯 달 동안'은 황충의 자연적인 수명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 한편 황충에게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음조차도

그들을 피하는데 이는 살아 있는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욥3:21; 렘8:3).

5. ㉠ '황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3절).

- ㉠ (1) 본절에서는 다섯째 나팔이 울리매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 (2) 원래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여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크기가 약 5cm 정도이며 날개는 키의 두 배 정도 된다.
- (3) 이들은 메뚜기의 일종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보통 그 무리의 폭은 약 300m 이며 길이는 6km 정도이다. 이들이 지나갈 때는 해가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 같으며 60m안에 있는 큰 건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다.
- (4)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데 이들이 지나간 데에는 풀잎 하나 볼 수 없고 나무는 꺾질까지 다 벗겨진다. 땅은 마치 다 타고 재만 남은 폐허처럼 변하고 만다.
- (5) 황충 떼가 지나갈 때 날개 소리는 폭포 소리 같으며 그것들이 잡아 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풀이 타는 소리 같다고 한다. 황충의 머리는 말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그들이 이동할 때는 마치 지휘자가 있는 군대같이 차근차근히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 (6) 보통 황충은 초목을 해치고 황폐케 하나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
- (7) 한편 황충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황충의 놀라운 파괴력과 폐허화시키는 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이름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의미	상징
가 잠	'가위' 또는 '가지를 자르는 자' '털을 깎는 자'란 뜻	이는 황충이 어떻게 지상의 모든 초목을 해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아 르 벨	'떼를 지음' 또는 '들끓는 것' 이란 뜻	그 수가 굉장히 많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 실	'끝장을 내는 자' 또는 '끝 손질하는 자'란 뜻	땅의 모든 식물을 깨끗이 먹어 없애므로 황충이 가져오는 황폐를 표현하고 있다
술 램	'삼키는 자' 또는 '멸절 시키는 자'란 뜻	황충이 이 땅에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
하 아 골	'질주하는 말'이란 뜻	황충이 땅 위를 빨리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첼 라 첼	'뻘뻘 소리내는 자'란 뜻	이는 황충들이 내는 소리를 묘사한 말이다

6. ㉠ 하나님께서 황충이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6절)

- ㉠ (1) 본절에서 황충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받지만 그들을 죽일 권세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볼 수 있다.
- (2) 첫째,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칠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오직 제한된 권세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참조, 욥1:12).

- (3) 둘째, 인간의 육체적 생명도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며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다(참조, 창2:17; 약4:13-15).
- (4) 따라서 인간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7:1-3; 행27:34; 요일3:14).
- (5) 셋째, 황충 재앙의 기간이 다섯 달로 제한된 것은 나팔의 재앙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들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육체에 속하는 자들만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사단의 꾀박과 유혹이 아무리 흑심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체만 해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어진다(참조, 마10:28).
- (6) 넷째,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려는 불신자들에게 경고가 된다(참조, 22:8-10).
- (7)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것이다(참조, 롬11:36).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기상 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력이 상실되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비록 인간의 지혜로 자연의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큰 흐름(계절의 변화, 홍수, 태풍 등)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7. ㉠ 황충들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7-10절)

- ㉠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욥2:4-10과 욥39:20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 (2) 우선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은 빠른 속력과 힘을 상징하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은 황충 떼의 무서운 공격력을 나타내고 있다.
- (3) 둘째, 황충은 '그 머리에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이것은 사단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동시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지위와 기세를 지적한 것이다.
- (4) 셋째,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이는 사단의 악한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며 또한 황충은 사단의 일을 수행할 인간 대행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 (5) 넷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황충의 더듬이를 언급한 것으로 사단의 매혹적인 유혹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6) 다섯째, 황충이 가진 '사자의 이는 사단의 위력있는 파괴력과 무지막지한 탐욕성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욥1:6).
- (7) 여섯째, 황충은 '철쭉같은 흉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단의 힘과 세력이 매우 강하여 이 세상의 힘으로는 쳐부술 수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 (8) 일곱째, 황충의 '날개 소리'는 사단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음과 그 공격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욥2:4).
- (9) 마지막으로 그 꼬리에 전갈과 같이 쏘는 살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단이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은 성도들을 꾀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참조, 사9:15; 엡6:16).

(10) 이처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커다란 힘을 가진 ‘파괴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참조, 20:7-10).

8. **㉠** ‘무저갱의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본절에 의하면 황충들에게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로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히브리어 <아바돈>은 명사로 ‘파괴’ 또는 ‘멸망’을 의미하며 ‘스울’에 있는 ‘멸망의 구덩이’ 또는 ‘사망’이나 ‘무덤’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참조, 욥26:6;28:22; 시88:11; 잠15:11;27:20).
- (3) 헬라어 <아블루온>은 ‘파괴자’ 또는 ‘멸망을 초래하는 자’를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헬라어 <아블루온>은 히브리어 <아바돈>을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이란 이름을 가진 ‘무저갱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5) 첫째, 어떤 사람들은 <아블루온>이 헬라의 신(神) 아폴로나 다른 로마의 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설득력이 없으며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Bleek).
- (6) 둘째, 어떤 학자들은 ‘아바돈’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라고 주장하였다(Bengel, Rist).
- (7) 셋째, 다른 학자들은 <아블루온>이라는 이름은 ‘나폴레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불합리한 것이다(Volkmar).
- (8) 넷째,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무저갱의 사자’는 ‘파괴자’ 또는 ‘인류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자’로 사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Plummer, Alford, Barclay).
- (9) 이들에 의하면 ‘무저갱의 사자’는 본장 1절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즉 타락한 천사와 동일하다고 했다(참조, 16:16; 요8:44).
- (10) 상기한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본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저갱의 사자’가 사단을 가리킨다는 넷째 견해인데 이 견해가 현재 가장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설득력이 있다.

9. **㉠**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13-19절).

- ㉠** (1)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인류에게 내릴 둘째 화로 이는 사단의 역사이다. 본절에 의하면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네 천사’가 풀려 나고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 불신자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
- (2) 특히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국경으로(창15:18; 신1:7; 수1:4; 삼하8:3) 고대의 이방 족속들은 흔히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참조, 16:12; 렘2:18).
- (3)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그들의 원수들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근원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사7:20; 8:7; 렘46:10).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유브라데 강을 전쟁이 일어날 곳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처럼 요한은 고대의 지리적 용어를 사용하여 반역적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 (5) 한편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한 지역을 중심하여 일어나지만 이것은 국지적(局地的)인 사건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 (6) 이때 죽은 사람이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며 동원된 군사만 2억이니 그 규모의 엄청난

남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7) 또한 이 여섯 나팔의 재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재앙이 일어날 해와, 달과, 날과, 시까지 전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0. ㉠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14절)

- ㉠ (1) 본절에는 하나님 앞 금단에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 주라'는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풀려 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한 음성이 난' 금단은 본서 8:3에 나오는 금향단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단'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다.
- (3) 또한 '네 뿔'은 '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네 복음서'를 가리킨다(Plummer, Hengstenberg).
- (4) 따라서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나는 그 음성은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6:10)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참조, 8:3).
- (5) 즉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의 피에 대한 복수가 시행된다는 고지(告知)의 성격을 가지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섯 나팔의 재앙으로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11. ㉠ '네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본절에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동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 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 (2) 여기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는 정해진 때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들이다.
- (3) 한편 '네 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네 천사'가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Lange).
- (4) 그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① 네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던 점과 ② 네 천사가 오는 유브라데 강 지역은 죄악과 원수의 땅,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와 바벨론 지역이라는 점을 든다
- (5) 둘째, 다른 학자들은 본절의 '네 천사'들이 7:1-3에 나오는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Wordsworth).
- (6) 본서 7:1-3에는 재앙을 내리기 위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들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성도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다 받을 때까지 행동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기사가 나온다.
- (7)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견해가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천사가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라는 첫째 견해가 본문의 뜻을 분명하게 해 주며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8) 아뭏든 네 천사는 하나님의 형벌을 수행하는 천사이며 이 형벌은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점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참조, 6:9;8:3).

12. ㉠ 마병대(馬兵隊)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16-19절).

- ㉠ (1)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네 천사가 풀려 난 기사(15절)에 이어 16절에서는 약 2억의 마병대가 갑자기 등장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 (2) 이 마병대들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참조, 서론 ㉠17) 홍갓이 있고 말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 나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게 된다.
- (3) 또 말의 꼬리는 뱀 같은데 그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 사람들을 해친다.
- (4) 한편 '마병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

는데 그것은 ① 문자적인 해석과 ② 상징적인 해석이다.

- (5) 첫째, 어떤 학자들은 본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여섯째 나팔의 재앙 때 실제로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Walvoord).
- (6) 둘째, 다른 학자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마병대’를 인간을 해치는 마귀의 세력과 동일시하고 있다(Plummer). 실제로 성경에서는 가끔 큰 수자를 사용하여 천사의 군대를 표시한 곳들이 있다(참조, 5:11; 시68:17; 단7:10).
- (7) 특히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다(William K.Harrison).
- (8)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마병대’는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 참여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 것이며 ‘2억’은 ‘큰 무리’로 그들이 가진 힘과 파괴력의 엄청난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 또한 ‘마병대’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있는데 이는 말들이 입으로 내뿜는 세 재앙,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 (10)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현대의 과학적인 무기들에 의한 재앙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육당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 (11) 또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군대와 현대적인 무기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기타 각종 재난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이는 본절에서 마병대를 묘사하는데 ‘재앙’이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된다(참조, 18,20절; 비교, 11:6; 16:9,21).

13. **㉠**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 남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라(20, 21절).

- ㉠** (1)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 (2) 여기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불신자들로 세상 사람들의 삼분의 이이다. 또한 그들은 재앙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데 이는 육체적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져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인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귀신 숭배로까지 나가게 된다(참조, 시115:4-7; 135:17; 렘10:1-16; 단5:23).
- (4) 한편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은 ‘이방 신들’(신32:17; 시106:37)과 ‘악령’(고전10:20; 딤후4:1)을 가리킬 때 사용되나 본서에서는 제식(祭式)의 대상인 이방 신과 귀신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귀신은 악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따라서 우상 숭배는 참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케 하여 마침내 멸망시키는 악령과 사귀게 하는 이중적인 악이다(참조, 롬1:23).
- (6) 뿐만 아니라 귀신 숭배에 의한 타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과 더불어 살인과 음행 그리고 도둑질 등의 비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참조, 롬1:24, 28-31).
- (7)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참조, 출20:13-15; 마15:19; 19:18).
- (8) 한편 ‘복술’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르마콘>은 ‘마술’ 또는 ‘술수’의 뜻이 있으며 때로는 ‘독살’(毒殺)을 의미하기도 했다(참조, 21:8; 22:15; 사47:9,12; 갈5:20).
- (9) 이와 같은 복술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단적인 것이다(참조, 출7:11,2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이적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이다.

14. **㉠** 하나님께서 본장에 나오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보내시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지속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3:19).
- (3) 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믿음 없는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회개' 하라고 외쳤다(참조, 2:5, 16, 21, 22; 마 4:17).
- (4) 둘째, 고통스러운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자 함이다(참조, 16:9, 11).
- (5)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심판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참조, 눅 13:3, 5; 벧 후 3:9).
- (6)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참조, 엠 5:6; 히 10:26-31).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불신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참조, 2:5, 21; 막 16:15; 빌 1:27).

화보자료

말과 사람의 형상을 띤 황충.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나오고 있는(1-3절) 이 그림은 캄브래의 계시록에 수록된 삽화이다.



본장에 묘사된 황충의 재앙은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의 재앙(욘 1:4, 2:1-10)과 유사하다. 이러한 재앙(1-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자연 현상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다.

제 10 장 요한이 먹은 작은 책

단락구분 1-3 힘센 한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큰소리로 부르짖다 / 4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하다 / 5-7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맹세하다 / 8-10 요한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작은 책을 천사에게 받아 먹다 / 11 천사가 요한에게 세상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하다

- 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 2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 4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

체하지 아니하리니

-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 ㉠ 본서에서 본장이 차지하는 위치 및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들어가기에 앞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다.
- (2) 7장이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난 후 일곱째 인의 재앙, 즉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 삽입되어 있었던 것처럼 본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 (3) 다시 말하면 본장과 11:1-14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으로부터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향하는 점진적인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재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 (4) 본장에 묘사된 환상은 그 무대가 하늘인데 이 중간 계시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앞두고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 (5) 또한 본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①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등장(1-7절)과 ②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는 부분이다(8-11절).
- (6) 여기서 힘센 천사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함으로 그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2. ㉡ '힘센 다른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본절에는 힘센 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 (2)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Clarke, Vincent, Wellhausen).
- (4) 그들에 의하면 본절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참조, 1:15; 11:12).
- (5) 둘째, 한편으로 본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미가엘(단12:1), 가브리엘(단12:7) 등과 같이 ‘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Plummer, Charles).
- (6) 여기서 본절에 나오는 천사는 9:13의 여섯째 천사에 대응하는 존재이며, 성경이 삼위 일체이신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시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역시 다른 한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8:3).
- (7) 또한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위엄과 영광스러운 행차(行次)를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1:7; 14:14-16; 출16:10; 시104:3; 눅21:27).
- (8)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은 약속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4:3),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의 얼굴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참조, 1:15, 16; 출34:33-35).
- (9) 그리고 ‘발의 불기둥 같다’는 것은 이 사자가 지닌 천상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조, 출13:21).

3. ㉡ ‘천사의 손에 퍼놓인 작은 책’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본절에는 천사가 그 손에 퍼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은 절2:9-3:3까지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그곳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비교, 렘15:15-17).
- (2) 여기서 작은 책이 ‘퍼놓였다’는 것은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본서 5:1의 ‘인봉한 책’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3) 또한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은 5:1의 책에 비해 그 책 안에 포함된 계시의 내용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 (4) 한편 ‘작은 책’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대두되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 (5) 첫째, 어떤 학자들은 ‘작은 책’이 ‘사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Ellicott, Bede).
- (6) 둘째, 다른 학자들은 천사의 손에 퍼놓은 ‘작은 책’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및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Dummelow, Kiddle).
- (7) 셋째,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작은 책’ 속에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였다(Hengstenberg).
- (8) 넷째, 이에 대해 나머지 학자들은 ‘작은 책’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 이후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Charles, Holtzmann).
- (9)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견해가 옳다고 단정을 내릴 수 없지만 ‘작은 책’ 속에 장차 되어질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11절) 넷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 ‘힘센 다른 천사’의 행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2-4절).

- Ⓐ (1) 본절에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서 사자와 같이 큰소리로 외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곱 우뢰가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 (2) 우선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8:3;12:7).
- (3) 또한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섰는데 여기서 땅과 바다는 전세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작은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전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출20:4,11;시69:34;98:4,7).
- (4) 그리고 사자 소리같이 큰소리로 외치는데 사자 소리는 흔히 위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되어지곤 했다(참조, 호11:10;암3:8).
- (5) 여기서 천사가 무엇을 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위엄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힘센 천사의 위력적이고 무서운 특성을 강조하려고 의도한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한 것이다(참조, 사42:13;렘25:30;욥3:16;암1:2).
- (6) 계속해서 천사가 큰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였는데 이는 시29:3-9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이다.
- (7) 여기서 ‘일곱 우뢰의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연관되어 그분과 그분의 사역의 신비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묘사일 뿐이지 그 소리 자체의 묘사가 계시의 본질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인봉(印封)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참조, 4:5;8:5;고후12:4).
- (8) 우리가 지닌 신앙의 요체는 항상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본체인 양 섬기려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는 모든 미신적 요소를 극복하고 항상 하나님 자신을 섬기며 경외해야 할 것이다.

5. ⓐ ‘하늘에서 난 소리’는 누구의 음성인가? (4절)

- Ⓐ (1) 본서에는 말하는 자의 신분에 대해 자세한 언급도 없이 ‘하늘의 음성’이란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참조, 1:11-13;4:1;6:6;9:13;14:13;18:4;19:9;21:5,15).
- (2) 예를 들면 ① 1:11-13;4:1;18:4;21:5,15에 나오는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② 14:13;19:9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은 천사의 소리이다.
- (3) 또 ③ 9:13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가 언급되고 있다.
- (4) 한편 본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1장의 음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뜻에 부합하며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기록에는 없는 메시지이다.
- (5) 아뭏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한성과 겸손의 필요성을 인식케 한다. 우리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참조, 왕상3:6-14;롬12:3;딤후3:15-17).

6. ⓐ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무엇인가? (5-7절)

- Ⓐ (1) 본절에는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즉 천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2) 이곳에 나오는 힘센 천사의 맹세는 단12:6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그곳에서는 천사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종말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올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 (3)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을 가리키며 이때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이다(참조, 11:2).
- (4) 또한 본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 이것은 곧 일곱째 나팔로 연결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시작된다(참조, 11:14,15).
- (5)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으로 하나님의 세째 화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간이며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 최후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이다(참조, 12:17;13:1).
- (6)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적인 모습이 계시되는 것이다(참조, 11:15-18;15:1).
- (7)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영원한 쾌락의 나라를 지향하며 오늘을 즐기고 있다. 이런 자들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분의 때가 확실하고 또한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과 더불어 영적 긴장을 조성하기에 족하다.

7. **㉠**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10절)

- ㉠**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먹어 버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에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 버리자 그 책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
- (2) 이처럼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환상은 겔2:9-3:3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그것을 철저하게 소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또한 그 책의 맛이 '입에 달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그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며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 내용이 주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다.
- (4)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으므로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쓰다는 의미이다.
- (5) 한편, 이 귀절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 (6) 우선 오리겐(Origen)은 이 귀절에 대해 '이 성경 책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매우 달지만 속에 있는 양심에는 쓰다'고 하였다.
- (7) 또 어떤이는 죄가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쓴 것으로 변한다고 했으며(Andreas), 다른 사람은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는 쓰나 입으로 전할 때는 단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Bede).
- (8) 뿐만 아니라 이 귀절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은 우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과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고전5:8;엡5:9;약2:26).

8. **㉠** 작은 책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바는 무엇인가? (8-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장에 나오는 작은 책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계신다.
- (2) 사도 요한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은 본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책의 앞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이제는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참조, 1:1;11:3).
- (3) 또한 본장의 주된 취지는 11절의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보여 주듯이 요한의 예언자적인 소명을 확인 또는 환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제 요한의 예언은 단순히 앞에 나오는 환상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사건들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12:1이하).
- (5) 뿐만 아니라 예언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기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를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5:9).
- (6)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도 요한 같은 예언자나 사도 또는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메시지를 접한 우리들은 항상 전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다(참조, 마28:19; 행5:42; 살후2:13,14; 벰전3:15).

화보자료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선 천사(1,2절)를 그린 이 그림은 베아투스(St. Beatus)의 계시록 주석에 수록된 삽화이다.



본장에는 어느 천사와는 다른 형상을 띤 한 천사가 언급되어 있다(1,2절). 그런데 그가 손에 책을 든 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곧 그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온 인류와 관계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제 11 장 두 증인의 예언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

단락구분 1 성전과 성도들을 적량하다 / 2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다 / 3-6 1,260 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의 등장과 활동 / 7-9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대로 버려 두다 / 10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다 / 11-12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리움을 받다 / 13 땅에 지진이 일어나다 / 14 세째 화의 선포 / 15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하늘의 찬양 / 16-18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다 / 19 성전의 모습과 땅에 임한 재앙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치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짧은 베틀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되

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심자가에 못박으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되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심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 들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세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되라 하니

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 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 ㉠ 본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본서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장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알포드(Alford)는 ‘이 장은 수수께끼 같으며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것 중의 하나’라고 했다.
- (2) 본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① 두 증인에 대한 환상(1-13절)과 ②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14-19절)이다.
- (3) 특히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① 성전 척량의 환상(1,2절)과 ② 두 증인의 예언(3-6절) ③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7-13절)이다.
- (4) 한편 본장 해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 (5) 이에 대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적어도 본장의 일부분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 (6)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장의 2,3,9절에 나타나는 42개월 또는 1,260일, 사흘 반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 (7)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장의 ⑦7을 참조하기 바란다.

2. Ⓒ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①〈히에론〉과 ②〈나오스〉이다(참조, 마4:5;23:35;27:51;요2:14).
- (2) 여기서 〈히에론〉은 마당과 행각 등이 포함되는 성전 전체 구조물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나오스〉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 (3)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깥 마당과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나오스〉, 즉 ‘성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4) 또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전’은 본서의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19절;15:5,8;16:17)이 아니다. 이는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장소가 지상임을 알 수 있다.
- (5) 한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재건된 유대인의 실제 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적다(Holtzmann, Walvoord).
- (6)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대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즉 이 땅에서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Charles, Plummer).
- (7) 바울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몸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참조, 고전3:16;6:19;고후6:16;엡2:21).
- (8) 뿐만 아니라 요2:19-21과 본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전을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건물로서의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참조, 7:15;14:15;16:1,17).
- (9)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대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도 공동체를 의미하며 ‘경배하는 자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참조, 13:12;히13:10).

3. Ⓒ 사도 요한이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먼저 ‘갈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칼라모스〉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흔한 식물로 그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자로 많이 사용되었다(참조, 21:15).
- (2) 본절 내용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겔 40:3-48:35까지에서는 줄과 막대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척량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도 발견하듯이 구약 시대 때는 짧은 길

이는 갈대로 척량하고 긴 길이는 밧줄로 척량했다(참조, 왕상7:23;사44:13).

- (3) 한편 성경 문학적인 의미에서 척량하는 일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원래보다 확장된 회복과 재건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의미로는 척량하는 대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참조, 삼하8:2;사28:17;렘31:39;애2:8;슌1:16;암7:17).
- (4) 이런 관점에서 본절에 나오는 척량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및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인 해나 모독으로부터 보존하고 축복하기 위한, 즉 확장된 회복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 (5) 본서 21:15-17에서도 한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척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성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21:24,27).
- (6)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보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7:1-8;13:7).
- (7)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척량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를 명백하게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겔 43:10,12).
- (8) 따라서 짐승을 경배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가장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제외되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참조, 마7:21;요일4:1-3).

4. ㉠ '성전 밖 마당'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A) (1) 본절에 나오는 '성전 밖 마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 (2) 첫째, '성전 밖 마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속해 있으나 실상은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성한 거짓된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참조, 21:8;22:15).
 - (3)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 마당에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참조, 행10:35).
 - (4) 또한 에스겔은 성전을 척량할 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참조, 겔44:5-9).
 - (5) 그러므로 '성전 밖 마당'을 척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참된 성도들과는 달리 성전 밖에 있는 거짓된 신자들은 대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서 제외되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3:1-5,16).
 - (6) 이들은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짐승의 대열에 가담하여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다(참조, 2:14-16,20-25).
 - (7) 둘째,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은 둘 다 똑같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회가 처하게 될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 즉 이방인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성전 밖 마당'을 간섭하고 교회를 짓밟는 일이 허락되지만 주께서 일찌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척량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9) 따라서 '성전 밖 마당'이 짓밟힌다는 것은 대환난 기간 동안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한 표현이다(참조, 7절;13:5,15).
 - (10) 상기한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옳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두 견해를 상호 보충하는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2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2) 여기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드네>는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뜻하며(마24:9,14; 눅24:47; 롬1:5; 15:11) 동시에 유대 민족 이외의 타민족을 가리키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참조, 마4:15; 10:5; 눅2:32; 행10:45; 롬11:11).
 (3) 더우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참조, 고전5:1; 12:12; 살전4:5; 벧전2:12; 요삼1:7).
 (4) 특히 본서에서 <에드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18절; 14:8; 19:15; 20:3) 또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2:26; 21:24,26; 22:2)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
 (5)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추종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은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받은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심하게 핍박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13:1이하).
 (7) 그러나 비록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 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참조, 2:10; 19:7,8).

6. ㉠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방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2) 첫째, 어떤 학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Holtzmann, Walvoord).
 (3) 그들은 이 주장의 근거로 ① 구약 성경의 용례(느11:1; 사48:2; 52:1; 단9:24) ② 마4:5; 27:53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 ③ 8절에서 '큰 성'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으로 언급된 점 등을 들고 있다.
 (4) 둘째, 다른 사람들은 '거룩한 성'이 본절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다(Plummer).
 (5) 이들은 본서에서 '거룩한 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리킬 때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조, 21:2,10; 22:19).
 (6) 한편 '거룩한 성은 마흔 두 달' 동안 짓밟힐 것인데 여기서 '마흔 두 달'이라는 기간은 대환난의 후반기 3년 반을 가리킨다(참조, 9절; 13:5)
 (7) 따라서 '거룩한 성'을 '교회'로 보는 둘째 견해가 본문의 뜻에 더욱 부합하며 설득력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이방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짐승이 왕 노릇하는 기간인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이다(13:5-7; 단8:10,13).

7. ㉠ '마흔 두 달'과 '일천 이백 육십 일'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3절)

- ㉠ (1) 본서에서 '마흔 두 달'이라는 표현은 본절과 13:5에만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 기간을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은 시기로 묘사하고 있다.
 (2) 또한 '일천 이백 육십 일'이라는 기간은 3절과 12:6에 나오며 12:14에서는 같은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다.
 (3) 여기서 '마흔 두 달'과 '일천 이백 육십 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다

햇수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 (4) 이와 같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의 예언이 배경이 된 것인데 단9:27에 나오는 '한 주(週)' 또는 '한 이레'는 7년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간은 다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참조, 단7:25;12:11).
- (5) 이러한 기간들이 뜻하는 바를 알아보면, '7년'은 대환난의 기간을 가리키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사단이 권세를 잡은 기간으로 혹독한 시련과 핍박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참조, 단9:24-27).
- (6) 한편 '마흔 두 달'이라는 기간은 9절의 '사흘 반' 동안과 더불어 거룩한 성에 대한 사단의 확대와 짐승의 권세잡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참조, 2절;13:5).
- (7) 반면에 '일천 이백 육십 일'이라는 기간은 12:14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의미로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 사단인 용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여자가 도망가 있는 기간이다(참조, 3절;12:6).
- (8) 따라서 두 증인이 보호되면서 예언을 하는 1,260일(3-6절)은 7년 대환난의 전 3년 반으로 여자가 광야에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
- (9) 그 후 짐승이 죽고(7절) '마흔 두 달' 동안 짐승의 살인적인 통치가 이어지는데(13:5,7, 15) 이는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으로 거룩한 성의 유린(2절)과 때를 같이한다.
- (10) 즉 본서 2,9절 및 13:5의 삼 년 반이라는 기간은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본격적인 박해의 시기이며,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단의 최후적 발악기라고 할 수 있다.
- (11) 이에 대해 3-6절과 12:6,14에 나오는 '3년 반의 기간'은 7년 환난의 전 3년 반으로 이때 두 증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회심자를 얻으며 또한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암약(暗躍)하며 교회에 대해서도 유화 정책을 펴게 된다.

8. ㉠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한 제 학설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라(3절).

- ㉠ (1) 첫째,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안(Tertullian, A.D. 160-240)은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와 동일시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위경 에녹서90:11에 나온다.
- (2) 둘째, '두 증인'이 다시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는 견해이다(Charles, Barclay). 또 어떤 학자는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직능을 수행할 미래의 두 예언자로 간주하기도 한다(Beckwith).
- (3) 한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일반화된 인식이며 A.D. 2세기까지의 초기 기독교도 이 견해를 그대로 수용했었다(참조, 막9:11-13).
- (4) 셋째, '두 증인'을 교회로 보는 견해이다(Primasius, Swete). 브루스(Bruce)는 교회의 왕과 제사장적 기능, 모리스(Morris)는 순교자들의 대표자를 가리킨다고 했다.
- (5) 넷째, 문크(Munck)는 그들을 베드로와 바울과 동일시했으며 리시(Rissi)는 교회 안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의 대표자라고 했다.

9. ㉠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3-5절)

- ㉠ (1) 본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10절) 보다더 비유적으로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일컬어지고 있다(4절).
- (2) 여기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결코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참조, 1:20;2:5;속4:1-14).
- (3) 한편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 견해들이 다양하므로 어느 하나를 독단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 (4) 그러나 '두 증인'을 두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전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예언자들로 보는 견해(Minear, Greijdanus)가 본문의 뜻에 가장 부합하며 또한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우리는 본문의 내용에서 상기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 (6) 첫째, '두 증인'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함께 예언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다시 살아나 함께 승천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처럼 행동을 꼭 같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7) 둘째, 짐승과 '두 증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7절) 이들이 단지 두 사람이라면 전쟁이라는 용어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 (8) 셋째, 본절에는 전세계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 죽은 이들의 시체를 보는 장면이 묘사 되어 있는데 이들이 오직 두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 일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9절).
- (9) 넷째, 4절에는 '두 증인'이 '두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데 '촛대'는 1장과 2장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참조, 1:12,13,20).
- (10) 상기한 것을 통해 우리는 '두 증인'이 '교회의 모든 예언자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대환난의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들의 예언을 통해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뿔박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될 것이다.
- (11) 특별히 그들이 굶은 벼슬을 입었다는 것은 겸손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사20:2; 렘6:26; 49:3; 숙13:4; 마11:21).

10. **㉠**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 (5, 6절)

- ㉠** (1) 우선 두 증인은 원수인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참조, 5절; 왕하1:10; 렘5:14).
- (2)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사르는데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한다(참조, 창19:24; 신4:24).
- (3) 그런데 불이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19:23이하; 삼하22:9; 시97:3).
- (4)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심한 학대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5) 다음으로 '두 증인'은 이 땅 위에 많은 이적과 재앙을 행할 권세를 받았는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라는 말은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사역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출7:17-21; 왕상17:1).
- (6) 또 눅4:25과 약5:17에 의하면 엘리야의 예언으로 하늘이 '3년 육 개월 동안' 단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묘하게도, 이것은 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기간인 '일천 이백 육십 일'과 일치하고 있다.
- (7)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장차 올 예언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올 것임과 그들의 진정한 사명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 (8) 동시에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나올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눅1:17).
- (9) 따라서 오늘날 주의 종된 사람들은 전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대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의 지나친 남용과 세상적 권위주의,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

양으로부터 돌이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갈1:6-9; 딤후3:15).

11. ㉠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본절에 나오는 짐승과 두 증인의 싸움은 단7:16-22의 내용이 배경된 것으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는 것은 7년 대환난의 전 3년 반이 끝날 때이다(참조, 13:5).
- (2) 즉 두 증인은 이 땅 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순교당하게 된다.
- (3) 여기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사단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은 교회가 사단에게 완전히 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에 앞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킬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으며 사단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 외관상 교회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참조, 17,18절; 마28:20; 요16:33).

12. ㉠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본절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에 나오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은 단7:3-21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째 짐승이 뿔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을 해치는 장면이 나온다.
- (3) 이를 통해 본절에 나오는 '짐승'은 본서 13:1과 17:3-8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따라서 이 '짐승'은 사단의 권력을 대행하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
- (5) 한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예언자들을 공격하여 죽이는데 이것은 단7:21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6) 또한 이는 7년 대환난의 후반기의 시작으로 이때부터 삼 년 반 동안 사단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죽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다(참조, 13:1이하).
- (7) 이처럼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신앙인들은 마침내 패망하는 것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뿐이며 결국 사단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다(참조, 13:1-4; 14:9-12; 20:7-10).

13. ㉠ '큰 성'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본절에는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저쪽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하신 곳이기도 하다.
- (2) 많은 학자들은 '큰 성'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예루살렘' 또는 '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Bengel, Charles, Walvoord, Vincent, Rint).
- (3) 그러나 '큰 성'은 문자적인 '예루살렘'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본서에 언급되어진 소돔과 애굽의 명칭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영적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큰 성'의 세 가지 명칭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첫째, '소돔'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배척 및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참조, 16:49).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반

역적이고 부패한 통치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불렀다(참조, 사1:10;겔16:46).

- (6) 둘째, '애굽'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박해한 악의 세력의 상징이다. 즉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출1:8-14).
- (7) 셋째, '큰 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다(참조, 마23:28-31,37, 38;눅13:33이하;21:20-24).
- (8) 한편 본서에서 '큰 성'은 항상 '바벨론'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데(16:19;17:18;18:10,16,18,19,21)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상 실재했던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17:5).
- (9)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큰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악하고 억압적인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킨다(참조, 17:1이하)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4. **㉠**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9절)

- ㉠** (1) 본절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게끔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42개월, 즉 삼 년 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을 의미한다(참조, 2절;13:5).
- (3) 또한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최대의 모욕을 의미했다(참조, 왕상13:22;시79:3).
- (4) 따라서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 동안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의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언적 활동이 끊어지고 침묵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13:11-18).
- (5) 반면에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은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로 여기고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 동안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반'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짐승의 승리가 잠시 동안에 불과하며 결국 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

15. **㉠**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의 주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10절)

- ㉠** (1) 본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선지자의 주검을 보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다.
- (2)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큰 축제가 있을 때 선물을 교환하여 기쁨을 표시하는 풍습이 있었다(참조, 느8:10,12;에9:9).
- (3)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은 이 풍습에 근거한 것으로 짐승을 경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4)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자들을 말한다(참조, 3:10;13:8).
- (5) 한편 이들은 두 증인이 살아 있을 때 이 두 증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당한 괴로움은 육체적인 재앙 뿐만 아니라 두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의 양심에 끼친 고통스러운 영향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다
- (6)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 증인이 죽고 사단이 득세하자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다.
- (7)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출20:3-6;요3:19,20).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과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불신과 흑암이 주관하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3:15-17; 롬13:12; 엡5:8,9; 살전5:5).

16. ㉠ 삼일 반이 지난 후 두 증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11, 12절)

- ㉠ (1) 본절에는 삼 일 반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3일 반'은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 동안울 의미한다. 따라서 '3일 반 후'는 7년 대환난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19:1이하).
- (3) 또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 저들이 부활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한다(참조, 창6:17).
- (4)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실한 종들 및 예언자들이 부활하여 주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참조, 20:4-6). 이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일컫는다.
- (5)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참조, 행1:9).
- (6) 일반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및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두 증인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표시이다(참조, 1:7; 출16:10; 대하5:13).
- (7) 한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첫째 부활 때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살전4:16,17).
- (8)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의 가혹한 박해 밑에서 신음하던 교회는 그 생명과 존귀,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참조, 20:6).
- (9)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던 악인들은 그날이 오면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끝내는 멸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참조, 20:11-15).

17. ㉠ 두 증인의 부활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3절)

- ㉠ (1)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이 지난 후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이 땅 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 (2) 여기서 '지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의미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판과 멸망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표시가 된다(참조, 6:12; 겔38:19,20; 마27:54).
- (3)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인데 본서 6:12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지진이 일어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 (4) 또한 지진 때에는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십분의 일'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창28:22; 레27:32; 민18:21; 삼상8:15,17).
- (5) 따라서 '성의 십분의 일'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성읍들 중 당신에게 바쳐져야 할 십분의 일을 형벌의 재앙을 통해 파괴하시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다.
- (6) 그리고 7000이라는 수자는 7×1000 으로 이는 하나님의 징벌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징벌은 실수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이다(참조, 1:4; 5:1).
- (7) 뿐만 아니라 지진의 재앙을 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참조, 단2:47;3:28;4:1이하).

- (8)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9:24;행12:23). 즉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인식하고 공포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 (9)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은 인격은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다(참조, 시96:3;마24:14;막16:15).

18.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음성들이 선포한 내용은 무엇인가? (15절)

- ㉠** (1) 세째 화의 도래를 예고하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 (2) 본절의 선언은 시2편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것은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지배 하에 있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참된 주권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으로 양도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3)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인데 이것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본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참조, 1:6,9;5:10;19:6;20:4;22:5).
- (4)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이라는 선언은 나오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의 최종적인 파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19:11).
- (5) 이처럼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확립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악 세상에 묻혀 사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참조, 1:9;마5:8;눅17:20,21).

19. **㉠**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 내용은 무엇인가? (16-18절)

- ㉠** (1) 본절에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친히 왕이 되셔서 죽은 자들과 사단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우리는 이십 사 장로들이 경배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첫째, 이십 사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 노릇' 하시는 것을 경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왕 노릇'은 본서 20장에 언급되었듯이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을 가리킨 것이다.
- (4) 특별히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호(聖呼)인데 본서 1:8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 (5) 그런데 본절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의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을 의미한다(참조, 눅4:6;요14:30;엡6:12).
- (6) 둘째, '죽은 자'를 심판하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참조, 14:7;16:1이하).
- (7) 여기서 '죽은 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짐승을 경배하던 불신자들을 의미하며 '땅

을 망하게 하는 자'는 사단과 음녀, 짐승 및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19:2, 11:20:10).

- (8) 세째,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본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타나고 있다.
- (9) 즉 그것은 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18:20;22:9)과 ② 순교자 및 성도들(5:8;8:34; 13:7,10;18:20;19:8) ③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참조, 14:7;15:4).
- (10) 이와 같은 본질의 찬양은 뒤에 남아 있는 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Q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A (1) 본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 (2)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한 것으로 성막이나 성전 안의 지성소에 보관하였다(참조, 출25:10-22).
- (3)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던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구원의 새 언약을 상징한다(참조, 출34:28,29;히9:11,12).
- (4) 율법으로 대표되던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되었다(참조, 히10:19-22).
- (5)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확증해 준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영광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21:22-27).
- (6) 또한 이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 주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4:3).
- (7)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큰 우박'은 임박한 재앙의 두려움을 보여 주는 것인데 성도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공포를 일으키게 해주기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참조, 6:12;8:5).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굳게 믿고 그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하겠다(참조, 21:1-4; 22:1-5;마6:33).

본장의 요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쭉대니'(4절).



제 12 장 여자와 용의 싸움

단락구분 1-2 사도 요한이 태양을 입은 여자를 보다 / 3-4 붉은 용의 등장 / 5-6 여자가 아들을 낳다 / 7-9 하늘의 전쟁 / 10-12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다 / 13 용이 여자를 핍박하다 / 14-16 여자가 용을 피하여 보호를 받다 / 17 여자의 후손과 용의 싸움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

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 ㉠ 본서에서 본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본서의 제 2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때까지(1-11장)의 내용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11장까지는 한 번도 표적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지 않는데 반해 본장에서부터는 표적에 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지상과 하늘에서의 변화와 고통이 더욱 박진감 넘치게 예시되고 있다. 특히 본장에서는 7년 대환난의 전반기 3년이 끝나고 13장부터는 7년 대환난의 후 삼 년 반이 시작된다.
- (2) 한편 본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적어도 일곱 가지의 표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 셋은 하늘에서(1,3절;15:1), 나머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13:13,14;16:14;19:20).
- (3) 그래서 본장 이후부터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적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등의 예언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참조, 11:17).

- (4) 또 12,13장은 10,11장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환난에 관한 언급을 중단하고 교회와 사단 간의 치열한 투쟁상을 기록하고 있다.
 - (5) 즉 마지막 일곱번째 대접 심판에 앞서, 여기에서는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하고 악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참조, 3:10; 6:9-11; 7:14; 11:7-10).
 - (6)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장에는 여자와 그 후손들과 싸우는 용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을 보여 주고 있으며, 13장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 받은 짐승들에게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말함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7) 특별히 본장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단의 끈질긴 도전을 여러 각도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절대 안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좀더 적극적이며 담대한 신앙을 소유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 고대의 전승에서 본장의 배경이 되는 '여인과 용과 그 아들'에 대한 이설(異說)들을 소개하라.

- ㉠ (1) 본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본래 유대교의 전승 가운데는 없지만 고대 이방 세계에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것과 유사한 전설들이 각 나라에 퍼져 있었다.
 - (2)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벨론, 헬라, 애굽에서 유행하던 것들이다.
 - (3) 바벨론의 신화는 주신(主神) 마르둑(Marduk)이 그 모친 담키나(Damkina)에게서 태어났을 때 악신 티아말(Tiamat)이 그 아이를 죽이려 했으나, 그 아이는 안전 지대로 옮겨지고 계속해서 그 모친 담키나를 죽이려 하자 그녀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도피해 버렸으므로 그 악신은 그녀의 남은 아들들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다.
 - (4) 헬라 신화는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의 신 아폴로(Apollo)를 그 어머니인 여신 레토(Leto)가 해산하려고 할 때 그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려고 용 피돈(Pytnon)이 추격을 한다.
 - (5) 그래서 그녀는 아주 작은 섬 델로스(Delos)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폴로 신을 낳았는데 출생한 지 나흘 뒤 아폴로는 파르나수스(Parnassus)에서 피돈을 발견하여 그를 델피(Delphic) 동굴에서 죽인다는 이야기이다.
 - (6) 또 애굽의 신화를 보면 여신 하틀(Hathor)은 태양신 오시리스(Osiris)의 아내로서 머리에 해를 쓰고 불타는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붉은 용 셋(Set)이 오시리스를 죽인 후 잉태한 하틀까지 죽이려 하자 그녀는 어떤 작은 섬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새 태양신 호루스(Horus)를 낳게 되고 그 아들은 끝내 붉은 용 셋을 잡아 옥에 가두어 불로 멸망시킨다는 내용이다.
 - (7) 상기한 여러 신화들이 본장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장의 배경이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및 그 이후의 기독교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적, 묵시적인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 사도 요한이 본 '여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환상과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행적 사이의 유사성을 서술하라(1, 2절).

- ㉠ (1) 어떤 학자들은 본장의 이야기와 A. D. 83년경의 도미티안(Domitian) 황제의 행적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Merrill F. Tenney).
- (2) 즉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열 살 된 아들이 죽자 즉시 그 아들을 신으로, 그의 어머니는 신의 어머니로 선포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그 시기의 주화에 이 어머니 도미티아가 신들의 어머니로 새겨져 있거나 신의 보좌에 앉아 있거나 또는 '신이신 가이사'의

어머니'라는 글과 함께 하늘 여왕의 홀(笏)과 왕관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

- (3) 다른 주화에는 이 죽은 아기가 하늘 위에 앉아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늘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일곱 별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 (4) 또 최근에 발견된 그 당시의 주화에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그 어머니도 미티아의 머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달과 그밖의 여섯 유성이 새겨져 있다.
- (5) 스타우퍼(Stauffer)는 이 주화들의 형상이 달과 별들의 주(主)로서 온 세상에 구원의 시대를 가져올 제우스 신의 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 (6) 도미티안 시대의 주화가 왕후 도미티아와 그 아들을 하늘의 주, 세상의 구세주로 높이고 있는데 반하여 본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7)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참된 하늘의 주, 앞으로 오실 왕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 자신을 신으로 우상화하던 도미티안 황제의 신화를 목살시켰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속되어 있다(참조, 빌2: 10,11).

4. ㉞ 사도 요한이 본 '여자'의 환상에 대한 신학자들의 제 견해를 서술하라.

- ㉞ (1) 신학자들간에는 사도 요한이 본 여자의 환상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이견(異見)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2) 첫째,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하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본장의 해산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이 설은 주로 고대 교부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다(Ignatius,Plummer).
- (3) 그러나 본장에 나오는 여자는 본서 17장에 나오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단인 용에 의해서 핍박받는다라는 내용이 그 중심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핍박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한 개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천주교 신학자들 중에 이 여자가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를 의미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Ford,Heidt).
- (5) 둘째, 여자는 유대 민족 또는 유대교를 가리키며 그 아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Moffatt,Walvoord).
- (6)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열 두 별은 열 두 지파를 의미하는데(창37:9-11) 유대인들은 태양을 의미하는 황도대의 12궁을 열 두 지파로 보았으며 그들 지파의 깃발이 12궁의 이름과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 (7) 이 해석은 본문의 내용을 선명하게 해주며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내증(內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큰 결점이다.
- (8) 즉 메시아가 탄생한 후에도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사실이 곧 유대 민족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언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본장의 전체적인 의도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유대 민족에 대한 핍박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는 것 같다.
- (9) 셋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며 그 아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으로 이 설이 현재 지배적인 견해이다(Alford,Bengel,Charles).

- (10) 성경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11) 또 용이 여인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교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곧 그 아들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장에는 여인의 아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여 양육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용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17절).
- (12) 상기한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여자는 교회, 그 아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세번째 설이 현재 가장 지배적이나 두번째 설도 본장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는 관점에서 거부될 수 없는 견해이다. 사실 이 세 학설은 근본적으로 상통하며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겪는 수난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5. **㉠ 사도 요한이 본 여자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본절에서 교회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동시에 성도들의 모체가 된다.
- (2) 해와 같이 눈부신 여자의 모습은 교회가 주의 영광 및 광채를 덧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빛을 지니고 있는 교회 자체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1:16,20)
- (3) 비록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사와 힘이 허약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발 아래 영원성을 상징하는 달이 있고, 택함 받은 신분임을 암시하는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녀는 참으로 거룩하고 힘이 있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품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시72:5;89:37;롬11:15-24;엡2:11;비교,마16:18).
- (4) 더우기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가 대제사장의 옷을 묘사할 때 우주적인 형상으로 별들과 해와 달을 비유로 사용했으며 사도 베드로도 교회의 제사장적 기능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점을 보아 이 여자는 사역자의 본질과 기능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참조, 벰전2:5,9;계1:6;5:19).
- (5) 이처럼 지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또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교회가 지극히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참조, 요2:17;엡1:23;4:11-13).
6. **㉠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본절에서 어린아이, 즉 여인의 씨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다.
- (2) 그러나 여기서 '아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여인의 다른 후손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Plummer, Charles).
- (3) 이 설에 의하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한 시2:9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사실 본서 2:27에서도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 (4) 또 성경 어느 곳에서나 '여인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참조, 창3:15;갈4:4)
- (5) 그리고 본장 5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노래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라고 하여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해 주고 있다.
7. **㉠ 여자가 아파서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여자는 해산의 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다. 이 부르짖음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녀의 고통과 애씀이 드러나 있다.

- (2)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사26:17;렘4:31; 호13:13; 미4:10) 이 해산의 고통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중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다.
- (3) 즉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메시아의 강림을 알리는 표로 언제나 고난을 받아 왔다(참조, 사26:17;66:7;미4:10;5:3)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수반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교회도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16:21;고후1:6).
- (5) 이처럼 '해산'이란 말 자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영육간의 진통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다(참조, 히6:7;약1:15).
- (6)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21:19;딤후6:11;히10:36;약1:34).

8. **㉠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이적'이란 어떤 것인가? (3, 4절)**

- ㉠** (1)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한 큰 붉은 용을 보았는데 그 용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 개 난 짐승으로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으며, 그 꼬리로는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 (2) 여기서 '큰 붉은 용'은 구약 성경에서는 라합, 리워야단(악어), 하마, 바다의 용, 뱀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참조 욥26:12,13;40:15-24;시89:10;사51:9,10;27:1;렘51:34-42;겔29:3-6;32:2-8;암9:3).
- (3) 이 용은 하나님의 원수로 마귀, 사단 또는 옛 뱀으로도 불리는데 결국 '큰 붉은 용'이라는 말은 거대한 세력과 사납고 잔인하며 파괴적인 본성을 지닌 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 (4) 또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란 묘사는 다니엘의 환상(단7:7-24)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땅의 열 왕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과 '열'은 둘 다 완전을 상징하는 수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사단의 권세가 매우 강력한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1:4;5:1;13:1;요12:31).
- (5) 뿐만 아니라 용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어린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과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 (6) '일곱 면류관'은 이곳과 13:1과 19:12에만 나오는데 여기서의 일곱 면류관은 세상 군주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의 권세를 나타낸다.
- (7) 이것은 성도들이 받아 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부패한 권력과 불의한 힘의 상징인 것이다.
- (8) 또한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진다'는 말에서 '하늘 별'은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사장이던 사단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유1:6).
- (9)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힘이 매우 강력하지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단을 대적할 때 주께서 사단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악의 세력에

끝내 이겨 영생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리로 악을 대적하는 일에 게을리 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참조, 요16:33; 롬12:21; 고후2:14).

9. ㉠ '용이 해산하려는... 삼키고자 하더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한 핍박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 (2) 이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 (3) 즉 사단은 바르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분쇄하려고 노력했으며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초대 그리스도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애썼다. 계속해서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독교를 삼키려고 노력했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 (4)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사단의 이 같은 노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최후적으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끝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20:7-10).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늘 깨어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히13:17; 벰전5:8)

10. ㉠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막강한 권세를 지닌 용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5절)

- ㉠ (1)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올려 가셨다.
- (2) 사도 요한은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시2:9의 내용을 암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능력은 성도들에게도 부여된 것으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사단보다 더 큰 능력과 세력으로 만국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2:27; 19:15).
- (3) 또 '이 아이가 하나님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 것으로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으며 특별히 십자가에서 용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나타내 준다.
- (4) 혹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펼치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성경 해석상 하나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Plummer, White).
- (5) 이들은 단7:13-27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인자가 서로 융화되어 있으며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 노릇과 성도들의 왕 노릇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참조, 1:5,6; 2:26, 27; 11:15).
- (6) 그 밖에도 티코니우스(Tyconius, A. D. 390), 프리마시우스(Primasius, A. D. 552), 퀴드벌테우스(Quodvultdeus, A. D. 453)와 같은 초기의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남자 아이를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도 이해하였다.
- (7) 이러한 시각에서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장차 교회도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용의 시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고 지금은 패잔병과 같은 신세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참조, 살전4:17).

11. ㉠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선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 (2) 첫째,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일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을 피하기 위해 A.D.66년 벨라(갈릴리 바다 남쪽 약 32 km되는 지점으로 지금의 타바캣 파힐(Tabaqat Fahil)을 가리킴)로 탈출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Methodius, A. D. 312).
 - (3) 둘째, 이 여자를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로 보는 사람들은 이 도피를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애굽으로 피난하셨던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였다(Barclay).
 - (4) 셋째,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건을 유대 백성들 중 일부분이 환난 기간 중에 보전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으며(Farrar), 또 다른 일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보전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ilje).
 - (5) 넷째, 이를 종말관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여인은 유대교를 가리키는데 유대교인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7년 대환난의 전반기 3년 반 동안(참조, 14절;11:3-6)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본다(Walvoord).
 - (6) 이러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마지막 설이 가장 분명하게 본질의 뜻을 밝혀 준다. 특별히 본질에 언급된 광야는 훈련과 시련과 안전의 장소를 의미한다.
 - (7) 일찌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며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서 사단의 핍박을 피했다(출3:1-4;왕상19:1-8;행7:38).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는 하나 선과 악,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선별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대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12. ㉠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7-12절).

- ㉠ (1)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 대한 묘사는 용이 여자를 핍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 (2) 하늘의 전쟁에 대한 설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①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땅으로 추방된다는 내용과 ② 하늘에서 나는 승리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 (3) 여기서 ‘하늘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7-9절뿐이라면 용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10-12절에는 실제로 용에게 치명타를 가해 성도들의 승리를 가능케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용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나타나신 것이다(참조, 마12:28,29;눅10:18;요12:31;행10:38).
 - (5) 일찌기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미가엘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첫번째 싸움을 벌임으로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 (6)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사역을 통하여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사단을 최종적으로 땅에서 쫓아내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 (7) 한편 싸움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인 미가엘과 사단의 실체인 용 사이에 우선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악이 그 규모에 있어서 이 세상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주적이며, 또 땅 위의 사건들은 먼저 하늘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참조, 딤후1:10).

13. **㉠**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12절)

- ㉠** (1) 성도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한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함으로써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실을 의미한다.
- (2) 이 사건 전에 사단은 하늘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충성스런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나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욥1:9-11; 숙3:1; 눅10:18).
- (3)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송사할 이유와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 (4)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 점점 더 심해지고 혹독해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용이 자기 권세를 마지막으로 행사하려는 최후적 시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한편 사단은 하늘 전쟁에서 실패해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은 자유하게 되었으나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이 가해지게 되었다.
- (6)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히 패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땅과 바다를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총공세를 펼 것이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것은 잠시 동안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구원을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참조, 잠11:8; 요16:33; 고후4:17).

14. **㉠** 사단과의 싸움에서 미가엘의 승리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0-12절)

- ㉠** (1) 첫째, 이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재천명되었다. 즉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된 것이며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분의 통치가 확실히 실현된 것이다.
- (2)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는 큰 음성이 있게 된다.
- (3) 둘째, 이 싸움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즉 어린양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끝내 영생을 얻으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4) 따라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단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 (5) 셋째, 사단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는 크게 분을 내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땅 위의 교회를 향해 최후의 싸움을 시도할 것이다.
- (6) 따라서 사단의 패배는 이후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일들, 즉 역사의 종말에 있을 환난과 좌절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사단의 패배로 인해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 (7) 그러나 사단은 지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역시 실패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 오더라도 인내함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엡6:11; 빌2:

12;약1:4;4:7).

15. **㉠** 여자는 용의 뱀박을 어떻게 피하였는가? (13, 14절)

- ㉠** (1)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그녀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서 7년 대환난의 전 3년 반 동안 보호함을 받아 사단의 뱀박을 피했다.
- (2) 즉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십자가 위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하늘에 있는 아이(메시아)나 성도(구원 공동체) 등을 참소할 수 없으므로 광야로 나간 여자를 뱀박한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피신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용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현재에도 기적적으로 멸망치 않고 보전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신앙과 율례를 가리킨다는 견해(Greijdanus),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는 견해(Plummer)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Barclay).
- (4)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한 경우가 많다(출19:4;신32:11;사40:31;미4:9).
- (5) 이처럼 그리스도께 대항하던 사단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공격하지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 (6) 결론적으로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인도함으로써의 손길로부터 그들을 구출했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 (7) 이와 같은 보호와 안전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다(참조, 마16:33). 사실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갖고 진리를 거스리며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에 빠지는 것이 된다. 성도에게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다(참조, 히11:6-13).

16. **㉠** 사단이 여자를 뱀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15, 16절)

- ㉠** (1)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냈다.
- (2) 때로 용은 바다의 짐승(욥7:12;렘51:34-42;겔29:3-6), 악어(시74:12-19;사27:1) 등으로도 불려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물을 토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3)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홍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홍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 문학적인 관점에서 심판과 불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참조, 시69:15;90:5;사59:19;렘46:7;단9:26;암9:5).
- (4) 따라서 홍수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뱀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형태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쓰디쓴 고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또 이것은 재해(시18:4)나 적에 의한 멸망(시32:6;나1:8), 즉 이슬람 세력을 포함한 이단, 고트족의 침공 등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6) 이처럼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뱀박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멸망으로부터 온전하게 보전될 것이며(참조, 사26:20;43:2)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15:20).

17. **㉠**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것은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 주로 불신과 죄악의 장소로 규정되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가 마귀의 꾀박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 (3)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설, 모든 형태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견해(Plummer),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 민족들의 공격이라는 견해(Walvoord)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초자연적인 섭리 또는 그 섭리의 도구를 가리킨다.
- (4) 사실 팔레스틴의 땅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땅 위의 물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환경적 배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 (5)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조치가 신속하며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게 된 사단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6) 사단은 오늘도 온갖 거짓 사상, 타락한 문화 및 정치적 압제 등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도전에도 굴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며 말은 바소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3:10; 딤후2:19).

18. ⓐ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사단은 여자를 꾀박하여 삼키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꾀박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3) 첫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유대교와는 구별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Glasson).
- (4) 둘째, 어떤 학자들은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고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서는 유대인 성도를 가리킨다고 한다(Walvoord).
- (5) 셋째, 또 다른 학자들은 여자를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구성된 보편적이고도 이상적인 교회로 보며 '남은 자손'은 신앙 공동체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단에게 꾀박과 순교당하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한다고 여긴다(Swete, Caird, Kiddle).
- (6) 이 가운데 본문의 내용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제된 성도들(개종한 유대인도 포함)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참조, 마25:40; 히2:11,12).
- (7) 이처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를 이길 수는 없지만 공동체 중의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주를 증거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과 또 다른 싸움을 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바닷가-이는 강력한 세력을 지닌 반기독교 국가를 상징)에서 있게 된 것이다(참조, 11:7; 13:7,15; 마16:18).
- (8) 따라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최후적 시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 기회가 닿는 한 성도를 공격하며 교회를 꾀박한다.
- (9)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도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꾀박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참조, 눅21:16-18; 엡6:10-18).

제 13 장 두 짐승의 등장

단락구분 1-2 첫번째 짐승의 등장 / 3-4 짐승의 상처가 낫자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다 / 5-8 짐승이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 / 9-10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 11-12 두번째 짐승의 등장 / 13-15 두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게 하다 / 16-18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다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

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뜻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육이니라

1. ㉠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라.

- ㉠ (1) A. D. 2세기경부터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2) 첫째, 어떤 초기 해석자들은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대로 70주의 후반기(마지막 1주) 동안 권세를 잡고 세상을 속이는 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참조, 단7:25).
- (3) 신약 외경 바나바의 서신(A. D. 70-100?)에서도 신자들에게 이제 곧 ‘마지막 거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거치는 것이 단7:24의 ‘작은 뿔’이라고 하였다.

- (4) 또한 순교자 저스틴(Justin, A. D. 165)도 자기 생전에 단7:25에 기록된 것처럼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 (5) 적그리스도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논한 사람은 이레니우스(Irenaeus, A. D. 202)인데 그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단7:8의 작은 뿔로 단 지파에서 날 불의한 왕이며 다니엘서에 언급된 제 70번째 주(週)의 후기 3년 반 동안 땅의 권세를 잡을 자라고 했다(단9:27).
- (6) 또 이레니우스는 적그리스도를 본장의 첫째 짐승 및 살후2:3,4의 '불법의 사람'으로 보고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에서 자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7) 이레니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Hippolytus, A. D. 235)와 터툴리안(Tertullian, A. D. 220), 빅토리누스(Victorinus, A. D. 304) 등은 이것을 약간 수정한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최근에 와서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Bruce, Gaebelin, Ladd, Morris, Mounce, Scofield).
- (8) 둘째, 다른 한편에서는 요한 서신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개념에 더 의존해 적그리스도를 그 당시 유행하던 이단의 위협으로 이해했다(참조, 요일2:18,22;4:3;요일1:7).
- (9)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Polycarp, A. D. 155)은 그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던 영지주의자들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이해했다.
- (10) 또 루터, 칼빈 등을 위시한 종교 개혁자들은 짐승을 로마 카톨릭 교회 또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인 교황으로 보았다.
- (11) 그러나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신학적 이단자로 보고 있다(Berkouwer, Minear, Newman).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는 요한 서신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과, 짐승을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12) 상기한 사실을 통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신학적 이단과 더불어 장차 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2.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A) (1) 본장은 그 내용상 12장과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단의 계속되는 핍박이 언급되어 있다. 전장에서 언급되었던 사단과 교회와의 영적 투쟁은 이제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과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 (2) 짐승의 활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의 최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온 천하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까지도 속여서 짐승을 경배케 하려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3) 본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용의 부하들로서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의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전자는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후자는 교회의 내부에 들어와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살시키고 부패시킨다.
- (5) 본장에서 사도 요한은 짐승과 용이 공모하여 온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핍박하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6) 그러므로 말세를 맞은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다가오는 사단의 핍박에 대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거짓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패시키는 활동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참조, 마7:

22;벤험2:10-22).

3. ㉠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본절에 나오는 짐승은 구약 성경의 리워야단(악어)과 연결되는데 구약에 인용된 리워야단과 라합, 뱀 등의 짐승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굽과 앗수르 등의 열강들을 의미했다(참조, 시74:14;사27:1;51:9;겔32:6-8).
- (2) 여기서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본서 17:15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과(11:7)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자는 후자가 자신을 가장한 마지막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3)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전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난 여러 나라의 정권을 의미하며 이들은 용의 권력을 대행하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게 된다.
- (4) 또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단7장과 본서 17:9-13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다니엘서에는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다.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는 사단과 협력하는 세력이며, 사람들을 기만, 현혹 또는 우상 숭배, 영적 모독 및 간음을 통해 사단의 제자로 유혹하는 자들은 본장에 나오는 짐승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 (6) 이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나 다른 제국들과 같은 단순한 정치적 실체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증스런 불의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자들까지도 묘사하고 있다.
- (7) 동시에 이러한 거짓된 세력들은 최후에는 성도들에게 파괴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

4. ㉠ 짐승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1, 2절).

- ㉠ (1) 사도 요한은 첫째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 (2)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에서 이 표현은 본서 12:3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이것은 단7장의 상징에서 해석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서가 기록될 당시 이 권세는 이교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에서 열 면류관은 세상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5) 결국 뿔 위의 면류관은 이 짐승에게 부여된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주된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6)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에서 '참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는 보통 '해방하다' 또는 '모독하다'로 번역되는데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세는 참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다.
- (7)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만왕의 왕', '신의 아들', '신' 등의 칭호를 로마 황제들이 사용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나(Bede, Hengstenberg) 이것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보다 좀더 광범위한 것으로 강력한 권세를 의미하며 종말에 가서야 완전히 성취될 악의 실체이다.
- (8) 또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에서 이 귀절은 단7:3-6과 매우 유사하다.
- (9) 단7장에서 이 짐승은 상기한 세 동물의 특징을 종합하고 있는데 사자는 당당한 권세와

지배력을, 곰은 힘과 끈기를, 표범은 신속함과 잔인함을 의미한다.

- (10) 따라서 이 짐승은 전에 있던 어떠한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욱 무서운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환상은 그 당시 강력한 권력 집단이었던 로마 제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AI-ford).

5. ㉠ 용이 짐승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2) 여기서 용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짐승이 용의 모든 권세와 영향력을 이 땅 위에 휘두르기 때문이다.
 (3) 사단(용)은 전쟁에 패함으로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를 잃어버렸다. 대신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4)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파괴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성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참조, 12장 ㉠ 15-17).
 (5) 그럼에도 사단은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핍박하고 육체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참조, 마10:28).
 (6) 또한 사단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들은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이다(참조, 엡6:10, 12).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얻어 사단과 그의 종이 된 악한 세상 권력에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전투는 분명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참조, 엡6:13-18).

6. ㉠ '상(傷)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본절에서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상처가 완쾌됨으로 짐승과 용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짐승을 인정하고 숭배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2) 그런데 '상한 머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이 머리가 카톨릭 교회 초기의 교황들, 즉 그레고리 7세에서 인노센트 3세까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Bengel).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거의 지지받지 못하는 견해이다.
 (4) 둘째, 어떤 학자들은 이 상한 머리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 크게 유행하던 '네로 재출현설'과 연관이 있는, 즉 네로의 회생(回生)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Weiss, Moffatt). 그런데 상한 머리가 네로의 회생을 의미한다는 이 설은 바다 짐승이 로마 제국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네로 재출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로가 그의 통치 말기에 실정으로 근위대와 원로원에서 쫓겨나 결국 자살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고 동방의 파르디아(Parthia)로 피신했으며 얼마 있지 않아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왕권을 회복하려 온다고 믿고 있었다. 이를 '네로 회생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6) 오늘날 본서를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절충한 해석자들도 적지않게 위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Mounce).

- (7) 그러나 상한 머리가 네로의 회생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혹자들은 이 견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으며 본장 및 17장과도 상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Minear, Newman).
- (8) 오히려 이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받은 사단의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참조, 창3:15). 이런 사실로 인해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굴복하고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여 사단이 이 세상에서도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 (9) 그러나 세상에 대한 사단의 권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외관상의 치명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키워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케 한다.
- (10) 이처럼 비록 사단의 세력이 한 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성도들을 핍박하며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자만치 말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교제함으로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약4:6,7).

7. **㉠** 사람들의 짐승에 대한 경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3, 4절)

- ㉠** (1) 첫째,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즉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상처인 것처럼 보였던 짐승의 상처가 완쾌되자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숭배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부활)을 본딴 것임에 분명하다.
- (2) 둘째,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하면서 짐승을 경배했다. 여기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표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모방한 것으로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참조, 출15:11; 시35:10; 사46:5; 미7:18).
- (3) 이처럼 이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인간의 충성을 도중에 강탈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와 찬미를 받으려 한다. 이것은 그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됨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 (4) 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라는 표현은 그의 권세와 능력을 과장한 것으로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훼방하는 말이다.
- (5) 용과 짐승이 서로 음모하는 목적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땅 위에는 사단의 속임이 더욱 교묘해지고 확대되어진다.
- (6) 이제 그 짐승은 인류 전체에게 숭배받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로 강한 자임을 과시한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 낼 수가 없어 보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한다.
- (7) 그런데 사단이 이처럼 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짐승이 성도들의 육체를 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신앙적 절개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순교를 통해 실제적으로는 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2:10; 20:4).

8. **㉠** 짐승이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 (5-7절)

- ㉠** (1) 첫째, 짐승은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단7:8의 네째 짐승으로부터 돌아난 뿔에게도 '큰 말하는 입'이 주어졌었다.
- (2) 하나님께서는 크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짐승이 이런 권세를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 결국 짐승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여기서 '큰 말'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며, '참람된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킨다.
- (4) 둘째, 짐승은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마흔 두달'은 7년 환난 중 후 3년 반 동안을 의미하는데 이때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참조, 15절; 11:29).
- (5) 셋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군사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긴다'는 것은 짐승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적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2:16; 11:7; 마 10:28; 고 후 10:4).
- (6) 넷째,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사단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한다(참조, 눅 4:4-7; 요일 5:19).
- (7) 이처럼 사단의 권세가 땅의 모든 구석까지 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사단의 손에 넘어간 것은 아니다.
- (8) 오히려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육신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짐승은 패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참조, 11:7, 21). 물론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참조, 15:2).
- (9)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계속 간직함으로 끝날에 영화로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11:2, 8; 빌 3:20).

9. ㉠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

- ㉠ (1)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로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이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 (2) '생명책'이란 표현은 본서와 빌 4:3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리키며 그 영생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이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로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참조, 3:5; 20:12, 15; 21:27).
 - (3) 또 본절에서 '창세 이후로'란 말이 '녹명되지 못한'을 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을 수식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4) '죽임을 당한'을 수식하는 경우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강조하고, '녹명되지 못한'을 수식할 경우는 택하신 아들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지(豫知)를 강조하고 있다(참조, 8절; 17:8; 벰전 1:20).
 - (5) 어느 경우이든 '창세 때부터'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본절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 (6)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둘 사이의 구별을 통해 어린양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부탁과 더불어 이단에 대한 분명한 식별을 요구하고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진리로부터 구별해 내어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참조, 요8:32; 롬1:18; 약3:14; 요일2:4,21).

10. **㉠**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 10절)

- ㉠** (1) 환난의 때가 되면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인데 이러한 악의 지배에 당면해서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절의 '사로잡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라는 말의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한글 개역 성경처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라고 해석한다(Weiss, Clarke).
- (4) 둘째, 다른 학자들은 '사로잡히게 된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으리니'라고 해석한다(Bousset).
- (5) 셋째, '사로잡히게 될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으리니'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다(Charles, Lohmeyer, Moffatt).
- (6)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절의 어투가 렘15:2; 43:11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거기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 (7) 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기근을 당하고 병을 앓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 (8) 따라서 여기에서 문맥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 주며 뒤따르는 귀절과도 부합되는 것은 세번째 학설이다.
- (9) 즉 사로잡히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래도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자는 아무래도 칼로 죽을 것이니 환난을 견디며 순교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 (10)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인내이다. 동시에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인내와 충성심을 표명해야만 한다(참조, 2:10; 3:5,10; 빌1:28). 신앙의 경주는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각자의 성실성과 인내가 필요한 경주이다.

11. **㉠** '땅에서 올라온' 두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두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 (2)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아침을 하며 그 짐승을 떠받드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 불리어지고 있다(참조, 16:13; 19:20; 20:10).
- (3)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 (4) 첫째, 어떤 학자들은 이 두번째 짐승도 첫번째 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력이나 무신론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Bengel, Victorinus).
- (5) 둘째,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첫번째 짐승을 회색한 네로로 보는 견해를 따라 이 짐승을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을 담당했던 제사장으로 보고 있다(Bousset, Weiss, Charles).
- (6) 특히 알포드(Alford)를 위시한 몇몇 학자들은 이 주장을 모든 시대로 확대하여 이 두번째 짐승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종교적 권력'이라고 했다.

- (7) 세째,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은 첫번째 짐승을 로마와 동일시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이레니우스(A. D. 2C)의 견해를 따라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 악한 세력들을 두번째 짐승으로 보았다(Berkouwer).
- (8) 그래서 히폴리투스(A. D. 3C) 같은 학자는 두번째 짐승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시했으며, 빅토리누스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 앞에서 마술을 행할 거짓 예언자로 말하고 있다.
- (9) 이 견해는 바다 짐승을 특정의 정치적 실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세계적인 사단의 제도라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그릇된 사상과 문화 전반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악한 움직임은 11장에서 두 증인들로 비유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참예언자들의 활동과 대조가 된다.

12. ㉠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땅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이는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사단의 음모라고 할 수 있다(참조, 8절; 5:6; 14:1).
- (2) 땅 짐승의 두 뿔은 11장의 신실한 두 증인과 대조되는 것으로 혹자들은 이 두 뿔이 두 왕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larke). 그러나 본절에서는 단순히 양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 (3) 이처럼 땅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내어 그리스도처럼 양의 모습을 하고 나아오나 실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이며 위선과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이다(참조, 마7:15; 15:18).
- (4) 또한 그 짐승은 '용처럼 말하는데' 이는 이 짐승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비록 그가 그리스도처럼 가장할지라도 그 속은 사단의 체계로 가득 차 있다.
- (5) 여기서 '말'이란 내심(內心)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 짐승이 경건을 가장하여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지라도 그 가르침 자체는 근본적으로 거짓되며 악할 수밖에 없다(참조, 14절; 19:20).
- (6) 이처럼 바다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땅 짐승은 내적인 방법 곧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교회를 부패 타락시킨다.
- (7) 그런데 바다 짐승보다도 이 땅 짐승이 더 위험스러운 것은 그 짐승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꾸민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번째 짐승의 핍박에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이 짐승의 유혹에는 넘어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8)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경고하신 것이다(마7:15).
- (9)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인내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내부적 도전에 동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 열심히 묵상해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16:18; 고후11:14).

13. ㉠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12-14절)

- ㉠ (1) 땅 짐승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케 하는 것이다.
- (2) 이 일을 위해서 이 짐승은 먼저 나온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이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 및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업고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 (3) 또한 이 땅 짐승은 사람들을 속여서 첫번째 짐승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단에게 속한 거짓 예언자들도 기만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입증되어 있다(참조, 16:14; 19:20; 신13:1-5; 마7:22; 24:24; 막13:22; 살후2:9).
- (4)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한다. 여기서 우상 숭배는 첫번째 짐승과 그것을 떠받드는 두번째 짐승, 즉 거짓 예언자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차원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참조, 마24:11; 요일4:6).
- (5)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생기(헬, 프뉴마)를 준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가운데는 생명력과 실재성 그리고 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단3:1-11; 행7:60; 12:1,2; 요일2:26; 3:7). 이는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적인 교만이라 할 수 있다.
- (6)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음으로 어떠한 일도 다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이런 이적들 자체가 결코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짓 예언자들이 기이한 이적을 행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하겠으며 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하겠다(참조, 요16:13; 고후11:14).

14. ㉠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떠한 이적을 행하였는가? (13-15절)

- ㉠ (1) 첫째, 두번째 짐승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짐승이 소유한 능력 중 하나를 본보기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내린 불(왕상18:38)이나 참된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불(11:5)과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참증인들의 불의 사용과 거짓 예언자들이 불을 사용하는 일 사이를 의식적으로 대조시키려 한 것을 볼 수 있다(비교, 눅9:54).
- (3)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불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의미하며 거짓 예언자인 이 짐승의 불은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은 거짓된 종교 집단을 만들어 내는 은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E.Watson, B.Hamilton).
- (4)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첫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했다.
- (5)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뉴마>는 '영혼'이란 뜻을 가진 말로 우상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권능은 절정에 달하여 하나님을 흉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 (6) 또한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을 통해 사단은 자신이 생명력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물론 이것은 사단의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 (7) 결국 사단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자신의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다(참조, 2:13; 행7:60; 12:1,2).
- (8)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온갖 능력과 신비한 역사를 동원하여 미숙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 정도는 있다(사단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음; 참조, 출7:11,12).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능력의 근원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에 비해 거짓 종교인들은 자신의 치부와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자라 할 수 있다(참조, 마24:24; 약4:7; 벰전5:8).

15. ㉠ 사람들이 받은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 두번째 짐승으로부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와 같은 것이다(참조, 17절; 14:11;15:2;19:20;20:4).
- (2) '표'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라그마>는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물로 남는 명각(銘刻)이나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짐승에게 박는 '낙인' 등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 (3)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나 군인들에게 '인'(헬,스프라기스)을 찍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그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 경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특별히 오른손과 이마 이 두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데빌림(기도 두루마기)을 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4) 그런데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실제로 신체의 일부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처럼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다(참조, 7:3;14:1).
- (5) 다시 말해 '표'는 문자 그대로 몸에 인을 찍어 증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권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사도 요한의 상징적인 표현 방법인 것이다. 즉 성도들이 그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낙인(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상처와 번뇌 등)을 지니고 있듯이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도 사단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낙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의 대표격이며 '이마'는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의미한다.
- (6) 한편 17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매매'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성도들에게 사회·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것을 언급한 말이다.
- (7) 이처럼 사단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되는 경제 활동까지도 방해하여 성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카타콤의 성도들 등)은 많이 있었다.

16. ㉠ 짐승의 수인 '육백 육십 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짐승의 수인 666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수자에 의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수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의한 해석이다.
- (2) 첫째, 어떤 학자들은 '그 수를 세어 보라... 수는 육백 육십 육이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Barclay).
- (3) 예컨대 로마 황제 칼리굴라, 트라얀, 배교자 유리안, 반달족, 쟈세릭, 교황 베네딕트 9세와 바오로 5세, 마호멧,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그리고 나폴레옹 등을 들 수 있다
- (4)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수자에 의한 해석법을 취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666이 '네로 황제'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희생한 네로와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Abbott, Gunkel).
- (5) 즉 네로 황제의 히브리음(원래 모음 없음)은 네론 가이살(NRON KSR)인데 이 문자들이 의미하는 수자를(50+200+6+50+100+60+200) 모두 합치면 666이 된다. 또한 이 666은 아라비아 수자를 1에서 36까지 합한 수이기도 한데 본서에는 짐승의 활동이 36번 나오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 (6) 그런데 최근에 와서 666을 희생한 네로로 보는 견해나 사단의 활동이 36번 거듭된다는 학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Minear, Rühle).
- (7) 이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본서의 어디에서도 해석 방법으로 수자 놀이를 적용시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자들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 (8) 그 예로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십 사 장로, 144,000명의 인 맞은 자, 새 예루살렘 성곽의 144규빗 등을 들 수 있다.
- (9) 따라서 이 학자들은 666이 수자 맞추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Minear, Newman).
- (10) 또한 이것에 대한 가장 오랜 해석자들 중의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이 수가 모든 배교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전역사를 통해 사단이 행한 불의, 사악함, 기만 및 모든 거짓 예언을 가리킨다고 했다.
- (11) 666이란 수자는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수 6을 3개 포개 놓은 것으로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성에 대한 마귀적인 모방, 현혹성, 환난, 저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악한 마귀의 수라고 할 수 있다(참조, 서론 ㉑ 16).
- (12) 이렇게 666을 이름의 암호로 보기 보다는 부정한 악의 실체 또는 반역적인 모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자로 보는 해석은 현대의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Gaebelein, Seiss, Walvoord, Morris, Torrance).

연구자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본서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온다. 그중의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1절)이며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11절)이다.

이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본서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11:7), '붉은 빛 짐승' (17:3),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17:7) '전에 있었다가 시방(時方)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17:8)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니(1, 2절) 구약 시대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단7:2-7)과 아주 흡사하다. 따라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적 지배 세력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본서에서 일명 '거짓 선지자' (16:13; 19:20; 20:10)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이 두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모든 이방 종교와 그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된 신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권력과도 밀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편 사도 요한 시대에 있어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정치 세력이 곧 로마 제국이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이방 종교가 곧 황제, 숭배, 쥬피터(Jupiter), 다이아나(Diana) 숭배 등과 같은 이교 예식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이 멸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배 세력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참조, 17:8).

제 14 장 구속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에 의한 대심판의 예고

단락구분 / 어린양과 구속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 시온 산에 서다 / 2-5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 / 6-7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다 / 8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 / 9-11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다 / 12 성도들의 인내를 격려하다 / 13 성도들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 / 14-16 곡식의 추수 / 17-20 추수한 포도송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앉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들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사다디온에 퍼졌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앞의 두 장(12,13장)이 교회가 겪는 핍박과 종말이 가까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따르는 회생을 예견해 주고 있는 반면, 본장에서는 성도들의 회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즉 본장에는 현재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시해 줌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
- (3) 특히 본서의 7장에서는 144,000명이 단지 인치심을 받은 자에 불과했으나 이제 여기서는 이미 구원된 자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는 승리의 노래에 둘러싸여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에서는 짐승의 표받기를 거절하고 죽임을 당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며(1-5절), 동시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종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6-20절) 하는 두 가지 대조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 (5) 즉 본장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여 구원받고 면류관을 얻게 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사단과 그 종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참조, 고전6:20; 고후11:2).

2. **Q** 어린양되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시온 산'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A** (1) 시온 산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구릉 지대로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고향이라 할 만큼 그 역사성이 깊은 곳이다. 특별히 이곳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났다. 즉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다의 전영토와 이스라엘 전족속을 의미했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2) 또 구약 성경과 예언적 전승들에서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상징되어지곤 했다(참조, 시48:1; 사24:23; 율2:32; 미4:1,7; 숙14:10).
- (3) 마찬가지로 후기 유대교의 묵시 문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안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 외경 에스라4서 13:35-40).
- (4) 그런데 본절에 언급된 '시온'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5) 첫째, 어떤 학자들은 시온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구속받은 144,000명이 거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Kiddle, Bengel, Plummer).
- (6) 신약 성경에는 시온이 일곱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다섯 개는 구약에서 인용한 것인 반면, 나머지 두 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본절과 히12:22,23에 나타나고 있다.
- (7) 여기서 위의 학자들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라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본절의 '시온'과 연관시켜 시온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 (8) 둘째, 또 다른 학자들은 시온은 하나님과 그 사자들의 처소를 가리키는 하늘의 명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Murray, Alford, Walvoord, Charles).
- (9) 이들에 의하면 히12:22의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갈4:26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건설된 메시아 왕국의 전형 및 모델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 (10) 또 그들은 유대교 사상을 예로 들어 시온이 지금은 하늘에 존재할지라도 종말에는 완전히 실현되어 이 땅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11)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을 내리긴 어렵지만 시온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는 둘째 학설이 사람들에게 의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 구속받은 144,000명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가? (1절)

- ㉠** (1) 본절에 언급된 144,000명은 본서 7:3의 144,000명과 같은 무리들로 단순히 유대 지파나 유대인 성도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 완성된 교회를 가리킨다(Alford, Caird).
- (2) 여기서 144,000명은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그들이 짐승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 준다.
- (3) 또한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히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 커다란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다(참조, 뱀전2:9).
- (4) 한편 본장에서 144,000명을 구성하는 무리들은 본서의 7장과 동일인들이지만 7장보다도 사건이 훨씬 진전되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 (5) 즉 7장에서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것과 더불어 순교당한 무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종말론적인 나라에서 부활하여 어린양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6) 다시 말해 본서 7장에서 144,000명은 아직까지 대환난을 겪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대환난을 경험하고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7장에서 그들은 단순히 인치심을 받은 반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마에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7) 이처럼 본장에서는 승리한 교회가 받을 축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 흠없는 자들이 되어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참조, 출12:5; 레19:2; 마5:48)

4. **㉠**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내는 '음성'(헬, 포네)이었다(참조, 마6:25; 10:31; 16:26).
- (2) 즉 이 음성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음성이 아니라 천사들의 큰 합창으로 많은 물 소리처럼, 큰 뇌성처럼 그리고 거문고 타는 소리처럼 울렸다(참조, 5:8, 11; 6:1; 19:1, 6).
- (3)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 소리'는 크고 우렁찬 소리들, '큰 뇌성'은 위엄과 승리들, '거문고 타는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찬양은 크고 위엄차고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천사들의 개선가인 것이다.
- (4)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 성도들의 승리와 하늘 보좌의 기쁨 간에는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동시에 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마6:25; 10:31; 16:26).

5. **㉠** '새 노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3절).

- ㉠** (1) 새 노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으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어린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144,000명의 성도들뿐이다.
- (2) 그 이유는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만이 핍박과 죽음의 시련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 (3) 또 이 노래를 '새'(헬, 카이네) 노래라고 부른 것은 이 노래가 모든 옛 노래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즉 죄 가운데 있는 옛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참조, 2:17; 롬8:1-6; 12:2).
- (5) 여기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명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전을 지불한’ 사람들과(5:9)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7:4-8) 및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7:14-17)을 의미한다.
- (6)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고전6:20; 고후11:2; 히12:2).

6. ㉠ 구속받은 십 사만 사천 성도들의 자격 및 특징은 무엇인가? (4, 5절)

- ㉠ (1)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 (2)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① 성적(性的) 순결을 의미한다는 것과 ② 영적인 우상 숭배나 배교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 (3) 우선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성적 순결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에 의하면 ‘더럽히다’(헬, 몰뤼노)는 말은 부부간의 단순한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나 간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Alford, Charles).
- (4)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부부간의 성생활을 더러운 행위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또 어떤 학자는 이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실제로 독신 생활을 언급한 것이며 독신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iddle).
- (6) 그러나 본절에 나오는 ‘정절’(헬, 파르테노스)이란 말은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에게도 사용되며 실제로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과부들에 대해서도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키들(Kiddle)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 (7) 다음으로 다른 학자들은 이 말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 영적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Clarke, Plummer, Rist).
- (8) 그런데 이 주장은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절친한 사이로 묘사하기 위해 흔히 남녀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참조, 왕하19:21; 사37:22; 렘18:13; 암5:2; 고후11:2).
- (9) 둘째, 이 사람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지상에 거할 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스런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
- (10) 셋째,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서 원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거룩한 제물을 가리켰으나 본절에서는 구속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한 명예를 차지한 자들을 의미한다(참조, 민18:12; 신18:4; 렘2:3; 약1:18).
- (11) 즉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로 증명된 자들이며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신한 자들로 장차 주(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성별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질 자들이다.

(12) 네째,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흠이 없는’은 생활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간직한 자들이다(참조, 히9:14; 벰전1:19).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15:1-2; 엡1:4; 5:27; 골1:22).

7. ㉠ 첫번째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인가? (6, 7절)

- ㉠ (1) 첫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참조, 전12:13).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참조, 13:7; 마24:14; 갈1:9).
- (4) 이와 같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천사가 종말적 심판을 선포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 (5) 이처럼 심판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구원 사건과 더불어 2대(二大)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교리이다(참조, 16:7; 18:10; 19:2).
- (6) 또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함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부르고 계신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만 하겠다(참조, 막16:15; 행1:8; 엡6:19).

8. ㉠ 둘째 천사가 전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8절).

- ㉠ (1) 둘째 천사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 (2)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며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다니엘서에서 인용되어진 것이다(사14장; 단4:30).
- (3)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온갖 권세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정황과 묵시 문학의 표현 방법으로 보아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직접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이것은 또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력에도 적용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한다.
- (5) 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투 오이누 투 두무 테스 포르네이아스>로 이는 병렬된 두 개의 문장, 즉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로 번역될 수 있다.
- (6) 이는 렘51:7,8의 ‘바벨론은 여호와와 수종의 온 세계로 취(醉)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줄지에 넘어져 파멸되니’라는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온 정신을 빼앗긴 채 있

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육체적 쾌락의 잔을 마신 자들은 영·육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

- (7) 이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음행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단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은 어떤 면에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8) 따라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현대에 범람하는 온갖 종류의 성적 유희와 탐심을 물리치고 경건에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눅12:15;엡5:3;벧전2:11).

9. ㉠ 세째 천사가 전한 내용은 무엇인가? (9-12절)

- ㉠ (1) 세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다.
- (2) 그 심판은 첫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한 '포도주'는 독주에 해당할 만큼 그 농도가 짙어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때면 금방 취하고 인사 불성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맹렬하여 한번 당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바로 그러한 파괴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다스리신다(시75:8;사51:17).
- (3) 둘째, 이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어린양되신 그리스도는 심판대 앞에서 있다.
- (4)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종 되었던 자들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창19:28;사34:9,10;눅16:23).
- (5) 세째, 이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대조가 되고 있다.
- (6) 이처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이며 결국 짐승 숭배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7:15;살후1:6,7).
- (7) 여기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최대의 시험은 꾸준한 인내심으로 짐승의 유희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겠다(참조, 1:3;2:26;3:8-10;비교, 빌1:28-30).

10. ㉠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13절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에서 '자금 이후로'가 무엇을 수식하며 또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3) 즉 지금 이후로 ① '죽는'을 수식하고 있다는 주장과(Charles, Plummer) 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금 이후로'가 '죽는'을 수식한다는 설이 본문의 뜻을 분명하게 해준다.
- (4) 또 '자금 이후'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때부터를 의미한다는 주장과(Moffatt) ② 성도들이 죽는 순간부터를 의미한다는 주장(Beckwith)과 ③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즉 최후의 심판 때부터를 의미한다는 세 가지

주장으로 크게 나누어진다(Alford).

- (5)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없는데 그것은 상기한 각 주장들이 다 옳은 일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기서 본귀절은 성도들의 복된 죽음과, 불과 유향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용과 그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2:2; 히6:10).
- (7) 그런데 상기한 복은 그리스도에 대해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일과 나태를 떨쳐 버리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참조, 왕상10:9; 마12:18; 살후1:11)).

11. ㉠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A) (1)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
- (2) 여기서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앉았는데’에서 흰 구름과 인자는 단7:13의 예언과 본서 1:7과 마24:30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흰 구름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 것이며 인자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6:2; 눅21:27; 요5:22,27; 행17:31).
- (3) 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에서 금면류관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승리의 면류관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관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6:2; 19:12).
- (4) ‘손에 이한 낫을’ 가지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3:12-14의 말씀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
- (5)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신다. 한 번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이제는 그것을 추수하러 오시는데, 이는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한다(참조, 마13:37; 요4:35-38).
- (6) 이러한 마지막의 추수 때 참된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만 하겠다(참조, 마3:12; 24:31; 딤후1:12-14).

12. ㉠ 곡식을 추수하는 천사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5, 16절)

- (A) (1)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에서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천사의 임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추수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더욱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추수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참조, 7:15).
- (3) 이처럼 추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며(렘51:33; 호6:11; 율3:13),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땅의 추수로 비유하신 적이 있다(참조, 마13:30,39).
- (4) 한편 본절에 나오는 수확 비유는 땅에서 그의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불신자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뒤에 나오는 포도 수확의 비유는(17-29절)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킨다.

- (5) 이와 같은 선 구원, 후 심판의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것으로 본서 7장에 나오는 언급과 마25:31-46의 양과 염소의 비유, 마3:12과 눅3:17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도 역시 그러하다.
- (6) 이처럼 성경에서 서로 대조되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결과와 악한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7) 이것은 또한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나서 그 후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한 이전의 내용과도 상응하는 것이다(6-11절).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영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참조, 22:20; 마9:37,38; 막16:15).

13. ㉠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19절)

- ㉠ (1) 포도송이의 추수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참조, 10절). 따라서 포도 추수는 축복과 구원의 추수가 아니라 저주와 형벌의 추수이다.
- (2) 이 추수는 두 천사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곡식의 추수와는 대조적이다. 이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온 것을 뜻한다.
- (3) 또 ‘포도가 익었느니라’는 말은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하였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신원의 때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의미한다.
- (4)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피가 나서’라는 말은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무참히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악인들도 포도송이가 밭에 짓밟히고 틀에 눌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5) 이는 악인이 당할 최후를 예고해 줌과 동시에 땅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 위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주께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신원해 주실 날을 바라보아야 하겠다(참조, 사61:1-3).
- (6) 또한 이 땅 위에 죄와 불의가 관영하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잠시뿐이며 이들에게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악의 온갖 유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마24:9-13).

14. ㉠ ‘성(城) 밖에서… 스다디온에 퍼졌더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언급한 것으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준 것이다.
- (2) 그런데 ‘성’(城)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두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실제의 성을 생각했을 것으로 가정하여 최후의 전쟁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참조, 단11:45; 율3:12; 습14:4) 이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Beckwith, Ford, Mounce, Swete).
- (4) 둘째, 다른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다른 곳에서 ‘성’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때(11:2; 20:9) 이 말은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Beasley-Murray, Kiddle, Charles).
- (5) 즉 여기서 ‘성’은 성도들의 진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구성된 사단의 성인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했다. 본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 성을 상징

적으로 해석한 둘째 설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6) 따라서 ‘성밖에서’라는 말을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에 끼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한’의 뜻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7) 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에서 악인의 피가 말 가슴과 배에 닿았다는 말은 위경(에녹100:3;에스더하15:37,36)에도 나오는 말로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같은 전경은 예루살렘 성밖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8) 뿐만 아니라 피가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다’고 했는데 1,600스다디온은 약 320 km에 해당되는 길이이다(1스다디온은 약 184m). 그런데 1,600은 4의 제곱에 10의 제곱을 곱한 수로 4는 땅의 수,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1,600은 전세계를 망라하는 세상의 완전수로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완벽하고 엄청난 진노를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참조, 마28:29; 행20:24; 고전9:16).

화보자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태피스트리(tapestry), 즉 두꺼운 천에 수를 놓은 작품은 천사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을 수놓은 것이다.



죽음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다(참조, 창2:17;3:19).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선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친 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각자의 상급을 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13절).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달픈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10:19-25).

제 15 장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단락구분 1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서다 / 2-4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를 경배하는 노래를 부른다 / 5-6 일곱 천사들의 등장 / 7-8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담긴 일곱 금대접을 받다

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쳤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하다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즉 포도주 잔(14:10), 곡식의 추수(14:14-16) 및 포도송이 추수(14:17-20)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일곱 천사에 의한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2) 본장은 16장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물론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다.
- (3) 즉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일곱 재앙을 땅 위에 쏟아 부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4) 한편 본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전경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다 주는 2중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악인에게는 극심한 환난 또는 죽음을, 성도에게는 승리와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미 준비를 마친 성도라면 적어도 세상 끝날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2. ㉠ 사도 요한이 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 땅 위에 부여될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 (2) 본절은 16장의 표제가 되는데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이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 즉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이 재앙들의 파괴적이고 무서운

성격 때문이다.

- (3)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로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세계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또 ‘다른 이적을 보매’에서 이 ‘이적’이라는 말은 본서 중에서 세번째로 언급되고 있는데 12:1,3에서 ‘이적’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 (5) 한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6:17에서 발견되며 그 후에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7:3-14).
- (6) 그리고 난 후 일곱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재앙이 내려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는다(8:1-9:18). 또 11:4에 나오는 세째 화에는 마지막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 있다.
- (7)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된다는 것은 이 재앙 바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사단의 멸망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의 행복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사도 요한이 본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라(2절).

- Ⓐ (1) 구속받은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곁에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2) 여기서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는데 ‘불’은 정결과 심판의 상징으로 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명 정대한 공의를 의미한다(참조, 3:18; 11:5).
- (3) 또 ‘유리 바다’ 같다는 것은 그 대상이 깨끗하고 순결함을 가리킨 말로 이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예배 장면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4) 하지만 본절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단순히 지금 묘사되고 있는 장면의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 (5) 한편 이런 바닷가에서 짐승의 핍박과 도전을 모두 견디어 내고 끝내 승리한 자들이 서서 아름다운 가락으로(하나님의 거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장면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곁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는 듯하다(참조, 출15:1).
- (6)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즐긴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과 사단의 핍박을 견디어 내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경배한 자들이다. 우리 역시도 세상 끝날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거나 비진리 편에서 처부(致富)를 일삼기 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위협도 무릅쓰는 담대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참조, 마16:25; 히 12:29).

4. ☐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3, 4절).

- Ⓐ (1)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인들을 물리치신 여호와와 승리를 찬양하고 기념한 노래를 배경으로 한다.
- (2) 모세의 노래는 출15:1-8에 나오는데 고대 회당에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노래가 불리어졌다고 한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험은 유대인

들의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해 왔다.

- (4)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애굽 군대를 넘어뜨리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표(豫表)가 된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따라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동시에 어린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노래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영광송이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라는 말 속에는 모세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의 경험에서 자신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신다. 이 경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였을 뿐이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 (6) 그러므로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에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7) 또 이 노래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적과 위대하심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나 공적에 대해선 일언 반구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다.
- (8) 그러므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5:24; 행4:21; 고전6:20).

5. **㉠**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6절)

- ㉠** (1)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 (2) ‘증거 장막’은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성막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었다(참조, 출38:21; 민9:15; 17:7; 18:2).
- (3)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증거 장막의 성전’은 법궤가 들어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성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재앙의 진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 준다.
- (4) 또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된다.
- (5) 그렇다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되며 그들이 제공하는 재앙을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마5:17)
- (6) 즉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부터 천사들이 나오는 것은 율법의 의(義)를 증명한 것이며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참조, 마5:18).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빙자하여 방종하지 말고 ‘너희 의가 서기 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마5:19,20; 약2:14-26; 3:17,18).

6. **㉠**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3, 4절).

- ㉠** (1) 본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한 점에 있어서 출15:1-18과 서로 통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 (2) 즉 이 노래는 출15:1-18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혼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의 노래	인용된 성경 귀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암 4:13)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시 139:14)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시 111:2)
'만국의 왕이시여'	'열방의 왕이시여'(렘 10:7)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 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 32:4)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시 145:17)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 이까'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렘 10:7)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시 86:9)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여호와같이 기록하신 이가 없으시니'(삼상2:2)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이다 그는 기록하시도다'(시 99:3) '그 이름이 기록하시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시 98:2)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시 86:9)

- (3) 여기서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조차도 성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나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취급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지고 있는 살아 있는 메시지이다.
- (4)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읽는 성도들을 진리와 구원 가운데로 인도한다(참조, 신8:3; 뎀후3:16; 벧후1:21).

7. ㉠ '천사들의 세마포 옷' 과 '네 생물 중의 하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6, 7절)

- ㉠ 성전으로부터 나온 일곱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천사들의 세마포 옷은 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첫째, 그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이다. 흰 세마포에 황금실로 수놓은 띠를 가슴에 두른 것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던 옷인데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다(참조, 민16:43-48; 히7:25; 9:7,12).
- (3) 둘째, 그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왕들이 입은 옷이다. 흰 세마포와 높게 띠는 띠는 왕의 옷으로 결국 이 옷을 입은 천사들은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높은 왕 중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 (4) 세째, 빛나는 흰 옷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입은 옷으로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나 타났던 젊은 천사도 흰 옷을 입고 있었다(마28:3;막16:5). 즉 이 천사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려온 자들이다.
- (5) 한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천사들에게 준 자는 네 생물 중의 하나인데 이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은 4:7에 처음 나온다.
- (6) 이 네 생물은 각기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같으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그룹 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자연계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하고 영리하며 빠른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이 진노의 대접들은 자연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재난이 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계도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참조, 시19:1;롬11:36).
- (8)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성도들의 모든 축복된 미래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참조, 출15:18;시103:19;145:13;사45:1-13;행26:32;히10:21).

8. ㉠ 성전에 연기가 차서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A) (1)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연기나 구름으로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환상에서도 그 집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참조, 시18:8;사6:4)고 묘사한다.
- (2)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 구름이 성막이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 (3) 이에 대한 것은 출40:34,35의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는 묘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왕상8:10,11;겔10:2-4).
- (4) 한편 성전에 연기가 차서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5)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때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도록 가리워지며 또 가리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 (6) 둘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너무도 지고(至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7) 세째, 어떤 학자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어떤 기도도 어떤 접근도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킬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Charles).
- (8)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집행할 것인데 그 심판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중지시킬 수 없다.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받을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여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결하고 경건함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참조, 고후6:2;딤후4:2;약1:27).

제 16 장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다

단락구분 1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재앙을 땅 위에 쏟을 것을 명하다 / 2 첫번째 재앙이 임하다 / 3 두번째 재앙이 임하다 / 4 세번째 재앙이 임하다 / 5-6 심판주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 / 7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 제단에서 화답하다 / 8-9 네번째 재앙이 임하다 / 10-11 다섯번째 재앙이 임하다 / 12-16 여섯번째 재앙의 임함과 심판에 대한 경고 / 17-21 일곱번째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다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 세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 네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 아픈 것과 중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책망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를 인하여 하나님을 책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1. ㉠ 본서 8:7-11:15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라.

㉡ (1) 본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일곱 나팔의 재앙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보다 그 강도가 심화되고 대상이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다.

(2) 여기서는 상기한 두 재앙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가지 재앙들 사이의 유사점과 대조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본장)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 수목의 삼분의 일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림(8:7)	첫 대접이 지상에 쏟아지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가 생기게 됨(21절)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워져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어 그 가운데 거하는 피조물과 배의 삼분의 일이 파멸된다(8:8)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변해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됨(3절)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들의 삼분의 일이 쓰고 독이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8:10,11)	강과 샘들이 피가 되는데 이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언된다(4-6절)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으므로 낮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진다(8:12)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8,9절)
별이 하늘로부터 심연으로 떨어지며 무저갱으로부터 악독한 연기와 황충이 나와 사람들을 해친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9:1-12)	짐승의 나라 위에 흑암이 덮이고 사람들은 종기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훼방하고 회개치 않는다(10,11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나고 악한 마병대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9:13-21)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과 싸울려고 천하의 모든 임금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음(12-16절)
하늘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음성이 울리고 땅에는 심판, 지진, 우박 등이 있다(11:15)	하늘에서 다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뇌성과 지진과 번개와 큰 우박이 내림(17-21절)

- (4)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재앙들간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박, 암흑, 물 가운데의 피, 악한 독종,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무서운 군대의 침입 등의 재앙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 (5) 한편 이 두 재앙 사이에는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 파괴력과 미치는 범위가 항상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 (6) 즉 이제까지 있어 왔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들은 본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드디어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17절; 15:1)

2. ㉠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갖는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1절).

- ㉠ (1) 첫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및 일곱 대접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재앙들은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 (2) 또 여기 나오는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과 완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둘째,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모두 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최상케 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는 모세 때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한 민족에 관련된 반면 이 두 재앙은 그 대상이 인류이며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출7:20-12:30).

- (4) 세째,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7년 대환난의 후 삼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동일한 기간 중에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어지는 심판으로 종결된다.
- (5) 네째, 나팔과는 달리 각 대접을 통해 땅에 내려지는 재앙들은 모든 인류의 고통과 관계되어 있으며, 나팔 재앙에서는 일부분만이 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대접 재앙은 그 미치는 결과가 전체적인 것임을 볼 수 있다.
- (6) 즉 여기서는 대접 재앙의 엄한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곱 인의 심판에서는 인류의 사분의 일이 고난을 받았고 나팔의 심판에서는 인류의 삼분의 일이 고난을 받은 반면 대접의 재앙에서는 심판의 면제나 부분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 (7) 다섯째, 두 재앙의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볼 때 나팔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대접 재앙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3. ㉠ 첫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2절).

- ㉠ (1) 첫번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현 대의 재앙으로 여기에 나오는 '현 대'(헬, 엘코스)는 출9:8-11에 나오는 '독종'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생긴 고통(신28:35)이나 욱의 악창(욱2:7) 등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2) 즉 이 첫번째 대접 재앙은 모세 때 애굽에 내렸던 여섯번째 재앙과 같은 종류로 모세의 대적자들인 애굽 사람들이 독종을 앓았듯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도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3) 또 역사적으로도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독종에 의한 죽음(행12:23)이나 네로 황제 당시 로마에 유행하던 독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징계하신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이 되는 동시에 심판의 나팔이 되는 것이다.
- (5)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밖에는 없다. 물론 잠시 잠깐의 안락과 풍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숭배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세상의 영화를 좇아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바른 삶'이다(참조, 8:11; 신28:16,27).

4. ㉠ 두번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인가? (3절)

- ㉠ (1) 둘째 대접의 재앙은 모세 때 애굽에 내린 첫 재앙과(출7:17-21) 두번째 나팔 재앙과 거의 흡사한데 바다의 물이 오염된 피로 변하므로 모든 바다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이다(참조, 8:8; 창1:21).
- (2) 여기서 바다는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교리 및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따라서 둘째 나팔의 재앙 때는 바다 피조물 가운데 삼분의 일이 죽었으나(8:8,9) 이번에는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으므로 이 재앙이 얼마나 크고 격심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4)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육신적 고난과 꺾박은 진노의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다(참조, 롬8:17; 고후4:17; 빌4:14).

5. ㉠ 세계 대접의 재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4-7절).

- ㉠ (1) 이 재앙은 인간 생활의 근본이 되는 강과 샘이 피로 오염되는 재앙이다.
- (2) 이 재앙 역시 모세 때 나일 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화시켰던 첫째 재앙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는 이 재앙이 애굽에만 한정되었지만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8:10,11; 출7:17-21).
- (3)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자연적인 힘(바람, 해, 비, 물 등)에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7:1; 14:18).
- (4) 이처럼 물의 천사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참조, 11:3-13; 15:1-4; 비교, 17:6; 18:20)의 피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복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밝힘으로써 그 심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11:17).
- (5)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순교한 자들의 피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양의 피를 입은 옷을 입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진노의 피를 마시든지 양자 택일을 요구하고 계신다(참조, 시79:3; 사49:26).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의로우심에 대해 ‘제단’, 곧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던 순교자들 역시도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그 심판을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6)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과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성도들에게 있어선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는 반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선 형벌과 멸망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 (7)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당하는 핍박이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참조, 8:10,11; 사49:26).

6. ㉠ 네째 대접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8, 9절)

- ㉠ (1) 네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다. 네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천제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진 반면(8:12), 여기서는 해가 오히려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열기로 태우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해가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형벌로 바꾸어 놓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한편 여기에 제시된 천제의 변화는 눅16:19-31에 묘사된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 (3) 또한 태양의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사람들의 정욕과 사악의 열기를 암시한 것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의 열기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망한다.
- (4) 한편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은 수난이나 재앙을 통해서도 결코 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5) 이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창조주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 훼방하고 있다(참조, 사52:5; 롬1:25; 2:24).

- (6) 여기서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즉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거스려 헤방한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반영해 주며 그들 속에 있는 죄악되고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 준다(참조, 롬 1:22).
- (7)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의 눈을 떠 진리를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참조, 3:8).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은 세상을 향하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진 관계로 인해 영의 눈이 침침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말2:6; 눅22:32; 행3:26; 약2:19).
- (8) 또한 이런 비극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발견되기 위해 애써야 하겠다(참조, 시1:1; 마7:13,14; 10:38).

7. ㉠ 다섯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10, 11절).

- ㉠ (1) 다섯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져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 (2)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중심지로 전세계에 걸쳐 우상 숭배의 거대한 제도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사단의 위(位)를 상징하는 것이다.
- (3) 더우기 그 '보좌'는 세상 권력의 중심 및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 당시의 '보좌'는 로마 제국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Plummer).
- (4)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에 의하면 그 '보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는 곳이 있다면 짐승은 어디에서나 거기에 자신의 보좌를 갖는다고 한다.
- (5)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져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단에 의해 유지되던 우상 숭배 제도가 영적인 어두움 또는 분열에 치함으로써 그곳에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찾던 모든 사람이 혼돈에 빠진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 따라서 그 나라에 임한 어두움은 짐승에게 속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영적 흑암의 모형으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흑암을 자주 실감하며 때론 미래에 대한 공포로 떨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빛과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7) 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긴 고통은 어두움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다. 즉 이것은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생긴 것으로 이전의 여러 재앙들에 이것이 추가됨으로써 더욱더 흑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21:25; 요8:12; 요일1:5-7; 2:8-10).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어두움과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타인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5:14-16; 요1:4,5; 3:20,21).

8. ㉠ 여섯번째 대접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2-16절)

- ㉠ (1) 여섯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온 천하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 것이다.
- (2) 이 여섯번째 대접 재앙은 여섯번째 나팔의 재앙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3) 그러나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마귀의 무리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치명상을 주려고 풀려 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동방의 왕들, 즉 악의 세력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다.
- (4) 또 이 여섯째 대접의 재앙은 사도 요한 당시 크게 유행하던 소문, 즉 죽은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나 파르티아 군대를 거느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로마로 침공해 올 것이라는 네로 재생설에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위치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장소였다(참조, 9:14).
- (6)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유브라데 강을 언급함으로써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최후의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7)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실제의 역사라기 보다는 세상의 종말론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경험을 배경으로 하며 동방의 왕들, 즉 악의 세력들의 궁극적인 패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8) 이처럼 악한 세력이 비록 이 땅 위에서 큰 권세를 행사하며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담대하게 이기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간직해야 하겠다(참조, 딤후2:1-4; 벡후3:8-10).

9. Q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14절)

- A (1) 본절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단과 동방의 임금들, 즉 세상 권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 (2) 옛부터 유대인들은 개구리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개구리는 늘 재앙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여기서는 개구리와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더러운 영이 의미하는 것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3) 첫째, 개구리는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이다. 모세 때 애굽에 내린 재앙 중 하나는 개구리 재앙이었으며,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개구리는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출8:5-11; 시8:45; 105:30).
- (4) 둘째, 개구리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다. 레11:10에서 개구리는 물과 바다 중에 거하는 부정한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개구리 같은 세 영'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5) 셋째, 개구리는 계속해서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동물로 어거스틴(Augustine)은 개구리를 '가장 수다스러운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는 '더러운 영'의 말이 인간에게 있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임을 상징한다.
- (6) 넷째,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개구리는 아하리만(Ahriman), 즉 재앙을 가져오는 자인 동시에 흑암 권세의 대리자로 빛의 사자인 오르무드(Ormud)와 싸우는 존재로 생각되어졌다.
- (7) 다섯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풍요나 다산의 여신인 헤트(Hekt)로 상징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여신들을 귀신(벨, 다이모니온), 즉 사단의 사자 또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여겼다(참조, 9:20; 18:2; 고전10:20,21).
- (8) 이처럼 개구리는 성경 문학에 있어서 사단으로 상징될 만큼 더럽고 사악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4절에 제시된 '귀신의 영'이라는 말로써 확

증할 수 있다.

- (9)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말과 연관시켜 거짓말과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귀신의 영’은 땅의 왕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결합시키려고 한다.
- (10) 이러한 사단의 간계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사이비 종파 교주들의 입을 통해서, 대중 매체인 매스컴을 통해서, 진리를 가장한 삼군 목자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더우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자신이 계획한 거짓 교훈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의 영이 제공하는 혼탁하고 거짓된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참되고 진실한 언어와 사상이 통용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그리스도께서 도덕같이 임하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 (2) 결국 이 말은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참조, 마24:43; 살전5:2)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같이’ 오신다는 경고는 사데 교회(3:2-4)와 라오디게아 교회(3:18)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인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현혹과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불침번이 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4)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만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여 우리의 치부(恥部)를 드러내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단정히 그리고 긴장하며 생활해야 한다(참조, 마10:32,33, 36-39; 12:49,50).

11. **㉠** ‘아마겟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4, 16절)

- ㉠** (1) ‘아마겟돈’을 정확하게 풀어 쓰면 ‘할 므깃도’(Har Megiddo)로 ‘므깃도 산’이란 뜻이다. ‘므깃도’는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요새 도시이며 그 주위에 기손 강이 위치해 있다(참조, 사5:19-21).
- (2) 그런데 이곳은 고대로부터 중세 말엽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가장 큰 전쟁터 중의 하나였다.
- (3) 또 이곳은 바락과 여선지 드보라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쳐부순 곳이며(사5:19-21) 아하시야 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며(왕하9:27)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과의 싸움에서 죽어 간 곳이다(참조, 왕하23:29; 대하35:22).
- (4) 이처럼 므깃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유명한 전쟁터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므깃도와 그에 접해 있는 에스드렐론 평야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을 전쟁터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참조, 숙12:11).
- (5) 한편 ‘할 므깃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6)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집회의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이어 <하르 모에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바벨론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집회의 산, 즉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시도한 사14:12-15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issi).

- (7) 이 이론이 흥미롭기는 하나 역사적인 증거가 없이 단지 헬라어 성경 본문을 어림짐작으로 수정한 것으로 바로 앞뒤의 문맥과도 서로 모순되고 있다.
- (8) 다른 학자들은 이 말이 '다산의 산',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하르 므깃돈>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날 종말의 싸움(참조, 율3:2; 숙14:2)과 연결시키고 있다(Charles).
- (9)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겟돈'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해석법은 근래에 와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 있다(Mounce).
- (10) 이들에 의하면 '마게돈'은 '군대 또는 무리를 모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다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를 명사형으로 고치면 접두사 <마>를 붙여 <마게드>가 되는데 이는 '군대를 모아들이는 장소'가 되고, 여기에 접미사 <오>가 붙여 '마게돈'이 되면 '군대를 모아들이는 그의 장소'가 된다고 한다.
- (11) 이는 곧 본절에 나오는 표현, 즉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와 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위하여 열방을 한 곳에 모으는 예언적인 성취를 암시한 것이다(참조, 율3:12).
- (12)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것으로 어떤 지리적인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 또는 그 장소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설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아마겟돈'이란 말이 종말적 결전장의 상징적 명칭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에 일어날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다(참조, 19:11-21).

12. C 일곱번째 대접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21절)

- A (1)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자 번개와 요란한 뇌성과 지진이 일어나 땅이 황폐해지고 큰 우박이 내려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재앙이다.
- (2) 여기서 '공기 가운데'란 공중을 의미하며 이곳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으로 여기에 재앙이 내린다는 말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세상 권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의미이다(참조, 열2:2; 벰후3:10).
- (3) 또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는데 여기서 '되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고넨>은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나타내는 말이며 인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 (4) 요한은 일곱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 생긴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도 심하고 극렬한 것(큰 성 바벨론이 세 토막으로 산산히 부서지고 도시와 나라들은 황폐해짐)이었다고 했다.
- (5) 이는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성과 도시들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과를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남김없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6) 이러한 종말론적인 재앙들은 전세계에 걸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멸망을 상징하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던 자연계로 하여금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게 만든다.
- (7)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하는 악한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물리적 재앙이나 진노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재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된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14:10; 히12:27).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인격은 그 자체가 멸망이요 즉

제 17 장 큰 음녀와 짐승

단락구분 1-2 음녀가 받을 심판 / 3-4 음녀와 짐승의 잠람된 모습 / 5 가증한 음녀의 이름 / 6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다 / 7-12 천사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다 / 13-14 짐승이 어린양과 싸우다 / 15-16 짐승이 잠람된 음녀를 미워하여 해치다 / 17 짐승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다 / 18 음녀의 정체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잠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니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의 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를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9 지혜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뱀새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곳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옹하기까지 하시니라

18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언급한 전장에 이어 본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하나의 연속된 주제로 형성되어 있다.
- (2)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음녀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음녀 바벨론이(본장) 큰 성 바벨론과(18장) 동일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본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18절).
- (3) 이들 두 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기술되어 있으며 전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좀더 확대되고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또한 본서 11:8과 14:8에 언급된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 (4) 한편 본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역사와 그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은 큰 음녀와 짐승의 환상이 언급되고 7-18절에서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5) 이처럼 사도 요한은 문학적 양식을 빌어 먼저 음녀와 그녀가 타고 있던 짐승의 본질을 이야기한 후(본장) 이어서 구약 성경의 용어를 빌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다(18장).
- (6) 결국 본장에서는 악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멸망의 필연성을 다루고 있으며 사단이 그 어떤 세력이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린양의 권세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언적 기사야말로 성도에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살아 있는 말씀이다.

2. ㉠ '바벨론'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많은 주석가들은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이 견해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
- (2) 이들에 의하면 일곱 산(9절)은 아우구스투스(Augustus)에서 도미티안(Domitian)에 이르는 로마 황제들 중에서 선발된 일곱 왕들을 가리키며 열 왕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주위의 작은 나라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 (3) 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로마는 큰 성이었고(18절) 일곱 산 위에 자리잡고 있었으며(9절) 도미티안 황제 치세까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해석은 바벨론을 로마와 동일시함으로써 바벨론이 갖는 미래적, 종말론적 성격을 제약시켜 버리는 결함이 있다.
- (4) 이에 대해 일부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을 로마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또 바벨론을 과거나 미래에 나타날 어느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 (5) 그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하며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바벨론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 (6) 따라서 바벨론은 소돔, 고모라, 애굽, 바벨론, 로마 등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초역사적 실체로 사단의 권세와 현혹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제도 및 힘으로 완전히 파괴해 버리거나 바꾸어 버릴 수 없는 신적 비밀이다.
- (7)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등의 총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묘사된다(참조, 11:8).

3. ㉡ '큰 음녀'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본절에는 '일곱 천사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이 전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과 연결되는 것으로, 마지막 대접 심판을 부연 또는 보충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2) 사도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를 보았는데 그녀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다.
- (3) 고대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제식(祭式) 때 음행이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음란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들어 니느웨(나3:4)와 두로(사23:16,17) 또는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의(겔 16:15) 추악한 죄악상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

- (4) 본장의 '큰 음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배경이 되는 것은 겔16, 23장에 나오는 음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렘51장의 음녀 바벨론에 관한 기사이다.
- (5) 그러나 본장에 묘사되어 있는 큰 음녀인 바벨론은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어떤 역사적인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역사를 통해 등장했던 음녀들의 어미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우상 숭배의 원형적인 모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음녀인 바벨론을 단순히 로마(Mounce)나 예루살렘(Ford)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7) 한편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는 성 들레에 있는 많은 운하를 통해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으며 유브라데 강 수로를 따라 위치했던 역사적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참조, 렘51:13).
- (8) 이처럼 이 묘사는 고대 바벨론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묘사는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세상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음녀의 막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 큰 음녀인 바벨론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서술하라(1, 2절).

- ㉠** (1)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음녀 성들의 사회상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렘51장과 겔16,23장에 잘 나타나 있다.
- (2) 첫째, 그들은 번영과 과잉된 풍요를 누렸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하였다(참조, 렘51:13; 겔16:13,49; 나2:9; 비교, 18:3,7).
- (3) 둘째,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음녀 성은 상업,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거민들은 향락에 도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자기 신뢰와 자만에 빠져 있었다(참조, 사14:12-14; 렘50:31; 겔16:15,50,56; 27:3; 28:5; 비교, 18:7).
- (4) 셋째, 그들은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나 힘없고 선한 백성들에게 권세와 폭력을 휘둘렀으며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대적하였다(참조, 렘51:35,49; 겔23:37; 암2:6-8; 나3:1-3; 비교, 18:10,24).
- (5) 넷째, 그 성에는 학대와 부정이 가득하였는데 높은 자들은 온갖 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였다(참조, 사14:4; 겔16:49; 28:18; 비교, 18:5,20).
- (6) 다섯째,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과 세상 권력을 숭배하도록 하며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하였다(참조, 렘51:47; 겔16:17,36; 23:7,30,49; 나1:14; 비교, 45절; 18:3; 19:2).
- (7)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을 통해 사단은 세상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경제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다(참조, 엡6:10-12; 벧전5:8,9).

5. **㉠** 음녀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나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를 보게 된다.
- (2) 이 짐승의 붉은 빛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나타낸 것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것과 대조된다. 또 이 빛깔은 세상 나라의 부요함과 사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 (3) 그리고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13:1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의 용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 (4) 또한 본절에 묘사되었듯이 음녀가 착용한 자주 빛과 붉은 색 옷은 여왕의 옷차림으로 극히 호화롭고 사치한 것을 의미하며, 금잔 속에 들어 있는 가증한 물건은 단9:27;11:31과 마24:15의 말씀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렘4:30;겔16:13;비교,18:7).
- (5) 특히 '가증한 물건이 담긴 금잔'은 렘51:7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다. 또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브델뤼그 마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우상으로서 예수께서도 이를 종말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다(참조, 21:27;막13:14;비교,단9:27;12:11).
- (6) 한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악한 영들과 우상 숭배 그리고 제식(祭式) 음행을 가리킬 때 쓰인 말이다(참조, 마12:43;고후6:17;엡5:5).
- (7) 따라서 우리는 음녀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의 근원이며 원형임을 알 수 있다(참조, 21:17;마10:1;엡5:5).
- (8)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도색 영화나 잡지 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물질 만능주의의 도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힘들에 압도될 때가 있다. 이 모든 정신적, 물질적 도전은 바로 본절에 예언된 음녀의 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6. **㉠** '큰 음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5절)

- ㉠** (1) 큰 음녀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녀가 비록 겉으로는 자신을 여왕처럼 가장할지라도 실제로는 음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창녀들은 제 이름을 새긴 머리띠를 이마에 장식으로 두르는 것이 관례였는데 본절에는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큰 음녀가 묘사된 것 같다.
- (3) 이 큰 음녀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들 앞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독립된 이름이 아니라 본절에 나오는 '이름'을 수식하여 음녀의 이름이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4) 그 음녀의 첫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적이며 억압적인 악의 본질로 인식되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5) 그 음녀의 두번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역사상의 모든 세력들은 바로 그녀로부터 출발하며 그러한 음녀는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와 타락의 원천이 된다.
- (6) 그러므로 음녀는 단순히 고대 바벨론이나 로마나 예루살렘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나라들을 낳은 어머니에 불과하다. 역사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그녀로부터 출발되어졌다.

7. **㉠** 큰 음녀는 누구의 피를 마시고 취했는가? (6절)

- ㉠** (1) 사도 요한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
- (2) 여기서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음녀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예수를 따르다 순교한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다(참조, 6:9;7:9;18:24).
- (4)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력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권세에 의한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 음녀를 상대하고 있다고 이해했다(참조, 2:16;사34:7;49:26).
- (5) 하나님을 따르는 성인들을 향한 음녀의 핍박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변함 없으며 세월이 흘러 종말이 가까와 올수록 더욱더 잔인해지며 또한 격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직접적인 핍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겠다(참조, 막9:29;롬12:12;딤후2:1;벧전4:7;요일2:16).

8. ㉠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7, 8절)

- ㉠ (1) 우리는 이 짐승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짐승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절에 언급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이라는 말이 13:14에 언급된 칼에 맞았다가 그 상처가 나은 짐승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 (2) 또한 이 짐승에 대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이히 여기는 것도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유별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양쪽 문맥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8,11절;13:3,12,14).
- (3) 어떤 학자들은 본절에 나오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언급이 부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네로 황제의 회생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Charles, Moffatt, Rist).
- (4) 이에 반해 다른 학자들은 본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묘사가 신학적인 것이며, 땅의 주권자들의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적 힘의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실재 주권자들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Murray).
- (5) 이들에 의하면 짐승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모든 사단적인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참조, 11:7;19:19,20).
- (6) 또 본절에 나오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이라는 귀절에서 '시방 없으나'라는 말은 이 짐승이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사실을 가리킨다.
- (7) 그러므로 이 말은 전에 짐승은 이 땅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다가 어린양에게 패하여 머리를 다치는 큰 타격을 받지만 점차 그 힘이 소생하여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마7:13;눅4:6;요12:31;17:12;롬9:22;살후2:3;히2:14,15).
- (8) 이는 이 짐승이 어린양에게 결정적으로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의 권세와 능력이 다시 소생되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9) 또한 '전에 있다다가...장차 올라올' 것이라는 표현은 1:8에 언급된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모방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의 정체를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3:12;21:2,10).

9. ㉠ '일곱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 (1)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는데 여기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 (2) 따라서 음녀는 많은 물 위와 짐승 위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산 위에도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곱 산이 로마에 있는 일곱 산을, 일곱 왕은 로마의 일곱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Mounce).
- (3) 상기한 주장처럼 로마는 실제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며 당시의 고전 문학 작품에서도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는 로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 (4)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당시 헬라어를 아는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일곱 산이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곱 산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신령한 지혜가 요구된다는 성경의 내용과는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Minear).
- (5) 이들에 의하면 신령한 지혜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에 필요한 것이지 단순한 지리적 지식이나 수자적 풀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 (6)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는 산을 이 세상의 권세로 비유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참조, 사2:2; 렘51:25; 단2:35; 숙4:7) 여기서도 일곱 산은 로마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 (7) 여기서 우리는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지만 본서가 지니는 미래적, 종말적 성격을 보거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곱 산이 로마의 일곱 왕을 상징한 것이라는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 ‘일곱 왕’이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는 학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0절).

- Ⓐ (1) 사도 요한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보았는데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 (2) 즉 어떤 학자들은 ‘일곱 왕’은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지나간 다섯 왕’이란 아우구스투스(Augustus, B. C 30-A. D. 14), 티베리우스(Tiberius, A. D. 14-37), 칼리굴라(Caligula, 37-41),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54), 네로(Nero, 54-68)라고 했다(Charles, Kiddle).
- (3) 네로 사후 갈바(Galba), 오토(Otho), 비텔리우스(Vitellius)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A. D. 68-69) 재위했으나 이들 셋은 진정한 의미의 황제가 아니므로 황제 명단에 포함될 수가 없다.
- (4) 또 그 당시 ‘현존했던 여섯번째 왕’은 베스파시안(Vespasian, A. D. 69-79) 황제로 그는 네로의 사후에 야기된 혼란을 평정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했던 사람이다.
- (5)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깐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한 왕은 디도(Titus, A. D. 79-81)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 (6) 상기한 주장은 많은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견해이긴 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7) 우선 기록 연대 문제인데 이 학설에 의하면 본서는 베스파시안 황제 때 기록된 것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서를 기록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인 A. D. 81-96 사이인 것이다.
- (8) 또 사도 요한은 수자를 사용할 때 거의 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곱이란 수자는 완전성, 온전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승의 일곱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악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다(참조, 1:11; 6:1).
- (9) 이처럼 짐승을 로마 제국과 동일시하고 짐승의 머리 수에 나타난 ‘7’이라는 상징적인

수자가 정확히 로마의 일곱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11. ㉠ '일곱 왕'이 역사상 등장했던 큰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학설에 대해 설명하라(10절).
- ㉡ (1) 어떤 학자들은 '왕'이란 말이 여기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곱 왕'은 역사상 나타나는 일곱 적그리스도적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eiss,Ladd, Walvoord).
- (2) 그들에 의하면 '이미 지나간 다섯 왕'은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다.
- (3) 또 '지금 현존하는 왕'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였다.
- (4)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장차 와서 잠시 동안 다스릴 왕'은 사도 요한 당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를 다스릴 권력자로 그 나라와 그 권력자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할 것이다.
- (5) 여기서 이 일곱번째 나라는 로마의 멸망 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와 권세를 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6) 이 견해는 일곱 왕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킨다는 학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대체적으로 들어 맞는다.
- (7) 그러나 이 견해 역시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가,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 사건을 삭제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 (8) 또 이것은 본서 전체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일곱이란 수의 상징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9) 따라서 이 해석 자체도 일면 옳지만 일곱 왕이 전적으로 역사상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 '일곱 왕'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상기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자들은 일곱 왕이 가리키는 것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inear,Lohmeyer).
- (2) 첫째, 일곱 머리는 짐승에게 속해 있는 것이므로 그 해석은 바벨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이 짐승에게 두어야 한다.
- (3) 둘째, 본서의 기본적인 패턴은 어린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짐승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투쟁을 묘사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질에 나타난 주권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만 한다(참조, 14절:19:19).
- (4) 셋째, 왕들은 일곱 산 및 음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석을 통해 이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5)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다섯 왕이 망하였다'는 것은 역사상 나타났던 왕을 의미하기 보다는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참조, 14:8;18:2;렘50:32;51:8,49).
- (6) 이처럼 짐승의 일곱 머리 중 다섯이 어린양의 보혈의 능력과 성도들의 순교로 이미 패배하여 사라져 버리고 한 머리는 지금 활동 중인데 이는 짐승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도 요한 당시의 실제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 (7) 이제 앞으로 한 머리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은 싸움이 곧 끝날 것을 암시해 주며 이 일곱째 왕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기 전에 악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잠깐 기승을 부릴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12:12;20:3).
- (8) 그러나 짐승의 이러한 마지막 권세는 매우 짧은 것으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 주는데 이 같은 여러 사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힘과 격려를 주고 있다(참조, 12:12;롬8:37-39).

13. **Q** '여덟째 왕'이 의미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11절).

- A** (1) 사도 요한은 '여덟째 왕'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으로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여덟째 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여덟째 왕이 환생한 네로로서 디도의 후임인 도미티안(Domitian, A. D. 81-96) 황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Murray).
- (4) 이들이 의하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게서 로마의 죄악과 하나님 모독의 최고 화신인 네로의 재등장과, 장차 올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형태와 상징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5)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여덟째 왕'이 8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Minear, Farrer).
- (6) 즉 여덟째 왕은 13:3,14에 언급된 짐승의 머리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이들이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살아 있어 어린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7) 이 전쟁에서 짐승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할 것이며 또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다시 살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참조, 눅4:5-7).
- (8) 그러나 짐승이 아무리 그리스도처럼 가장하여 이적을 행하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나타낼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므로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9)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그 짐승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끝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줌과 동시에 사단의 음모와 흉계에 대해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벧전 5:8,9).

14. **Q** '짐승의 열 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 A**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열 뿔'이 열 왕을 가리키며 이들이 짐승과 더불어 잠시 동안 임금처럼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본절은 단7:7,24이 배경이 되고 있으며 여기 등장하는 '열 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선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 첫째, 어떤 학자들은 '열 왕'이 로마의 황제 밑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봉왕이나 위성 국가의 통치자들 또는 팔레스틴의 총독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Clarke,Edwald).
- (4) 둘째, 다른 학자들은 네로 회생설을 근거로 부활한 네로가 로마를 치고 황제 자리에 복위하기 위해 끌고 올 파르디아 군대의 장수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Bousset, Charles).

- (5) 세째, 또 다른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일어나게 될 10개국의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Walvoord).
- (6) 여기서 '10'이라는 수자는 상징적인 수로 여러 번 되풀이되는 수 또는 무한정의 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일곱처럼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7) 따라서 이 '10'이라는 수는 문자적으로 '열 왕' 또는 '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많은 왕들의 동맹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8) 또 이 '열 왕'들은 임금과 같은 권세를 잠깐 동안 받는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다.

15. ㉠ '열 왕'들은 자신들이 받은 권세를 어떻게 했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 (2) 여기서 우리는 이 왕들이 짐승과 동맹하여 어린양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주권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 (3) 따라서 이 통치자들과 짐승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적으로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엡6:12).
- (4) 또 그들은 확실히 땅에 속해 있으며 땅의 도구 및 힘을 이용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역사상 이 땅 위에 등장했던 특정한 권세나 나라 이상의 것으로 세상 끝날에 어린양과 싸울 사단의 총공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5) 즉 그들은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며 어린양과의 최후 대결에서 짐승과 동맹할 '땅의 임금들'이기도 하다(참조, 16:12-14, 16:19:19-21).
- (6) 한편 본절에는 '열 왕'이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장 11,12절에 언급된 '잠깐 동안'이란 말과 그 맥을 같이한다.
- (7) 그런데 앞으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될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잠깐 동안'이라는 약속은 큰 위로가 된다.
- (8) 계속해서 이 왕들과 짐승은 '한 뜻'(헬, 그노메)을 가지고 어린양을 대적하겠지만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실 것이다(참조, 19:16; 신10:17; 단2:47).
- (9) 그러므로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마찬가지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 (10) 동시에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는 잠시일 뿐이며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많은 영광과 상급으로 보답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그리스도만 따르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5:5,9; 12:11; 요16:33; 고후 4:17).

16. ㉠ 음녀와 열 빨을 가진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15-17절).

- ㉠ (1) 처음에 음녀는 짐승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짐승과 음녀는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제 열 빨 가진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음녀로 비유된 사단의 영향력이 우주적이며 땅의 가장 비천한

자들로부터 왕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3) 그런데 짐승과 열 뿔이 과거의 정부(情婦)이던 음녀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악은 그 자체 속에 분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악한 동맹은 결국에 가서 그들 자체 내에서 분열하여 스스로 파멸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4) 이처럼 음녀에 대한 배반과 그녀의 죽음은 음녀의 성 예루살렘과 두로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약 예언자들의 묘사와, 음행한 제사장의 딸에게 가해지는 형벌에 대한 구약 성경의 묘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참조, 레21:9;겔16:39,40;23:25-27).
- (5) 이와 같이 짐승과 그 뿔들에 의한 음녀의 참혹한 죽음은 악의 권세의 자멸을 보여 주는 가장 생생한 상징으로 최후의 심판 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분열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 (6) 한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또 하나의 암시가 있다(참조, 렘25:9-14;눅20:18).
- (7) 이런 사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음녀를 망하게 하려는 짐승과 열 왕들의 노력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10:7;11:18).
- (8) 여기서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이 세계의 참된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악독한 이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참조, 롬8:37-39;13:1-3).

17. **Q** 음녀인 '큰 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A** (1) 사도 요한은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성은 역사상의 성이 아니라 모든 세상 권력의 모태가 되는 어미 성이라 할 수 있다.
- (2) 즉 이 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제도의 원형으로 그녀의 나라는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한다.
- (3) 따라서 이 성은 어떤 특정한 역사상의 성보다 훨씬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서에 언급된 성들은 거의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여졌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3:12;21:2,10;22:2)과 사단의 성인 큰 성 바벨론(11:8;14:8;16:19;18:4, 20)을 들 수 있다.
- (4) 이처럼 음녀인 '큰 성'은 소돔이나 애굽, 예루살렘, 로마 또는 미래의 어떤 성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초역사적인 사단의 악한 제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5) 사단은 자신의 최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말세를 맞은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핍박과 유혹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장의 요점

'...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14절).

제 18 장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다

단락구분 1 큰 권세를 가진 한 전사가 등장하다 / 2-3 그 전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다 / 4-6 성도들에게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다 / 7-8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 9-10 세상 임금들이 울며 탄식하다 / 11-16 바벨론으로 인해 치부한 상인들이 애곡하다 / 17-19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슬퍼 애통하다 / 20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 / 21-23 한 힘센 전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다 / 24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흠된 피에 대한 보상이다

1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갹절을 갹아 주고 그의 쉼은 잔에도 갹절이나 쉼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갹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파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

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는노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1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멧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멧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음녀로 비유된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된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2) 사도 요한은 큰 상업 도시의 멸망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이 세상 도시의 멸망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 (3) 오히려 그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킨 사단의 거대한 권세와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 (4) 또 옛 음녀의 성 바벨론(사13:21;47:7-9;렘50,51장)과 두로(겔26,27장)의 멸망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이곳에 인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승리와, 악한 자들의 한서린 애가를 동시에 결합시키고 있다(참조, 삼하1:17-27; 사14:4-21).
- (5) 뿐만 아니라 본장은 본서 전체를 통해서 운율이 가장 아름답고 시적이며 또한 장엄하기도 유명하다.

2. ㉡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가? (1-3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2) 첫째, 이 음녀의 성 바벨론은 지나친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바벨론의 음행에는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비유를 통해 로마의 음행과 사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는 음행과 사치가 극에 달했었다.
- (4) 이 점에 대해 유대인의 탈무드(Talmud)는 '이 세상에 10의 부요가 내려왔는데 그중 9는 로마가 차지하고 나머지 1을 전세계가 겨우 차지했다'고 했으며, 당시 로마의 상황을 접했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음행과 사치는 로마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까지 했다.
- (5)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극도로 성행했으며 이는 게르만족에 의한 로마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6) 둘째, 바벨론은 사치와 극도의 치부(致富) 때문에 멸망했다. 땅의 왕들은 극도로 사치한 생활을 했으며 상인들은 이들과 결탁하여 치부하였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다.
- (7) 여기서 '사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트레노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동사로는 본장 7,9절에 나오며 딤후5:11에서는 복합어로 나오고 있다.
- (8) 이 말은 과잉된 부와 잉여물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방종과 음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아시아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3:17).
- (9) 이처럼 사치는 부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나친 부의 축적은 그 소유주를 교만하게 만들며 또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 불평등은 그 사회의 분열과 멸망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 (10)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온갖 성적 방종과 불의와 편재된 부로 인한 극도의 사치와 빈곤이 공존하는 죄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치부에 의한 사치와 음행은 국가나 개

인에게 있어서 동일한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정결하며 청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마6:24-26; 롬13:13,14; 빌4:8).

3. ㉠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라(2절).

- ㉠ (1) 하나님의 힘센 천사는 고대 바벨론에 대해 예언자들이 사용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고 있다(참조, 14:8; 8:2; 사21:9; 렘51:8).
- (2) 또 바벨론의 폐허에 대해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나 에돔 또는 니느웨 등의 멸망을 예언하는 데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사13:19-22; 34:11-15; 렘50:39; 51:37; 습2:15).
- (3) 그런데 '모이는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라케>는 원래 '감옥' 또는 '형무소'를 뜻했는데 여기서는 더러운 영들 또는 새들이 모이는 장소를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짐승들을 내다 버리는 곳을 의미하는지 명확치 않다.
- (4) 이 말은 또한 악마나 새들이 먹이를 얻으려고 망보고 있는 곳으로도 볼 수 있다. 아뭏든 이 표현은 바벨론 성이 황폐해져서 야수나 새들의 거처가 되고 마귀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렘50:39).
- (5)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 이제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성터를 배회하고 있다. 참된 진리와 도덕성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성, 왕들을 부패시키고 상인들로 하여금 치부케 하던 부유한 성은 마침내 멸망하여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 (6)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천사의 예언적 선포는 로마의 멸망이라는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미래적, 종말론적 사건으로 부패한 역사와 나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참조, 14:8; 사23:17).

4.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과 죄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 (2) 본질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귀절은 단순히 바벨론 성을 실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한 것이다(참조, 사48:20; 52:11; 렘50:8; 51:6-9).
- (3) 이처럼 우상 숭배, 음행, 교만, 사치와 부에의 의존, 고난의 회피, 폭력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있는 곳은 어디나 바벨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다면 모든 형태의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 (4) 또 사도 요한은 본서 2,3장에서 사단의 속임수와 울무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 있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5)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경고로써 사도 요한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 온갖 흉계를 다 꾸며 왔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매일 자신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3:5; 고후6:17; 롬12:2).

5. ㉠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6, 7절).

- ㉠ (1) 본절에는 악을 행한 바벨론에 대한 형벌과 보복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것과 악인이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 (2)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산상수훈에서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마7:2; 갈6:7-10).
- (3) 또 갑절로 갚아 준다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갑절로 갚아야 한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시137:8에서는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라고 했으며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출22:4-9; 렘50:29).
- (4) 이처럼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는 잔인하고 가혹한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5) 둘째, 인간의 오만과 불손은 창피를 당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 (6) 큰 성 바벨론의 주요한 죄 중의 하나는 오만으로서 그들은 이제 부강하여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신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타개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라고 자랑했다.
- (7)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옛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홀연히 이르러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참조, 사47:7-9).
- (8) 이러한 오만 불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이방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주의가 요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주께서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이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참조, 사3:16,17).
- (9) 또 두로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벌을 받았는데 이는 부요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죄의 결국은 수치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다(참조, 겔27:3).
- (10)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는 지혜로움을 간직해야 한다(참조, 잠16:8-20; 마9:13; 벰전4:8).

6. ㉠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어떠한 재앙을 보내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에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동시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는 7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자랑에 대한 보응으로 '사망'은 과부에 대한 비웃음 때 문이며 '애통'은 그의 무절제한 흥청거림 때문이며 '기근'은 그의 과잉된 풍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3) 또 이러한 모든 재난이 '하루 동안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일순간에'라는 표현과 함께 순식간에 닥쳐 올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심판의 시급성과 순간성을 나타낸다.
- (4) 그리고 바벨론 성이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레21:9에 언급된 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때 받는 벌이 배경이 된 것으로 바벨론 성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6)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의 죄가 과잉된 부에 의한 사치와 교만 및 고난의 회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는 교만을 낳고, 고난을 피하려는 욕망은 불의한 부의 축적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 (7)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행하며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1:24-32; 딤후3:11).

7. **㉠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9-19절)**

- ㉠** (1)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9, 10절에서는 상인들의 애곡, 11-19절에는 배타는 자들의 통곡이 언급되고 있다.
- (2) 이 애곡에 대한 기사는 겔27장의 두로 성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배경이 된 것으로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가 두로, 바벨론 또는 예루살렘 처럼 음녀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기 때문이다.
- (3) 우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세상 임금들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불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큰 성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 것을 애곡하고 있다.
- (4) 이들의 애곡과 슬픔은 악한 것으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던 특권과 악한 질서가 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또 세상의 장사군들과 무역업자들이 로마의 멸망을 보고 애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애통은 이기적인 것으로 로마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장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6) 즉 그들의 통곡은 자기들의 거래처가 없어진 데 대한 슬픔이며 호화 찬란하던 로마의 부와 사치가 일순간에 망한 데 대한 통곡이라고 할 수 있다.
- (7) 뿐만 아니라 배로 무역을 하던 자들도 상인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삼시간에 망하였구나’라고 통곡하였다.
- (8)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다. 이 두 가지 죄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며 타인을 참된 인격으로 대하기 보다는 수단으로 보게 한다(참조, 마6:24; 딤후6:9,10).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믿음과 선행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야만 하겠다(참조, 마16:24; 딤후6:11-14).

8. **㉠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왕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상을 간략하게 소개하라 (9, 10절).**

- ㉠** (1) 로마 사회는 사치와 걸치레에 있어서 무절제했으며, 특히 A.D. 1 세기경 로마는 세계의 모든 부와 보화의 집결지였다.
- (2) 이에 대해 로마의 연설가 아리스티데스(Aristides)는 ‘온갖 육산물, 해산물, 각 계절 각 나라의 산물, 강과 호수의 산물, 헬라인과 미개인의 예술품 등 세상의 모든 산물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려면 로마로 가야 하며 만약에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3) 그들은 인도에서 막대한 향료를, 아라비아와 중국에서는 보석과 비단을 대량으로 수입했으며 유흥과 연회에 낭비한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자였다.

- (4)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세 지방의 일년 세금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탕진해 버렸다. 또 네로 황제는 돈의 유일한 용도는 낭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몇 년 사이에 360억원을 낭비했다.
- (5) 이처럼 칼리굴라 황제는 향수로 된 온탕이나 냉탕에서 손님들 앞에 황금 빵과 고기를 내놓곤 했을 뿐만 아니라 뱃머리를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유람선을 만들기도 했다.
- (6) 또 네로 황제는 절대로 같은 옷을 두 번씩 입지 않았으며 주사위 한 점에 400만 원씩 걸고 노름도 했다. 그는 자주색과 붉은 색실로 짠 밧줄로 된 황금 어망으로 고기를 잡았고 마차 일천 대 이하로는 여행한 일이 없으며 그 노새들의 발굽은 은으로 만들었다.
- (7) 비교적 수수하게 생활했던 도미티안 황제도 왕궁 안의 한 사원의 지붕을 도금하는데 48억원을 썼다.
- (8) 칼리굴라 황제가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흔히 있는 일로 클레오파트라라는 하나에 1억6천만 원이나 되는 진주를 녹여서 먹었다고 한다.
- (9) 뿐만 아니라 발레리우스 막시무스(Valerius Maximus)란 사람은 한 잔치에서 모든 내빈들 앞에 진주 하나씩 내놓고 자신은 메탈라(Metalla)의 귀걸이에서 진주를 떼내어 포도주에 녹여 삼켜 버렸는데 이것은 그가 한꺼번에 수억을 삼켰다고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 (10) 한편 사도 요한 당시는 극히 호화 호식의 시대로 잔치상에는 공작의 뇌와 피꼬리 혀로 만든 요리들이 나오기도 했다. 1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재워했던 비텔리우스(Vitellius)는 음식에 140억 원이나 사용했는데 그는 꼬치어의 간과 꿩과 공작의 뇌, 홍학의 혀, 칠성장어의 혀 등을 좋아했다.
- (11)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전제국을 휩쓸고 있었다.

9. ㉠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사한 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11-14절).

- ㉠ (1) 세상의 장사군들은 로마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하는데 이는 로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큰 고객과 시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상인들이 무너지는 로마를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멀리 서서 단순히 자신들의 장사가 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 또 장사군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로마로 가져왔는데 로마에 들여온 상품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사치했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인들이 취급한 상품들을 그 종류별로 분류해 봄과 동시에 산지 및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당시 로마의 사회상에 좀더 접근해 보고자 한다.

(4)

구분	종류	산지 및 특성
귀금속류	금	주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각종 도금에 쓰임
	은	스페인의 칼타게나(Carthagena). 로마인들은 거의 모든 곳에 은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은은 로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었다
	보석	아라비아. 로마인들은 보석이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녹주석과 담백석, 마노 순서이다
	진주	로마인들은 모든 보석들 중에서 진주를 가장 좋아했는데 진주를 포도주에 녹여 마시기도 하였다

의류	세마포	애굽, 주로 사제나 제왕들의 옷감으로 값이 매우 비싸므로 부자 외에는 아무도 입을 수가 없었다
	자주 옷감	피니게(Phoenicia), 원래 자주색은 왕실의 색깔로 조개에서 그 물감이 나오는데 아주 소량이며 주의해서 취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비싸고 귀한 것이었다
	비 단	중국, 아주 귀한 것으로 한근의 비단은 금 한근과 맞먹는 가격이다
	붉은 옷감	로마, 붉은 색은 자주색과 같이 많이 찾는 물감의 색깔로 연회용 덮개로 쓰이는 바벨론 천은 하나에 1,400만원 이상 나갔다
장식품류	향 목	북 아프리카의 아틀라스(Atlas), 방향성(芳香性)이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으며 잘 염색되면 공작의 꼬리나 표범의 가죽처럼 아름다운데 식탁으로 쓰이며 금과 맞먹는 가격이다
	상 아	인도, 상아는 장식품으로 많이 쓰였는데 상이나 칼자루, 가구, 예식용 의자 등에 사용되었으며 부자들은 상아로 식기도 만들었다
	놋, 구리	고린도, 고린도의 놋이나 구리 조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값도 말할 수 없이 비쌌다
	철	흑해와 스페인에서 수입되었다
	대리석	바벨론에서는 대리석이 건축에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비로소 사용되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로부터 아름다운 대리석을 구입하기 위한 기관까지 생기게 되었다
고급향류	계 피 (육계)	인도와 잔지발(Zanzibar)에서 수입한 것이며 사치품으로 로마에서는 1파운드 당 13만원이나 했다
	향 료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방향성인 액체로 머리에 바르거나 장례식에 많이 사용하였다
	향	구약에서 종교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성전의 분향과 제사 의식에 사용하였다
	향 유 (몰약)	예멘, 북 아프리카, 관목의 진액으로 의학적으로는 수렴제, 자극제, 방부제로 사용되며 여자들의 정결 기간에 향으로도 사용
	유 향	나무진으로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것처럼 흐르는 진을 받아 만든다. 향유는 몸과 술의 향료로도 쓰고 등유로도 쓰인다
식료품류	포도주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다 마셨으나 술 취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로 여겨졌다.
	감람유	팔레스틴,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로 짠 기름으로 요리하는 데 사용되며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도 붓고, 등잔 연료도 됨
	밀가루	애굽, 고운 밀가루는 고급 밀가루를 의미하여 고대 로마의 주식으로 사용
가축류	소	젖과 고기의 공급원이 됨
	양	양은 소유한 사람들의 주요한 재산의 일부임
	수레	이는 경주용이나 군사용 수레가 아니라 말이 끄는 네바퀴 수레로 로마의 부유층들이 타고 다닌 것이다

10. ㉠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3절).

- ㉠ (1) 로마 제국은 약 6,000만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린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처럼 로마 문명 자체는 노예 제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본절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이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쏘마>는 ‘몸 또는 ‘육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노예는 자신의 몸과 혼을 모두 주인에게 파는 것으로 가축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 (3) 이 노예들의 하는 일 역시 다양하여 땀을 흘리는 자, 초롱불 드는 자, 가마 메는 자, 도로 수행원, 외출복 보관자 등이 있다고 한다. 또 노예들 중에는 비서와 속기사, 독서해주는 사람, 책 쓰는 사람을 위해 자료를 조사해주는 사람 등 주인의 수족처럼 쓰이는 노예들도 있었다.
- (4)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인을 앞서가며 대신 인사하는 자, 시인이자 명사들의 유명한 글귀절을 외웠다가 필요할 때 주인에게 알려 주는 노예, 연회 때 이곳저곳에서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미청년 노예들, 식사와 취침 시간을 알려 주는 노예들까지 있었다.
- (5) 또 난장이나 기형아들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는데 어떤 자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인조 기형아를 만들기도 하였다.
- (6)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사회는 극도의 사치와 방종, 오만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무관심과 천시가 일반화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 (7) 이와 같이 사치와 음행과 교만 및 인간 생명과 인격에 대한 천시가 그 기반이 되는 사회는 필경 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한다(참조, 마9:13;16:26;22:37-39;요13:34).

11. ㉠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7-19절).

- ㉠ (1) 세번째로 로마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한 자들은 주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 선객, 선인 등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 (2) 본절에 나오는 애곡의 기사는 겔27:28-34이 배경이 된 것으로 그들이 서서 울며 소리친 곳은 두로(Tyre)라고 할 수 있다.
- (3)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마음 아프게 애통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의 멸망을 진정으로 애석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어 왔던 값진 상품과 모든 물질이 불타 버리는 데 대한 아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각종 보화와 향료, 식료품, 장식품 등의 온갖 사치품들을 로마로 싣고 와 매매함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 애곡함도 무리가 아니었다.
- (5) 따라서 그들의 이 모든 애통은 사실 자신들을 위한, 자기 연민에 빠진 감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 행복의 근원을 물질적인 소유의 부요함에 두게 되면 그는 생의 보다 중요한 것들, 즉 인간애, 우의, 친교 등의 소중한 가치들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 (6) 이처럼 물질만을 숭배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과 비극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며 인간 경시나 물질 숭배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검약하는 생활과 참된 사랑의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마16:26;약1:14,15;요일3:13-18).

12. ㉠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땅의 왕들과 상고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곡이 언급되어 있는 전절들과는 달리 본절에서는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 오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소리이다.
- (2) 또 본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즉 사단의 세력에 속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것과는 서로 대조가 된다.
- (3) 이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의 범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신32:43; 렘51:48).
- (4) 한편 우리는 원수들의 멸망을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본절의 내용이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참조, 마5:44).
- (5) 첫째,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선과 정의의 승리를 기뻐한 것이다(참조, 뱀전3:15, 16).
- (6) 둘째, 성도들이 기뻐한 것은 개인적인 증오나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은 비록 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쁨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기쁨이다.

13. Ⓒ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 간략하게 묘사하라(21-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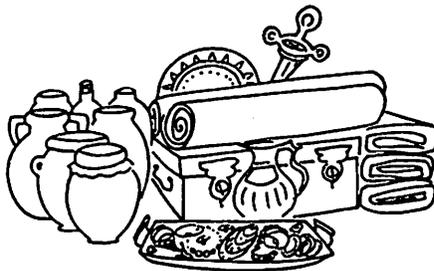
- Ⓐ (1) 본절에서는 바벨론에 비유된 로마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렘51:63,64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멸망 예언이 배경이 되고 있다.
- (2) 바벨론의 멸망은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넣어 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바벨론도 이처럼 완전하게 파멸될 것이다.
- (3) 우선 멸망한 도성 안에는 기쁨의 소리가 그칠 것인데 이는 두루에 대해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고 한 에스겔의 예언(겔26:13)을 연상케 한다.
- (4) 수금은 즐거울 때 노래와 함께 연주하며 통소는 잔치나 장례식에서 사용되었고 나팔은 운동 경기나 음악회 때 불었다.
- (5) 그러나 앞으로는 성안에 모든 노래와 음악과 희락의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목수의 망치나 톱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 (6) 또 집안에서 일하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으며 혼인 잔치의 기쁜 소리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라’고 한 예언과 같다고 할 수 있다(참조, 렘25:10).
- (7)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닥쳐오면 온갖 사치와 부귀 영화는 간 데 없을 것이며 번화하던 거리는 죽음처럼 침묵을 지키게 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며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악인의 즐거움은 순간적이며 그들의 소망은 단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14. Ⓒ 바벨론으로 비유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3, 24절)

- Ⓐ (1) 본절에서는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2) 첫째,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왕족'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기스타네스>는 '위대한 자' 또는 '큰 자'란 의미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를 좌지 우지 하는 지배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따라서 이 말은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사치와 향락과 물질 숭배에 빠져 상인들이 사회를 좌지 우지하고, 사람들은 부귀와 사치와 음행을 일삼고 물질에서만 기쁨을 찾던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4) 둘째, 복술로써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복술은 허황되고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
- (5) 선지자 나훔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다(나3:4). 이는 복술이나 마술 따위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사단의 흉계라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6) 셋째, 로마는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로마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원형 경기장 등에서 피를 흘렸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핍박은 전국에 퍼져 무수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
- (7) 에스겔 선지자는 '피 흘린 성읍이여, 화있을진저!'라고(겔24:6) 선언했으며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참조, 마23:25).
- (8) 이처럼 물질주의와 복술 등의 우상 숭배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현대에 팽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점(占) 등의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다(참조, 딤후6:9,10; 딤후3:14-17).
- (9)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질과 기복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성도들의 참된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러한 잘못에 물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겠다(참조, 약2:1-13).

본장의 요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商賈)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5절).

제 19 장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짐승에 대한 심판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늘의 찬양 / 4-5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 / 6-8 어린양의 혼인 잔치 / 9-10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의 축복 / 11-13 어린양되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다 / 14-16 하늘 군대가 어린양을 따르다 / 17-18 한 천사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다 / 19-21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중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른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

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른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울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1. Q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7년 대환난은 막을 내리고(18장) 이제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과 짐승의 멸망에 대한 기사가 언급되고 있다.
- (2)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묘사로 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18장에 묘사된 상고들과 선장들의 애가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 또 어린양되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셔서 사단의 세력 안에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를 조장한 주역이었던 짐승을 멸망시키고 불 못 속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악의 세력은 종국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4) 이처럼 본장은 큰 음녀인 바벨론, 즉 로마 정권의 몰락에 대한 전우주적인 기쁨과 찬양으로 시작되고 곧바로 백마와 그 위에 탄 어린양되신 그리스도의 출현이 뒤따르고 있다.
- (5) 이에 대해 땅에 거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세력을 모이지만 결국 패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본장은 끝나고 있다.
- (6)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정의와 선을 누르며 참신앙보다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발전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전8:13;말4:1;빌2:12;살전5:22).

2. ⓐ 본장 초두에 전개되는 장면에 관해 설명하라.

- Ⓐ (1) 전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늘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참조, 18:20).
- (2) 본장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순교자들의 무리’(7:9)와 하늘 ‘천사들의 무리’(12:7)로 생각할 수 있다.
- (3)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하는 중심 낱말인 ‘할렐루야’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 (4) ‘할렐루야’는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라는 단어의 복합어이다.
- (5) 또한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번역한 형태로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시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어진다.
- (6) 또한 시113-118편까지는 애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굽의 할렐’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이 찬양은 애굽의 압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 찬송시들은 유대인의 명절이나 절기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참조, 마26:30).
- (7) 이처럼 ‘할렐’은 유대인들과 애환을 같이 한 노래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방황할 때에 동반된 노래이며 슬픔과 고난의 때에 힘을 주고 구원과 승리의 날에는 기쁨의 송가로 불리어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매 명절 때마다 불리어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억과 미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를 소생시켜 주었다.
- (8) 한편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로부터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받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며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참조, 4:11;7:10;12:10).

- (9)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감사하며 말과 노래로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려 우리의 삶 자체가 '할렐루야' 찬양을 연주하는 악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사44:23; 골1:12; 살전5:18; 요일3:18).

3. ㉠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며 죄에 대한 징계는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완전한 이유를 세 가지 찾아 볼 수 있다.
- (2)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 마음속의 깊은 생각을 아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다(참조, 겔11:5; 요2:25; 요일3:20).
- (3) 둘째, 하나님만이 편견과 사심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의로운 순결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처럼 완전히 선하신 분만이 참으로 완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신32:4; 호14:9; 벰전1:17; 계15:3).
- (4) 셋째, 하나님만이 완전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지혜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참조, 사41:22,23; 43:9-13; 요6:34).
- (5) 한편 큰 음녀인 바벨론은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죄악들 중에서도 제일 악한 것은 남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다.
- (6) 따라서 바벨론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가혹한 것이었는데 이는 바벨론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강요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경배케 했기 때문이다.
- (7)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설욕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수1:5-9).

4. ㉠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5절)

- ㉠ (1) 천군들이 두번째로 할렐루야 노래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 보였는데 이는 바벨론이 멸망하여 불타갈 때 치솟는 연기로 그 파괴가 치명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바벨론이 폐허로부터 재기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
- (2)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에 의한 경배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24장로(4:4,10; 5:6,11,14; 7:11,16; 14:3)와 네 생물(4:6-9; 5:6-14; 6:1-7; 7:11; 14:3)은 본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 (3) 이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을 합한 것으로 교회 및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 또한 네 생물은 그룹들로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빠른 것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은 전교회와 모든 자연계의 찬양이며 경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와 자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 (6) 한편 본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둘째는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이다(참조, 시135:1,20).
- (7)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10:7; 11:18; 12:6)과 '순교자들'(7:3; 19:2)이다.
- (8)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은 지식의 유무, 지위의 고하, 신앙적 성숙의 정도에 관계 없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9)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괄하는 우주적인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백성과 교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참조, 시115:13;134:1).
- (10)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삼상15:22; 전12:13; 고전10:31).

5. **㉠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6-8절).**

- ㉠** (1)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定婚式)이라는 것을 먼저 하는데 이것은 '약혼식'보다도 훨씬 더 굳은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2) 이 '정혼식' 때 두 남녀는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 결합을 축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데 이 날부터 두 남녀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다(참조, 고후 11:2).
- (3) 그리고 정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 잔치를 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랑될 사람은 신부될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하며 지참금이 없을 경우 신부될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줌으로써 대신하기도 한다(참조, 창29:20;34:12).
- (4) 이 일정한 기간이 끝나 혼인 잔치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 행진이 시작되는데 이때 신부는 곱게 치장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린다(참조, 마25:1-13).
- (5) 이 날 신랑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햇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앞장 서서 가는 친구를 따라 정혼자인 신부집으로 가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자신을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며 자기 집 또는 부모가 제시하는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돌아온다(참조, 마9:15;25:1).
- (6) 또한 신랑이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신부 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혼인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잔치는 보통 7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
- (7) 한편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이를 부부 관계로 비유한 곳이 많은데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하나의 상징이다(참조, 21:9; 사50:1;54:1;엡5:32).
- (8) 이처럼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정혼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교회를 위하여 지참금까지 다 지불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엡5:22-27).
- (9)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실 날을 대망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4:10;25:31;막2:19).

6. **㉠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6-8절).**

- ㉠** (1) 본절에 언급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으로 그 소리가 아주 크고 웅장한데 그 내용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2) 여기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로 이 혼인 잔치 때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올려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잔치를 '공중 잔치'라고도 부른다.
- (3) 동시에 이 결혼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사이가 너무도 친근하여 도저히 나뉘어질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호2:19,20;고후11:2).
- (4)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부부 관계로 언급한 곳이 많은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둘 사이에 대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참조, 사54:5)라고 표현하였다(참조, 렘3:14; 겔16:6-14; 호2:19,20).

- (5)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렘3:14; 겔16:6-14; 호2:19,20).
- (6)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언급한 곳이 많은데 특히 복음서에서 이 같은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7) 즉 혼인 잔치의 비유(마22:2), 혼인과 결혼 예복(마22:10,11), 혼인 집 아들들의 비유(막2:19),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에 대한 비유(마25:1; 요3:29)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 (8)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참조, 고후11:2; 엡5:21-33).
- (9) 이처럼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완전한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무한한 영광과 상급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16:2; 살전4:17; 골3:4).
- (10)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군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끄럽지 않게 옹고 선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만 하겠다(참조, 렘3:14; 롬13:12; 고후11:2).

7. ㉔ 천사 숭배 사상이 초기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간략하게 서술하라(9, 10절).

- ㉔ (1) 사도 요한 당시 초기 성도들 사이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크게 성행했는데 이는 유대교와 헬라의 천사 숭배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 (2) 유대교의 일부에서는 천사를 매우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외경인 토빗서(토빗13:12-15)나 단의 언약서 6:2 등에서는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언급하고 있다.
- (3) 더우기 어떤 랍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해서는 안 되며 천사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에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A.D. 4세기 경의 랍비인 예후다(Jehuda)는 천사들이 아람어를 모른다고 아람어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까지 하였다.
- (4) 이처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하기엔 너무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천사의 탁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 (5) 이와 같은 유대교의 천사 숭배 사상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함께 가지고 들어와 초기 기독교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 (6) 또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라 천사 숭배 사상이 기독교내에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
- (7) 즉 헬라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프로디테 등의 여러 헬라 신들을 천사로 생각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관여하시지 않고 천사 등의 중간자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다.
- (8) 이러한 헬라의 세계관은 유대의 천사 숭배적 세계관과 만남으로 천사 숭배 사상으로 더욱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9)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이며 피조물이므로 경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조, 히1:4-14).
- (10)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11)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주만 바라보며 그분을 뜻대로 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참조, 요14:6; 빌3:14).

8. ㉠ '백마를 탄 자'에 대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1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를 탄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짐승을 멸하시기 위해 출현하신다.
- (2)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특징지어 볼 수 있다.
- (3)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또한 그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고 물리치는 승리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유대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킬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다(참조, 사43:15; 44:6; 마2:2).
- (4) 둘째, 사도 요한은 그분의 이름이 '충신'(忠信)과 '진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단어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보편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 (5) 여기서 '충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형용사로 '신실하다'는 뜻인데 이는 그분의 신실성과 성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다.
- (6) 또 '진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티노스>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 (7) 뿐만 아니라 '진실'은 가짜에 대한 '진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조시켜 주는 말이다.
- (8) 셋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義)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전쟁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 당시 로마는 극도로 타락하여 왕이나 관리들로부터 정의나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참조, 렘5:7).
- (9)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세상을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다.
- (10) 따라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대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다(참조, 사9:7; 렘22:3; 암5:24).

9. ㉠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 ㉠ (1) 본절에서는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여기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1:14과 2:8에 미리 언급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적을 파괴하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명석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3) 동시에 머리에 있는 '많은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온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 (4) 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헬, 퀴리오스) 또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
- (5) 이에 대해 혹자(H. B. Sweet)는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은 인간에게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비밀을 뜻한다고 했다.

- (6) 그는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교의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오한 본성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 (7) 이처럼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의 일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의 구원과 도우심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성육신의 참된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으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 100:4; 골1:12; 3:15; 살전5:18).

10. **㉠**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이름 중 '피 뿌린 옷'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이는 사63:1-6이 배경이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이다.
- (2) 여기에 언급된 피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 흘린 피이다.
- (3) 이처럼 '피 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피로 보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4)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예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참조, 요1:1,14; 요일1:1).
- (5) 그런데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동력 있고 능력있는 말씀으로 요 1장에 언급된 말씀과는 그 뜻이 다르다.
- (6)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 1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는 사역을 담당하신 반면 본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심판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 (7)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으며 유대인의 외경인 지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참조, 렘23:29; 솔로몬 지혜서18:15, 16).
- (8)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살아 있는 말씀들, 즉 창조와, 저주와, 약속과, 심판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현되기 때문이다.
- (9)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겠다(참조, 딤후3:15-17; 히4:12).

11. **㉠**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 (2)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늘의 군대를 천사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마13:41; 16:27; 24:30,31) 등을 들어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Rist, Barclay).
- (3) 이에 반해 어떤 학자들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혹기, Baker).

- (4) 이들에 의하면 ‘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8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차림과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17:14의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도다’에서 백마를 탄 하늘 군대는 바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즉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5)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천사나 성도의 한 무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는 하늘 군대인 천사들과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Plummer, Alford).
- (6)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하나만을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본다.

12. **㉠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15, 16절).**

- ㉠** (1) 본절에서 그리스도가 세 가지 방법으로 땅에 속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제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①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②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③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맹렬히 밟으시는 것이다.
- (2)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인데 이는 사11:4이 배경이 된 것으로 ‘입에서 나온 검’은 구원과 평화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1:16;2:12,16).
- (3)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인데 이는 시2:9의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는 말씀이 배경이 된 것으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2:27;12:5).
- (4) 셋째,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63:1-6의 말씀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14:19,20;마25:31;요5:22;행17:31).
- (5) 이처럼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만국에 대한 그의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이때가 되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짐승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참조, 2:15;12:5;14:20;요12:48;살후2:8).

13. **㉠ 사도 요한이 17-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아 유황으로 타는 불 못 속에 던져 넣어 버린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 (2) 이 전쟁은 본서 16:16에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본장 17,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주검은 겔39:17-20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참혹한 죽음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참조, 16장 ㉠ 11).
- (3)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체가 새 등의 동물들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참조, 왕상21:23;왕하9:7,30-37).
- (4) 또 19-21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전쟁의 결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산 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그밖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은 자들은 ‘큰 잔치’에 초청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악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절을 의미한다.
- (5) 여기서 ‘유황불 붙는 못’은 본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 무저갱(9:12;11:7;20:1)과는 다른

데 무저갱이 죽은 악인의 영혼이 거하는 일시적인 감금 장소를 가리키는 반면에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유대교의 '게헨나'나 헬라의 지옥 개념과 비슷한 곳을 의미한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지만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악의 세력을 쳐부수시고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여 성도들과 함께 왕 노릇하실 것이다(참조, 5:10;20:6).

연구자료

계시 문학과 요한계시록의 차이

계시 문학(또는 묵시 문학)이란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는 영적인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등을 글로써 적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서도 분명 하나의 계시 문학서이다. 그렇지만 본서에는 어느 계시 문학서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중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점은 대부분의 계시 문학서가 원저자의 이름 대신 위명(僞名)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본서는 '요한'이란 저자의 분명한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1:1, 2, 4, 9). 두번째로 대부분의 계시 문학서가 과거의 역사를 예언적 형태를 빌어 재기록한 것임에 반해 본서는 저자가 처해 있던 당시대의 상황과 종말론적인 사건을 기술,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대부분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계시 문학서와는 달리 본서는 낙관론적인 견해에 입각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즉 본서는 종말에 있을 극심한 환난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영원한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네째, 본서에는 여타 계시 문학서에선 찾아보기 힘든 도덕적, 영적 교훈이 종말론적인 계시와 아울러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1:3;2:5, 10, 16;22:18, 19). 즉 본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시된 종말론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것을 교훈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이켜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서는 어느 계시 문학서와는 다른 두드러진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는 일반 문학서와는 다른 성경의 특성을 보여 준다.

제 20 장 천년 왕국과 최후의 대심판

단락구분 1-3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다 / 4 천년 왕국 / 5-6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과 왕 노릇 / 7-9 사단이 풀려 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 10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유행불 못에 던져지다 / 11 하늘의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등장 / 12-14 흰 보좌 심판과 두번째 사망 / 15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멸망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들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 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7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속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

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행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의해 악의 세력이 경험하게 될 둘째 사망이 묘사되고 있다.
- (2) 본장은 한 천사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되고 참된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던 세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3) 또 7-10절에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었던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나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나 결국 패하여 영원히 유행불 못에 던져지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여태껏 계속되어졌던 하나님과 사단,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4) 마지막으로 11절 이후에서는 흰 보좌 심판에 의한 두번째 사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류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으로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참조, 21:4; 행24:15).

- (5)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악의 꾀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가야 하는 신앙 정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고후4:16-5:10).

2. ㉠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3절)

- ㉠ (1)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 및 거짓 선지자가 멸망한(19:20,21) 후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고 천 년 동안 그곳에 감금된다.
- (2)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 있다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으로 마귀나 사단 등의 악한 세력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참조, 9:1; 11:17; 눅8:31).
- (3) 여기서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가 여태껏 세력을 행사하던 땅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는 곳으로 던져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4) 더우기 사단이 천 년 동안 결박된 것과 부활한 순교자들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동시적이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천 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천 년’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많은 수’나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다.
- (5) 이처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미혹하여 거짓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꾀박하던 사단의 활동이 천년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완전히 정지될 것이다.
- (6) 따라서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결박도 미래에 일어날 것이며 또 이 결박의 사건이 장차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천 년 통치도 이 땅 위에서 장차 이루어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비교, 막3:27).

3. ㉠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6절)

- ㉠ (1)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천년 왕국 기간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그때에 가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러기에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 놓은 거룩한 증거가 실제로 진실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 (4) 둘째, 천년 왕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유가 사단의 유혹과 기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부패한 마음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5) 왜냐하면 사단이 결박당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속에 숨겨진 악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풀려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끝내 악인들은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 (6) 셋째, 천년 왕국 후에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 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한 것으로 다시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비록 사단이 풀려 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영원한 유희불 못 속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 (7) 넷째, 천년 왕국은 인간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심화되어 있던 죄악을 청소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최후의 심판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4절)**

- ㉠** (1) 본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두 종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① 순교한 사람들과 ②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다.
- (2) 첫째,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충성스럽게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죽임을 당했다(참조, 1:9;6:9;12:11).
- (3) 또 본절에서는 6:9에서와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에 대해 '영혼'(헬, 프쉬카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순교자들이 비록 육체적인 생명은 잃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한 표현이다.
- (4) 그러므로 이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첫번째 부활 때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 (5) 둘째,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참조, 12:11).
- (6) 이들은 비록 실제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다 당했으며, 배척과 투옥, 재산의 상실, 가정과 인간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한 자들이다(참조, 4-15절;2:11,26,27).
- (7)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 교회에서 '순교자'는 신앙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을, '고백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켰으며 이들은 다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한다고 여겨졌다.
- (8) 이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에 참여케 된다는 사실을 늘 새기며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자(참조, 2:10;요8:32;딤후3:12-17).

5. **㉠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 5절)**

- ㉠** (1)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는 ① 영적 부활이라는 학설과 ②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 (2) 먼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개인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라고 했으며 둘째 부활 때 가서야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한 모든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였다(Plummer, Lange).
- (3)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Augustine)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본절의 말씀과 서로 모순된다.
- (4) 둘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죽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Walvoord, Alford).
- (5)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A. D. 2C)도 첫째 부활을 의인들의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였으며 순교자 저스틴(Justine)도 천년 왕국 이전에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있으며 모든 사람의 부활은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고 하였다.
- (6) 또 첫째 '부활'을 언급할 때 사용한 헬라어 <자오>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으며(1:18;2:8) 이 <자오>에서 파생된 헬라어 <에제산>은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요5:29;11:25;행1:3;9:41).
- (7) 따라서 초기 이레니우스의 견해대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이 같은 부활은 '생명의 부활'

(요5:29)이기 때문에 부패해 버린 영혼을 지닌 악인들이 경험하게 될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한다(참조, 고전15:12;살전4:13이하).

6. **㉠**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인가? (6절)

- ㉠**(1) 먼저 둘째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 버린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으므로 사망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 (2)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에 모두 동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마7:13,14).
- (3) 둘째, 그들은 천 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 (4) 제사장으로서는 그들이 갖는 특권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 (5) 셋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참된 성도들이 행복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기쁨에 참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 (6)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왕권 등을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과 자세를 준비해 가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그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요14:2;행1:8;엡6:19).

7. **㉠** ‘무천년설’의 내용 및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무천년설(Amillennialism)은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 왕국이나 혹은 전세계적인 평화와 의(義)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문자적 천년 왕국을 부인하고 이것을 상징적 또는 우화적인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 (2) 이 무천년 왕국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겐(Origen)으로 그는 본장에 나오는 천년의 기간은 바로 신약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기를 가리킨다고 했다.
- (3) 또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Augustine)도 이 견해를 지지하였는데 그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복음 시대 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 (4) 이들에 의하면 본장에 언급된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며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사역의 역사적 진행들은(12:10;13:1-18;14-17장; 19:11-21) 한 사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사단의 패배만을 계속적으로 반복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Lenski, A. Kuyper).
- (5) 그러나 본서를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사단의 사역은 ① 땅으로 추방됨(12:10)→②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사단의 시도(13-17장)→③ 그리스도의 재림(19:11-16)→④ 사단의 멸망(1-3절;19:19-21) 등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단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만 관련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 준다.

- (6)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 부활이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인류가 받을 심판의 이중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를 왜곡해 버릴 위험이 있다(참조, 5,6,14절).
- (7) 한편 이 견해는 종말에 가서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다는 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선 전천년설과 일치하며 천년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후천년설과 일치하고 있다.
- (8) 이 무천년설은 지금도 카톨릭 교회와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칼빈(Calvin)이나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등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 B. Warfield, Berkhof, Milligan, Buis).

8. **㉠** '후천년설'의 주장 및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라.

- ㉠** (1)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으로 재림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고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참조, 사11:9).
- (2)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마28:18에 언급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과 인간 역사 속에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그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참조, 사2:2-4; 단2:44).
- (3) 또 그들은 이 천년 왕국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4) 따라서 이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천 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5) 즉 무천년설이 1,000이라는 수자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후천년설은 천 년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여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 년 동안 계속될 복음과 평화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 (6) 한편 이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세계는 복음의 평화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반대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7) 이처럼 위의 견해는 성경의 해석과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으며(19:11-21) 악과 불의가 점차로 증가하는 오늘날의 실정에서 살펴볼 때도 타당성이 적음을 볼 수 있다.
- (8) 특히 이 후천년설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재림하시리라는 것과 그의 강림 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그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는 사실을 배제해 버리고 만다.
- (9) 이 후천년설은 최근에 와서 무천년설 및 전천년설에 밀려 그의 주의를 끌지 못했으며 어떤 학자들은 이 후천년설은 더 이상 거론될 가치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Reese, Lewis).
- (10) 이 후천년설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알팅(Alting), 코엘만(Koelman), 브라켈(Brakel) 등의 16,17세기 화란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브라운(Brown) 스토폴(Strong), 셰드(Shedd) 등이 있다.

9. **㉠** '전천년설'의 내용 및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전천년설'(Premillenarianism)은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7년 대환난 이후 예수의 재림이 있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주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하실 것이라 한다.

- (2) 초대 교회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였는데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인 저스틴(Justin),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히폴리투스(Hippolytus) 등도 전천년설을 지지하였다.
- (3) 특히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진 이레니우스(A. D. 2C)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비유하여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에 해당하는 6천 년이며 그 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안식일 하루에 해당하는 천 년 간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 노릇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천 년 간이 바로 천년 왕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4) 또 저스틴은 이 전천년설에 대한 믿음은 바로 성경적 신앙에 준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 (5) 한편 전천년설은 천 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문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 기간이 확정적으로 천 년이라고 단언하거나 또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나라의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금해야만 한다.
- (6) 이 전천년설은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로 다양한 분파를 형성했으나 우리는 이를 ① 역사적 전천년설과 ②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제에서 다루고자 한다.
- (7) 우리는 여기서 전천년설을 취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본서에 적용하였다.

10. ㉠ '역사적 전천년설' 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을 비교 설명하라.

- ㉠ (1)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은 대환난을 기준으로 삼아 '대환난 전 재림론'과 '대환난 후 재림론',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진다.
- (2)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학설을 도표화하여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 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다른 명칭	대환난전 재림론	대환난 후 재림론
그리스도의 재림시기 및 회수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들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대환난 전에 일어나며 이때 모든 성도는 휴거하여 고난을 피하게 된다. 또 지상재림은 대환난 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 나게 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회적 이라고 하며 이 재림은 대환난이 끝난 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대환난은 통과한다고 한다
성도들의 부활	부활은 세 번 있게 되는데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대환난 전, 즉 예수의 공중 재림때있고 대환난 직후,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대환난 때 순교한 자들의 둘째 부활이 있으며 셋째 부활은 모든 자의 부활로 왕국 마지막에 있다. 이들은 또 둘째 부활, 즉 순교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두 번 있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로서 대환난 후에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일어난 사건이며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말기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환난시의 성도들의 상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죽었든지 살아 있든지 대환난 전에 주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회적이며 이 재림은 대환난 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그때에 부활하여 하늘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은 대환난을 통과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성도들을 위해 환난의 기간을 줄여 주실 것이다
사건의 진행 순서	예수의 공중 재림→성도들의 휴거(어린양의 혼인잔치)→대환난→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천년 왕국→둘째 사망→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	7년 대환난→예수의 재림→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어린양의 혼인잔치)→천년 왕국→둘째 사망→최후의 심판→새 하늘과 새 땅
문제점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일직선 상에 놓고 이해함으로써 두 번의 재림(공중 재림, 지상 재림)과 두 번에 걸친 성도들의 부활(환난 전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 환난 때 죽은 순교자들의 재림시 부활)이라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건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예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및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동시적으로 생생함으로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일직선 상에 놓고 전후 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주장한 학자들	James M. Gray A. C. Gaebelein R. A. Torrey W. B. Riley I. M. Haldeman Ironsides L. S. Chafer	R. Cameron W. J. Erdman R. Bingham H. Frost

11. ㉠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7-10절)

- ㉠ (1)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난 사단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간에 있을 최후의 싸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종말적인 전쟁이다.
- (2)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 성경 젤38,39장이 배경이 된 것으로 곡(Gog)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방인 집단의 침입자, 즉 먼 땅 마곡(Magog)의 스구디아 군대의 왕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적대국들의 최후 공격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종말 사상으로 이는 특히 단 11장과 숙11:1-11에 잘 나타나고 있다. 외경 시빌리의 신탁(3:663-672)에서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격파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 (4) 이처럼 사단은 모래처럼 많은 추종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과 사랑받는 도성, 즉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다. 그러나 불에 삼킨바 되고 사단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 (5) 여기서 사단이 던져진 불 못은 지옥(헬, 게헨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심판의 영원성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다(참조, 14:11;마5:22;10:28).

- (6)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포악한 악의 세력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죽음과 영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하겠다(참조, 롬13:2;고전15:25).

12. **㉠** ‘곡과 마곡의 전쟁’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7, 8절).

- ㉠** (1)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 에스겔서가 배경이 된 것으로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상징한 것이다.
- (2)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살펴봄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첫째, 구약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공격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견뎌 내야 했던 가장 극심한 최후의 시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된 이 종말의 전쟁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쟁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19:19;겔38,39장).
- (4) 둘째, 곡과 마곡의 군대는 그 수효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다. 이는 최후 전쟁 때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 기간 중에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 (5) 셋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시련이 매우 가혹할지라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다.
- (6) 이처럼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할지라도 그에게 부여된 시간을 맞아 멸망하고 말 것이다(참조, 11:11;막13:20).
- (7) 넷째, 천년 왕국 후에 사단에 의해서 일어날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도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승리하게 된다.
- (8) 동시에 하나님에 의한 이 승리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원흉인 사단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도 최후의 심판에 의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14:11;19:20;21:8;요12:31).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세에서 비록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며 선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는 잠시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리와 의가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 안에서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합2:9-14;3:17,18;요8:32).

13. **㉠** 사도 요한이 최후 심판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라(11절).

- ㉠** (1) 본절에서는 심판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흰 보좌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성과 절대 권위를 상징한다.
- (2) 한편 신약 성경에 의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마 25:31-48;요5:22;행17:31;딤후4:1).
- (3)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사실 예수께서는 요10:30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참조, 요14:10,11).

- (4) 사도 바울도 롬14:10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한 반면에 고후5:10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고 말하고 있다.
- (5)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빌2:6).
- (6) 둘째,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재판장이 되신 것은 본서가 유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해되었다.
- (7)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선 하나님은 특별히 뛰어난 분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 (8)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도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심판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참조, 겔7:8;36:19;뱀전1:17).
- (9)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참조, 요5:29;갈5:6).

14. ㉠ 흰 보좌에 의한 최후의 심판을 간략하게 설명하라(12-15절).

- ㉠ (1) 최후 심판 때는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두 권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 (2) 첫번째 책은 심판을 위한 책으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다.
- (3) 두번째 책은 생명의 책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구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4) 따라서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받는 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따르던 악한 자들은 이 심판 때 유황불 못에 던져짐으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13:8).
- (5) 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은 단지 그들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의미한다(참조, 3:5; 출32:32; 빌4:3).
- (6) 또 본절에는 죽은 자들을 품고 있던 넓은 세 장소, 즉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최후 심판 때 죽은 자들을 내 놓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 (7)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의 실재와 사람들이 사망 후에 맞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말은 흰 보좌 심판 때 모든 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묘사한 것이다(참조, 1:18;6:8;요5:29).
- (8) 한편 불신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곧바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 즉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된다(참조, 10절;19:20).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현재 살았으나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 즉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15. ㉡ 사망과 음부가 불 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고해 주는 것이다(참조, 6:8;19:20;21:4;고전15:16).

- (2) 또 본장 11절에 의하면 이 최후의 심판 때는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 후에 도래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이처럼 최후의 심판 때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 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참조, 21:4).
- (4) 이는 사단과 사망의 세력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궁극적 소망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원하는 바는 죽음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이기 때문이다(참조, 롬8:18-23).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날을 소망하며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참조, 눅4:17-21; 요16:33).

화보자료

사로잡히는 용. 베아투스 계시록 주석에 나오는 삽화이다. 아래 부분은 무저갱에 감금하기 위하여 천사가 용을 사로잡고 있는 장면이며(1-3절) 윗 부분은 마귀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향 못에 던져워지고 있는 장면이다(10절).



무저갱은 지옥과 달리 사단이 일시 동안 감금되는 일종의 유배지이다. 사단은 이곳에서 천 년 동안 감금당하는데 그 후 다시금 풀려 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그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영원토록 불과 유향 못, 즉 지옥에 갇히게 된다(7-15절).

제 21 장 새 하늘과 새 땅

단락구분 1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 / 2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 3-5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 6-7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 8 악한 자들이 받을 둘째 사망 / 9-10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 주다 / 11-14 새 예루살렘의 모습 / 15-17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 / 18-21 온갖 보화로 치장한 새 예루살렘 / 22-25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밝게 비추다 / 26-27 구속받은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서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측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 둘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1. ㉠ 본장의 주제 및 특징은 무엇인가?

- ㉠ (1)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사단의 멸망과 흰 보좌에 의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언급되고 있다.
- (2) 이 점에 대해 모팻(Moffatt)이라는 학자는 ‘연기와 고통과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영원한 아침의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석처럼 휘황찬란하다’고 말하였다.
- (3)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과 고통이 없고 슬픔은 잊혀질 것이며 어두움이 종말을 고하고 시간의 임시성은 영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 (4) 이는 종말에 가서 인간의 본래적 소망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불멸과 죄의식의 소멸, 더 좋은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5) 한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은 유대인의 사상 속에 깊이 뿌리박힌 것으로 본장의 환상도 사60,65장 및 겔40-48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1-3장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
- (6)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상은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의 생각 속에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그리스도교 성도들의 소망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으며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빛을 던져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2:7;3:12;사65:17;66:22,23).

2. ㉡ ‘새 하늘과 새 땅’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사 65:17에서 예견되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하늘이나 먼 곳에 있는 낙원 또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인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과 하늘을 사람의 영원한 거처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땅은 사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장소로 변했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과 고통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되었다(참조, 창3:16-19).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죄악과 타락의 질곡(桎梏)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실 것이다(참조, 롬8:21).
- (4) 본절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적용되는 곳으로서 초공간적이며 인간들이 여태껏 체험할 수 없었던 상태를 간직한 곳이다. 더우기 이곳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의의 거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다(참조, 벧후3:13).
- (5) 한편 ‘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네오스>와는 달리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6) 따라서 <카이네>로 표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이 지배하던 옛 땅이나 하늘과는 달리 하나님과 어린양을 따르던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죄와 사망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곳이다.
- (7)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동거 동락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8) 뿐만 아니라 새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바다는 짐승과 죽은 자들의 거처로 사단의 세력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은 사라지고 선과 사랑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참조, 13:1;20:13).

3.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이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봄으로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첫째,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이는 이 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이 성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된다.
- (4) 둘째,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옛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5) 즉 옛 예루살렘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린 곳이다(참조, 11:8).
- (6)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옛날의 모든 죄악과 사망이 사라지고 극복된 곳으로 지상 교회가 미래에 맞을 영광을 예시해 주는 곳이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다.
- (7) 셋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이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리킨다(참조, 2,10절; 3:12).
- (8) 넷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다. 여기서 성을 신부처럼 단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부의 몸 단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과 헌신을 의미한다.
- (9) 이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성도들의 미래적 소망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갈4:25-31; 히11:10; 13:14).

4. ㉡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3,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사람들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헬, 스케네)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레26:11-13의 말씀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이스라엘은 배교 때문에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참조, 창3:16-19; 출25:8; 겔37:26,27).
- (3)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인류의 영원한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영원히 두실 성이기도 하다.
- (4)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7:7; 사25:8).
- (5) 이 눈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애통에서 그리고 고통과 울부짖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6)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 (7)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죄와 슬픔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서 복음과 의를 위해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다(참조, 사 25:8; 65:19; 마 5:4; 빌 3:10).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그날을 향해 복음 안에서 힘찬 전진을 해야만 하겠다(참조, 요 16:13; 딤후 1:7,8).

5. **㉠**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 (2) 또 본서에서는 이 말씀이 두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8). 계속해서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나온다(참조, 사 43:18,19).
- (3)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과 당신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한 말이다(참조, 고후 5:17).
- (4) 한편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나 과학의 발전, 교육 환경의 개선, 사회 복지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이 땅 위에 이 상황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로 증명되어 가고 있다.
- (5)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참조, 창 1:2; 시 104:30).
- (6)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후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므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 (7)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진실하며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다(참조, 렘 32:17,27; 벧후 3:4-13).

6. **㉠**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은 무엇인가? (6, 7절)

- ㉠** (1)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 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분에게는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1:8; 22:13).
- (3)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목마르게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생명수'는 '구원' 또는 '영생'을 의미한다(참조, 7:17; 22:1,17; 요 7:37-39; 롬 3:24).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실 것이며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참조, 시 36:8; 스 14:8; 요 4:10).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유업을 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 (6)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이며 구원의 정수를 나타낸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헐어지고 참된 부자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참조, 요 17:3).

(7)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가서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도 믿는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하겠다(롬8:21;갈4:6).

7. **㉠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8절)**

- ㉠** (1) 사도 요한은 6-8절을 통해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길은 구원과 영생의 길이며 다른 한 길은 사망과 영벌의 길이다.
- (2) 여기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인 반면에 둘째 사망, 즉 영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참조, 18:23;막4:40).
- (3) 이처럼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아닌 멸망의 도성 바벨론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본질에서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자들을 여덟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① 믿음이 없는 자들과 ② 우상 숭배자들로 나눌 수 있다.
- (4) 우리는 여기서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을 종류별로 도표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 류	특 징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보다는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더 사랑하는 이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야기되는 핍박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속해 있다(마 8:26;막 4:40)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한 자 또는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그들의 생활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마 7:21-24)
흉악한 자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몸도 마음도 물들게 내버려둔 자들로 그들은 악의 감염을 받아서 부패하고 마침내는 마음속 깊이까지 이 세상의 악이 파고 들어간 자들이다(롬 2:22)
살인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인 자들을 의미한다(행 7:54-59)
행음자	성적으로 방탕하며 부도덕한 생활을 한 자들이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세계는 성적으로 극히 부패한 세계였다. 이들은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고전 5:10)
술객들	마술, 점치기, 미신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치부한 자들로 요한 당시 세계, 특히 에베소에는 술객들로 가득 찼었다. 마술, 점성술, 주문 등은 고대 세계의 중요 직업 중 하나였다(행 19:19)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로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이다. 이 우상 숭배는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롬 1:23)
거짓말하는 자들	진실하지 못한 자들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악과 불의를 보고 침묵함으로 그 악과 불의에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악한 세력을 위해 거짓을 일부러 조장하기까지 하는 것이다(3:9)

(5)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 속하며 행음자들과 술객, 거짓말하는 자 등은 우상 숭배자들로 분류될 수 있다(참조, 9:21;18:23;마8:26;막4:40;롬2:22). 이처럼 영적인 죄 뿐 아니라 도덕적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인간과의 관계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8. ㉠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본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겔 40-48장이 배경이 된 것으로 에스겔이 높은 산으로 인도된 것처럼(겔40:2) 사도 요한도 천사의 인도를 받아 새 예루살렘을 구경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른다.
- (2) 이처럼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새 예루살렘을 구경시킨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으로 이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뚜렷이 대조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17:1).
- (3) 또 어린양의 아내인 신부는 큰 음녀(17:1-3)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음녀가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지지되는 전세계적인 악의 제도를 의미하는 반면 신부는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참조, 19:6-8).
- (4) 본서 17:3에서는 큰 음녀를 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광야로 인도되어 간 반면 지금 그는 영광된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 위로 올라간 것이다(참조, 1:10;4:2;17:3).
- (5)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장엄하고 찬란한 모습, 즉 높은 성곽, 훌륭한 문, 기초석을 보석으로 장식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장차 영광받게 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 (6)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과 유업을 받을 존재임을 늘 기억하여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겔16:1;호2:19;마22:2;25:1-13;눅14:15-24;고후11:2;엡5:25).

9.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은 어떠한가? (11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묘사하고 있다(참조, 4:3).
- (2)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 성을 '벽옥과 수정' 같이 맑다고 했는데 '벽옥'은 현대의 '금강석'을 가리키는 것이다.
- (3)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맑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인데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곳이 많다(참조, 사49:6;단2:22;요1:1-13;요일2:8).
- (4) 한편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의미하고 신부가 영원한 영광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구속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새 예루살렘의 빛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바로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 신지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활을 상징한 것이라(참조, 겔43:4) 할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이는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재적인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참조, 23절;사60:1,2,19;요8:12).
- (6)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에 들어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어둡고 칙칙한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무관한 자여야 한다(참조, 엡5:8;살전5:5;요일1:7).

10. ㉠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2-14절)

- ㉠ (1) 우선 성곽이 매우 높고 클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열 두 문에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 성이 매우 거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난공 불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사26:1;슌2:5).
- (2) 또 열 두 문은 성곽의 사방에 각각 셋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열 두 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를 가

리킨다고 할 수 있다(참조, 7:4).

- (3)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겔48:30-34의 종말론적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배경이 된 것으로 겔48:35에는 이 성에 대해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4)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인데 이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실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3절; 22:3).
- (5) 그리고 성곽의 열 두 기초석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열 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사도의 무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선택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참조, 눅9:12; 요20:24).
- (6)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곽 기초석에 각각 이스라엘 열 두 지파와 열 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의 주요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7) 첫째, 교회의 보편성인데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는 신·구약 시대를 총망라한 것으로 우주적인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 (8) 둘째, 교회의 계속성이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온전히 나타내고 계신다.
- (9)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계시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이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요14:7).
- (10)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종말에 가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케 할 것이다(참조, 3:21).

11.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척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5-17절)

- ㉠ (1) 본절에서는 천사가 금 갈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척량하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 겔43:10-17이 배경이 된 것이다.
- (2) 미래의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묘사와 척량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겔43:12).
- (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척량하는 행위는 바로 죄악이나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보존하며 동시에 축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 뿐만 아니라 본절에서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척량한다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5) 한편 이 성은 장, 광, 고가 모두 만 이천 스타디온(약 2,200km)으로 완전한 정입방체이다.
- (6)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입방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나 향단, 대제사장의 흉패가 다 정방형이며 특히 성전의 지성소는 장, 광, 고가 모두 같은 완전한 정입방체이다(참조, 출27:1; 28:16; 30:2; 왕상6:20; 겔41:21).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 통치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 (7)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정입방체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성 전체가 지성소이며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8) 이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 (9) 또 만 이천이라는 수자는 12×1,000으로 12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를 나타내며 1,000이라는 수자도 완전수로 무한히 크고 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참조, 22:2; 창49:28).
- (10)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으로 이 성은 매우 넓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참조, 민1:44;겔43:16).

(11)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의 치수가 사람의 척량인 동시에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의 척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 준다.

12. **㉠**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과 열 두 문을 꾸민 재료는 무엇인가? (18-21절)

㉠ (1)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그 기초석과 성문이 모두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석들을 종류별로 도표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 류	특 징
벽 옥	현대의 벽옥과는 다른 것으로 이것은 투명한 수정석인데 광채가 난다
남 보 석	하늘색의 유리석과 비슷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에 깔리는 보석이 남보석이라고 묘사되어 있다(출 24:10)
옥 수	녹색 규산염으로 칼케돈(Chalcedon) 근방의 광산에서 생산되며 공작 꼬리에 있는 초록빛 나는 털과 같은 색깔이다
녹 보 석	에머랄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녹색 보석 중에서 가장 진한 초록빛을 띠고 있다
홍 마 노	흰색이 적색과 자주색의 층으로 인해 간단히 끊긴 마노를 가리키며 이는 새 공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감 람 석	사대(Sardis)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피 색깔이며 조각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홍 보 석	히브리말로는 '녹쓰는 보석'이라고 불리며 황금빛 나는 것으로 이는 황색 녹주석이나 황색 벽옥을 가리킬 수도 있다
녹 옥	에머랄드와 비슷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은 해청색이나 녹색이다
담 황 옥	투명하며 녹황금색 보석으로 유대인들이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구약에서 읊은 구스의 황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비 취 옥	비취옥은 많이 알려진 보석으로 '녹옥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청 옥	자색이나 청색 계열의 붉은색 보석으로 사파이어일 가능성이 높다
자 정	자색 수정으로 청옥과 비슷하나 청옥보다 광택이 더 많이 난다

- (3)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의 기초석과 문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부와 사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 (4) 특히 여기서 벽옥으로 된 성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유리처럼 맑은 정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부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참조, 11절, 4:2).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석 같은 존재로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엡5:27; 히11:6-10; 약1:27).

13. **㉠**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라(18-21절).

- ㉠** (1)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과 성문과 성을 장식하고 있는 보석들은 구약이나 유대인의 전승 등이 배경이 된 것인데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2) 첫째,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보석들 중 여덟 개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가지의 보석들과 동일한 종류이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을 배경으로 하여 본절에 언급된 보석을 열거하였다고 할 수 있다(참조, 출28:17-20).
- (3) 둘째, 겔28:13에 나오는 두로 왕의 옷을 장식했던 보석들이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

에는 비록 아홉 가지 보석만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고대 왕들의 영광을 암시하는 것으로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4)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두로 왕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을 새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Gaebelein, Feinberg).
- (5)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대체사장의 흉패가 본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첫째 견해를 더 지지하고 있다(Swete, Ford).
- (6) 세째, 새 예루살렘을 장식한 보석들은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인 황도대에 있는 12궁의 전설이 배경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지파의 깃발에 12궁의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12궁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보석이 있다.
- (7) 그것을 살펴보면 ①백양궁(Ram)-자수정 ②금우궁(Bull)-청옥 ③쌍자궁(Twins)-비취옥 ④거해궁(Crab)-담황옥 ⑤사자궁(Lion)-녹옥 ⑥처녀궁(Virgin)-황옥 ⑦천칭궁(Balance)-홍보석 ⑧천갈궁(Scorpion)-홍마노 ⑨인마궁(Archer)-녹보석 ⑩마갈궁(Goat)-옥수 ⑪보병궁(Water-Carrier)-남보석 ⑫쌍어궁(Fishes)-벽옥이다.
- (8) 여기서 기록된 순서는 반대이지만 보석의 이름은 요한이 본절에서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 (9)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상 숭배자 및 이교들의 예배 의식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0)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장식한 보석들은 출28:17-20에 나오는 대체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봄이 적절하다(참조, 15:13; 요4:21).

14. **Q**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23절)

- A** (1) 첫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다. 즉 성전이란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별한 곳으로 하나님과 예수께서 항상 함께 계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
- (2) 더우기 본절에서는 능하신 하나님과 어린양이 곧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독교적 성전관은 온갖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바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참조, 막2:23-28; 눅6:1-5; 히9:23-28).
- (3) 둘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은 이 도시 전체가 완전한 정입방체로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성 전체가 성전이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항상 재건될 성전과 언약궤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성전의 회복을 곧 그들 나라의 회복과 동일시하였다.
- (5)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와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마침내 성취될 수 있다(참조, 11:19; 요4:21,23).
- (6) 한편 하나님의 도성에는 빛이 필요치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고 더 빛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사60:19,20; 속14:7).
- (7)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만 신령한 교제가 이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그러한 곳만이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라 할 수 있다. 즉 건물이나, 예배 의식, 교회의 운영, 목사의 임명 등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여부가 참된 교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참조, 딤후3:15).

15. **Q**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생활은 어떠한가? (24-26절)

- Ⓐ (1) 첫째,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만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구속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1:5;12:5;15:3;19:16).
- (2) 또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앞에서 거짓과 불의를 행한 자들은 서지 못하고 오직 사랑과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만이 영광받게 될 것이다(참조, 사 60:3).
- (3) 둘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경배하며 따르던 이 세상 권력을 가리켰으나 여기서는 짐승과 바벨론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참조, 11:2,18;18:3,23;19:15).
- (4)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께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돌리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게 될 구속받은 성도들의 참된 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사60:4-9).
- (5) 세째, 새 예루살렘은 성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성에는 하나님의 빛과 보호가 확실하므로 악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 (6) 또 '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부여될 참된 자유와 그 생활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사60:11).
- (7) 네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는 앞 귀절이 반복된 것으로 그 성에 거하게 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

16. ㉠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27절)

- Ⓐ (1) 사도 요한은 본질을 통해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2) 우선 그는 '속된 것'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스>는 '모독적인 것'이란 뜻을 가지며 이는 주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참조, 8절;22:15).
- (3) 또 '가증한 자들'도 이 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가증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배교자들을 가리킨 것으로 범죄와 온갖 타락의 본보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17:4; 단 9:27;12:11;마24:15).
- (4)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들은 악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악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자'로 묘사한 곳이 많다(참조, 27절;2:2;3:9;14:5).
- (5) 오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참조, 3:5).
- (6) 한편 이것은 종말 때 구원받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밖에서 배회하는 자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 (7) 오히려 이 권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미래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해 준다(참조, 7절).

제 22 장 생명수 강과 생명 나무

단락구분 1-5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 6-7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신실성과 긴박성 / 8-9 침된 경배의 대상 / 10-13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 14-15 침된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과 악한 자들에게 내림 징벌 / 16 본서의 신실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 17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영생 / 18-19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 20 곧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도들의 응답 / 21 마지막 축도

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니라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맑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 그 두루마기를 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 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전장이 이어 본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과 생활에 강조점을 두어 묘사한 후 본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21:9-22:5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는 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즉 21:9-17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외형이 언급되어 있고 21:18-21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장식한 각종 진귀한 보화들이 나오며 21:22-27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특권과 생활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장 1-5에서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 (4) 또 본장 6절 이하에는 계시록 전체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①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신실성에 대한 확증(6,7,16,18,19절)과 ②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7,12,20절) 및 ③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새 예루살렘에의 초대(11,12,15,17-19절)에 관한 내용이(6-21절) 다루어져 있다.
- (5) 이처럼 본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신실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성취하실 사건들을 나타내신 것인데 이 모든 예언들은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실현되어진다(참조, 1:1;10:6,7).

2. C 새 예루살렘을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 2절)

- A (1)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창 1-3장과 겔40장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에덴 동산의 비유를 통해 미래에 성취될 낙원의 모습을 간략하지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 (2) 특히 구약 성경에는 물과 빛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창2:8-16;시46:4;사12:3;겔47:1-7;을3:18;속14:7,8) 본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겔47:1-7과 본서7:17에 언급되어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 (3) 성경 가운데서 물은 흔히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성령의 나누어 주심과 정결케 하는 사역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참조, 사44:3;요3:5;4:13;7:37-39;19:34;딤후3:5).
- (4)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 생명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Swete, Walvoord)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참조, 요7:38,39).
- (5) 그러나 이 생명수의 강을 성령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넉넉한 생명, 그것을 받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영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다.
- (6) 또한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이기 때문이다(참조, 을3:18).
- (7)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시36:9;잠14:27).

3. C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A (1)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큰길을 따라 강 좌우의 모든 곳에 펼쳐 있다. 이 생명나무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훨씬 풍부한 미를 지닌 것이다(참조, 창3:22-24).
- (2)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는 창3:22-24과 겔47:12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인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서 달마다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로 그 잎사귀들은 약 재료가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생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한다(참조, 갈5:22,23).

- (4)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된 공동체, 즉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마11:29; 롬8:12,19-23; 갈2:19).
- (5) 더우기 이 생명나무가 지닌 소생시키는 효력은 죄 많은 이 땅에서 짓눌리며 생활했던 자들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인격에 그 영향을 미쳐서 구속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삶을 가능케 만든다.
- (6)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지속되었던 모든 죄의 결과들은 완전히 극복되어질 것이다.
- (7)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 주어졌던 인류를 향한 모든 저주들이 완전히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참조, 창3:17; 요3:16).

4. **㉠**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라(3-5절).

- ㉠** (1) 첫째,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저주는 제거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생활을 방해하고 꺾박하는 악한 영향도 없어질 것이다.
- (2) 따라서 죄악이나 우상 숭배 등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며 영원 복락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14:11; 롬8:37-39).
- (3) 둘째,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성도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 의식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1:6; 2:13; 롬12:1).
- (4)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떤 중간적인 매개가 (출33:20,23; 히9:7) 필요 없이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참조, 시17:15; 마5:8; 고전13:12; 고후3:18; 요일3:2).
- (5) 셋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가질 것이다. 이 표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주가 되어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6) 넷째, 새 예루살렘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할 우리 성도들은 어두워서 실족할 염려가 전혀 없으며 항상 빛과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참조, 21:23; 사9:2; 요8:12; 요일1:5).
- (7) 다섯째,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인데 이는 1:6에 있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참조, 5:10; 11:5; 20:4-6).
- (8) 그런데 본절에 나오는 '왕 노릇'은 세상의 왕들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참된 권위를 갖게 될 구속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참조, 마20:25-27). 적어도 그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달라서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더욱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참조, 마23:11).

5. **㉠** 본서의 결론 부분인 6-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6절부터 21절까지는 본서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여기에는 지금까지 진술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개괄과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이곳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확실하고 악한 자들은 최후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 동안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3) 또 이 결론 부분은 대부분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증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4) 즉 여기에는 ①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신실성 및 긴박성에 대한 강조(6,7,12절;1:1-3,7;3:14)와 ②이 예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10절;1:1-3) ③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점(13절;1:8)이 강조되어 있다.
- (5)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④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상급과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점(14,15,17절;1:3,7)과 ⑤본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조금도 가감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18,19절;1:2).
- (6)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사도 요한 당시 가혹한 핍박 가운데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힘을 얻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신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충성된 증으로 살아가야 하겠다(참조, 1:7;2:25;3:11;딤후2:19).

6. ㉠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6-11절)

- ㉠ (1) 천사는 본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다니엘에게 내렸던 명령과 대조를 이루며 또한 일반적으로 유대 묵시 문학의 인봉하라는 명령과도 대조가 된다(참조, 단8:16;12:4,9,10).
- (2) 이처럼 천사가 본서를 인봉하지 말라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네 가지로 분류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3)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기 때문이다. 7,12절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 (4) 이처럼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속히 성취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 (5) 둘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당신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과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참조, 요3:16;16:27).
- (6)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될 사건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그들이 당신의 저주를 면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본서를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참조, 1:3;엡2:4,5).
- (7) 셋째, 사도 요한 당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상 숭배 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 본서를 인봉하지 말라고 하였다(참조, 유1:20,21).
- (8) 그러기에 본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보상과 배교자 및 악한 자들에게 내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거듭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참조, 7-20절;1:3,7).
- (9) 넷째, 속히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신자들에게 미리 보여 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였다(참조, 히9:27).
- (10) 한편 어떤 학자들은 11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죄인은 더 이상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인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Swete).
-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본서가 인봉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리 계시된 것도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9:13; 눅15:7).

- (12)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늘 힘써야 하겠다(참조, 딤후전1:15; 딤후4:2-5).

7.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3, 16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는 본서에서 여러 번 반복 강조된 것이다(참조, 1:8,17;2:8;21:6).
- (2)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완전'과 '영원', '참된 권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하셔서 자신 안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된 권위를 갖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의 본체(substance)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빌2:5-11).
- (4)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 11:1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구약적 예언의 성취로서 만왕의 왕인 동시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참조, 5:5).
- (6) 세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실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요8:12).
- (7) 또 '새벽 별'은 모든 별 중 가장 밝으며 밤의 암흑을 몰아내는 낮의 선구자이다. 따라서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분이다(참조, 요1:4,9; 요일1:6,7).
- (8)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24:17에 언급된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이며 모든 인류의 대속주이시다. 더우기 그분은 밤에 거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별'이시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

8. **㉠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생명 나무로 나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4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두루마기를 띠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두루마기를 띠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큰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 것이다(참조, 1:3;7:14;14:13).
- (3) 한편 어떤 영어 역본(KJV)에서는 '두루마기를 띠는 자들' 대신에 '그의 제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헬라어 사본들간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4) 그러나 '두루마기를 띠는 자들'이란 표현이 성경 본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이 귀절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보여 주는 것이다.
- (5) 즉 인간에게 은혜와 구속을 주신 것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씻음으로 주의 희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희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 할 수 있다(참조, 16:15;

19:9;20:6).

- (7) 이처럼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마땅히 해나가야 할 책무를 간과해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올바른 삶을 통하여 그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3:20).

9. **㉠**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15절)

- ㉠** (1) 사도 요한은 본질을 통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밖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술객들과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본서21:8,27에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그곳에서 참조하면 된다.
- (3) 또 ‘개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자들로 신23:18에서는 ‘남창’을, 마15:26에서는 ‘이방인’을, 빌3:2,3에서는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 (4)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참조, 20:15;21:8,27).
- (5) 한편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모두 ‘성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밖에’는 성 이외의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그러므로 성밖에 있다는 것은 곧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귄 수 없음을 나타낸다(참조, 시101:7).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무와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

10. **㉠** 성령과 신부의 ‘오라’는 초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본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을 영접하라는 성령과 교회의 초청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귀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며 성령은 모든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시던 분으로 과거에도 현재도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시다(참조, 2:7;3:6,13).
- (3) 따라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한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는 존재들이며 또한 그들의 책무가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교회의 동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우기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이다.
- (4) 둘째, 듣는 자의 초청이다. 여기서 ‘듣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파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딤후4:2).
- (5)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여야 한다. 즉 초대받은 자는 이제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는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참조, 롬1:14;13:8).
- (6) 셋째,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들에 대한 초대이다. 이는 사55:1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요6:35).

- (7) 특히 이 초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21:6; 사55:1; 롬3:24).

11. **㉠** 본서에 예언된 말씀을 가감하면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되는가? (18, 19절)

- ㉠** (1) 사도 요한은 본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거나 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2) 이러한 경고는 본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이다.
- (3) 초기 해석자들은 요한의 이 경고가 본서의 본래 뜻을 변경시키려는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했다(Irenaeus).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하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성경 66권을 마음대로 해석,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러나 본서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나 그 신학적, 도덕적 가르침이 변경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이 따를 것이다(참조, 신4:2; 12:32; 고전16:22; 갈1:8,9).
- (5) 사도 요한 당시는 거짓 예언자들과 이단의 도전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본서의 내용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도 아울러 받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6) 이 같은 경고는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의 악한 세력들이 성경의 진리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 엄히 경고하며 그 진리를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12. **㉠**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본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 (2)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세번째 확증으로(7,12,20절) 17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이처럼 비록 주의 재림은 미래에 성취될 종말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 성취를 향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의 근거가 되어 왔다.
- (4) 또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본서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이다(고전 16:22).
- (5) 특히 본절의 말씀은 초대 교회 예배 의식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기도로서 성찬식이 끝날 때 사용되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기원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통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
- (6)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사도 요한 당시 초대 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28:20).
- (7)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자세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그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도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절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바람이 발견되는가? (참조, 고후4:16-18; 벧전1:3; 요일3:3)

신·구약 특별 자료 색인

Extra Article Index

연구 자료 색인	534
화보 자료 색인	545
지도 자료 색인	557

연구 자료 색인

〈창세기 연구 자료〉

모세 오경 서론	랍비 문학	1 권	19
창세기 서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꿈	1 권	22
제 4 장	죄의 기원	1 권	61
제 6 장	당대(當代)의 의인 노아	1 권	75
제 9 장	본장에 나타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1 권	97
제 16 장	성경적인 결혼관	1 권	145
제 18 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권	158
제 24 장	순종의 모본이 된 이삭	1 권	194
제 32 장	구약에 언급된 용사	1 권	258
제 32 장	이스라엘이라 칭함 받은 야곱	1 권	259
제 35 장	족장 시대 근친 결혼의 계통	1 권	279
제 36 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산	1 권	285
제 41 장	결혼의 목적과 기능	1 권	315
제 42 장	구약에 언급된 꿈과 해몽	1 권	321
제 45 장	히브리인들의 식생활(食生活)	1 권	337
제 46 장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	1 권	343
제 47 장	매매로 인한 노예	1 권	351

〈출애굽기 연구 자료〉

제 3 장	요셉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애굽 역사	1 권	394
제 10 장	열 가지 재앙의 의미	1 권	436
제 18 장	제사장 직제의 변천 과정	1 권	484
제 23 장	구약에 언급된 사형(死刑)	1 권	517
제 28 장	우림과 둠뭉	1 권	542
제 34 장	성경상에 나타난 수자의 상징적 의미	1 권	570
제 40 장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록들	1 권	597

〈레위기 연구 자료〉

제 2 장	제사(祭祀)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2 권	25
제 3 장	성경에 나타난 피(血)의 개념	2 권	29
제 11 장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2 권	75
제 16 장	히브리인들의 정결 의식(淨潔儀式)	2 권	102
제 18 장	원어(原語)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죄의 종류(구약)	2 권	112

제 19장	성(性)에 관한 여러 유형(類型)의 범죄	2 권	118
제 24장	계약에 언급된 손해 배상과 벌금형	2 권	140
제 25장	계약 시대의 시간 개념	2 권	146
〈민수기 연구 자료〉			
제 2 장	계약 시대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	2 권	177
제 3 장	본서의 주제에 대하여	2 권	183
제 12장	증보의 기도	2 권	234
제 14장	홍해	2 권	245
제 15장	정착자가 된 나그네들	2 권	251
제 17장	문학 비평과 계약 성경	2 권	262
제 26장	제비뽑기(lot)	2 권	307
제 29장	서원(誓願)의 종류에 대하여	2 권	319
제 36장	히브리 여자들의 상속권	2 권	349
제 36장	십일조에 대하여	2 권	356
〈신명기 연구 자료〉			
신명기 서론	오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2 권	358
제 18장	절기	2 권	478
제 20장	약혼의 의의	2 권	489
제 22장	결혼 지참금	2 권	501
제 27장	저주의 실재성	2 권	530
제 34장	신명기적 언약과 역사관	2 권	573
〈여호수아 연구 자료〉			
제 13장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언약과의 관계	3 권	93
제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3 권	106
제 22장	증거(證據)	3 권	147
〈사사기 연구 자료〉			
사사기 서론	사사	3 권	167
제 1 장	블레셋에 대하여	3 권	173
제 16장	나실인(nazirite)	3 권	256
제 17장	새긴 우상(graven image)	3 권	260
〈룻기 연구 자료〉			
제 4 장	수혼(嫂婚) 제도에 대하여	3 권	310
〈사무엘상 연구 자료〉			
사무엘상 서론	본서의 연대표	3 권	320
제 8 장	이스라엘과 왕(王)	3 권	362
제 16장	여호와와 신과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惡神)	3 권	412
제 22장	다윗에 대한 사울의 꾀박	3 권	441

〈사무엘하 연구 자료〉

사무엘하 서론 본서와 역대상 간의 기록상 차이점에 관하여	3 권	490
제 4 장 므비보셋과 이스보셋의 관계	3 권	513
제 11 장 다윗의 범죄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	3 권	548
제 20 장 성경적 국가관	3 권	596

〈열왕기상 연구 자료〉

열왕기상 서론 본서의 연대표	4 권	14
제 7 장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기본 단위인 규빗	4 권	48
제 14 장 부어 만든 우상(molten image)	4 권	89
제 22 장 성경의 전쟁관	4 권	132

〈열왕기하 연구 자료〉

열왕기하 서론 앗수르(Assyria)와 바벨론(Babylonia)	4 권	139
제 6 장 아람(Aram)	4 권	171
제 19 장 산헤립(Sennacherib)	4 권	239
제 25 장 성(城)	4 권	268

〈역대상 연구 자료〉

역대상 서론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와 역대기	4 권	278
제 8 장 바알(Baal)과 관련된 이름들	4 권	318
제 12 장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4 권	336
제 15 장 다윗 성(City of David)	4 권	347
제 25 장 여호와 찬양에 사용된 악기들	4 권	387
제 28 장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의 차이점	4 권	403

〈역대하 연구 자료〉

제 1 장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	4 권	420
제 19 장 선견자(先見者)와 선지자(先知者)	4 권	515
제 35 장 갈그미스(Carchemish)	4 권	600
제 36 장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幽囚) 및 귀환의 역사	4 권	606

〈에스라 연구 자료〉

에스라 서론 본서의 연대표	5 권	13
제 5 장 예배 처소의 변천	5 권	43
제 6 장 제 2차 성전 건축 과정	5 권	51
제 7 장 소금	5 권	58
제 9 장 구약에 나타난 신앙 회복 운동	5 권	71
제 10 장 페르시아(Persia)	5 권	79

〈느헤미야 연구 자료〉

느헤미야 서론 유대의 애국자 느헤미야	5 권	86
제 1 장 하나님의 자비	5 권	93

제 2 장	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	5 권	99
제 4 장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	5 권	112
제 5 장	세금에 대하여	5 권	118
제 8 장	감람나무 (olive tree)	5 권	136
제 10 장	정경 (正經)의 역사	5 권	148
제 13 장	안식일과 주일	5 권	170

〈에스더 연구 자료〉

에스더 서론	본서의 연대표	5 권	178
제 1 장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와스디	5 권	184
제 3 장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들	5 권	194
제 4 장	기독교인과 애국심	5 권	201
제 9 장	페르시아의 수도(首都) 수사	5 권	226

〈시가서 연구 자료〉

시가서 서론	시가서(詩歌書)와 신약 성경	5 권	236
--------	-----------------	-----	-----

〈욥기 연구 자료〉

욥기 서론	본서의 특징	5 권	242
제 1 장	축복의 방편으로서의 고난	5 권	250
제 2 장	사단(Satan)의 정체와 그 활동	5 권	258
제 4 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5 권	276
제 7 장	하나님의 보존 섭리(保存攝理)	5 권	295
제 11 장	바람직한 신앙 상담	5 권	319
제 16 장	악인의 운명	5 권	348
제 26 장	라합(Rahab)과 용(dragon)	5 권	396
제 30 장	하나님의 현현(顯現, theophany)	5 권	415
제 33 장	평범한 의인 욥의 고난	5 권	432
제 36 장	자연 계시	5 권	451
제 42 장	성경과 부(富)	5 권	479

〈시편 연구 자료〉

시편 서론	주제에 따른 본서의 분류	6 권	24
제 2 편	기쁨 부음의 의미	6 권	33
제 9 편	성경적 분류에 의한 찬송의 종류	6 권	63
제 13 편	성경에 나타난 잠(睡眠)의 의미	6 권	76
제 15 편	장막에 대하여	6 권	83
제 19 편	원죄(原罪)와 고범죄(故犯罪)	6 권	101
제 25 편	구약의 토지법	6 권	123
제 38 편	재난에 대처하는 다윗과 욥의 태도 비교	6 권	184
제 49 편	편찬 시기에 따른 시편의 분류	6 권	232

제 58 편	성경에 나타나는 이[齒].....	6 권	266
제 61 편	장수(長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6 권	278
제 63 편	그리스도인과 찬양.....	6 권	286
제 65 편	언약적 축복으로서의 아침과 저녁.....	6 권	294
제 67 편	예배용 음악의 내용.....	6 권	302
제 87 편	구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6 권	401
제 107 편	물(水)에 대한 성경적 이해.....	6 권	500
제 113 편	찬송의 대상에 대하여.....	6 권	520
제 128 편	구약에 나타난 복(福)의 의미.....	6 권	583
제 138 편	시편과 그리스도.....	6 권	617
제 144 편	번개와 뇌성.....	6 권	644
제 145 편	본서에 나타난 저주와 복수.....	6 권	651

〈잠언 연구 자료〉

잠언 서론	히브리인들의 지혜 문학(知慧文學).....	7 권	17
제 1 장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	7 권	28
제 2 장	잠언의 교훈적 특성.....	7 권	36
제 4 장	히브리인들의 무게 단위.....	7 권	52
제 5 장	기독교 교육의 성격.....	7 권	58
제 6 장	기독교인과 보증(保證).....	7 권	68
제 8 장	의(righteousness)에 대하여.....	7 권	80
제 9 장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관계된 음부(陰府)의 제 개념 (諸概念).....	7 권	87
제 11 장	구제의 성경적 의미.....	7 권	99
제 12 장	잠언에 나타난 미련한 자의 실상(實狀).....	7 권	105
제 16 장	성도의 언어 생활.....	7 권	130
제 17 장	어리석은 자와 교만.....	7 권	137
제 19 장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	7 권	150
제 20 장	가난한 자와 가난(poverty)에 대한 성경적 고찰.....	7 권	159
제 22 장	지혜로운 자와 겸손.....	7 권	173
제 24 장	지혜(知慧)에 대하여.....	7 권	186
제 25 장	잠언에 나타난 특이한 표현들.....	7 권	194
제 26 장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	7 권	200
제 28 장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7 권	214
제 29 장	창부(娼婦)에 대하여.....	7 권	221
제 31 장	구약에 나타난 여성과 그 위치.....	7 권	235

〈전도서 연구 자료〉

전도서 서론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관.....	7 권	247
--------	-------------------	-----	-----

제 1 장	성경에 나타난 생명관(生命觀)	7 권	254
제 2 장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7 권	264
제 3 장	노예에 대한 성경적 입장	7 권	272
제 4 장	하나님과 하느님의 명칭에 대한 논의	7 권	279
제 5 장	하나님의 고유 명칭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7 권	286
제 6 장	낙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	7 권	291
제 7 장	섭리(攝理)에 대하여	7 권	301
제 8 장	한글 개역 성경에 사용된 각종 부호들	7 권	309
제 9 장	우리말 관주 성경(貫珠聖經)과 관주	7 권	317
제 10 장	우리말 성경 본문에 첨가된 작은 글자들	7 권	325
제 12 장	외경(外經)에 대하여	7 권	337

〈아가 연구 자료〉

아가 서론	성경의 문학적 특성	7 권	349
제 1 장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7 권	357
제 2 장	아가에 나타난 자연관(自然觀)	7 권	365
제 4 장	성경의 문학적 장르(genre)	7 권	376
제 5 장	올바른 성 윤리(性倫理)	7 권	384
제 6 장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디르사(Tirzah)	7 권	392
제 8 장	성경에 나타난 불(火)	7 권	404
제 8 장	히브리인들의 혼인 형태 및 풍습	7 권	405

〈이사야 연구 자료〉

이사야 서론	이사야의 특징적인 주제들	8 권	29
제 1 장	시온(Zion)	8 권	37
제 7 장	기혼 샘(the Spring of Gihon)	8 권	81
제 8 장	임마누엘 원리(Immanuel Principle)	8 권	88
제 11 장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8 권	112
제 18 장	구스(Cush)	8 권	157
제 19 장	애굽의 여러 신(神)	8 권	168
제 22 장	열쇠(Key)의 상징적 의미	8 권	192
제 25 장	영적 사망에 대하여	8 권	211
제 27 장	리위야단(Leviathan)	8 권	224
제 28 장	히브리어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포도주의 종류	8 권	231
제 32 장	그리스도인과 오락	8 권	262
제 34 장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 Anthropomorphism)	8 권	274
제 37 장	니스록(Nisroch)	8 권	294
제 41 장	오른손과 오른편의 성경적 의미	8 권	326
제 46 장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와 그 상징적 의미	8 권	369

제 47 장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국명(國名)의 의미	8 권	376
제 50 장	이사야의 신학 사상과 신약적 평가	8 권	401
제 53 장	여호와의 종	8 권	421
제 65 장	샤론 평야(the Plain of Sharon)	8 권	496
〈예레미야 연구 자료〉			
예레미야 서론	본서의 연대표	9 권	16
제 3 장	자산(楮山)과 푸른 나무	9 권	36
제 7 장	힌놈의 골짜기(Valley of Hinnom)	9 권	65
제 11 장	아나돗(Anathoth)	9 권	86
제 18 장	토기장이와 녹로(轆轤)	9 권	125
제 21 장	염병(染病)	9 권	138
제 35 장	유다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9 권	226
제 42 장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 예레미야의 활동	9 권	259
제 45 장	바룩(Baruch)	9 권	270
제 49 장	말감(Malkam)	9 권	293
〈예레미야 애가 연구 자료〉			
예레미야 애가 서론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성과 주제	9 권	320
제 5 장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	9 권	348
〈에스겔 연구 자료〉			
에스겔 서론	본서의 연대표	9 권	358
제 2 장	에스겔이 이해한 하나님	9 권	370
제 8 장	신약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인용 귀절들	9 권	414
제 13 장	환상(幻像)	9 권	439
제 17 장	그룹(Cherubim)	9 권	460
제 22 장	에스겔서에 대한 제(諸) 비평과 그 정경성(正經性)	9 권	490
제 28 장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져야 할 책임	9 권	522
제 39 장	유대교에 끼친 에스겔의 영향	9 권	584
제 47 장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의미와 그 정체	9 권	618
〈다니엘 연구 자료〉			
다니엘 서론	열국(列國)과 관계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상(異像)	10 권	15
제 10 장	미가엘(Michael)과 가브리엘(Gabriel)	10 권	102
제 12 장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	10 권	118
〈호세아 연구 자료〉			
제 6 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仁愛)	10 권	155
제 13 장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10 권	202
제 14 장	말[馬]과 관계된 성경적 교훈과 상징	10 권	208

〈요엘 연구 자료〉

요엘 서론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선민 사상(選民思想) 10권 213

제 2 장 원어상(原語上)으로 분류한 메뚜기의 종류 10권 225

〈아모스 연구 자료〉

아모스 서론 선지자들의 출신별 분류 10권 235

제 5 장 묘성(昴星)과 삼성(參星) 10권 267

〈오바다 연구 자료〉

제 1 장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난 에돔(Edom) 10권 302

〈요나 연구 자료〉

요나 서론 본서의 연대표 10권 307

제 2 장 니느웨(Nineveh) 10권 318

〈미가 연구 자료〉

제 6 장 공의(公義)를 부르짖은 선지자 미가 10권 364

〈나훔 연구 자료〉

나훔 서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술 10권 378

〈하박국 연구 자료〉

하박국 서론 선지자 하박국은 누구인가? 10권 401

제 2 장 하박국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 10권 411

〈스바냐 연구 자료〉

스바냐 서론 스바냐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10권 422

〈학개 연구 자료〉

학개 서론 본서의 연대표 10권 448

〈스가라 연구 자료〉

스가라 서론 스가라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의 비교 10권 467

제 2 장 성경이 금하는 주술 행위 10권 479

제 3 장 구약에 언급된 사단 10권 484

제 5 장 두루마리 10권 493

제 7 장 구약에 언급된 과부, 고아, 나그네 10권 502

제 9 장 구약의 남은 자 사상 10권 514

제 12 장 지진 10권 529

제 14 장 선지서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 10권 542

〈말라기 연구 자료〉

말라기 서론 말라기의 중심 사상 10권 548

〈외경과 위경 연구 자료〉

3. 위경의 종류와 구약 연대표 10권 623

〈마태복음 연구 자료〉

4 복음서 서론 사복음서 대조표 11권 15

4 복음서 서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11권	21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11권	34
제 5 장	산상 수훈(山上垂訓)에 대한 이해	11권	91
제 7 장	지옥(地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11권	113
제 9 장	귀신들림	11권	140
제 10 장	사도직(使徒職)에 대하여	11권	155
제 10 장	열 두 사도의 행적	11권	156
제 18 장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칭호	11권	239
제 21 장	예수의 비유	11권	269
제 27 장	로마의 유대 총독(總督)	11권	355
<마가복음 연구 자료>			
마가복음 서론	마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11권	377
제 2 장	금식(禁食)에 대한 예수의 교훈	11권	399
제 6 장	아그라파(Agrapha)	11권	442
제 9 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11권	480
제 12 장	참된 헌금	11권	519
제 16 장	부활하신 예수의 발자취	11권	566
<누가복음 연구 자료>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12권	18
제 4 장	가난한 자와 복음(福音)	12권	61
제 6 장	인자(人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12권	80
제 9 장	귀신(鬼神)의 정체	12권	123
제 11 장	올바른 기도	12권	146
제 14 장	예수와 관련된 이적(異蹟)의 의미	12권	178
제 21 장	맛사다(Masada) 항전(抗戰)	12권	254
제 23 장	십자가형(十字架刑)과 십자가의 종류	12권	276
<요한복음 연구 자료>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12권	300
제 5 장	하나님 아들로써의 예수 그리스도	12권	349
제 7 장	예수의 형제들	12권	372
제 11 장	산헤드린(Sanhedrin)	12권	419
제 14 장	인간 구원에 있어서 보혜사(保惠師)의 사역	12권	458
<사도행전 연구 자료>			
사도행전 서론	기독교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13권	19
제 1 장	그리스도의 승천(昇天) 사건이 지니는 의미	13권	33
제 4 장	교회의 기능	13권	70
제 19 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종 신(神)	13권	232

제 24 장	로마의 항소(抗訴) 제도	13권	280
제 28 장	로마의 군대 조직	13권	313
〈로마서 연구 자료〉			
로마서 서론	바울의 사도성(使徒性)	13권	334
제 1 장	계시(啓示)란 무엇인가?	13권	348
제 3 장	죄의 보편성(普遍性)	13권	368
제 8 장	구원의 순서	13권	424
제 9 장	하나님의 통치	13권	439
제 10 장	바울의 기독교론	13권	449
제 11 장	이스라엘의 구원	13권	463
제 12 장	성령의 은사(恩賜)	13권	474
제 14 장	음식물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	13권	495
〈고린도전서 연구 자료〉			
제 4 장	교회의 치리권(治理權)	14권	53
제 5 장	인간의 구성 요소	14권	60
제 8 장	하나님의 유일성(unity)	14권	83
제 9 장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	14권	92
제 12 장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14권	123
〈고린도후서 연구 자료〉			
제 1 장	만인 구원론(萬人救援論)	14권	182
제 2 장	영지주의(Gnosticism)	14권	189
제 12 장	낙원(樂園)	14권	268
〈갈라디아서 연구 자료〉			
갈라디아서 서론	기독교와 유대교	14권	283
제 4 장	성경에 사용된 아람어(Aramaic)	14권	318
제 6 장	중생(重生)의 의미	14권	334
〈에베소서 연구 자료〉			
제 3 장	하나님의 예정(豫定)	14권	362
제 4 장	초대 교회의 사역자들	14권	370
〈빌립보서 연구 자료〉			
제 3 장	에피쿠레온파(Epicureans)	14권	422
〈골로새서 연구 자료〉			
제 3 장	스토아파(Stoics)	14권	458
〈데살로니가전서 연구 자료〉			
제 4 장	휴거(携擧)	14권	497
〈데살로니가후서 연구 자료〉			
데살로니가후서 서론	적그리스도(Antichrist)	14권	513

〈디모데전서 연구 자료〉

제 3 장 원어로 살펴본 집사의 제 기능	14권	571
제 6 장 교회의 특성	14권	603

〈디모데후서 연구 자료〉

디모데후서 서론 성경의 영감(靈感)	14권	612
제 1 장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 비판	14권	620

〈디도서 연구 자료〉

디도서 서론 금욕주의(禁慾主義)	14권	654
-------------------------	-----	-----

〈빌레몬서 연구 자료〉

제 1 장 신약 시대의 편지 양식	14권	688
--------------------------	-----	-----

〈히브리서 연구 자료〉

제 1 장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독교론과 종말론	15권	24
제 5 장 신약 시대의 편지 양식	15권	55
제 9 장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15권	86
제 12 장 천사(天使)	15권	119

〈야고보서 연구 자료〉

야고보서 서론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	15권	142
---	-----	-----

〈베드로전서 연구 자료〉

베드로전서 서론 예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	15권	181
제 3 장 연옥(煉獄)	15권	201
제 4 장 기독교의 물질관	15권	208

〈베드로후서 연구 자료〉

베드로후서 서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教皇)과 베드로.....	15권	217
--------------------------------------	-----	-----

〈요한일서 연구 자료〉

제 3 장 사형 제도의 존폐(存廢) 문제에 대하여	15권	266
-----------------------------------	-----	-----

〈요한이서 연구 자료〉

요한이서 서론 가현설(Docetism)	15권	281
-----------------------------	-----	-----

〈요한계시록 연구 자료〉

요한계시록 서론 도해(圖解)로 푼 천년 왕국설	15권	325
제 5 장 복음송(Gospel Song)	15권	381
제 7 장 여호와의 증인	15권	402
제 13 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15권	454
제 19 장 계시 문학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	15권	505

화보 자료 색인

〈창세기 화보 자료〉

제 1 장	마부자리의 성운(星雲)	1 권	31
제 2 장	화산 폭발	1 권	41
제 3 장	유혹받는 아담과 이브	1 권	51
제 5 장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모습	1 권	67
제 8 장	점토판	1 권	89
제 14 장	포로로 잡혀가는 롯	1 권	131
제 18 장	손님을 접대하는 유목민	1 권	157
제 28 장	꿈꾸는 야곱	1 권	225
제 30 장	합환채(mandrake)	1 권	240
제 31 장	종주권 언약(宗主權言約)이 새겨진 점토판	1 권	249
제 33 장	설형 문자로 기록된 매매 증서(賣買證書)	1 권	265
제 43 장	몰약(myrrh tree)	1 권	327
제 44 장	점치는 도구	1 권	332

〈출애굽기 화보 자료〉

제 5 장	강제 노동을 하는 히브리인들	1 권	404
제 7 장	나일 강	1 권	416
제 9 장	나귀와 약대	1 권	428
제 11 장	귀금속 장식품	1 권	441
제 12 장	대곡녀(代哭女)	1 권	449
제 16 장	광야(曠野)	1 권	473
제 19 장	시내 산	1 권	490
제 20 장	돌로 쌓은 단(壇)	1 권	498
제 30 장	분천(噴泉)	1 권	552
제 33 장	단장품(丹粧品)	1 권	565
제 35 장	보석	1 권	575
제 36 장	덧개를 짓힌 성막	1 권	579
제 37 장	성소의 기구들	1 권	583
제 38 장	네 모퉁이에 빨이 달린 단	1 권	588

〈레위기 화보 자료〉

제 5 장	비둘기	2 권	41
제 8 장	제물(祭物)로 바쳐진 소와 양	2 권	58

제 14 장	문둥병	2 권	91
제 15 장	생식(生殖)의 여신 아스다롯(Ashtaroth)	2 권	95
제 17 장	번제(燔祭)를 드리는 히브리인들	2 권	106
제 22 장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	2 권	130
제 23 장	초막(草幕)	2 권	136
제 27 장	첫 태(胎)에 처음 난 자	2 권	158
<민수기 화보 자료>			
제 4 장	금반(金盤)	2 권	189
제 5 장	거룩한 물을 담는 그릇	2 권	195
제 8 장	면도칼	2 권	213
제 16 장	향로(香爐)	2 권	258
제 19 장	붉은 암송아지	2 권	272
제 20 장	브리마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	2 권	277
제 22 장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를 보관했던 항아리	2 권	288
제 25 장	쇠창의 창 끝	2 권	301
제 28 장	수송아지	2 권	315
제 32 장	히브리어로 십계명이 기록된 사해 사본	2 권	332
제 34 장	경계표	2 권	340
<신명기 화보 자료>			
제 4 장	바알 신상(神像)과 아세라 신상	2 권	389
제 6 장	미간(眉間)에 성구함을 맨 유대인	2 권	402
제 11 장	율법 상자를 팔에 맨 유대인	2 권	434
제 12 장	가나안 우상 승배의 중심지인 산당(山堂)	2 권	441
제 16 장	유월절 식사	2 권	465
제 17 장	화강암에 새겨진 함무라비 왕과 설형 문자	2 권	472
제 23 장	사막의 진(陣)	2 권	508
제 26 장	검은 옷을 입은 과부(寡婦)	2 권	524
제 29 장	물기는 여인들	2 권	544
제 32 장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 두루마리	2 권	562
<여호수아 화보 자료>			
제 1 장	요단 강	3 권	25
제 2 장	기생 라합과 도망치는 두 정탐군	3 권	31
제 3 장	언약궤	3 권	36
제 4 장	돌기둥	3 권	41
제 5 장	할례 관습	3 권	47
제 6 장	양각(羊角) 나팔을 부는 제사장	3 권	53
제 7 장	처형당하는 아간	3 권	59

제 12 장	죽임당하는 가나안 왕들	3 권	87
〈사사기 화보 자료〉			
제 2 장	아스다롯 여신상	3 권	179
제 5 장	가나안인의 철병거	3 권	196
제 8 장	가시나무	3 권	214
〈룻기 화보 자료〉			
제 2 장	곡식 베는 도구	3 권	300
〈사무엘상 화보 자료〉			
제 1 장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	3 권	327
제 2 장	엘리 제사장의 악한 두 아들	3 권	334
제 10 장	사울 왕	3 권	376
제 14 장	고대의 전쟁 모습	3 권	398
제 15 장	아각을 죽이는 사무엘	3 권	406
제 17 장	청동으로 만든 창	3 권	419
제 26 장	물병	3 권	461
제 30 장	왕정 시대의 전쟁 모습	3 권	478
제 31 장	에셀나무 (tamarisk tree)	3 권	482
〈사무엘하 화보 자료〉			
제 1 장	금으로 만든 팔찌	3 권	496
제 3 장	헤브론	3 권	509
제 6 장	법궤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3 권	526
제 13 장	통곡하는 여인들	3 권	560
제 15 장	말〔馬〕과 병거	3 권	573
제 22 장	망대와 파수군	3 권	605
제 23 장	돋는 해	3 권	610
〈열왕기상 화보 자료〉			
제 2 장	여호와를 찬양하는 솔로몬 왕	4 권	27
제 3 장	솔로몬의 재판	4 권	31
제 6 장	기둥을 싸는 금박(金箔)	4 권	43
제 9 장	게셀(Gezer)	4 권	62
제 20 장	금으로 만든 귀걸이	4 권	121
〈열왕기하 화보 자료〉			
제 1 장	아하시야 왕의 군대를 태우는 불	4 권	144
제 2 장	불수레를 탄 엘리야	4 권	150
제 4 장	기름을 담은 항아리	4 권	161
제 5 장	몸을 씻는 문둥병자	4 권	166
제 11 장	요아스의 즉위	4 권	194

제 13 장	사마리아의 폐허	4 권	204
제 15 장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의 원정	4 권	216
제 17 장	우주의 별들	4 권	227
제 18 장	뱀의 상(像)	4 권	233
제 21 장	주술사(呪術師)	4 권	249
제 22 장	성전의 수리	4 권	253
제 25 장	예루살렘 성의 붕괴	4 권	267
〈역대상 화보 자료〉			
제 1 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4 권	286
제 4 장	목자와 양 떼	4 권	301
제 14 장	기름 부음 받는 다윗	4 권	342
제 23 장	저울을 다는 애굽인	4 권	379
제 24 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4 권	383
제 29 장	패물(佩物)	4 권	410
〈역대하 화보 자료〉			
제 2 장	진설병을 놓는 상(床)	4 권	425
제 4 장	솔로몬의 돛바다	4 권	433
제 5 장	나팔을 부는 제사장	4 권	439
제 7 장	메뚜기	4 권	453
제 14 장	주상(柱像)	4 권	488
제 15 장	파피루스(papyrus)에 기록된 성경	4 권	493
제 16 장	군대	4 권	498
제 17 장	활 쏘는 군인들	4 권	504
제 23 장	아달라의 죽음	4 권	537
제 30 장	무교병을 만드는 사람	4 권	572
제 31 장	밀 이삭	4 권	577
제 36 장	강제 이주	4 권	605
〈에스라 화보 자료〉			
제 1 장	금으로 만든 잔[杯]	5 권	19
제 2 장	여러가지 악기로 여호와의 찬양하는 모습	5 권	25
제 3 장	하늘 위의 예루살렘	5 권	31
제 9 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5 권	70
〈느헤미야 화보 자료〉			
제 1 장	유대인의 명부(名簿)	5 권	92
제 2 장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	5 권	98
제 3 장	예루살렘 성벽	5 권	107
제 12 장	수금(豎琴)	5 권	162

〈에스더 화보 자료〉

제 4 장	금홀(金笏)을 내미는 아하수에로(Xerxes) 왕	5 권	200
제 6 장	모르드개의 행진	5 권	210
제 8 장	반지	5 권	219
제 10 장	에스더의 양피지 두루마리	5 권	228

〈읍기 화보 자료〉

제 2 장	시험당하는 읍	5 권	257
제 12 장	여호와와 손	5 권	325
제 15 장	노인	5 권	342
제 18 장	읍의 세 친구들	5 권	358
제 19 장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읍	5 권	364
제 21 장	춤추는 여자	5 권	376
제 23 장	제철소의 씻물	5 권	387
제 27 장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5 권	401
제 35 장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왕과 사사(士師)들	5 권	443
제 41 장	악어	5 권	472

〈시편 화보 자료〉

제 6 편	쇠퇴한 눈매를 지닌 노파	6 권	50
제 8 편	천사들의 합창	6 권	57
제 14 편	어리석은 자	6 권	80
제 18 편	불의의 창수(漲水)	6 권	97
제 21 편	활시위를 당기시는 하나님	6 권	108
제 24 편	머리를 든 문	6 권	119
제 26 편	하나님의 전(殿)	6 권	127
제 28 편	다윗의 탑	6 권	136
제 31 편	악인의 그물	6 권	153
제 33 편	말을 탄 아랍인	6 권	161
제 44 편	하나님의 오른손	6 권	210
제 48 편	하나님의 성(城)	6 권	227
제 50 편	가나안인들이 사용하던 수소의 탈	6 권	238
제 52 편	푸르름을 자랑하는 감람나무	6 권	246
제 57 편	사자(獅子)	6 권	262
제 60 편	요단 강 서편의 세겜(Shechem)	6 권	275
제 66 편	홍해의 이적	6 권	299
제 75 편	머리에 뿔이 달린 모세 상(像)	6 권	346
제 78 편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	6 권	364
제 86 편	기도하는 자	6 권	397

제 88 편	고레스(Cyrus) 왕의 무덤	6 권	406
제 93 편	여호와와의 통치	6 권	432
제 66 편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6 권	446
제 96 편	그룹 사이에 좌정(座定)하신 하나님	6 권	458
제 103 편	들의 꽃	6 권	473
제 104 편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6 권	478
제 118 편	집 모퉁이의 머릿돌	6 권	539
제 119 편	알파벳 시편	6 권	560
제 126 편	귀환하는 이스라엘	6 권	577
제 127 편	성을 지키는 여호와와의 군대	6 권	580
제 131 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	6 권	591
제 132 편	법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	6 권	596
제 133 편	노인의 영광인 수염	6 권	598
제 139 편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6 권	623
제 140 편	고분(古墳) 벽에 그려진 뱀의 형상	6 권	628
제 143 편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6 권	640
제 150 편	소고(小鼓) 치는 사람	6 권	671

〈잠언 화보 자료〉

제 1 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7 권	27
제 3 장	정금 장식	7 권	45
제 6 장	창가의 매춘부	7 권	67
제 15 장	입의 열매	7 권	123
제 19 장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7 권	149
제 20 장	주머니 속의 추돌	7 권	158
제 21 장	유대교의 결혼식 장면	7 권	166
제 22 장	가난한 자	7 권	172
제 30 장	사자(獅子)	7 권	228
제 31 장	아메네오펫(Ameneopet)의 지혜서	7 권	234

〈전도서 화보 자료〉

전도서 서론	18세기 성경의 전도서 속표지	7 권	246
제 1 장	말을 몰며 밭을 가는 농부	7 권	253
제 2 장	공주	7 권	263
제 3 장	곰	7 권	271
제 4 장	대화를 나누는 두 친구	7 권	278
제 5 장	순례자의 평화로운 잠	7 권	285
제 7 장	금화(金貨)	7 권	300
제 9 장	무덤	7 권	316

제 10 장	흰머리 독수리	7 권	324
제 11 장	식물(食物)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7 권	330
제 12 장	음악하는 여자들	7 권	336
<아가 화보 자료>			
아가 서론	아가의 여러 상징들	7 권	348
제 1 장	목걸이를 한 여인	7 권	356
제 2 장	작은 여우	7 권	364
제 3 장	신랑과 신부	7 권	369
제 4 장	방패가 달린 망대	7 권	375
제 5 장	문틈으로 손을 넣은 사람	7 권	383
제 6 장	신부(新婦)	7 권	391
제 7 장	포도밭의 망대	7 권	397
제 8 장	원통형 인장의 날인(捺印)	7 권	403
<이사야 화보 자료>			
제 5 장	폐허가 된 성(城)에서 풀을 뜯는 송아지	8 권	65
제 6 장	스랍(Seraphim)과 선지자 이사야	8 권	72
제 9 장	다윗의 위(位)에 앉으신 그리스도	8 권	95
제 24 장	지각 운동 때문에 특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위	8 권	206
제 29 장	선지자	8 권	238
제 30 장	조약의 내용이 적힌 석판(石板)	8 권	249
제 38 장	아하스의 일영표	8 권	303
제 39 장	예물을 가지고 온 바벨론 사람들	8 권	307
제 44 장	우상을 새기는 아프리카의 소년	8 권	353
제 48 장	물[水]	8 권	385
제 57 장	길[道]	8 권	441
제 59 장	귀[耳]	8 권	452
제 64 장	약탈당하는 성전	8 권	486
제 66 장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8 권	503
<예레미야 화보 자료>			
제 2 장	목욕하는 여인상	9 권	30
제 5 장	새를 잡는 사냥군들	9 권	51
제 10 장	양(羊) 치는 목자	9 권	81
제 12 장	먹이를 찾아 날아온 독수리	9 권	91
제 16 장	고기를 낚는 어부	9 권	112
제 17 장	물가에 심기운 나무	9 권	119
제 20 장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새겨진 점토판	9 권	134
제 22 장	인장 반지(印章斑指)	9 권	146

제 25장	술 마시다 싸움하는 사람들.....	9 권	166
제 28장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하나나(Hananiah).....	9 권	182
제 31장	현재의 예루살렘 전경(前景).....	9 권	203
제 36장	선지자와 서기관.....	9 권	234
제 39장	샘물을 마시고 있는 노새.....	9 권	247
제 41장	구덩이.....	9 권	255
제 44장	부적(符籙).....	9 권	268
제 48장	포도주 틀.....	9 권	285
제 51장	파멸당하는 바벨론.....	9 권	310
〈예레미야 애가 화보 자료〉			
제 2 장	뿔 달린 수소 탈.....	9 권	331
제 3 장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9 권	338
제 4 장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개.....	9 권	343
〈에스겔 화보 자료〉			
제 3 장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있는 에스겔.....	9 권	380
제 5 장	수염을 깎고 있는 에스겔.....	9 권	393
제 7 장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	9 권	407
제 12장	붓짐을 멘 노인.....	9 권	434
제 15장	싹을 피우고 있는 포도나무.....	9 권	445
제 16장	빵과 기름병.....	9 권	455
제 19장	마른 나무 등치.....	9 권	470
제 21장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	9 권	484
제 33장	악기를 켜며 노래부르는 가수.....	9 권	552
제 35장	세일 산(the Mount of Seir).....	9 권	562
〈다니엘 화보 자료〉			
제 1 장	왕의 진미(珍味)를 거절하는 소년들.....	10권	23
제 2 장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神像).....	10권	34
제 3 장	풀무 불속의 세 청년.....	10권	43
제 6 장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10권	68
제 9 장	천사 가브리엘(Gabriel).....	10권	95
〈호세아 화보 자료〉			
제 2 장	부부상(夫婦像).....	10권	135
제 3 장	값 주고 고멜을 다시 사는 호세아.....	10권	138
제 8 장	무너진 송아지 제단.....	10권	169
제 12장	천사와 겨루는 야곱.....	10권	196
제 14장	백합화(lily).....	10권	207
〈요엘 화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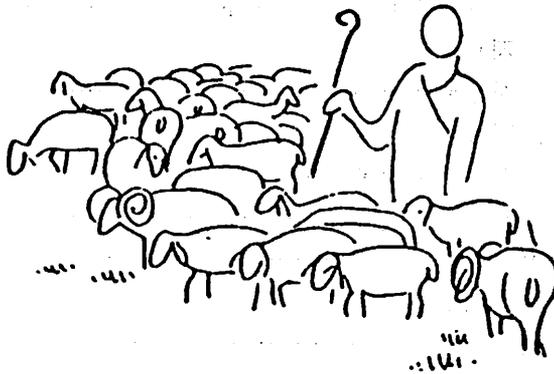
제 1 장	양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	10권	218
〈아모스 화보 자료〉			
제 1 장	선지자 아모스	10권	241
제 6 장	하맛(Hamath)의 풍경	10권	272
제 8 장	눈물을 담은 용기(容器)	10권	283
제 9 장	나일 강의 수위(水位)를 재던 계측기(計測器)	10권	290
〈오바다 화보 자료〉			
제 1 장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	10권	301
〈요나 화보 자료〉			
제 1 장	요나를 삼키려는 물고기	10권	314
제 4 장	박 넝쿨 아래 앉아 있는 요나	10권	326
〈미가 화보 자료〉			
제 3 장	들무더기	10권	347
제 4 장	낮을 든 촌로(村老)	10권	352
제 7 장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0권	372
〈나훔 화보 자료〉			
제 3 장	우물에서 물을 길는 사람들	10권	396
〈하박국 화보 자료〉			
제 1 장	쿰란에서 발견된 「하박국 주해서」	10권	406
제 3 장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광선(光線)	10권	416
〈스바나 화보 자료〉			
제 2 장	고슴도치 모양의 도기(陶器)	10권	435
제 3 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10권	442
〈학개 화보 자료〉			
제 1 장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	10권	455
〈스가라 화보 자료〉			
제 1 장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라	10권	474
제 6 장	정교하게 양각(陽刻)된 말과 병거	10권	498
제 13 장	요단 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 나아만	10권	534
제 14 장	사람의 뼈	10권	541
〈말라기 화보 자료〉			
제 1 장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10권	555
제 3 장	하나님과 그의 사자(使者)	10권	567
〈신구약 중간사 화보 자료〉			
2.	페르시아 통치 시대 엘레판틴 파피루스(Elephantin Papyri)	10권	576
5.	로마 통치 시대 헤롯 성전의 모형	10권	599
〈외경과 위경 화보 자료〉			

3. 위경의 종류와 내용 쿨란(Qurman) 동굴	10권	622
〈마태복음 화보 자료〉		
제 4 장 그물과 배	11권	77
제 14 장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11권	202
제 19 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11권	249
제 23 장 회칠(灰漆)한 무덤	11권	291
〈마가복음 화보 자료〉		
마가복음 서론 마가복음 사본	11권	379
제 4 장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11권	419
제 11 장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시는 그리스도	11권	504
제 15 장 가시 면류관	11권	557
〈누가복음 화보 자료〉		
제 2 장 예수 탄생 기념 처소	12권	42
제 8 장 옥토(沃土)와 박토(薄土)	12권	105
제 10 장 그리스도를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	12권	133
제 13 장 예루살렘을 인하여 애통하시는 그리스도	12권	169
제 15 권 회개하는 탕자	12권	189
제 17 장 공홀히 여김을 바라는 열 문둥병자	12권	210
제 20 장 로마 시대의 동전	12권	246
〈요한복음 화보 자료〉		
제 8 장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예수.....	12권	384
제 9 장 실로암 못(the pool of Siloam)	12권	395
제 16 장 유리 창에 그려진 비둘기	12권	481
제 20 장 예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확인하는 도마.....	12권	533
〈사도행전 화보 자료〉		
제 5 장 삼비라의 죽음	13권	82
제 7 장 순교당하는 스테반과 목격자 사울.....	13권	112
제 11 장 환상을 본 베드로	13권	150
제 26 장 예수를 만난 바울.....	13권	296
〈로마서 화보 자료〉		
제 11 장 천사의 보살핌을 받은 엘리야.....	13권	462
제 16 장 마메르티눔 감옥의 라틴어 명판(銘板)	13권	519
〈고린도전서 화보 자료〉		
고린도전서 서론 고린도 교회의 유적	14권	20
제 3 장 아폴로 신전	14권	44
제 10 장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세.....	14권	101
제 15 장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4권	153

제 16 장 로마 시대의 필기 도구	14권	162
〈고린도후서 화보 자료〉		
제 4 장 신앙의 순교자들	14권	205
제 9 장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여인.....	14권	242
제 11 장 다메섹(Damascus)의 옛 성벽	14권	259
〈갈라디아서 화보 자료〉		
제 2 장 수리아 안디옥의 풍경	14권	298
〈에베소서 화보 자료〉		
제 5 장 아데미(Artemis) 신전의 복원도	14권	378
〈빌립보서 화보 자료〉		
제 1 장 빌립보의 유적	14권	402
〈골로새서 화보 자료〉		
제 2 장 십자가 모양의 세례 집전소.....	14권	451
〈데살로니가전서 화보 자료〉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데살로니가의 옛 교회당	14권	473
제 3 장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14권	491
〈데살로니가후서 화보 자료〉		
제 1 장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전경(前景)	14권	521
〈디모데전서 화보 자료〉		
제 1 장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 훈련.....	14권	554
제 2 장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	14권	561
〈디모데후서 화보 자료〉		
제 2 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Colosseum)	14권	629
〈빌레몬서 화보 자료〉		
빌레몬서 서론 사랑과 관용의 정신	14권	681
〈히브리서 화보 자료〉		
히브리서 서론 히브리서 사본	15권	17
제 4 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5권	49
제 11 장 노아의 방주	15권	108
〈베드로전서 화보 자료〉		
제 2 장 순교당하는 베드로	15권	194
〈요한일서 화보 자료〉		
제 1 장 사도 요한	15권	252
〈요한이서 화보 자료〉		
제 1 장 성 요한 교회의 터	15권	286
〈요한삼서 화보 자료〉		
제 1 장 아버지와 아들	15권	294

〈요한계시록 화보 자료〉

제 6 장	죽음의 사자(使者)	15권	391
제 9 장	말과 사람의 형상을 띤 황충	15권	417
제 10 장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	15권	422
제 14 장	주 안에서 죽은 자들	15권	463
제 20 장	사로잡히는 용	15권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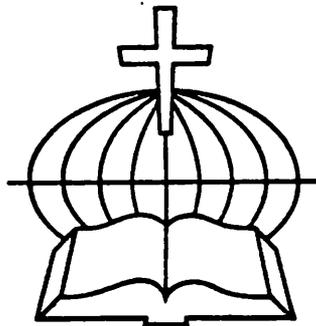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23:1).

지도 자료 색인

창세기 제 13 장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1 권	124
창세기 제 15 장	아브라함의 여정	1 권	137
창세기 제 37 장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노정(路程)	1 권	293
신명기 제 1 장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2 권	366
신명기 제 3 장	성문	2 권	379
여호수아 서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3 권	20
여호수아 제 9 장	기브온과 인근의 성읍들	3 권	70
여호수아 제 24 장	도피성	3 권	158
사사기 제 12 장	사사들이 통치했던 중심지로 알려진 9개의 성읍과 12사사들이 살던 지역	3 권	235
사무엘상 제 7 장	기랏여아림(Kiriath-Jearim)	3 권	358
사무엘하 제 8 장	다윗의 하닷에셀(Hadadezer) 정벌	3 권	535
열왕기상 제 19 장	엘리아의 도피 여정	4 권	115
열왕기하 제 14 장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	4 권	210
역대상 제 3 장	다윗의 왕도(王都) 헤브론	4 권	296
역대하 제 9 장	솔로몬의 무역	4 권	464
느헤미야 제 13 장	팔레스티노로의 귀환	5 권	172
이사야 제 3 장	선지자들의 행적	8 권	51
이사야 제 14 장	바벨론 제국의 북쪽 경계	8 권	132
이사야 제 23 장	두로의 위치	8 권	199
이사야 제 31 장	B. C. 7세기경 앗수르 제국의 영토	8 권	255
이사야 제 37 장	앗수르의 애굽 정복	8 권	295
이사야 제 61 장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8 권	466
예레미야 제 19 장	하시드 문(Harsith Gate)	9 권	129
예레미야 제 29 장	유대인들의 바벨론 이주 경로	9 권	189
예레미야 제 37 장	바벨론의 유다 침공 경로	9 권	239
예레미야 제 43 장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	9 권	262
예레미야 제 50 장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9 권	301
에스겔 제 6 장	리블라의 위치	9 권	399
에스겔 제 31 장	에스겔이 예언하였던 나라들	9 권	538
에스겔 제 48 장	하나님께 드릴 거룩히 구별된 땅	9 권	623
다니엘 제 7 장	다니엘이 이상(異像) 중에 본 네 나라	10 권	77

호세아 서론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지계(地界)	10권	123
아모스 제 2 장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10권	247
미가 서론	선지자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Moresheth)	10권	332
나훔 제 2 장	앗수르의 수도 니스웨(Nineveh)	10권	389
스바냐 제 3 장	스바냐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10권	441
신구약 중간사	1. 중간사 개관 예수 그리스도 탄생 1세기 전 로마 제국의 판도	10권	573
신구약 중간사	6. 팔레스틴의 문화 콤란(Qumran)의 공동체	10권	606
의경과 위경	1. 의경과 위경 콤란의 위치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여러 동굴들	10권	612
마태복음 제 2 장	예수의 애굽 피신 및 나사렛 귀향 노정(歸鄉路程)	11권	58
마태복음 제 26 장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11권	339
요한복음 제 4 장	예수의 공생애(公生涯) 초기 행적	12권	340
사도행전 서론	바울의 전도 여행로	13권	20
고린도후서 서론	고린도의 위치	14권	173
골로새서 서론	골로새의 위치	14권	436
요한계시록 제 1 장	밧모(Patmos) 섬의 위치	15권	338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신약 연대표

로마 제국

팔레스틴 통치자들

주요 사건

B.C.37-B.C.4

헤롯 대왕, 유대의 왕

B. C. 27-
A. D. 14

가 이 사
아 구 스 도

유 대
(유대와 사마리아)

갈 릴 리
베 레 아

갈릴리 동편

B.C. 4-A.D. 6
헤롯 아렐라오

B.C.4-A.D.39
헤롯 안티파스

B.C.4-A.D.33
헤롯 빌립

B. C. 4 (?)
그리스도 탄생

B. C. 2 (?)
바울 출생

A.D. 27(?)
그리스도의 세례

30 (?)
십자가 처형

37 (?)
바울의 회심

14-37

디 베 료
가 이 사

26-36
총 독
본디오 빌라도

37-41
갈 리 굴 라

41-54
글라우디오

54-68
네 로

68-69 갈바
오도, 비텔리오

69-79
베스파시안

79-81
디 도

81-96
도 미 시 안

39-44
헤롯 아그립바 1세, 전(全)유대의 왕

52-58
총독 벨릭스

58-61 (?)
총독 베스도

50-53
헤롯 아그립바 2세

45-58 (?)
바울의
전도 여행

61-63 (?)
바울의 로마투옥

70
디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

90-100
도미시안, 기독교
대 박 해
요한의 죽음과
사도시대 종료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15 히브리서-요한계시록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